# 동네생활권 개념 도입 및 정책적 활용방안 연구

Policy Proposal for Introduction and Utilization of Neighborhood Based on the Daily Life

장민영 Jang, Minyoung 성은영 Seong, Eunyoung 정인아 Jung, Ina 변은주 Byun, Eunjoo

auf

#### 기본연구보고서 2022-16

#### 동네생활권 개념 도입 및 정책적 활용방안 연구

Policy Proposal for Introduction and Utilization of Neighborhood Based on the Daily Life

지은이 장민영, 성은영, 정인아, 변은주

펴낸곳 건축공간연구원

출판등록 제2015-41호 (등록일 '08. 02. 18.)

인쇄 2022년 12월 26일, 발행: 2022년 12월 31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701호

전화 044-417-9600 팩스 044-417-9608

http://www.auri.re.kr

가격: 25,000원, ISBN: 979-11-5659-229-0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건축공간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연구진

 '연구책임
 장민영 부연구위원

<sup>1</sup> 연구진 성은영 연구위원

정인아 부연구위원 변은주 연구원

<sup>1</sup> 외부연구진 김현중 ㈜비랩 소장

이상현 대구광역시 도시디자인과 주무관

설문조사 지원 : ㈜엠브레인퍼블릭

└ 연구보조원 소성일 독일 TU 도르트문트대학 박사과정

<sup>1</sup>연구심의위원 유광흠 선임연구위원

이상민 공간문화본부 본부장 손동필 지속가능공간본부 본부장 이왕건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주진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자문위원 구자훈 한양대학교 교수

김성일 대구광역시 도시계획과 주무관

박상필 부산연구원 연구위원 양재섭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엄선용 일본 츠쿠바대학 조교수 윤병훈 토지주택연구원 책임연구원 윤서연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진승희 동작구청 도시계획과 주무관

한영숙 싸이트플래닝 대표 홍성조 충북대학교 부교수

연구요약

## 제1장 서론

코로나19 이후 뉴노멀시대는 디지털 서비스의 일상화를 촉진하며 삶의 방식과 기준 등 사회 전반에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재택근무나 온라인 교육의 확산으로 원거리 이동이 줄어들고 동네 안에서 일상생활을 즐기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집 주변 근거리 생활반경 내에서 먹거리, 즐길거리, 놀거리, 일거리 등을 누릴 수 있는 동네 인프라나 생활밀착형 서비스로의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동네 중심의 플랫폼 서비스 확대, 동네상권 강세 등 주거지역 경제생태계와 커뮤니티 구축 양상도 달라지게 하고 있다.

이렇게 집과 동네 중심으로 일상생활이 재편되면서 동네·근린 단위 도시계획이 주목받고 있다. 파리의 '15분 도시'나 멜버른의 '20분 도시' 등의 해외 정책사례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보행일상권'이나 부산시의 '15분 도시'와 같이 국내에서도 생활권 계획 수립과 n분도시 실현을 위한 사업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는 인구·가구구조의 변화, 다양한라이프 스타일의 등장, 디지털 전환 등에 따른 공간 기능과 생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근린 단위의 공간관리로 전환해가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이나 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도시재생이나 지역 활성화 관련 정책들은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권역과 일상생활 특성에 대응하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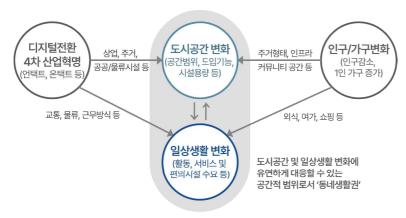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디지털 전환, 4차 산업혁명 등 사회경제적 변화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가변적인 계획여건을 반영하기 위한 공간적 범위로서 '동네생활권'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도입 및 활용하기 위한 정책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i

## 제2장 동네생활권 개념 및 도입 필요성

2장에서는 국내외 문헌검토를 통해 동네·근린에 대한 주요 논의와 정책동향을 살펴보고 동네생활권 도입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도시공간의 변화와 생활권 이론 및 정책, 동네 단위 지역 활성화 관련 정책을 살펴본 결과, 급변하는 도시공간과 주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동네 단위 전략의 필요성과 지역기반 수요자 맞춤형 공간관리 방안으로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통적인 도시계획체계에서는 다변화되는 도시공간에 대응하기에 절차나 구조적인 한계가 있어 복잡성이확대되고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현 시점에 적용할 수 있는 유연한 공간관리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집 주변 근린환경에서의 신속한 대응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동네 단위의 공간적 범위에서의 전략 마련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게다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밀착형·상향식 도시계획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생활권계획이 도입될 예정이어서 근린 단위 정책과 계획으로의 관심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림]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도시공간과 일상생활의 변화 관계 출처 : 연구진 작성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네생활권을 '주거를 중심으로 일상생활활동이 이루어지는 동네· 근린 단위 도시공간'으로 정의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서비스 수요를 충 족할 수 있고 지역 문화와 정체성의 형성 및 공유, 지역의 각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범 위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동네생활권을 구분하는 요소인 일상생활활동을 장보 기, 외식, 근린서비스 이용, 공공·의료 서비스 이용, 통학, 여가·문화·체육, 친교·사교로 구분하였고, 이와 관련된 세부시설을 도출하였다.

## 제3장 국외 동네생활권 계획 및 정책 사례 분석

3장에서는 국외사례를 분석하여 동네생활권의 범위와 특성, 설정방식 및 정책적 활용방 안으로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도시계획 수립 시 동네생활권 적용 사례로는 미국의 멤피스와 포틀랜드의 종합계획, 동네생활권 단위 정책사례로는 캐나다 오타와시의 15분 네이버후드, 중국 상하이시의 15분 생활권. 영국 런던의 기회지역(OA)을 검토하였다.

국외사례에서는 동네생활권을 대부분 집으로부터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보행권으로 보고, 도보 소요시간이나 거리로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고 있었다. 이때 기존 도시계획체 계에서 활용하는 지리적·행정적 단위의 통계데이터와 함께 도시공간의 기능과 주민의 행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동네생활권의 범위와 경계를 탐색하고 있었다. 이처 럼 생활권 단위 분석과 전략 설정방식이 점차 고도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 멤피스나 포틀랜드 사례에서는 동네생활권 내 주민들의 생활중심지를 거점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동네거점은 근린 활성화를 위한 전략 마련 대상지로 접근할수 있으며, 주거권역 내 근린 단위 허브로서 근린생활시설과 서비스기능시설 등 생활편 익시설 도입을 우선 고려하거나 주민 커뮤니티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거점, 소비활동이 이루어지는 소매·서비스시설이 집중된 거점 등으로 차별화될 수 있다.

동네생활권은 주민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함께 하기 위해 모이는 장소이자 지역별 특색 있는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범위로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검토한 모든 사례에서 주민참여 와 소통을 바탕으로 생활권을 설정하거나 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었다. 캐나다 오타와시에서는 동네생활권 단위로 필요한 서비스와 편의시설에 대하여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시설 범위를 구체화하였고, 중국 상하이시에서도 동네생활권 내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과정에서 주민참여와 소통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었다. 이처럼 동네생활권은 상향식 도시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미시적 공간단위 계획에 활용될 뿐 아니라 정책의 대상이 되는 주민을 구체화하는 공간적 범위로서 주민참여 기회 확대로 이어지고 있었다.

또한 국외사례에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와 도시문제에 대응하고 지역특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공간적 범위로서 동네생활권을 활용하는 동시에 도시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동네생활권 단위의 계획과 개발방향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있었다. 이는 동네 생활권 도입 시 우리나라 도시계획체계 상의 생활권구분과 관련계획과의 연계방안을 검토하여 동네생활권 단위 공간관리방안이 기존 도시계획 및 지역 발전 방향과 정합성을 갖추는 동시에 동네생활권의 실행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 제4장 동네생활권 설정을 위한 시범적 탐색 및 분석

4장에서는 2, 3장에서 검토·정립한 동네생활권 개념과 설정기준에 대해 실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적 탐색과 분석을 실시하고, 동네생활권의 특성과 동네생활권 설정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대상지는 디지털 전환 등 사회경제적 여건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는 인구 밀집지역이자 코로나19의 집단 감염·확산 경험이 있어 동네생활에 대한 주민인식조사 수행이 적합한 대구광역시로 선정하였다. 또한 동일 행정구역 안에서 로 다른 특성을 갖는 복수의 동네생활권을 비교 탐색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주거지형성단계와 용도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북구를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동네생활권 탐색과정은 근린환경 특성(기능), 주민활동 특성(행태), 커뮤니티 특성(인지)으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살펴보았고, 이를 종합하여 동네생활권 영역과 동네거점을 도출하였다. 각종 공공데이터 및 행정자료를 포함하여 주민활동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유동인구 데이터, 주민들의 일상생활활동 목적별 방문시설과 동네중심지 및 동네범위 인식 특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주거지 유형, 인구가구구성, 상권특성이 상이한 세 개의 근린지역(침산 2·3동, 산격3동, 관음동)을 대상으로 일상생활활동 목적별 기능의 중심·분포와 주민통행의 중심·분포를 교차 확인하였고, 그 결과 도출된 동네생활권의 영역과 거점, 경계 등의 형성 특성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3개 동네의 주민들은 최대 1km 내에서 일상생활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10분 내지 15분 생활권 대비 매우 좁은 범위의 동네생활권 영역을 보여주었으며, 동네에 있는 시설 밀집도와 접근성이 주민들의 활동 빈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네거점으로 도출된 지점들은 대체로 소비나 공공서비스를 충족하기 위한 생활시설이 밀집한 곳으로, 활동목적에 따라 복수의 거점을 형성하고 있었고 주거지 특성에 따라 거점 형태가 물리적·공간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또한 지형지물이나 생활가로가 동네생활의 유의미한 경계로 작용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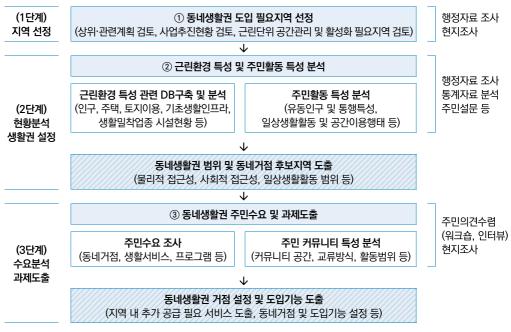
시범적 탐색 결과, 동네생활권은 지역특성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띠기 때문에 표준화된 규모와 거점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들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범위를 찾는 방법과 과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근린환경 특성 분석만으로는 실질적인 동네생활권 규명에 한계가 있어 주민활동특성과 인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탐색절차가 필요하고, 동네생활권을 도입하려는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설정기준, 설정절차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제5장 동네생활권 도입 및 정책적 활용방안

5장에서는 동네생활권 도입이 필요한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탐색항목과 설정절차를 제시하고, 도시계획체계 및 도시재생사업 등과 관련한 정책적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동네 활성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동네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공간관리방안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적 범위인 '동네생활권'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동네생활권의 도입은 공간관리 범위를 한정하고 대상 주민을 특정함으로써 지역문제의 구체적인 해결방안 마련과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기대할 수 있으며, 지역밀착형 도시공간 정책, 근린 활성화를 위한 실행계획, 주민참여형 계획 및 사업의 공간적 범위로 활용할 수 있다.

동네생활권은 거주민의 특성을 바탕으로 설정되는 권역이자 지역 활력 창출을 위한 동네 활동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어 기성시가지 주거권역을 대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동네·근린 단위의 공간관리가 필요한 지역에서 동네생활권을 선별적·전략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지역·근린환경 특성, ●주민활동 특성, ●커뮤니티 특성의 탐색항목과 설정절차를 제시하였다. 동네생활권은 지역특성과 현안을 반영한 지역맞춤형 공간적 범위로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주민수요조사와 의견수렴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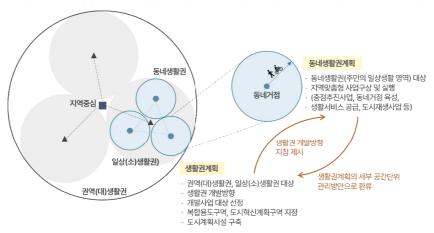


[그림] 동네생활권 설정절차(안)

출처 : 연구진 작성

동네생활권의 활용방안은 계획적 측면, 사업적 측면, 주민참여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첫째, 생활권계획의 세부 공간단위로 활용하는 방안으로서, 동네생활권 중심의 지역밀 착형 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 생활권계획 및 도시·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수립 시 관련 내용이 환류·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생활권계획은 도시·군기본계 획의 부문별 계획으로서 지침적 성격의 계획이자 장기계획의 특성을 갖기 때문에 시의 성 있는 대응과 실행력을 갖추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생활권계획의 실행계획이자 이 를 구성하는 세부 공간단위의 관리방안으로서 동네생활권계획 수립을 검토할 수 있다.



[그림] 생활권계획과 동네생활권계획의 관계

출처 : 연구진 작성

둘째, 근린 활성화를 위한 사업구역으로서 동네생활권 및 동네거점을 활용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근린재생형 활성화지역은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목적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주민의 일상생활 특성을 기반으로 한 동네생활권을 활용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설정하고, 지역에 필요한 생활서비스 도입을 위한 단위사업을 전략적으로 구상, 동네생활권의 주민 커뮤니티 범위를 바탕으로 각종 프로그램 사업 운영 및 주민참여형 사업추진체계 구축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셋째, 주민들의 일상생활활동 중심지이자 생활권 내 주민들의 접근성이 우수한 장소인 '동네거점'에 생활서비스 공급 및 전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동네플랫폼'을 조성할 수 있다. 변화되는 생활양식과 공간수요에 맞추어 동네 안에서의 다양한 주민활동을 증진 시킬 수 있는 복합적 기능을 도입한 공간으로 검토할 수 있으며, 주거지 특성과 주민 커뮤니티 특성을 고려하여 거점 도입기능은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 특히 동네생활권의 의존도가 높은 아동이나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해당 주민계층의 수요와 특징을

고려하여 입지 및 서비스 전달방식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동네생활권을 주민참여형 계획 수립과 사업추진을 위한 공간 단위로 활용할 수 있다. 공급자 위주의 계획 및 정책수립에서 지역주민과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수요자 중심의 추진체계가 중요해지면서 주민참여방안에 대한 논의도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동네 단위에서 공통된 지역문제를 인식하고 동일 수준의 생활서비스를 받는 주민들로 구성된 참여체계를 바탕으로 동네 활성화를 위한 실천과제를 발굴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제6장 결론

본 연구는 지역특성과 주민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중심의 계획수립과 사업추진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로서 '동네생활권' 개념의 도입방향과 활용방안을 제안하고 자 하였다. 동네·근린 단위의 공간관리가 필요한 지역에서 생활서비스 공급이나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을 위한 공간관리전략을 마련하고 근린 활성화를 위한 실행계획 수립 시 본 연구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는 중규모 이상 도시, 인구가 밀집한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적 탐색 및 분석을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동네 생활권 탐색항목과 설정절차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동네생활권은 도시규모나 지역여건 에 따라 다양하게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별 활용할 수 있는 동네생활권 설정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동네생활권의 중심지인 동네거점 역시 일상생활활동 목적에 따라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주거지 특성과 주민 커뮤니티 특성에 따라 동네 거점을 전략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어 이와 관련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동네생활권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근린 단위 공공데이터 구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세밀한 공간단위 데이터 제공을 통해 공공정책 추진 및 계획의 품질 향상, 증거기 반의 의사결정, 각종 이슈에 대한 전략적 대응 등 정책결정에 데이터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 주제어

동네생활권, 생활권, 동네, 근린, 지역밀착, 하이퍼로컬

# 차례 contents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del></del> 5
2. 연구범위 및 방법	<del></del> 6
1) 연구범위	
2) 연구방법	
3) 연구 추진절차	— 9
3. 선행연구 검토	<del></del> 10
1) 선행연구 현황	<del></del> 10
2) 본 연구의 차별성	—— 11
제2장 동네생활권 개념 및 도입 필요성 ————————	—— 15
1. 동네생활권 관련 논의 및 정책동향 ———————	<del></del> 15
1) 도시공간의 변화와 동네생활권 개념 논의 —————	
2) 생활권 관련 이론 및 정책동향 ————————	21
3) 동네 단위 지역 활성화 관련 정책 추진현황 —————	_
4) 동네생활권 도입 필요성 ———————	<del> 35</del>
2. 동네생활권 개념 및 일상생활활동 구분 ——————	<del> 37</del>
1) 동네생활권 개념 및 특징 ——————	
2) 동네생활권 내 일상생활활동 ———————————————————————————————————	<del> 3</del> 9
제3장 국외 동네생활권 계획 및 정책 사례분석	<del> 5</del> 1
1. 분석개요	
1) 분석목적	
2) 사례선정 및 분석내용	
2. 동네생활권 계획 수립 및 정책 추진 사례	
1) 장소유형에 따른 특성화 : 미국 멤피스 종합계획	<del> 53</del>
2) 지역특화 도시설계 전략 제시 : 미국 포틀랜드 2035 종합계획 디자인 지침 ㅡ	
3) 동네생활권 도시환경 평가 분석 : 캐나다 오타와시 15분 네이버후드 ———	
4) 도시공간관리 세분화 : 중국 상하이시 15분 생활권	<del></del> 69

# 차례 contents

5) 전략적 개발·투자지역 설정 : 영국 런던 기회지역 ——————	<del></del>
3. 소결	80
제4장 동네생활권 설정을 위한 시범적 탐색 및 분석	83
1. 분석개요	83
1) 분석목적 및 방법 ————	
2) 분석대상지	87
2.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권 탐색	<del></del> 89
1) 탐색 개요	
2) 생활권 탐색 및 도출	
3. 근린지역별 동네생활권 탐색 ———————	94
1) 탐색 개요	
2) 침산2·3동 동네생활권 탐색 ———————————————————————————————————	
3) 산격3동 동네생활권 탐색 ———————	
4) 관음동 동네생활권 탐색 ——————	
4. 소결	
1) 동네생활권 형성 특성 ———————	
2) 동네생활권 설정의 이슈	142
제5장 동네생활권 도입 및 정책적 활용방안 ——————	143
1. 동네생활권 도입방향 ————	143
1) 동네생활권 도입목적 및 활용범위 —————	
2) 동네생활권 기본원칙 및 도입방향 —————	
3) 동네생활권 탐색항목 및 설정절차 —————	
2. 동네생활권 활용방안	
1) 생활권계획의 세부 공간단위로 동네생활권 활용 ——————	150
2) 근린 활성화를 위한 사업구역으로서 동네생활권 및 동네거점 활용 ——	
3) 생활서비스 공급 및 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동네거점 활용 —————	157
4) 주민참여형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을 위한 공간단위로 활용 ————	158

# 차례 contents

제6장 결론	161
1. 연구성과	161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추진과제 —————	164
참고문헌	167
SUMMARY	175
부록 : 동네생활 특성 및 주민수요 조사결과	181

# エネー LIST OF TABLES

[표 1-1] 선행연구 검토	12
[표 2-1] 국내외 하이퍼로컬 서비스 플랫폼의 주요 사례 —————	19
[표 2-2] 생활권 관련 도시계획의 이론적 흐름 —————	21
[표 2-3] 도시계획 관련 법령상의 생활권 개념 연혁 ————	24
[표 2-4] 서울시의 지역생활권별 추진 사업 —————	26
[표 2-5] 지자체 생활권 계획 및 시범사업 개요——————	29
[표 2-6]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생활권 단위 계획 —————	31
[표 2-7] 기초생활인프라 시설의 구분	32
[표 2-8] 생활권 단위 생활편의 및 복지 제공을 위한 생활SOC 확충 사업—————	33
[표 2-9] 생활권 기반 공동체 활성화 관련 사업 —————	34
[표 2-10] 세력권-이용권-동네생활권 관련 개념 비교	37
[표 2-11] 일상생활활동 유형 및 세부시설 도출과정 ————	39
[표 2-12] 기초생활인프라 시설 유형	<del></del>
[표 2-13] 일상생활 10대 기본요구 및 부산형 10대 동네생활기능표준	41
[표 2-14] 중국 광저우 9+X 생활권의 지역특성별 차별화된 공공시설(X) 유형	42
[표 2-15] 일상생활활동의 유형 구분 종합—————	43
[표 2-16] 얀겔의 옥외활동 구분	44
[표 2-17] 통계청 생활시간조사의 행동 및 생활시간 분류	<del></del>
[표 2-18] 근린지역 내 보행활동의 목적별 방문시설————	46
[표 2-19] 생활밀접업종 분류	<del></del>
[표 2-20] 온오프라인 연계(O2O)서비스 분야	48
[표 2-21] 동네생활권 설정기준으로서 일상생활활동 및 관련 시설—————	50
[표 3-1] 분석대상 사례별 특징 ————	52
[표 3-2] 멤피스의 6가지 장소유형	54
[표 3-3] 앵커와 주변 네이버후드의 범위 —————	55
[표 3-4] 도시앵커(Citywide Anchor)의 구분 및 입지 전략 ————	56
[표 3-5] 6가지 앵커 유형(Anchor Types)과 114개 앵커 위치 —————	56
[표 3-6] 변화의 정도(Degree of Change)별 주요 내용 —————	58
[표 3-7] 포틀랜드의 도시 디자인 프레임워크에서 구분한 거점공간—————	61
[표 3-8] 센터(Centers)별 주요 특징	64
[표 3-9] 보행환경의 안전과 즐거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세 가지 요소 ————	67
[표 3-10] 상하이시 15분 지역사회 생활권의 15개 시범구역별 개발목표	71
[표 4-1] 분석자료 목록	<del></del> 85

# エネー LIST OF TABLES

[표 4-2] 대구광역시 행정구역 개요	<del></del> 87
[표 4-3] 분석대상 근린지역의 주요 특성 ————	96
[표 4-4] 침산2·3동의 인구 및 가구구성 현황————————————————————————————————————	<del></del> 99
[표 4-5] 침산2·3동 주거유형별 주택 현황————————————————————————————————————	100
[표 4-6] 침산2·3동 시간대별 유동인구 변화·····	102
[표 4-7] 침산2·3동 주민들의 활동목적별 방문지점 및 이동거리 특성————	104
[표 4-8] 침산2·3동 주민들의 활동목적별 평균거리순 및 평균	106
[표 4-9] 침산2·3동 활동목적별 시설이용 ————————————————————————————————————	108
[표 4-10] 산격3동의 인구 및 가구구성 현황 ————	113
[표 4-11] 산격3동 주거유형별 주택 현황 ————	113
[표 4-12] 산격3동 시간대별 유동인구 변화	116
[표 4-13] 산격3동 주민들의 활동목적별 방문지점 및 이동거리 특성————	118
[표 4-14] 산격3동 주민들의 활동목적별 평균이동거리—————	120
[표 4-15] 산격3동 활동목적별 시설이용	122
[표 4-16] 관음동의 인구 및 가구구성 현황————	126
[표 4-17] 관음동 주거유형별 주택 현황	127
[표 4-18] 관음동 시간대별 유동인구 변화————	129
[표 4-19] 관음동 주민들의 활동목적별 방문지점 및 이동거리 특성————	131
[표 4-20] 관음동 주민들의 활동목적별 평균이동거리 —————	132
[표 4-21] 관음동 활동목적별 시설이용	135
[표 4-22] 각 사례지역의 활동목적별 이동범위————	139
[표 5-1] 동네생활권 개념의 도입방향—————	145
[표 5-2] 동네생활권 설정을 위한 탐색항목 및 활용가능 데이터—————	146
[표 5-3] 일상생활활동 목적 및 관련시설	147
[표 5-4] 동네생활권 및 동네거점 설정기준————	148
[표 5-5] 동네생활권 및 유사개념 비교	151
[표 5-6] 생활권계획 및 동네생활권계획 내용 구성·비교——————	153
[표 5-7] 지자체 도시계획조례 내 '생활권계획 수립·운영' 관련 내용 구성방안———	153
[표 부록-1] 주민설문조사 조사결과 개요	182
[표 부록-2] 일상생활활동 목적별 이용시설	182
[표 부록-3] 응답자 일반현황	184
[표 부록-4] 직장·학교 위치 및 이동특성	185
[표 부록-5] 동네 범위 인식 특성	186
[표 부록-6] 동네생활 특성 및 주민수요 조사결과 종합	197

# 그림차례 LIST OF FIGURES

[그림 1-1] 전문가 활용 및 외부 전문기관 협동연구 수행체계—————	8
[그림 1-2] 연구추진절차 —	9
[그림 2-1]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의 사회 영향————	16
[그림 2-2] 코로나19가 바꾼 시민생활 설문조사 결과—————	17
[그림 2-3] 주변 네이버후드 정보를 확인하기, 새로운 네이버후드 경계를 만들기 ———	19
[그림 2-4] 서울생활권계획의 권역생활권과 지역생활권—————	25
[그림 2-5] 다양한 기능을 복합적으로 갖추고 있는 자립적 생활권인 보행일상권 ———	27
[그림 2-6] 부산형 15분 도시의 생활권과 생활보행권의 공간적 범위—————	28
[그림 2-7] 부산형 15분 도시의 생활보행권의 4가지 유형 —————	28
[그림 2-8]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도시공간과 일상생활의 변화 관계 —————	35
[그림 2-9] 동네생활권 범위 : 지역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설정,	
활동목적과 이동수단에 따른 구분 ————	38
[그림 2-10] 동네생활권의 일상생활활동 및 관련 시설 도출과정—————	49
[그림 3-1] 보행친화적 네이버후드의 요소 개념도————	53
[그림 3-2] 앵커와 변화의 정도(Degree of Change Map)	57
[그림 3-3] 포틀랜드의 도시 발전 개념 이미지 예시 ————	60
[그림 3-4] 포틀랜드의 도시 디자인 프레임워크 이미지 ————	61
[그림 3-5] Urban Design Direction에서 지정한 센터(Centers) 위치	62
[그림 3-6] 포틀랜드의 동네생활권별 개념 이미지 ————	63
[그림 3-7] 오타와시 지역계획(Local Plan) 수립지역——————	66
[그림 3-8] 오타와시의 동네생활권 설정 과정 —————	67
[그림 3-9] 15분 지역사회 생활권 배치 개념도	72
[그림 3-10] 15분 커뮤니티 생활권 개념도	<del> 73</del>
[그림 3-11] 15분 커뮤니티 생활권 일자리 계획 개념도——————	<del> 74</del>
[그림 3-12] 차오시 지역의 계획 구조 및 차오시 지역의 재설정 구조도 —————	<del></del> 75
[그림 3-13] 차오시 천 부근 연결 계획 및 개조 구상도 —————	<del></del> 76
[그림 3-14] 화푸구역 공공골목 재정비 전후 비교도 ——————	76
[그림 3-15] 기회지역계획(OAPF) 수립과정 ——————————	78
[그림 3-16] 기회지역 지도(Opportunity Areas Map)	<del></del> 78
[그림 4-1] 동네생활권 탐색 및 분석방법 —————	84
[그림 4-2] 대구광역시 행정구역도	<del></del> 87
[그림 4-3] 대구광역시 택지개발 시기에 따른 주거지 분포—————	<del></del> 88
[그림 4-4] 대구광역시 주거지의 용도지역 분포	<del></del> 88

# 그림차례 LIST OF FIGURES

[그림 4-5] 대구광역시의 도시기본계획상 생활권 구분 ————	89
[그림 4-6] 대구광역시 북구의 인구분포 및 상업·업무시설 분포 현황───	
[그림 4-7] 대구광역시 북구의 행정동 간 연계구조	
[그림 4-8] 대구광역시 북구의 지역 내 소비특성 ————	
[그림 4-9] 대구광역시 북구 내 근린생활권 도출(안)—————	
[그림 4-10] 대구광역시 북구 내 3개 근린지역 위치도	
[그림 4-11] 침산2:3동 일대의 주요시설————	
[그림 4-12] 침산2:3동 일대의 관련 사업추진 현황—————	98
[그림 4-13] 침산2·3동의 주요 가로경관(침산네거리 및 대형마트 등)	98
[그림 4-14] 침산2·3동 일대의 일상생활활동 관련 시설 분포 및	
시설 분포에 따른 밀집도와 접근성 ————	101
[그림 4-15] 침산2·3동의 주요시설 밀집도 및 접근성—————	101
[그림 4-16] 침산2·3동 일대의 시간대별 유동인구 분포	103
[그림 4-17] 침산2·3동 주민들의 활동목적별 동네이용 범위—————	105
	111
[그림 4-19] 산격3동 일대의 관련 사업추진 현황—————	112
[그림 4-20] 산격3동의 주요 가로경관—————	112
[그림 4-21] 산격3동 일대의 일상생활활동 관련 시설 분포 및	
시설 분포에 따른 밀집도와 접근성————	114
[그림 4-22] 산격3동의 주요시설 밀집도 및 접근성—————	115
[그림 4-23] 산격3동 일대의 시간대별 유동인구 분포	117
[그림 4-24] 산격3동 주민들의 활동목적별 동네이용 범위—————	119
[그림 4-25] 관음동 주요시설 현황	125
[그림 4-26] 관음동의 주요 가로경관——————	126
[그림 4-27] 관음동 일대의 일상생활활동 관련 시설 분포 및	
시설 분포에 따른 밀집도와 접근성—————	128
[그림 4-28] 관음동의 주요시설 밀집도 및 접근성 —————	128
[그림 4-29] 관음동 일대의 시간대별 유동인구 분포—————	130
[그림 4-30] 관음동 주민들의 활동목적별 동네이용 범위—————	133
[그림 4-31] 각 사례지역의 활동목적별 이용영역(전부중첩)—————	140
[그림 4-32] 각 사례지역의 활동목적별 주요 이용영역(30%중첩) —————	141
[그림 5-1] 동네생활권 설정절차(안)——————	149
[그림 5-2] 생활권계획과 동네생활권계획의 관계 —————	152

# 그림차례 LIST OF FIGURES

[그림 5-3] 동네생활권계획 수립 절차 및 주요내용(안)——————	152
[그림 5-4] 동네생활권 중심의 도시재생 및 지역 활성화 사업 추진전략 ————	
[그림 5-5] 근린재생형 활성화지역 지정절차 및 검토기준 개선(안)—————	
[그림 5-6] 동네생활권과 연계한 재생권역 및 활성화지역 지정방안—————	
[그림 부록-1] 동네 범위를 인식하는 이동수단 기준 및 응답자 특성 ————	186
[그림 부록-2] 동네에서 주로 하는 활동	187
[그림 부록-3] 동네에서 주로 하는 활동(지역별, 1+2+3순위) ————	
[그림 부록-4] 일상생활활동 목적별 이용시설 특성 ————	188
[그림 부록-5] 일상생활활동 목적별 이용시설 특성(지역별)—————	190
[그림 부록-6] 동네의 중심 장소에 대한 인식 이유	191
[그림 부록-7] 동네 활동 및 모임 참여 현황	192
[그림 부록-8] 동네 활동 및 모임을 위한 이용공간(중복응답)—————	192
[그림 부록-9] 동네 소식, 정보교류, 이웃 소통 방식(1+2순위, 중복응답) ————	193
[그림 부록-10] 코로나19이후 동네에서 증가한 활동(1+2순위)	193
[그림 부록-11] 코로나19이후 동네 활동 감소 사유—————	194
[그림 부록-12]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이용 비중이 증가한 동네 활동(1+2순위) ———	194
[그림 부록-13] 동네 생활에서 만족스러운 활동(1+2순위)—————	195
[그림 부록-14] 동네 생활에서 불만족스러운 활동(1+2순위)	
[그림 부록-15] 동네에 가장 필요한 공공서비스(1+2순위)	196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 연구범위 및 방법
- 3. 선행연구 검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디지털 전환 및 코로나19로 인한 라이프 스타일 변화로 근거리 동네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4차 산업혁명에 의한 디지털 기술 확산이 금융·경제적 변화를 초 래하였다면, 코로나19 이후의 뉴노멀 시대는 금융·경제를 포함한 삶의 방식과 기준 등 사회 전반에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1) 디지털 서비스의 일상화는 소비, 여가, 노동, 교육 등 일상생활의 여러 부문을 변화시키며 실제 공간의 변화까지 이어지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원거리 이동이 줄어들고 근거리 동네 안에서 여가, 휴식, 일상생활을 즐기는 '로 컬택트(Localtact)'2), '동네화' 경향3)이 강해지는 등 일상생활 변화를 앞당기고 있다.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스마트워크의 확산은 사람들의 소비 반경을 집 인근지역으로 옮

<sup>1)</sup> 이재준 외(2020, p.26, p.28), 유창복 외(2020, p.18)

<sup>2) &#</sup>x27;로컬택트'는 지역이나 마을 공동체 단위로 관계를 형성하며 소통, 활동하는 방식으로 '지역 울타리 활동'이 라고도 함(문화체육관광부, 2020, 10월 19일 보도자료)

<sup>3)</sup> 윤서연 외(2021, p.1), 모종린(2020, p.27), 이재준 외(2020, p.16) 참조,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원거리 도시화'는 도시의 인구 집중을 초래하였고, 주택, 직장, 교통발달 등의 이 유로 대도시 인근 지역으로 '넓은 광역화'가 나타났으며, 코로나19 이후에는 근거리 동네 안에서 일상생활 이 더욱 많이 이뤄지는 '근거리 동네화'로 변화(박양호, 2021, 7월 21일 기사)

경가게 하였고, 슬리퍼를 신고 편한 복장으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주거권역인 일명 '슬세권'이라는 개념도 등장하였다. 이로 인해 집 주변 근거리 생활반경 내에서 먹거리나 즐길거리, 놀거리, 일거리 등을 누릴 수 있는 동네 인프라나 생활밀착형 서비스로의 접근성, 동네 생활 편의성에 대한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1~2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④하면서 이들이 선호하는 주택규모나 주거환경, 소비문화 특성5 등은 동네 환경과 주변시설에 대한 이용방식을 달라지게 만들고 있다.

# \*\* 코로나19로 인한 홈 어라운드(Home-around) 소비 증가와 상권의 변화 • 강남, 을지로, 명동 등 전통적 상권 중심으로 발생하던 소비가 온라인 소비 증가와 동네 소비 활성화 등으로 전통상권 이외 주거지역으로 소비 중심 이동 • 집을 중심으로 500m이내 근거리 소비가 2018년 30.2%에서 2020년 33.3%로 증가, 거주 시군구 내에서 개인 소비의 61%를 소비(5km 이상 원거리 소비는 2018년 33.3%에서 2020년 31.1%로 감소) 2018.4

#### □ 동네 중심의 플랫폼 서비스 확대와 주거지역 경제 생태계 및 커뮤니티 구축 양상 변화

일상생활의 변화는 동네 중심의 플랫폼 서비스 확대와도 긴밀한 관련이 있다. 지역기반의 하이퍼로컬에 서비스나 콘텐츠가 확산되면서 유통, 배달, 커머스 등 다양한 분야의 하이퍼로컬 플랫폼 뿐 아니라 이웃 간 중고거래, 공동육아, 반려동물 돌봄, 동네시장 등의동네 기반 온라인 커뮤니티 기능이 강화되고 있고, 지역 소상공인과 연계한 로컬 커머스 시장도 확대되는 추세이다.

- 4) 통계청의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1~2인 가구가 59.8%로 2019년에 비해 1.7%p 증가(통계청, 2021, 7월 29일 보도자료)
- 5) 2021년 수도권 거주 자 대상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식료품 구매 채널(1순위)은 인터넷 모바일 쇼핑 사이트, 대형마트, 동네마트·동네슈퍼, 편의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동네마트·동네슈퍼, 편의점의 이용 이유로는 소량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오픈서베이, 2021)
- 6) 하이퍼로컬(hyper-local)은 '지역기반', '지역밀착'이라는 의미로 국립국어원 새말모임에서는 하이퍼로컬의 다듬은 말로 '동네생활권'을 제시(문화체육관광부, 2021, 6월 9일 보도자료). 하이퍼로컬 서비스는 특정지역, 동네 자체를 경험하고 소비한다는 개념으로 기존 온라인 서비스가 시공간을 초월해 방대한 범위의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하이퍼로컬은 특정 지역에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는 점에서 차이(정보통신기획평가원기술정책단, 2021, p.1; 김미선, 2021, p.79)

출처: BC카드 빅데이터센터(2020, p.19)

이처럼 디지털 전환은 일상생활 변화를 가속화하며 주거지역 생활인구 증가와 동네상 권 강세로 이어지고 있고, 정보기술과 국토 공간, 일상생활 간의 관계 변화나 인구·산업 이 집중된 대도시의 공간구조와 장소성의 변화, 중소도시의 육성방향 전환 등에 대한 이 슈도 제기되고 있다.7)

#### ※지역기반의 하이퍼로컬 서비스 플랫폼의 확대와 다양화

#### 하이퍼로컬 관련 통계수치

- (동네 중심의 소비패턴 변화) 편의점 매출이 2020년 2.4%에서 2021년 6.8%로 증가, 로컬 컨셉 가게 매출은 2019년 대비 2021년 이용률 34% 증가, 로컬 푸드 및 제철 식재료를 배송해 주는 산지 직송 플랫폼 이용률은 같은 기간 557% 상승하는 등 집 주변 소비와 하이퍼로컬 플랫폼 관련 소비 증가
- (하이퍼로컬 서비스 시장) 2019년 약 9,730억 달러 규모에서 2027년까지 약 20% 성장해 약 3조 6,343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글로벌 시장조사업체, 리서치앤드마켓)

#### 사회적 실태 변화와 하이퍼로컬 서비스 확대

- 코로나19로 인한 활동반경 축소로 온라인 구매 및 주거지 인근 동네 직거래 선호 증가
- 가족 규모 축소와 기능 약화로 전통적인 가족의 역할을 공동체와 지역사회가 대체하면서 현 거주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가진 사람 비율이 2019년 64.4%에서 2020년 70.5%로 증가
- 스마트폰을 매개로 위치 기반 IT 기술의 고도 발달, 높은 인구밀도로 인해 하이퍼로컬 서비스 확대
- 동네병원 온라인 화상 진료, 심부름 대행, 재활용·택배 찾기 등 다양한 주거편의 대행서비스 플랫폼 확대
- 출처 : 동네를 접수하다! 하이퍼로컬, 통계청 블로그, https://blog.naver.com/hi\_nso/222707927145 (검색일 : 2022.0 6.02.), 통계청(2022, p.25)

#### □ 생활권, n분도시 등 일상생활 범위인 동네·근린 단위에 대한 국내외적 논의 확대

집과 동네 중심으로 재편되는 일상에 맞는 생활권 도시 재구성과 지역재생 모델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생활권 활성화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공공정책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8) 해외도시에서는 근린권 중심의 도시계획이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파리의 '15분 도시'나 멜버른의 '20분 도시', 바르셀로나의 '슈퍼블록 계획' 등 n분도시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고, 도심에서 줄어드는 업무·상업기능이 근린으로 옮겨오면서 이에 따른 생활 물류 기능의 수요와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9)

국내에서도 서울시, 부산시, 청주시, 제주도 등에서 생활권 계획 수립이나 n분도시 실현을 위한 사업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에서는 디지털 전환과 뉴노멀시대에 변화되는 도시공간에 맞추어 선제적이고 유연한 공간계획 대응을 위해 도보 자족형 근린생활권으로 공간계획 단위를 개편, '보행일상권'을 도입할 예정이다.10)

<sup>7)</sup> 유현아(2021, p.20, pp.22-23, p.31) 참고하여 작성

<sup>8)</sup> 모종린(2020, p.28, p.31) 참고하여 작성

<sup>9)</sup> 윤서연 외(2021, pp.82-83)

<sup>10)</sup> 서울특별시(2022, 3월 3일 보도자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2021.4.), 김인희(2021) 참고하여 작성

#### □ 급변하는 사회 여건과 도시공간에 대응하기에 현행 도시계획체계의 경직성과 한계

도시·군기본계획이나 공공서비스 및 인프라 공급 관련 정책들은 인구규모 기준의 획일 적 분구에 따라 자원을 배분하고 시설이나 서비스의 양적 공급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전환 등에 따라 변화된 사회경제적 여건은 동네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수요나 범주, 지역 커뮤니티 특성, 공간이용행태를 달라지게 하고 있고, 현행 도시계획체계나 행정서비스 공급체계가 가진 경직성과 보수성으로 인해 이러한 특징에 맞춘 유연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적 대응에 한계를 발생시키고 있다.11)

또한 주민참여나 지역발전 정책의 실행수단으로서 마을계획이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을 수립할 때, 이미 정해진 계획범위나 사업구역 내에서 주민 수요조사나 의견수렴, 주민참여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공간적 범위는 실제 주민들의 생활권역이나 공동체 범위와 차이가 있어 실효성 있는 계획내용을 담거나 사업효 과를 기대하기에 한계가 있다. 또한 도시의 여건 변화와 지역현안에 맞춘 시의성 있는 대응전략이 필요하나 기정 도시계획체계의 틀을 따르면서 계획과 실제 공간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는 문제가 나타나기도 한다.12)

#### □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동네 단위에서의 지역 활성화 및 발전 전략 마련 필요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이나 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지역발전 관련 정책들은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권역과 일상생활활동 특성에 대응하는 치밀한 전략을 필요로 한다. 즉,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동네 단위에서 정책 제시를 할 수 있도록 적정한 공간적 범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때 주민 커뮤니티 구축 현황이나 일상생활활동 특성, 동네상권 특징 등에 대한 실증분석 및 검토가 동반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동네 단위의 생활권 개념을 재조명하고 지역 활성화 관련 정책과 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네 단위의 생활권을 바탕으로 근거리 범위에서 필요로 하는 인프라 구축과 인적·물적 자원과 프로그램, 지역기반 서비스 등을 투입하는 것이 지역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13)

<sup>11)</sup> 디지털 전환에 따른 도시공간의 복합 이용 수요, 새로운 서비스 도입에 대비한 도시설계에 대한 요구가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근린 환경 공간의 질적 향상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이나 도시공간에 대한 계획적 수단 조정과 공공의 정책적 관리수단 마련은 보수적으로 진행(윤서연 외, 2021, pp.90-95 참고하여 작성)

<sup>12)</sup> 신서경 외(2021, pp.3-4, p.73) 참고하여 작성

<sup>13)</sup> 유창복 외(2020, p.220), 모종린(2021, p.54) 참고하여 작성

####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디지털 전환, 4차 산업혁명 등 사회경제적 변화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가변적인 계획여건을 반영하기 위한 공간적 범위로서 '동네생활권'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도입 및 활용하기 위한 정책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 목적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이론 및 정책 동향 고찰, 국외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공간적 계획단위로서 동네생활권 개념 정립과 구성요소, 설정기준 및 절차 등을 도출한다. 둘째,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적 탐색 및 분석을 통해 동네생활권 설정을 위한 기본원칙과 절차를 제시한다. 셋째, 동네생활권 개념의 도입이 필요한 공공정책 범주, 관련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방안 등 동네생활권의 활용 및 실행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범위 및 방법

#### 1) 연구범위

#### □ 공간적 범위: 수도권 외 광역시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전환 등의 여건 변화에 따른 주민들의 공간이용행태 변화나 공공 서비스 공급체계로의 영향력을 살펴볼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그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인구 밀집지역으로서 광역시를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이때, 서울특별시 및 수도 권 도시는 광역교통 및 물류 인프라, 민간 플랫폼 구축 여건 등의 시장 생태계 및 현황이 여타 지방도시와는 다른 특수성을 보이고 있어 본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동네생활권 도입방향 설정을 위한 시범적 탐색 및 분석 대상지는 주거지 특성, 인구사회적 특성, 동네상권의 변화, 유동인구 특성 등을 종합하여 비교할 수 있는 동네 3곳으로 설정하였다. 데이터 구득 및 분석 가능성, 근거리 도보 접근이 가능한 생활반경을 고려하여 행정동 단위로 공간 분석을 실시하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동네생활권을 설정하기 위한 탐색항목, 기준 및 절차 등을 연구결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 □ 시간적 범위: 주민들의 일상생활 변화를 촉발시킨 코로나19 전후 시점

디지털 전환 및 4차 산업혁명으로 시장의 변화나 시민의 일상생활 변화는 이미 진행되어 오고 있었으나 코로나19가 촉발한 언택트 문화 확산이 이러한 변화를 빠르게 진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4) 이에 코로나19 전후 시점의 비교 분석은 달라진 일상생활의 범위와 공간이용행태 특징을 파악하는데 적절하다고 판단,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로 설정하였다. 다만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각종 정부대책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할수 있는 시점(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시행 시점 등)을 검토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 □ 내용적 범위

#### • 일상생활활동

주민들의 일상생활활동은 동네생활권을 이루는 기본적인 요소에 해당한다. 「도시·군기

<sup>14)</sup> 손동필 외(2021)에서는 '초-근린(하이퍼로컬) 생활권'은 코로나 중에 보인 변화 양상 정도보다 코로나 후에 보인 변화 양상의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나 '코로나'라는 시대적 관점 이외 또 다른 시대적 관점 또는 가치에 부합하여 코로나 후에도 계속적으로 건축 도시공간의 강한 변화 방향성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분석 (손동필 외, 2021, p.127)

본계획수립지침」상의 일상생활권 정의를 바탕으로 통학, 사교모임, 근린공공서비스, 장보기 등을 일상생활활동의 범주로 설정하여 살펴보았다.

#### • 생활서비스

'생활서비스'는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기본적인 삶의 질 유지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로 해당 지역의 경제적·문화적·사회적·정치적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15)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 복지, 고용, 주거, 교육, 체육, 문화, 관광 부문보다 포괄적인 부문까지 요구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공간적, 정치적 맥락등을 고려16)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초생활인프라<sup>17)</sup>의 생활서비스 범주에서 나아가 최근 주거권역 기반으로 생활밀착형 서비스로 제공되는 하이퍼로컬 서비스 범주까지 포함하여 검토하였다.

#### 2) 연구방법

#### □ 문헌조사 및 분석

- 동네생활권 관련 도시계획체계 상의 개념, 도시계획이론, 선행연구 고찰
- 근린 활성화 관련 정책 추진현황, 동네생활권 관련 국내외 정책 및 사례 조사

#### □ 공간분석 및 통계자료 분석

- 동네생활권 심층분석을 위해 GIS를 활용한 공간데이터 분석
- 동네생활권 특성 파악 및 시범적 탐색을 위한 유동인구 데이터 분석

#### □ 설문조사, 현지조사 및 관계자 인터뷰

- 일상생활활동 특성 및 변화된 동네 생활과 주민인식을 살펴보기 위한 설문조사
  - 동네생활권 범위 도출을 위해 일상생활활동 관련 공간이용실태 파악
  - 디지털 전환, 코로나19 등에 따라 변화된 일상생활 특징과 동네생활 만족도, 동네 단위로 필요한 생활서비스 등에 대한 수요 파악

<sup>15)</sup> 송미령 외(2009, p.12)

<sup>16)</sup> 송미령 외(2009, p.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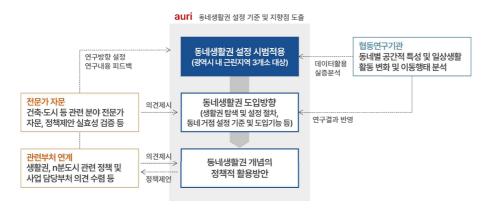
<sup>17)</sup> 기초생활인프라는 도시재생기반시설 중 도시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설(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7814호, 제2 조)로서 국민들의 보편적인 생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적 최저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 관계자 인터뷰

- 동네 특성, 공간관리 관련 계획 및 사업추진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 민간활동주체 등 의견수렴

#### □ 전문가 활용 및 외부 전문기관 협동연구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동네생활권 단위 생활서비스 범주 도출과 정책 발굴을 위한 건축·도시분야 전문가, 하이퍼로컬 서비스 관계자 자문
  - 분석결과 검토, 정책제안 실효성 검증을 위해 공공·실무분야 전문가 자문
- 해외 조사원 활용
  - 국외사례 조사 및 분석을 위한 해외 조사원 활용
- 외부 전문기관 협동연구
  - 사례지역 동네 주민의 일상생활활동 및 커뮤니티 특성 파악, 주민의 생활반경 및 동네 생활밀착형 공간이용실태 등 분석 실시
  - 공간 분석을 위한 관련 전문가, 건축 도시 정책 관련 전문가 등과 협업 진행



[그림 1-1] 전문가 활용 및 외부 전문기관 협동연구 수행체계

출처 : 연구진 작성

#### 3) 연구 추진절차

문제의식/ 연구방향 (1장)

#### 디지털 전환에 따른 근거리 동네화 경향과 동네 단위 공공정책 추진에 대한 관심 증대

뉴노멀시대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따른 집 주변 생활반경과 공간이용행태 변화, 동네·근린 단위 공공정책 추진이 확대되고 있으나 공간적 범위의 한계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동네 단위에서 근린 활성화를 위한 공공정책 및 전략 추진 필요

문헌고찰/ 현황진단/ 사례분석 (2·3장)

#### 이론 및 정책동향 검토

사회경제적 변화와 동네생활권 관련 이론 고찰, 생활권 및 동네 단위 정책추진현황 검토

#### 일상생활활동 유형 및 시설 검토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거권역인 동네생활권 구분을 위해 활듕 유형과 세부시설 도출

#### 국외 계획 및 정책 사례 분석

미국, 캐니다, 중국 관련 사례 조사를 통해 동네생활권 범위 및 설정절차, 정책 활용방안 검토

문헌조사 전문가 자문

공간계획 단위로서 동네생활권 도입 필요성 제시, 동네생활권 개념 정립과 요소 도출

▼

시범적 탐색 및 분석 (4장)

#### 근린환경 특성 분석

동네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주요 사업 추진현황, 공간데이터, 유동인구 및 카드매출 데이터 분석

#### 일상생활활동 및 동네생활 특성 분석

주민의 일상생활활동별 이용시설 현황 파악, 동네생활 특성 및 변화양상, 주민수요 분석

동네생활권의 특성 도출, 동네생활권 설정을 위한 기준 및 절차 제시

통계분석 GIS분석 설문조사 현지조사 인터뷰

연구종합/ 정책제안 (5장)

#### 동네생활권 도입 및 정책적 활용방안 제시

동네생활권 도입방향 및 활용방안 제시

동네생활권 활용 및 실행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방안 제시

[그림 1-2] 연구추진절차

출처 : 연구진 작성

## 3. 선행연구 검토

#### 1) 선행연구 현황

#### □ 동네·마을·근린단위의 공간적 범위 관련 연구

동네나 마을 등 근거리 일상생활공간 관련 연구로는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마을생활 권 설정, 소상공인의 삶의 터전인 골목상권을 분석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김성훈(2019)은 주민들의 마을범위 인지조사를 통해 마을생활권의 경계, 규모, 영역 특성을 도출하고, 마을생활권, 도시조직 생활영역, 커뮤니티 생활영역으로 구성되는 마을생활영역을 설정함으로써 저층주거지 맞춤형 재생사업 추진방안을 제안하였다. 황동현(2019)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존 블록 단위 기반의 상권영역이 아닌 점포의 밀집도나 필지기반의 영역으로 골목상권을 객관화하여 정의함으로써 소규모 골목상권에 대한정책 및 행정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 □ 동네·근린단위 계획수립 및 활성화방안 관련 연구

도시의 변화된 여건이나 지역별 특성에 맞춘 계획 수립, 지역의 활성화방안과 관련해서는 생활권계획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살펴본 연구, 생활SOC의 접근성 제고 방안이나 도시거점과 동네 단위의 공간관리전략을 살펴본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신서경 외(2021)는 인구감소, 저성장, 감염병 지속, 기후위기 등으로 도시의 여건 변화가 이어지면서 새로운 공간적 대안으로서 생활권계획의 중요성을 제기하고, 도시 내 지역의 다양한 현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과제를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으로 활용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성은영 외(2021)는 일상생활시설까지의 잠재적 접근성과일상생활의 이동패턴을 분석하고, 해외의 n분 도시 전략을 검토하여 밀도, 다양성, 접근성, 편재성의 계획원리에 따라 우리나라 지역 여건에 맞는 n분 도시 실현전략을 시설공급, 공간활용, 네트워크, 거버넌스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신동훈 외(2021)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일상생활의 변화에 따른 도시공간의 전망을 바탕으로 마을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마을구조 재편 등 근린생활(로컬) 중심의 미래상과 부문별 대응책을 제시하였다. 서수정 외(2019)는 인구감소에 따라 지역에 필요한 공간수요가 줄어드는 시점에지방중소도시의 실효성 있는 공간관리를 위해 도시거점과 동네단위 설정하고, 각각에맞는 핵심기능과 서비스를 도입,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재생이 실현되는 방

안을 제시하였다.

#### □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도시정책 추진방향 관련 연구

디지털 전환이나 감염병 지속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야기하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른 도 시공간구조의 변화나 관련 정책 추진 방향을 살펴본 연구들에서는 앞으로의 변화 양상 을 예측하거나 기존 정책의 한계를 분석하여 도시공간에 대한 정책 추진방향 및 개선방 안을 제안하고 있었다.

윤서연 외(2021)는 디지털 전환이 초래할 대도시 서울의 시민 행태 변화와 공간 변화를 진단하고 전망함으로써 시민의 수요나 빠르게 움직이는 시장여건을 반영하는 공간계획 장치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손동필 외(2021)는 코로나 시대의 사회 변화상에 대한 미래예측을 통해 건축·도시공간의 대응원리와 전략을 제안하고 도시차원의 대응방안 중하나로서 주거지 인근의 하이퍼로컬(초근린) 생활권에 대해 적절한 규모의 계획 범위에 대한 분석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김용국 외(2021)는 코로나19로 달라진 시민들의 생활권 이동 특성을 반영하고 감염병에 대응하는 공원녹지 이용을 위해 생활권 공원녹지 관련 계획체계 및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윤주선 외(2016)는 지리적 장소와의 연계가 중요한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에서의 주민참여 방안을 제안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 2) 본 연구의 차별성

선행연구 검토 결과, 마을생활권 단위나 골목상권 범위, 동네 단위의 계획수립이나 공간적 위계를 고려한 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들이 꾸준히 진행되어 오면서 일상생활에 밀접한 공간적 범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 형성이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욱이 주거지재생이나 골목상권 활성화, 근린 활성화, 지역의 지속가능한 공간관리 등급변하는 지역의 여건과 현안에 유연하고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동네 단위에서의 접근 필요성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었다. 또한 도시공간구조 변화를 야기할 수있는 사회경제적 변화 양상을 고찰함으로써 도시정책의 전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었다. 디지털 전환이나 감염병 확산 등 지역 산업이나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변화는 주민들의 일상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러한 특징들이 도시공간구조나 주민들의 생활방식을 점차 바꾸어 나가고 있는 현황을 분석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었다.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생활서비스를 공급하고 급변하는 지역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행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는 동네·근린 단위의 일상생활활동 특성과 공간적 범위를 고려한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근거리 공간적 범위와 일상생활의 변화를 야기하는 사회경제적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공정책 추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간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도시정책의 추진방향을 살펴본 연구들은 주로 광역적 시각과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도시의 변화를 개괄하고 있으며, 연구결과에서도 도시차원의 포괄적인 시사점 위주로 제시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디지털 전환 등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른 도시공간 및 주민들의 일상생활 변화에 대응한 실효성 있는 공공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린 단위의 공간적 범위로서 '동네생활권'의 도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역별 여건에 맞는 동네생활권 을 설정할 수 있도록 기준 및 절차를 제시하고, 실제 동네 단위에서의 시범적 탐색을 통 해 적용방안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 [표 1-1] 선행연구 검토

구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동네/마을/ 근린단위의 공간적 범위 관련 연구	<ul> <li>과제명: 저층주거지 맞춤형 재생사업을 위한 마을생활영역 설정에 관한 연구</li> <li>연구자(연도): 김성훈(2019)</li> <li>연구목적: 주민이 공감하는 마을범위와 도시조직 기준의 체계적인 공간분석을 통해 일상생활공간에 대응하는 마을생활영역 설정</li> </ul>	<ul><li>문헌연구</li><li>주민인지조사</li><li>현장조사</li><li>시뮬레이션</li><li>워크숍</li></ul>	<ul> <li>저층주거지 재생정책 고찰과 사업현황 진단</li> <li>주민이 인지하는 마을생활권 설정과 재생계획활용방안 제시</li> <li>도시조직 구성요소별 저층주거지 생활영역 특성 분석</li> <li>마을생활영역을 활용한 저층주거지 재생계획안 제시</li> </ul>	
	<ul> <li>과제명: 빅데이터 기반 골목상권 영역 설정에 관한 연구</li> <li>연구자(연도): 황동현(2019)</li> <li>연구목적: 새로운 방식의 골목상권 분석 방법 연구를 통해 행정 및 정책수행,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보 제공방안 도출</li> </ul>	- 문헌연구 - 공간분석 - 빅데이터 분석	<ul> <li>-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존 골목상권의 한계점 분석</li> <li>- 빅데이터 기반 골목상권 분석 방법론 구축</li> <li>- 골목상권 구분의 객관화 및 서울시 적용을 통한 시사점도출</li> </ul>	
동네/근린단위 계획수립 및 활성화방안 관련 연구	<ul> <li>과제명: 도시계획 실행력 강화를 위한 생활권계획 도입방안 연구</li> <li>연구자(연도): 신서경 외(2021)</li> <li>연구목적: 도시의 급변하는 여건과 지역별 현안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생활권계획의 제도적 조입빙안 제시</li> </ul>	<ul><li>문헌연구</li><li>사례조사</li><li>전문가 자문 및 공무원 의견수렴</li></ul>	<ul> <li>생활권 개념 정립 및 생활권계획 수립사항 도출</li> <li>생활권계획 수립목적 및 역할 제시</li> <li>도시유형을 고려한 생활권계획 실효성 확보방안 제시</li> <li>생활권계획의 제도화 방안 제시</li> </ul>	
	<ul> <li>과제명: n분 도시 실현을 위한 도시전략 연구</li> <li>연구자(연도): 성은영 외(2021)</li> <li>연구목적: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n분 도시 실행을 위한 도시전략 마련</li> </ul>	<ul><li>문헌연구</li><li>공간통계분석</li><li>GIS 공간분석</li><li>전문가 자문</li><li>해외 사례조사</li></ul>	<ul> <li>n분도시 계획요소의 국내 적용 여건 검토</li> <li>실현가능한 n분 범위 도출</li> <li>해외도시 n분 정책 및 사업, n분 생활권 실현전략 검토</li> <li>n분 도시 실현을 위한 유효한 계획 및 전략요소 도출</li> </ul>	

구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ul> <li>과제명: 포스트코로나시대 광주전남지역의 자족형 근린생활권 발전방안</li> <li>연구자(연도): 신동훈 외(2021)</li> <li>연구목적: 비대면 시대 근린생활 개념의 로컬을 중심으로 하는 일상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여건 전망과 변화된 생활상 대응책 모색</li> </ul>	- 문헌연구 - 공간통계분석 - GIS공간분석 - 사례조사	<ul> <li>코로나 이후 도시공간 전망</li> <li>코로나 이후 광주시 생활시설 현황 분석</li> <li>로컬 중심의 미래에 대하여 분야별 전망과 대응책 제시</li> </ul>	
	<ul> <li>과제명: 중·소도시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역자원기반의 통합적 공간관리 방안</li> <li>연구자(연도): 서수정 외(2019)</li> <li>연구목적: 지방중소도시의 통합적 공간관리 수단 활용을 위한 지역재생 정책과 정책지원방안 제시</li> </ul>	<ul><li>무한연구</li><li>통계분석</li><li>현지답사 및 관계자 심층면담</li><li>계획대안 검증</li></ul>	<ul> <li>지역자원기반이 통합적 공간관리 개념 정의</li> <li>지역활성화 정책 및 사업추진현황 분석</li> <li>지역자원기반의 중소도시 통합적 공간관리 방안으로서 도시거점-동네 네트워크 모델 제시 및 계획대안 검토</li> <li>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 제시</li> </ul>	
따른 도시정책	<ul> <li>과제명: 디지털 전환에 따른 도시 생활과 공간 변화</li> <li>연구자(연도): 윤서연 외(2021)</li> <li>연구목적: 디지털 전환이 도시공간에 가져올 변화, 대도시 서울의 공간적 변화를 도출</li> </ul>	- 전문가 및 관계자 인터뷰	<ul> <li>기술발전과 도시 공간구조 변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li> <li>디지털 전환과 경제·사회 변화 검토</li> <li>디지털 전환에 따른 도시 생활의 변화 검토</li> <li>디지털 전환에 따른 서울 도시공간의 변화 검토 및 예측</li> </ul>	
	<ul> <li>과제명: 포스트코로나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언택트 어바니즘 전략 연구</li> <li>연구자(연도): 손동필 외(2021)</li> <li>연구목적: 코로나 시대 사회 변화상에 대한 미래 예측을 통해 미래 적용 가능한 건축 및 도시공간의 대응원리 도출과 전략 제안</li> </ul>	- 텍스트 분석 - 델파이 분석	<ul> <li>코로나 시대 건축·도시공간 조성 방향 정립</li> <li>코로나 시대 건축·도시공간 분야 주요 이슈 도출</li> <li>위드코로나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건축·도시공간 트렌드 변화와 시나리오 구축</li> <li>코로나 시기별 대응을 위한 건축·도시공간 대응전략 제안</li> </ul>	
	<ul> <li>과제명: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생활권 공원녹지 개선 방안</li> <li>연구자(연도): 김용국 외(2021)</li> <li>연구목적: 코로나19 발생 전·후 생활권 공원녹지 이용형태 변화 분석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생활권 공원녹지 개선방안 제시</li> </ul>	GIS 분석 - 문헌연구 - 사례조사	<ul> <li>생활권 공원녹지 모빌리티 변화 및 영향요인 분석</li> <li>생활권 유형별 공원녹지 서비스 개선방향 제시</li> <li>포스트 코로나 대응 생활권 공원녹지 개선요소 도출</li> <li>포스트 코로나 대응 생활권 공원녹지 개선 가이드라인 작성 및 시범적용</li> <li>법·제도 개선방안 제시</li> </ul>	
	<ul> <li>과제명: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방안 연구</li> <li>연구자(연도): 윤주선 외(2016)</li> <li>연구목적: 도시재생사업 지원·관리에 적합한 온·오프라인 융합형 도시재생 플랫폼 체계와 운영방식 제안</li> </ul>	- 문헌연구 - 워크숍 및 온라인 설문조사 - 참여관찰 모니터링	<ul> <li>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참여의 한계와 온라인 커뮤니티의 가능성 분석</li> <li>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참여자의 특성 분석</li> <li>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형 주민참여 시범적용을 통한 공공정책 방향 제안</li> </ul>	
본 연구	<ul> <li>과제명: 동네생활권 개념 도입 및 정책적활용방안 연구</li> <li>연구목적: 사회경제적 변화와 주민의일상생활과 밀접한 도시공간 계획단위로서동네생활권 개념 도입 및 활용방안 마련</li> </ul>	- 문헌연구 - 통계·GIS분석 - 현지조사 - 설문조사 - 인터뷰 - 전문가 자문	<ul> <li>동네생활권 개념 정립 및 도입 필요성 도출</li> <li>동네생활권 도입기능 및 설정기준 마련</li> <li>시범적 탐색 및 심층분석을 통한 동네생활권 설정의 기본원칙 및 절차 제시</li> <li>동네생활권 도입 및 활용을 위한 정책방안 제시</li> </ul>	

# 제2장 동네생활권 개념 및 도입 필요성

- 1. 동네생활권 관련 논의 및 정책동향
- 2. 동네생활권 개념 및 일상생활활동 구분

## 1. 동네생활권 관련 논의 및 정책동향

- 1) 도시공간의 변화와 동네생활권 개념 논의
- □ 다변화 시대의 달라진 일상생활 영역
  - 정보화와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온라인수업의 확산으로 일상생활 영역 변화

디지털 전환 및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기술 발전과 서비스 전달체계 마련, 교통수단의 다변화는 라이프 스타일 뿐만 아니라 도시공간의 변화로도 이어지고 있다. 재택근무, 온라인수업, 스마트워크 확산 등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근무, 교육의비대면화로 집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었고 주거기능이 다양화되고 관련 활동의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완화시키고 있다.1) 또한 지역기반 커뮤니티 활성화와 주거지 중심 생활로의 전환, 온라인 상거래와 커뮤니티 플랫폼의 확산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거리 개념과 이동의 변화를 크게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2)

비대면 문화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뉴노멀이 될 것으로 고려되면서 다양한 스마트워크 방식에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 인프라의 확보, 다양한 기능을 갖춘 주택 공급과 주거

<sup>1)</sup> 신동훈 외(2021, p.29), 손동필 외(2021, p.27), 윤서연 외(2021, p.90)

<sup>2)</sup> 양재섭 외(2022, p.64), 손동필 외(2021, p.28), 윤서연 외(2021, p.90)

환경 조성으로의 요구도 나타나고 있다.<sup>3)</sup> 또한 교통이나 물류, 유통 기술이 고도화되면 서 광역차원에서는 관련 인프라나 시스템, 도시공간 구조의 다변화를 야기하고 있고, 지역 단위에서는 생활서비스 공급시설의 설치나 도입기능 설정, 공공공간의 도시설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그림 2-1]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의 사회 영향

출처 : 윤서연 외(2022, p.6)

• 온라인 퀵커머스 시장 확대로 인한 유통시장 변화와 동시에 동네상권의 소비 증가

최근 이커머스(전자상거래)에서 나아가 생필품과 식료품을 주문하는 퀵커머스 산업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 등장하였고 기존 대형마트나 점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동시에 소량구매나 1인가구의 외식, 여가 생활의 일상화 등으로 집 주변 동네에서 의 소비활동도 증가<sup>4)</sup>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에는 가구 내 식품 구입장소로 동네 중소형 슈퍼마켓(34.2%)이 전년도 대비 2.8%p 증가하면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5) 이러한 유통시장 및 소비형태 변화는 동네 공간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동네상권의 활성화와도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 □ 건축·도시공간에 대한 수요 변화로 인한 새로운 도시문제와 과제

• 건축·도시공간의 수요 변화로 새로운 공간 요구 및 기존 공간의 쇠퇴 현상 발생 디지털 전환과 인구감소 현상은 건축·도시공간의 이용 수요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공간

<sup>3)</sup> 한국은행(2020, 12월 14일 보도자료, p.4), 신동훈 외(2021, p.29), 손동필 외(2021, p.36)

<sup>4)</sup> 특히 생필품을 구매할 때 집 근처 500m 이내에 있는 편의점·수퍼마켓 등을 이용하는 비중은 2014년 37%에서 2017년 45%로 증가, 카페 이용건수 중에서 500m 이내의 카페를 이용한 비중도 8%에서 13%로 증가(김민정, 2018, 1월 17일 기사)

<sup>5)</sup> 동네 중소형 슈퍼마켓을 주요 식료품 구입장소로 선택한 가구들은 '거리가 가깝거나 교통이 편리'해서 해당 장소를 선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음(이계임 외, 2020, pp.56-59)

에 대한 요구와 함께 기존 공간이 쇠퇴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6) 기존 도시공간의 인 프라나 주요 기능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기도 하고, 각종 생활서비스의 공급 및 전달방식 도 다각화 되면서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을 변화시키며 또 다른 양상의 도시쇠퇴나 지 역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특히 코로나19는 오프라인 상권 구조의 재편과 적정한 상 업 공간 규모 산정, 사회 및 행태변화에 따른 도시나 주거에 대한 의식 변화 등 공간 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도시차원의 전략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7)

### ※디지털 전환 등에 따른 도시공간의 변화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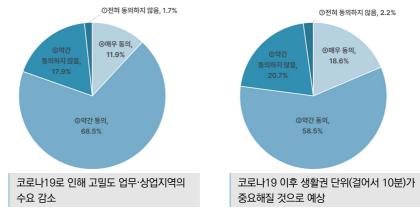
## 도심 및 근린의 용도 및 수요 변화

• 도심의 상업·업무지역은 공간이용 수요변화에 따라 지역 내 용도전환, 재개발, 재생 등의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 근린에서는 도심에서 감소하는 활동과 시설에 대한 수요는 높아질 것으로 전망

## 근린지역에서의 용도별 변화

- (상업시설) 소형 상업시설에 대한 증가, 온라인 배송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상품과 서비스 수요 증가
- (주거) 다변화되는 라이프 스타일과 집에서의 업무·여가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주거 수요 발생
- (공공장소 공공시설) 지역 맞춤형 시설에 대한 수요, 소규모 시설 거점화나 복합 용도에 대한 수요 증가
- (물류시설) 소규모 생활 물류시설의 수요 증가

출처: 윤서연 외(2021, pp.79-88) 참고하여 작성



[그림 2-2] 코로나19가 바꾼 시민생활 설문조사 결과

\*서울연구원 온라인 설문조사(2020년 9월 8일~15일간 서울시민 1,000명 대상)

출처 : 서울인포그래픽스, 서울연구원, https://www.si.re.kr/node/63894 (검색일 : 2022.06.07.)

• 탈물질화와 온라인 활동 증가로 일상생활의 이동량 변화, 장소성에 대한 중요성 확대 비대면 활동의 일상화와 가상공간의 확대는 기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간의 '입지' 보다 '장소' 자체의 의미나 맥락을 중요하게 할 전망이다.8) 이는 사람들의 장소인식 반

<sup>6)</sup> 윤서연 외(2021, p.26, p.77)

<sup>7)</sup> 코로나19 이후 도심 내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비해 주거지 주변에 형성된 지역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은 줄어들고 도심 근처 물류센터 수요는 급증하는 등 소매공간 수요 변화가 발생, 기존 상권 붕괴에 대한 대응 필요(손동필 외, 2021, p.35)

경이나 일상생활의 변화를 불러오고 있으며, 전통적인 통행 패턴이 변화하면서 교통·이동을 중심으로 한 계획 수립에서 나아가 달라지는 도시공간 현상에 맞는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9)

## □ 동네·근린 생활권의 발달과 중요성 확대

• 코로나19 이후 생활패턴 변화로 인한 자족적 근린생활권 중요성 증대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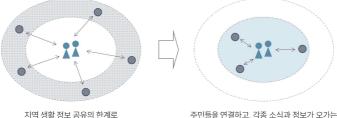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주거, 문화·여가, 이동 등의 생활패턴 변화는 주거지를 생활의 중심지로 변모하게 만들었다. 동네 단위로 공원·녹지와 문화예술·식음 등이 연계된 여가 활동이 증가하면서 주거지 중심의 단거리 이동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전환시대에 대응한 동네와 지역 단위의 생활권 계획의 재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 좁아진 생활반경에 맞춘 하이퍼로컬 서비스 확산과 동네 커뮤니티 구축 양상 변화

우리나라의 당근마켓, 긱몬, 미고, 미국의 넥스트도어(Nextdoor), 오퍼업(OfferUp), 독일 네베안(Nebenan) 등 이웃 간 공간적 근접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하이퍼로컬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지역, 읍면동, 아파트 단지까지 세분화된 동네 범위 내에서 이웃 간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 중고거래,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 집수리 서비스 등의 기능뿐아니라 동네 기반 소셜 플랫폼으로서도 기능하면서 일상생활과 정보를 공유하는 지역 커뮤니티 장으로도 활용되고 있다.11)

## ※지역기반 커뮤니티 활성화: 강화되는 이웃 간 연결성

- 디지털 전환에 따라 거주지 중심 지역을 중심으로 소비자와 플랫폼이 활성화되고 있음
- 비대면 활동의 활성화와 장거리 통행의 감소는 장기적으로 동네에서의 활동과 네트워크 강화라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런 동네 네트워크는 범위가 좁은 특정 지역에 맞춘 하이퍼로컬 개념으로 정의됨



동네상권-주민 간 소통 미비

주민들을 연결하고, 각종 소식과 정보가 오가는 지역 기반 커뮤니티 서비스 플랫폼

출처: 윤서연 외(2021, pp.45-46)를 참고하여 작성(그림출처: 윤서연 외, 2021, p.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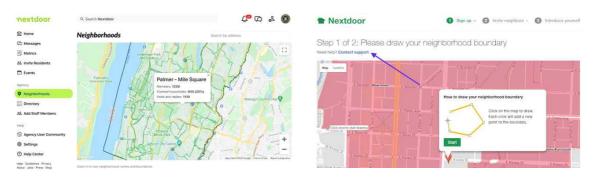
- 8) 윤서연 외(2021, p.2)
- 9) 유현아(2021, p.31), 윤서연 외(2021, p.77)
- 10) 양재섭 외(2022, p.64)
- 11)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기술정책단(2021, p.1), 윤서연 외(2021, p.46)

[표 2-1] 국내외 하이퍼로컬 서비스 플랫폼의 주요 사례

구분	플랫폼	범위	서비스	내용
국내	당근마켓	반경 2km내외(최대 반경 6km, 지역 인구밀도 기반)	중고거래, 동네생활, 동네가게, 내근처	주민 커뮤니티, 주변 상점정보, 온라인 전단지
	네이버	시군구/읍면동 기반	이웃톡, 동네시장	주민 커뮤니티, 지역정보, 오프라인 매장 배송서비스
	알바몬	시군구 기반	긱몬	지역 기반 재능기부 서비스
	직방	아파트 단지	우리집, 컨시어지	모바일 아파트 관리사무소, 단지 내 편의시설 예약, 주택관리 등
국외	넥스트도어 (미국)	100~3000가구(네이버후 드 공간범위 변경 가능)	네이버후드, 비즈니스, 공공서비스	중고거래, 부동산, 구인구직, 공공 서비스 정보제공. 주민참여 계획 등

출처: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기술정책단(2021), 장형태(2021, 4월 7일 기사), 한재희(2021, 4월 13일 기사), 김태현(2022, 4월 9일 기사), Nextdoor. https://about.nextdoor.com/ (검색일: 2022.02.04.)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특히 미국의 넥스트도어는 개개인의 연결에 집중하는 기존의 소셜 플랫폼과 달리 지역적인 네트워크 구축 방식으로 이웃의 활동과 이벤트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있으며, 공공의료기관과의 협업이나 범죄예방, 화재예방 등 공공기관을 위한 생활안전및 보안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12) 또한 넥스트도어의 서비스범위인 네이버후드는 기본적으로 지도 경계를 기반으로 영역을 설정하고 있으나 네이버후드의 대표나 설립 멤버인 주민들이 직접 네이버후드 경계를 그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림 2-3] 주변 네이버후드 정보를 확인하기(좌), 새로운 네이버후드 경계를 만들기(우)

출처: How to see neighborhood boundaries. Nextdoor Help center, https://help.nextdoor.com/s/article/How-to-see-neighborhood-boundaries?lang uage=en\_US (검색일: 2022.04.30.); How to draw the neighborhood boundary. Nextdoor Help center. https://help.nextdoor.com/s/article/How-to-draw-a-neighborhood-boundary?language=en\_US (검색일: 2022.04.30.)

## • 동네 단위 로컬 경제에 대한 수요 증가와 동네에서의 경험과 소비 중요성 확대

최근 동네 편의점이 공공요금 수납이나 택배 발송, 공유차량업체의 픽업공간 대여, 지역 세탁소 등의 서비스를 연계한 생활플랫폼 등 생활밀착형 거점공간으로서 기능<sup>13)</sup>하고

<sup>12)</sup> Public Agency Team(2022, 4월 6일 보도자료)

## ※미국의 하이퍼로컬 서비스 플랫폼, 넥스트도어(Nextdoor)

#### 넥스트도어의 개요

- 개인을 지역단위의 이웃들과 쉽게 연결하는 동시에 이웃의 활동 및 이벤트에 대한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하는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
- 전 세계의 사람들과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받고, 도움을 주고받으며 동네 및 기업들과 공공 서비스 등 내 주변 사람 및 상황들과 실제 연결성을 구축
- 연결에 대한 믿음과 네이버후드(동네)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커뮤니티라는 방향성은 넥스트도어의 시작 부터 주요한 방침
- 전 세계 11개 나라, 285,000 네이버후드가 가입, 미국의 경우 대략 3가구 중 1가구가 가입한 상태

## 소통 범위의 확대(Nearby Neighborhoods 기능)

- 네이버후드 내의 소통을 기반으로 주변의 네이버후드 커뮤니티와 의사소통할 수 있다는 것은 지역 단위에서 더 풍부하고 적극적인 대화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 기존 회원들의 많은 요청을 받아서 새로운 소통기능을 개발하였음
- 네이버후드의 경계를 넘어 주변 네이버후드와의 의사소통은 주로 지역 단위 서비스에 대한 추전을 주고받거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판매할 품목을 전송하거나 범죄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에 가장 적합하다고 설명함



Covington and nearby Nextdoor neighborhoods

출처 : ndmulti. (2012). Communicate with Even More Neighbors. Nextdoor Blog. 9월 13일 게시자료. https://blog.nextdoor.com/2012/09/13/communicate-with-even-more-neighbors/ (검색일 : 2022.04.30.)

있고, 동네 주변지역의 농수산물이나 부동산 정보를 공유하거나 지역가게 홍보 기능을 제공하여 지역주민 커뮤니티 기능을 강화하는 민간 플랫폼도 증가<sup>14)</sup>하는 등 민간시장 의 대응전략이 변화하고 있다. 또한 특정 지역이나 동네 자체에 대한 경험과 소비<sup>15)</sup>가 중요해지면서 지역자원을 기반으로 공간 콘텐츠를 기획 및 실행하는 공간 비즈니스나 여러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마을호텔 개념을 도입한 지역재생 사례도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13) 정원엽·김정민(2021, 4월 7일 기사)
- 14) 이영아(2021, 12월 28일 기사)
- 15) 정창윤(2020)

# 2) 생활권 관련 이론 및 정책동향

## ① 도시계획이론 및 연구동향

# □ (생활권 관련 이론의 전개) E.하워드의 전원도시에서 최근 n분도시까지 전개

도시계획이론에서 생활권에 대한 개념은 자족성을 목적으로 하여 전개되어 왔으며, 이에 1900년대 하워드(E. Howard)가 주장한 전원도시론에서 시작하여 1920년대 페리(C.A. Perry)의 근린주구론을 통해 그 개념과 형태가 구체화 되었다. 페리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인구 5,000~6,000명이 거주하는 지역을 근린주구(Neighbourhood Unit)라는 공간적 단위로 정의하고, 주거생활을 보조하는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을 위한계획 방식을 주장하였다. 16) 페리의 근린주구론은 이후 기존 도시근린에서의 일상생활을 강조한 제이콥스(J. Jacobs), 지속가능성의 차원에서 커뮤니티를 중시하는 뉴어바니즘 및 어반빌리지 등에 영향을 주며 전개되어 왔다.

최근에는 기후위기와 감염병 등에 대응해 인구이동·밀집 제한을 극복하기 위한 개념으로 보행·자전거 이동 반경에서 정주·근로·교육·문화·여가 등 일상생활을 충족할 수 있는 15분 생활권, 20분 생활권 등의 n분도시 관련 담론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17)

### [표 2-2] 생활권 관련 도시계획의 이론적 흐름

연도	사회환경 변화	나 주요 도시설계 및	주요 적용사례	생활권 개념	비고	
		생활권 개념	(영·미 신도시 중심)	근린규모 및 인구규모	중심	_
1900	산업혁명 도시인구 증가	• 전원도시론(E. Howard, 1898)	<ul><li>Letchworth(1904)</li><li>Hampstead(1909)</li><li>Welwyn(1919)</li></ul>	• 6,000acre(약 400ha) • 32,000명	• 공공청사, 광장	자족적 생활권
1920	자동차생활 일반화	• 근린주구론(C A. Perry, 1929)	<ul><li>Sunnyside(1924)</li><li>Radburn(1928)</li></ul>	• 반경 400m(약 64ha) • 5,000~6,000명	• 초등학교	
1940	주택 대량공급 고층고밀화	• CIAM 아테네헌장 (1934)	• Harlow(1947)			_
1960	도시의 다양성· 지역성 강조	• J. Jacobs (1969)	<ul><li>Hook(1960)</li><li>Reston(1962)</li><li>Milton</li><li>Keynes(1967)</li></ul>			생활권 확대·중첩

<sup>16)</sup> 국토연구원 국토용어해설, https://library.krihs.re.kr/bbs/content/2\_431 (검색일 : 2022.06.05.)

연도	사회환경 변화	주요 도시설계 및	주요 적용사례	생활권 개념		비고
		생활권 개념	(영·미 신도시 중심)	근린규모 및 인구규모	중심	_
1980	도시의 역사성· 장소성 재인식	• IBA(1977) • R.&L. Krier(1979)	• Seaside(1981) • Kentlands(1988)			지역공동체 및 보행중심 생활권
2000	지속가능한 환경 요구	<ul><li>어반빌리지 (1993)</li><li>뉴어바니즘 (1996)</li></ul>	<ul><li>Poundbury(1993)</li><li>Greenwich Millenium Village(1997)</li></ul>	• (어반빌리지) 반경 400~900m • (뉴어바니즘) 반경 400m	• 커뮤니티시설 (TND) • 대중교통지점 (TOD)	_
2020	기후위기 감염병 디지털 전환	・n분도시		• 보행+자전거 이동 15분권역	• 중심시설의 개념 없음	자족적 소규모 생활권 강화

출처: 권혁삼 외(2008, p.42) 참고하여 연구진 재작성

□ (생활권 설정 목적에 따른 생활권 구성) 근린 단위의 자족성 강화 및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공간적 단위

생활권은 기본적으로 도시계획 및 정책 실행을 위한 '공간적 단위'의 의미를 가진다. 이에 생활권을 설정하는 최초의 목적은 자족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의 단위, 즉 주거지역에서 최대한의 일상생활을 커버할 수 있는 범위를 찾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초기의 생활권 개념은 닫힌 공간의 범위로 인식하여 일정 반경 내 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각종 시설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고, 시설의 위계별 배치를 통해생활권 구성을 유도하였다.

대표적으로 페리의 근린주구에서 근린 내부 공간의 중심부는 주민 교육, 여가·문화 향유가 가능한 시설이 입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해당 시설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이용을 활성화하였고, 이에 따라서 주민 간 교류를 증대하여 공동체 의식 형성을 유도하는 공간 계획을 추구하였다. 한편, 상점 등 상업시설은 근린 외부로 조성하여 인접한 타 근린과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근린 내·외부와 근린 간 상호 접근 용이성을 확보하는 도로 망을 통해 연계되도록 하였다. 18)

전통적인 생활권의 구분 방식은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위계별 생활권 설정 방식으로, 지역의 물리적 규모나 중심적 기능에 따른 광역생활권-대생활권-중생활권-소생활권-근린생활권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은 1970~80년대 국내 주거지계획에서도 다수 적용되었으며, 1990~2000년대까지 국내 도시계획 이론에서는 위계별 생활권의 규모, 공간적 범위를 특정하기 위한 연구나 중심적 기능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 □ (생활권 구분 방식) 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생활권 구분 방식의 변화

전통적으로 생활권을 구분하기 위한 요소로는 주로 주요 시설(node)이나 경계(edge) 등 도시의 물리적 요소를 활용해왔으며, 시설과 경계의 유형은 공공시설·커뮤니티시설을 중심으로 시기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페리의 근린주구이론과 뉴어바니즘, 어반빌리지 등 도시계획의 생활권 이론은 주요 시설을 중심으로 한 반경범위, 즉 공급범위 내지는 세력범위의 개념으로 이론이 전개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생활권에 대한 개념이나 구분 방식 등은 이론적 학술적으로 정형화되지 않은 여건인데, 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물리적 요소가 동일하더라도 도시의 물리적 형태나 인구구성 및 밀도, 이동수단 등에 따라 그 이용 양상이 매우 상이하기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통신기술이나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해 계층적으로 명확한 위계나 경계를 갖는 도시구성이 아닌 상호 교류하고 중첩된 열린 공간으로 구성되는 특성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활권을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구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는데, 과거 물리적 요소를 중심으로 하는 구분 방식에서 사람의 이동, 즉 통행수단에 따른 이동거리·범위 등에 초점을 맞춘 개념으로 변화하였다. 대표적으로는 보행 또는 자전거·대중교통에 의한 n분도시 개념을 들 수 있다.

## □ (생활권에 대한 인식 변화) 사람들의 실제 활동을 반영하는 생활권의 개념 강조

생활권 구분 방식의 변화는 교통수단의 다양화와 함께 관련 데이터의 발달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즉, 통행에 대한 실제 데이터 획득이 어려웠던 과거와 달리 사람·화물의 통행을 측정하고, 이를 OD데이터를 통해 관찰·계량할 수 있게 되면서 현실을 반영한 생활권 구분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19) 즉, 통행 OD데이터뿐 아니라 유동인구 등 카드·통신데이터를 통해서도 사람들의 실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생활권의 범위를 찾을 수 있게 되었고, 이를 역으로 토지이용 및 기능배분 등의 도시계획에 반영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전개되고 있다.

## ② 생활권 관련 계획 및 정책 동향

## □ 도시계획 관련 법령상의 생활권 개념과 공간적 범위

'생활권'의 사전적 정의는 '행정구역과는 관계없이 통학, 통근, 쇼핑, 오락 따위의 일상 생활 활동 범위' 20)를 의미한다. 도시계획 관련 법령상 가장 작은 단위의 생활권은 '일상 생활권' 또는 '근린(소)생활권'이며 일상생활활동(통학, 사교모임, 근린공공서비스, 장보기 등)이 이루어지는 1개 이상의 동·읍·면으로서 생활서비스의 공간적 제공범위와 물리적·사회문화적 공간의 동질성, 각종 자료 취득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경계를 정한다. 21) 법령상의 생활권 개념은 1979년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을 시작으로 「도시공원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농어촌정비법」 등에서 근린주구, 근린공원, 근린생활권, 정주생활권, 기초생활권, 일상생활권 등으로 제시되었다.

[표 2-3] 도시계획 관련 법령상의 생활권 개념 연혁

법령*	년도	용어	규모 기준	비고
1	1979	근린주구	통학거리 1,000m이내	초등학교를 중심시설로 공공시설 이용관계 고려
2	1980	근린공원	유치거리 500m 또는 1,000m이하	근린주거자의 근린공원(1만㎡), 도보권 근린공원(3만㎡)
1	1981	근린주구, 근린주거구역	2500세대(신개발 주거지)	기성주거지는 개발현황에 따르고 신설만 생활권규모 규정
2	1986	근린생활권, 도보권	유치거리 500m 또는 1,000m이하	근린생활권 근린공원(1만㎡), 도보권 근린공원(3만㎡)
1	1987	근린주거 생활권	-	도로 기능에서 근린생활권의 외곽과 골격형성을 구분
3	1990	농어촌 정주생활권	면	생활권을 면사무소와 주민생활거점을 중심으로 봄
4	1999	정주생활권	면(읍)	정주생활권의 개발은 면 지역을 대상
1	2000	근린생활권	2,000세대 미만	신개발지 2천-3천세대 규정, 인접 주거지 고려시 2천 미만
1	2009	생활권	읍면동	생활권의 위계별 구분, '생활권 경계 = 행정경계'
(5)	2005	생활권공원, 근린공원	생활권에 따라 면적 1만~100만㎡	도시공원 위계별 세분화 및 규모 설정
6	2009	기초생활권	시군구	생활기반 확충을 위한 시군구 단위의 생활권
4	2010	정주생활권	면	농어촌 정주생활권의 개발은 면지역을 대상으로 함
6	2014	지역생활권	시군구	생활기반 확충을 위한 시군구 단위의 생활권(용어변경)
1	2014	일상생활권, 소/근린생활권	읍면동	일상생활 활동을 위한 읍면동 1개 이상 규모
1	2014	권역생활권, 대생활권	시군구	자치구(구), 군이 1개 이상, 대도시에 적용가능
7	2022	생활권	-	일상적인 활동을 위해 권역 내 설정한 공간범위로 정의

\*법령 등: ①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現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건설부령 제225호). ②도시공원법시행규칙(現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건설부령 제275호), ③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대통령령 제13063호), ④ 농어촌정비법(법률 제18755호), ③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893호), ⑥국가균형발전 특별법(법률 제18877호), ①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새만금개발청 고시 제2022-2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검색일: 2022.02.08.)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sup>20)</sup> 네이버국어사전, https://ko.dict.naver.com/#/search?query=생활권 (검색일: 2022.02.08.)

<sup>21)</sup>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국토교통부훈령 제1470호.

## □ 생활권 계획의 목적 및 개념의 흐름

생활권은 시설배치 및 인구배분계획을 위한 기준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밀착형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수단으로 점차 변화하였다. 생활권 개념은 1960년대 후반 단지계획에서 인구배분과 인구밀도의 조절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시설의 효과적 공급 및 관리와배분을 위해 활용된 계획적 수단이었다. 이에 생활권계획은 도시의 골격을 형성하는 계획으로 권역 설정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정비사업, 기반시설, 토지이용, 교통 등을 고려한 인구 배분을 명시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 틀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22) 2000년대 이래 보행 중심의 생활가로를 고려하는 신도시 계획이 등장23)하며 생활권을 세분화하여 수요자 중심의 생활밀착형 계획에 대응하는 흐름이 등장하고 있다.

## □ 지방자치단체의 생활권 계획 수립 동향

## • 2030 서울생활권계획

서울시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간극을 해소하는 중간단계의 도시계획이자 주민의 요구와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밀착형 도시계획<sup>24)</sup>으로서 '2030서울생활권 계획'을 최초로 수립하였다. 서울시는 생활권을 5개 권역생활권과 소권역 116개 지역생활권으로 구분하고, 지역생활권을 주민의 일상생활활동을 위한 공간으로서 자치구 행정구역 내 3~5개 행정동(인구 10만 이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림 2-4] 서울생활권계획의 권역생활권(좌)과 지역생활권(우)

출처: 서울특별시(2021, 1월 6일 보도자료)

- 22) 오병록(2012, p.7)
- 23) 백혜선 외(2006, pp.148-149)
- 24) 서울생활권계획, 서울특별시, https://planning.seoul.go.kr/plan/main/intro/intro01.do (검색일: 2022.05.27.)

서울시는 구체적인 실현계획으로서 지역생활권 실행방안(Action Plan)을 2022년까지 62개소에 수립할 예정이며, 각 생활권별 필요한 사업을 ①지역 자족성 강화, ②생활서비 스시설 확충, ③지역맞춤형 사업추진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반영하였다.25)

[표 2-4] 서울시의 지역생활권별 추진 사업

구분	기본방향	세부내용
● 지역 자족성 강화 (지구중심 발전·관리 방안)	<ul> <li>지역 활력의 거점이 될 중심지(지구중심)를 육성해 자치구 단위로 활력 확산</li> </ul>	<ul> <li>자치구 단위의 중심지이자 주민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근린생활의 기반이 되는 지역 설정</li> <li>역세권 개발과 연계한 기반시설 확충,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한 복합개발 유도 등</li> </ul>
② 생활서비스시설 확충	-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를 적재적소에 조성	<ul> <li>보행이용 및 공급불균형 분석 등 종합 고려</li> <li>도서관, 주차장 등 주민 생활에 필요한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 적용</li> </ul>
<b>③</b> 지역맞춤형 사업 추진	- 생활권계획에서 제시하는 지역발전구상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	<ul><li>보행환경 개선, 도시재생사업, 창업지원시설 확충 등</li><li>주민, 자치구 의견 수렴 및 반영</li></ul>

출처: 서울특별시(2020, 12월 3일 보도자료)

##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서울시는 생활권계획을 도입하면서 이를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2022년 3월 디지털 대전환시대에 대응한 미래공간전략으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2040 서울플 랜)'을 발표하였다. 기존의 경직적·일률적 도시계획 규제에서 탈피하여 사회의 여건 반영과 다양한 미래의 도시모습을 담을 수 있는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로 전환을 추구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①보행일상권 도입, ②수변 중심 공간 재편, ③중심지 기능 강화로도시경쟁력 강화, ④다양한 도시모습, 도시계획 대전환, ⑤지상철도 지하화, ⑥미래교통인프라 확충의 6대 공간계획을 제시하였다.26

그 중 다양한 기능을 복합적으로 갖추고 있는 자립적 생활권인 '보행 일상권'은 디지털 대전환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업무공간의 시공간적 제약이 사라지고 주거가 일상생활의 중심공간으로 부상하면서 달라진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새로운 개념의 도시공간이다. 27) '주거' 위주로 형성된 일상생활공간을 전면 개편해 도보 30분 이내 보행권 안에 일자리, 여가문화, 수변녹지, 상업시설, 대중교통거점 등 다양한 기능을 복합적으로 도입하여 자립 생활권으로 조성28)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생활편의시설이 부족한 주거 밀집지

<sup>25)</sup> 서울특별시(2020, 12월 3일 보도자료, p.2)

<sup>26)</sup> 서울특별시(2022, 3월 3일 보도자료, p.2)

<sup>27)</sup> 서울특별시(2022, 3월 3일 보도자료, p.4)

<sup>28)</sup> 서울특별시(2022, 3월 3일 보도자료, p.5)

역의 경우 업무·상업 기능 도입을 위한 용도지역 부여하는 방식으로 조성하고자 하였다.



[그림 2-5] 다양한 기능을 복합적으로 갖추고 있는 자립적 생활권인 보행일상권 출처: 서울특별시(2022, 3월 3일 보도자료)

## • 부산형 15분 도시

부산은 민선9기 제1호 공약사업으로 '부산형 15분 도시 기본구상'을 추진하였으며, 생활권 내 편의시설의 균형 있는 배치로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이동 거리의 최소화로 탄소중립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하기 위한 도시를 목표로 한다. <sup>29)</sup> 부산형 15분 도시는 '보행권을 기반으로 일(상권, 지역일자리), 삶(주거, 의료복지), 쉼(여가오락, 자연), 앎(교육, 동네학습)의 유기적 결합 도시' <sup>30)</sup>를 기본방향으로 하여 접근성, 연대성, 생태성의실현가치를 추구하는 내용으로 2022년 6월 기본구상의 수립을 완료하였다.

15분 도시조성을 위한 계획단위는 '2040부산시 도시 기본계획'상의 가장 하위 단계인 62개 소생활권을 기본단위로 설정31)하였으며, 보행 단위의 도시서비스 관리 단위를 생활보행권으로 보고 '보행을 통해 시민들이 생활편의시설로 접근하고 이웃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맺는 활동영역'으로 도보 15분 단위의 보행권32〉을 설정하였다. 또한 도시구조, 지형, 기능, 주택유형, 생활서비스 등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보행권을 일반형, 단지형, 중심형, 취약형의 4개 유형33〉으로 구분하여 유형별 맞춤형 사업방향을 제시하였다. 부산시는 15분 도시 기본구상에서 제시한 보행생활권 개념을 '2040부산광역시 생활권계획(수립 중)'에 반영할 예정이다.

<sup>29)</sup> 부산광역시(20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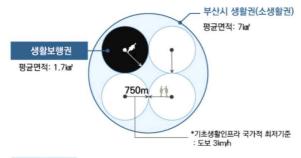
<sup>30)</sup> 부산광역시(2021.9.)

<sup>31)</sup> 부산광역시(2022, p.98)

<sup>32)</sup> 부산광역시(2022, p.8)

<sup>33)</sup> 부산광역시(2022, p.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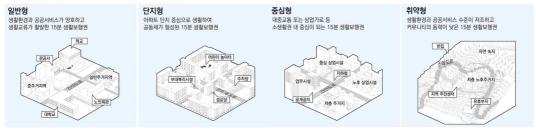
부산시는 15분 도시 확산 모델 사업이자, 마중물사업으로 'Happy챌린지'로 브랜딩하여 2022년 8월 부산진구 당감·개금권, 영도구 신선·남항권, 수영구 망미·수영권을 사업지로 선정하여 예비계획 수립에 착수하였다. 34) 사업은 27년까지 총 1500억원이 투자될예정이며, 사업의 안정성 및 연속성 확보를 위해 관련 조례 제정과 생활권 지수개발 및도시관리체계 구축 등35)을 준비하고 있다.



생활보행권 \*\*절대거리 기준이 아닌, 지역 주민들의 이용활동영역 범위로서 설정

[그림 2-6] 부산형 15분 도시의 생활권과 생활보행권의 공간적 범위

출처: 부산광역시(2022, p.107)



[그림 2-7] 부산형 15분 도시의 생활보행권의 4가지 유형

출처: 부산광역시(2022, p.109)

## • 2040 부산광역시 생활권계획

부산시는 2019년 부산진구와 사상구를 대상으로 주례·개금·가야·당감동 등 4개의 소생 활권으로 구분하고 생활권의 미래상, 9대 목표와 15대 전략을 수립하는 생활권계획 수립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36) 2022년 부산시 전역의 자치구별 3~5개 일상생활권을 대상으로 15분도시 조성과 도시기본계획의 미래상을 생활권별로 구체화하고 발전방향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생활권계획 수립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sup>34)</sup> 부산광역시(2022, 8월 15일 보도자료)

<sup>35)</sup> 부산광역시(2022, 7월 22일 보도자료)

<sup>36)</sup> 부산광역시(2021, 2월 26일 보도자료)

## • 청주시 일상생활권 구축계획 시범사업

청주시는 '2040 청주도시기본계획'에서 중심지체계와 일상생활권으로 도시공간구조를 구분하여 주거, 여가, 소비, 에너지, 돌봄, 의료, 교육 등의 공공서비스를 도보권의 동네 단위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일상생활권 공간 체계를 마련하였다. 37) 2022년 서원생활권을 대상으로 일상생활권 계획수립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주민들의 생활과 밀착된 이슈들을 해결, 보행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일상생활권을 자연지형, 행정동, 세력권등에 따라 설정, 읍면동 협의 및 생활권 경계 조정38)을 계획조건으로 제시하였다.

[표 2-5] 지자체 생활권 계획 및 시범사업 개요

구분	공간적 범위	동네생활권 유사 개념	관련 법령 및 정책
서울시 2030 서울생활권계획(2018)	5개 권역생활권(자치구), 116개 지역생활권	지역생활권(3~5개 행정동, 인구 10만 이내)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서울시 전역(3도심 7광역중심 12지역중심)	보행 일상권 (도보 30분 이내 보행권)	
부산형 15분 도시기본 <del>구</del> 상	부산시 전역, 62개 생활권 대상	15분 도시(보행권 기반), 생활보행권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부산시 민선9기 공약사업
2040 부산광역시 생활권계획 (용역기간 2022 예정)	부산시 전역, 자치구별 3~5개 일상생활권	일상생활권	(15분내 일상활동이 가능한 생활권 조성)
청주시 일상생활권 구축계획 시범사업 (용역기간 2022-2023)	청주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서원생활권	일상생활권(보행권 단위)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출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8380호), 서울특별시(2022, 3월 3일 보도자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814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8830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977호), 부산광역시, (2021.7., p.21), 부산광역시(2021, 2월 26일 보도자료), 청주시 도시교통국(2022)

## □ 미시적 단위의 생활권 계획수립에 대한 요구 증가

도보권 범위 및 일상생활과 밀접한 범위의 생활권 계획 수립은 서울과 부산의 광역지자 체뿐만 아니라 청주시와 같은 기초지자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도시기 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 등 현행 도시계획체계만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정교한 도시관리를 위해 미시적 범위에서의 공간계획의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생활권계획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sup>37)</sup> 청주시(2021), 2040 청주도시기본계획(안), 청주의 미래를 제안하다, 청주시청, https://www.cheongiu.go. kr/www/selectBbsNttView.do?key=279&bbsNo=40&nttNo=182846 (검색일: 2022.05.27.)
38) 청주시 도시교통국(2022, p.7)

들을 구상하는 공간 단위 전략계획으로 볼 수 있으며, 계획수립과정에서도 주민참여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생활밀착형 계획을 수립 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이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여건 변화, 지방자치 분권화에 따른 지역 중심의 목표상 및 실현수단 마련 등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획으로서의 위상과 성격을 가진다.

## 3) 동네 단위 지역 활성화 관련 정책 추진현황

- □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생활권 단위 계획 및 사업
  -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수립 및 생활권 단위 도시재생사업 추진

쇠퇴지역에 대한 지역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실행계획에 해당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으로 구분된다. 그 중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은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39)을 목적으로 수립하며, 30만㎡ 면적상한을 넘지 않고 근린생활의 거점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을 활성화지역40)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시 법정 쇠퇴기준의 충족 여부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사업유형별 필수사업 구상 위주로 활성화계획 수립이 진행되면서 생활권 단위의 지역 현안을 반영하거나 주민 커뮤니티 특성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 왔다.

생활권계획 중심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추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서 도시 기능 회복, 주거환경 불량 지역의 계획적 정비, 노후·불량건축물의 효율적 개량 등을 위해 정비사업에 대한 종합계획으로서 성격을 가진다. 정비(예정)구역은 해당 구역의 과소 필지, 접도율, 건축물의 노후도, 기반시설의 요건을 바탕으로 생활권을 고려하여 계획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비예정구역을 포함한 인근 근린생활권 내에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한 공원 및 녹지 등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정비계획 수립 시 개선안을 제시할 수 있다. 41) 2012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생활권별 주거지의 정비·보전·관리의 방향 등을 포함하는 경우 정비예정구역의 범위 등에

<sup>39)</sup>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7814호, 제2조

<sup>40) &#</sup>x27;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에서는 도시재생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재생권역(생활권)을 도시·군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생활권계획을 따르거나 또는 별도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재생권역 내 지역자원 현황, 도시재생사업 기대효과, 주민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도록 함(국토교통부·건축공간연구원, 2021.3., pp.13-14, pp.22-23)

<sup>41)</sup>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국토교통부훈령 제977호

관한 사항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42)

서울시는 이에 따라 '2025 서울특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정비예정구역 중심에서 생활권 중심의 계획으로 전환하였고,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주택수급계획, 생활권별 주거지 정비·보전·관리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통합적·체계적인 주거지 종합 관리를 도모하고자 한다. <sup>43)</sup>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3~5개로 구분되는 주거생활권별로 생활기반시설계획, 생활가로 활성화계획 등 주거지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2030 서울생활권계획에서 지역생활권 구분 시 주거생활권 구분 프로세스를 활용하여 계획 간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밖에 인천, 대전, 광주, 울산 등에서도 주거생활권을 도입하여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지양하는 대안으로서 주거지 전체에 대한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2-6]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생활권 단위 계획

구분	공간적 범위	범위 설정기준	계획 수립 목적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생활권)	도시지역, 쇠퇴지역(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의 세부 기준 부합, 시행령 제17조), 면적 상한 30만㎡	쇠퇴지역 활성화 및 지역의 종합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정비예정 구역	과소필지, 접도율, 건축물의 노후도, 기반시설의 요건 등	도시기능 회복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정비기반시설 설치
	생활권	-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 및 주택 수급, 생활권별 주거지 정비·보전·관리 방향마련

출처: 국토교통부·건축공간연구원(2021.3., pp.22-2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449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8830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977호) 참고

## □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권 단위 생활편의 및 복지 제공 시설 공급 사업

• 생활밀착형 서비스 공급을 위한 '생활SOC 확충 사업'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서는 기초생활인프라의 범위와 국가적 최저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을 유지 또는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것을 도시재생의 주요 비전으로 두고 있다.<sup>44)</sup> 기초생활인프라 시설은 근린 내 주민의 활동을 고려하여 기능이 구분되며, 시설의 위계와 규모에 따라 마을단위시설(도보 3km/h)과 지역거점시설(차량 25km/h)로 구분, 최저기 준을 시간거리로 정의한다.<sup>45)</sup> 마을단위시설은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의 근린권역

<sup>42)</sup>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개정 이유,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도시및주거 환경정비법/(11293,20120201) (검색일 : 2022.06.04.)

<sup>43)</sup> 서울특별시(2015, p.30)

<sup>44)</sup> 국토교통부(2019)

을 따르며, 지역거점시설은 도시기본계획의 소생활권을 기준으로 시설을 공급한다.

[표 2-7] 기초생활인프라 시설의 구분

구분	공간위계	공급목적	규모	기능복합
마을단위시설	마을(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 기준상 근린권역)	아파트 수준 편의/복지	소규모	소규모 다기능 시설 (마을커뮤니티센터)
지역거점시설	소생활권(국토계획법 상 도시기본계획)	낙후지역 개선	대규모	대규모 복합시설 (도시 커뮤니티센터)

출처: 건축도시공간연구소(2019, p.3)

2018년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 방안' 발표되고, 2019년 4월에는 '생활SOC 3개년 계획'이 마련되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인 '생활SOC 의국가최소수준 이상으로 구축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생활SOC 의국가최소기준은 국민체육센터, 도서관, 어린이집, 돌봄센터 등의 핵심시설을 수요인구와 접근성 기준 등을 바탕으로 설정하였으며,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최저기준으로 도출한 서비스 소외지역을 우선 공급대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2020년부터 생활SOC 복합화사업을 추진하여 2개 이상의 생활SOC 관련 국고보조사업을 하나의 부지에 단일 혹은 연계 시설물로 건립하였으며, 3년간(2020~2023) 530건의 시설 조성을 추진 중이다. 한편, 도시재생전략계획이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기초생활인프라 분석을 실시하고 국가최저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나, 생활SOC 확충 사업을 추진할 시에는 개별 시설단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사업부지 확보여부, 재원조달방안, 필수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생활권 또는 근린단위의 생활SOC의 전략적 조성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

## • 서울시의 '10분동네 생활SOC 확충사업'

서울시는 민선 7기 핵심과제로서 일상생활에 밀접한 생활SOC시설을 10분 도보권 내에 설치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민체감도를 향상시키는 '10분동네 생활SOC 확충사업'을 추진하였다. '10분 동네' 생활기반시설 공급에 대한 행·재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19년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10분동네 생활SOC 확충 3개년(2020-2022)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조례에서는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정·고시된

<sup>45)</sup> 건축도시공간연구소(2019, p.3, p.8)

<sup>46)</sup> 생활SOC(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은 '보육·의료·복지·교통·문화·체육시설, 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 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로 정의(관계부처합동, 2019, p.1)

구역, 해제된 정비구역, 경관지구 및 고도지구, 골목길 재생지역 등으로 제시<sup>47)</sup>하였다. 본 사업은 집에서 도보 10분 거리의 동네 안에서 마을주차장, 쌈지공원,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어르신쉼터 등의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접근성을 고려하여 2022년까지 180여 개 시설 확충을 목표<sup>48)</sup>로 하고 있다. 이에 2019년 13곳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1년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대상지 위주로 11곳이 추가되어 2024년까지 총 24개 생활SOC가 확충될 예정<sup>49)</sup>이며, 생활 기반시설 공급 기본계획은 서울시의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기본계획, 생활권 계획에 부합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표 2-8] 생활권 단위 생활편의 및 복지 제공을 위한 생활SOC 확충 사업

구분	대상	공간적 범위	사업 추진 목적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 근린권역	- 마을단위(도보 3km/h)	기초생활인프라시설
및 생활SOC 확충	- 소생활권	- 지역거점(차량 25km/h)	설치
10분 동네 생활SOC	- 저층주거지(도시재생활성화지	- 도보 5~10분거리	도보권 내 생활SOC
확충사업(서울시)	역 등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	(250m~500m)	시설 확충

출처: 관계부처합동(2019); 서울특별시(2019, 7월 31일 발행); 10분 동네생활SOC, 서울특별시, https://uri.seoul.go.kr/surc/seoulInfo/socBusinessPlan.do (검색일: 2022.06.04.) 참고

## □ 생활권 기반 공동체 활성화 관련 사업

• 인구감소지역 생활권 활성화 계획수립을 지원하는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프로젝트'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프로젝트는 인구감소지역 내 낙후된 생활권 주민과 자치단체가 주도적·맞춤형으로 해결법을 마련하고 미래발전 전략을 담은 '소생활권 사회활성화계획(2023-2027)'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를 통해 우대지원이 담보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으로 자치단체 주도의 사업 기획이 가능하다.50) 소생활권은 공공서비스를 공유할 수 있는 범위의 1개 또는 그 이상의 읍·면·동이나 여러 개 마을로 구성51)되며, 2022년 2월 경기 연천, 강원 태백, 충북 옥천·괴산, 충남 청양, 전북 부안, 전남 영광, 경북 문경, 경남 밀양·의령 10곳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이다.

• 마을단위 주민주도 생활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생활문화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생활문화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생활권 단위 공동체 활동을 통해 지역에서 관계망

<sup>47)</sup>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7423호, 제6조

<sup>48)</sup> 서울특별시(2019, 5월 16일 보도자료), 서울특별시(2019, 7월 31일 발행), 10분 동네생활SOC, 서울특별시, https://uri.seoul.go.kr/surc/seoulInfo/socBusinessPlan.do (검색일: 2022.06.04.)

<sup>49)</sup> 서울특별시(2021, 12월 23일 보도자료)

<sup>50)</sup> 행정안전부(2021, 12월 30일 보도자료)

<sup>51)</sup> 행정안전부(2021, 12월 30일 보도자료)

을 형성하고, 개인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통해 삶의 문화적·사회적 가치를 발견하고 확산하는 사업으로 마을단위 주민조직, 문화예술 단체·기관·시설을 대상으로 한다.52의 주민주도의 다양한 생활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동체 관계 형성을 목표로 하는 '관계형성형', 공동체 회복 및 복원을 목표로 하는 '관계활성화형',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목표로 하는 '관심확장형'으로 구분53)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 생활권기반 연계협력 지원사업54)

인구감소로 인해 기초지자체 행정서비스 규모 감소로 생활권 단위의 유연한 연계협력 사업의 필요성이 증대하면서 생활권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사회적·경제적 조직이나 단체들이 연계 협력하여 지역과제를 점검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발굴하고 실천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광역시·도 내 기초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 또는 기초지자체 내읍·면·동 간 연계협력 사업을 대상으로 지역 기반 활동 조직들이 생활권 단위 사업 발굴이 가능할 때 사업 신청 가능하다. 예를 들어 '돌봄, 교육, 복지시설 공동 이용·운영 방안, 서비스 네트워크 연계협력, 교통, 복지 등 체감 생활서비스의 연계협력, 주민자치회 교육사업 등의 생활권기반 사업 발굴, 성공사례 확산방안, 새로운 사업시도를 위해 지역에 형성된 조직 및 단체들의 연계협력 방안 등을 추진할 수 있다.

[표 2-9] 생활권 기반 공동체 활성화 관련 사업

구분	대상	공간적 범위	사업 추진 목적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인구감소지역 내 소생활권	1개 이상 읍면동이나	주민관계망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행정안전부)		여러 개 마을	공공서비스 공유
생활문화 공동체 지원사업	마을단위 주민조직,	생활권 단위	마을단위 생활문화 활동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단체·기관·시설		통한 관계망 형성
생활권기반 연계협력 지원사업 추진계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광역) 시군구간 (기초) 읍면동간	생활권 단위	지역기반 중간지원조직의 활동 연계 및 협력

출처: 행정안전부(2021, 12월 30일 보도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1, 1월 27일 보도자료), 2022 생활문화공동체 활성화 지원 공모 안내, 문화체육관광부, https://www.mcst.go.kr/kor/s\_notice/notice/noticeView.jsp?pSeq=16303 (검색 일: 2022.06.04.) 토대로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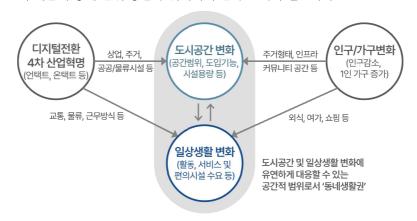
<sup>52) 2022</sup> 생활문화공동체 활성화 지원 공모 안내, 문화체육관광부, https://www.mcst.go.kr/kor/s\_notice/notice/iew.jsp?pSeq=16303 (검색일: 2022.06.04.)

<sup>53) 2022</sup> 생활문화공동체 활성화 지원 공모 안내, 문화체육관광부, https://www.mcst.go.kr/kor/s\_notice/notice/iew.jsp?pSeq=16303 (검색일: 2022.06.04.)

<sup>54)</sup>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21)

# 4) 동네생활권 도입 필요성

• 급변하는 도시공간과 복잡해지는 주민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동네 단위 전략 필요 전통적인 도시계획체계에서는 다변화되는 도시공간 대응에 절차나 구조적인 한계가 있 어, 복잡성이 확대되고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현시점에 첨단 기술과 시장 수요를 도시공 간 정책에 적시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적 유연성이 요구되고 있다.55) 특히 주민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집 주변 근린환경에서의 신속한 대응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 기 때문에 동네 단위 공간 범위에서의 전략 모색이 필요하다.



[그림 2-8]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도시공간과 일상생활의 변화 관계 출처 : 연구진 작성

• 지역기반 수요자 맞춤형 공간관리 전략 마련을 위한 도시계획체계 여건 변화

그간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만으로 운영하기 어려움이 있는 도시관리를 위해 생활권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청주시에서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괴리된 규제위주의 하향식 계획이라는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공간 계획으로서 주민들의 생활과 밀착된 계획이자 보행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일상생활권 계획 수립 시범사업을 추진 중56)에 있다. 서울시에서도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통해 비대면·디지털 전환 및 초개인·초연결화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와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주거용도 위주 일상공간을 전면 개편한 도보 30분 자립생활권으로서 '보행일상권' 개념을 제시하는 등 공간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57) 이처럼 기존의 경직된 방식의 도시계획체계로 대응하기 어려운 지역밀착형 계획 수립과 생

<sup>55)</sup> 윤서연 외(2021, pp.93-94) 참고

<sup>56)</sup> 청주시 도시교통국(2022)

<sup>57)</sup> 서울특별시(2022, 3월 3일 보도자료)

활양식의 변화에 대응한 공간전략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 • 「국토계획법」 개정 등 중앙정부의 제도화 추진과 생활권 중요성 증대

제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기후위기, 저성장 등 뉴노멀시대에 들어서면서 다양한 국토 공간 이용양상에 대응하고, 지방소멸이나 탄소중립 등 도심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도시공간 혁신과 도시·지역 간 격차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수요자 맞춤형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밀착형·상 향식 도시계획 요구에 대응, 코로나19 이후 도보생활권에 주거, 일자리, 여가·복지를 누릴 수 있는 생활권 조성을 위해 생활권계획이 도입될 예정이다. 58) 이 계획에 따라 다양한 지역개발 사업 연계 및 투자방안도 마련될 예정으로 점차 생활권 계획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 •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공간관리와 근린 단위 활성화 정책 추진 필요

기존 도시계획체계에서는 인구배분, 재화 및 서비스 전달체계 마련을 위해 하향식 권역 구분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여 왔다. 또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공공 및 전문가가 함께 계획 수립을 추진하더라도 이미 정해진 공간적 범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지역현안 대응방식, 지역 커뮤니티 참여체계 등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에는 구역계의 경직성으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지역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지역자원 현황, 지역 커뮤니티 특성, 지역문제 및 과제 등에 따라 근린 단위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에 대한 검토 필요한 시점이다.

## • 지역밀착형 도시공간 정책 추진을 위한 공간적 범위 및 전략 검토 필요

근린 단위 계획에서는 행정구역계, 또는 각종 시설의 서비스 범위 등을 기준으로 계획수립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도시재생사업에서는 인구 수, 사업체 수, 노후건축물 수의 변화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설정하고 쇠퇴문제 해소를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 물리적 특성 기반으로 접근한 구역계 설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주민들의 다양한 일상생활을 수용하고 일상생활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생활패턴과 활동 특성, 커뮤니티 특성 등을 기반으로 지역에 필요한 생활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거지 유형별 특성과지역 현황에 따라 동네 단위로 필요한 핵심기능을 집약하고 생활서비스 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동네거점 조성이 필요하며,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공급방식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2. 동네생활권 개념 및 일상생활활동 구분

# 1) 동네생활권 개념 및 특징

□ 일상생활활동이 이루어지는 주거권역으로서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공간 범위

본 연구에서는 동네생활권을 주거를 중심으로 통학, 사교모임, 근린공공서비스, 장보기 등의 일상생활활동이 이루어지는 동네·근린 단위 도시공간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공간적 범위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고 지역 문화와 정체성의 형성 및 공유, 지역의 각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로 볼 수 있다.59)

## □ 동네생활권의 특징

• 이용권 + 디지털 전환 등 사회변화 현상을 반영한 서비스 전달·교류 방식 적용

동네생활권은 도시행정을 위한 범위나 각종 시설 입지계획 수립을 위한 '세력권' 개념이 아닌 오프라인 시설 이용을 위한 이동범위(이용권)에서 디지털 전환 등 사회적 변화 현상을 반영한 온·오프라인 상의 서비스 전달 및 교류 방식 등까지 반영한 특징을 갖는다.

[표 2-10] 세력권-이용권-동네생활권 관련 개념 비교

구분	세력권	이용권	동네생활권
개념			
	<ul> <li>시설 도입기능 및 서비스 도달 범위</li> <li>행정권, 통근권/통학권, 공공시설 이용권, 역세권</li> </ul>	<ul><li>시설 이용을 위한 이동범위</li><li>일상생활 반경</li><li>도보권, n분도시</li></ul>	<ul> <li>서비스 도달 범위 및 시설 이용을 위한 이동범위</li> <li>일상생활 반경, (초)근린 생활권, 지역밀착 생활권 등</li> </ul>
범위 설정 기준	- 인구밀도 - 행정경계 및 물리적 요소	- 이동시간, 이동거리 - 통행수단별 이동범위	- 이동시간, 이동거리 - 온·오프라인 교류 범위
개념 적용 사례	- 기초생활인프라 공급계획 - 유통업무시설 입지계획	<ul><li>- 공원계획(위치, 규모, 기능 배분)</li><li>생활상권 조성계획</li></ul>	<ul><li>근린 활성화 관련 사업 범위</li><li>서비스 공급 및 플랫폼 구축 (커뮤니티, 생활서비스 등)</li></ul>

출처: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470호), 오병록(2014, p.4), 서울특별시 노동민생정책관(2019.10.) 참고하여 연구진 재작성(세력권, 이용권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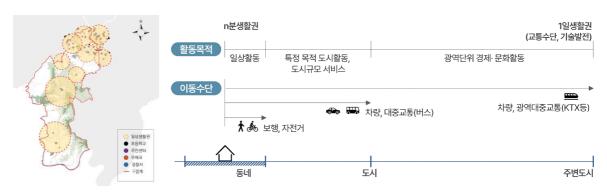
59) 모종린(2022, 2월 4일 기사) 참고

•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맞추어 전략적으로 설정하여 장소 중심의 지역발전 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단위로 접근

도시공간에 대한 수요나 공간구조의 변화, 주민들의 생활패턴의 변화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로서 획일적 분구, 지자체 전역의 구획을 통한 경직적인 생활권 구분이 아닌 도시·지역별 특성에 따라 전략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생활권에 해당한다. 디지털 전환에 따라 변화된 기술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오프라인에서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공공서비스 공급과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주민들의 생활방식에 대응할 수 있는 장소 중심의 지역발전 정책 추진 기본단위로 접근한다.

• 교통기술 발달에 따른 하루 최대 이동가능 범위의 일일생활권이 아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상생활 편의 증진 등 근린 활성화를 위한 근거리 생활권에 해당

교통수단에 따른 주민들의 최대 이동범위 확대나 디지털 기술에 의존한 언택트 (untact)·온택트(ontact) 방식의 확산은 원거리 이동, 다중 집중, 익명성을 특징으로 하는 라이프 스타일과 관련이 깊다. 일상에서 로컬택트가 원활해지고 라이프 스타일이 안착되기 위해서는 근거리 범위 안에서 신뢰를 기반으로 분산형으로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로 전환하기 위한 조건들(인프라 구축, 인적·물적 자원과 프로그램 투입)이 갖춰져야 한다.60) 동네생활권은 교통기술의 발달에 따라 늘어난 최대 이동가능 범위의 일일생활권이 아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상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대응할 수 있는 근거리생활권에 해당한다.



[그림 2-9] 동네생활권 범위: 지역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설정(좌), 활동목적과 이동수단에 따른 구분(우) 출처: 청주시 도시교통국(2022)(좌), 연구진 작성(우)

# 2) 동네생활권 내 일상생활활동

## ① 일상생활활동 유형 구분

동네생활권은 주민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주거권역으로서 이를 구분하기 위해 일상 생활활동 유형과 세부시설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체계, n분도시, 일상생활활동 이론 및 정책자료, 선행연구, 통계·행정자료 등 각종 문헌자료를 검토하였다.

[표 2-11] 일상생활활동 유형 및 세부시설 도출과정

구분	검토대상		세부내용
(1단계) 일상생활활동	생활권의 공간적 범위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상의 일상생활권	일상생활활동
유형 구분	기초생활인프라 시설	근린 내 생활서비스 및 생활지원서비스 시설	주민활동을 고려한 생활밀착형 주민편의 서비스 시설 유형
	국내외 n분도시 도입기능 및 설정기준	부산형 15분 도시 계획구상(부산연구원)	부산형 10대 동네생활기능표준
		캐나다 오타와 15분 네이버후드	도보권 내 서비스 및 편의시설
		중국 광저우 15분 커뮤니티 라이프 서클	9 + X 생활권 시설 구성 표준
(2단계)	일상생활활동 빈도 및 특성	도시설계 이론(얀겔)	필수적/선택적/사회적 활동
일상생활활동		생활시간조사(통계청)	생활시간 및 행동분류
특성 검토 및 관련 시설 도출	일상생활활동	근린지역 내 보행활동특성 관련 선행연구	보행활동 목적별 방문시설
	관련 시설	생활밀착업종(통계청, 국세청, 서울시 등)	업종 유형 및 세부 분류
		O2O 서비스(과학기술통신부)	O2O서비스 분야

출처 : 연구진 작성

## □ 생활권의 공간적 범위 기준 : 주민들의 일상생활활동이 이루어지는 범위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에서 생활권은 일상 또는 근린(소)생활권, 권역(대)생활권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 중 일상생활권은 통학, 사교모임, 근린공공서비스, 장보기 등과 같은 주민의 일상생활활동이 이루어지는 읍면동 1개 이상인 규모이며, 생활권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통근, 통학, 여가, 친교, 쇼핑, 업무 등 주민의 일상생활활동과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는 범위로 명시<sup>61)</sup>라고 명시하고 있다.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상생활활동 을 종합하면 ①통학, ②장보기·쇼핑, ③사교모임·친교, ④여가, ⑤근린공공서비스, ⑥업무·통근으로 구분할 수 있다.

<sup>61)</sup>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국토교통부훈령 제1470호.

## ※생활권 계획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제13절)

## 4-13-1. 생활권의 구분

- (1) 생활권의 구분은 도시의 규모에 따라 달라 질수 있으며, **일상 또는 근린(소)생활권**, 권역(대)생활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 (2) **일상생활권은 주민의 일상생활활동(통학, 사교모임, 근린공공서비스, 장보기 등)**이 이루어지는 정도로써 동, 읍, 면이 1개 이상인 규모로 볼 수 있으며 특광역시, 대도시, 일반 시·군 모두 적용 가능한 생활권이다.

## 4-13-2. 생활권계획의 성격 및 범위

- (1) 생활권계획은 부문별 계획의 하나로서, 전체 도시 군기본계획의 내용을 생활권별로 상세화한 계획이다.
- (2) 공간적 범위는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 및 생산활동(통근, 통학, 여가, 친교, 쇼핑, 업무 등**)이 이루어지는 범위로 한다.

출처: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국토교통부훈령 제1470호.

## □ 기초생활인프라 시설 유형

기초생활인프라 시설은 생활밀착형 주민편의 서비스, 도시재생 파급효과 제고를 위한 민간영역 시설을 포함하며, 일상활동 및 여가활동과 관련된 생활서비스 시설과 행정, 안 전·방재, 교통 등의 기능을 하는 생활지원서비스로 구분하고 있다.

# [표 2-12] 기초생활인프라 시설 유형

주체	기능영역	지역거점시설		마을단위시설	
생활 일상	의료	보건소		기초의료시설	의원, 약국,
활동		응급실운영 의료	응급실운영 의료기관		건강생활지원센터
	교육	_		초등학교	
				유치원	국공립/사립/전체 유치원
	학습	공공도서관	국공립/시·도립/ 교육청 도서관	도서관	공공/사립/작은도서관
	돌봄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마을노인복지 시설	경로당, 노인교실
		_		어린이집	국공립/민간/전체 어린이집
여가	교제	지역 커뮤니티	센터	마을공동시설,	마을공동작업소 등
활동	체육	공공체육시설	경기장, 체육관, 수영장	생활체육시설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수영장, 간이운동장
	휴식	지역거점공원( <u>!</u> 이상)	묘지공원 제외, 10만㎡	도시공원(묘지	공원 제외)
	문화	공공문화시설	문화예술회관, 전시시설	-	
생활지원	행정	우체국		주민센터(복합	커뮤니티센터)
서비스	안전/방재	경찰서, 소방서		_	
		소방용수시설		보안등, CCTV	등
	교통	저류시설	·	_	
	유통·공급	도심주차장		공영주차장	

주체	기능영역	지역거점시설	마을단위시설	
	환경기초	상수도, 하수도	_	
	생활편의	-	주거편의시설	폐기물 보관시설
			소매점	생필품 구매를 위한 소매점

출처: 건축도시공간연구소(2019, pp.3-4)

# □ 국내외 n분도시의 도입기능 및 설정기준

• (부산형 15분 도시 계획구상) 부산형 10대 동네생활기능표준

부산연구원에서 제시한 '부산형 15분 도시 계획구상'에서는 도시생활 속에서 사람의 몸과 마음을 만족하기 위해 기초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시설·공간·프로그램을 일상생활의 10대 기본요구(머물기, 다니기, 쉬기, 튼튼하기, 배우기, 사고팔기, 즐기기, 일하기, 아픈 곳 고치기, 잘 있기)로 정리하였다.62) 10대 기본요구에 대한 동네생활기능을 '주거, 이동, 휴식, 운동, 학습, 상업, 문화, 노동, 의료, 돌봄'으로 구분하였고, 이에 따른 세(細) 생활권 구분은 주민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동네에 해당하며 생활편의 및 주민 공동지원 기능이 집결된 곳으로 정의하였다.63)

[표 2-13] 일상생활 10대 기본요구 및 부산형 10대 동네생활기능표준

no.	기본요구	관련 시설 등	동네생활기능
1	머물기	집(방), 마당(거실), 나무(정원, 꽃밭 등)	주거
2	다니기	보행길, 지하철, 버스 등	이동
3	쉬기	의자(파고라), 놀이터, 공원, 광장 등	휴식
4	<del>튼튼</del> 하기	운동장, 체력단련장 등	운동
5	배우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초중고) 등	학습
6	사고 팔기	슈퍼마켓, 시장, 카페, 은행 등	상업
7	즐기기	공연장, 전시관, 도서관 등	문화
8	일하기	일터, 원격 일터	노동
9	아픈 곳 고치기	약국, 보건소, 병원	의료
10	잘 있기	소방소, 파출소, 에너지시설, 복지 등	돌봄

출처: 박상필 외(2022, p.54), 박상필(2022, p.12)

• (캐나다 오타와 15분 네이버후드) 도보권 내 필요한 서비스 및 편의시설 캐나다 오타와시는 기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주택, 상점, 서비스시설, 커뮤니티시설 등

<sup>62)</sup> 박상필 외(2022, p.54)

<sup>63)</sup> 박상필(2022, p.12)

을 포함한 다양한 토지용도를 가진 15분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성장관리 전략을 추진하였다. 이에 15분 네이버후드 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시민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도보 15분 이내에 필요한 서비스 및 편의시설의 항목과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①식료품 가게 및 슈퍼마켓, ②공원, 놀이터, ③소매상점 및 상업시설(서점, 세탁소, 애완동물 샵, 빵집 및 기타 편의시설), ④버스 정류장, ⑤병원, 치과 및 약국 등의 의료서비스 시설, ⑥트램 등의 철도 교통시설, ⑦도서관 등 실내 활동 및 커뮤니티시설, ⑧초등학교 등의 교육시설, ⑨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의 9가지 시설을 도출하였다.

• (중국 광저우 15분 커뮤니티 라이프 서클) 9개의 기반시설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공공시설(X)

중국 정부는 2021년 지역 사회의 공공서비스 시설확충을 위해 도보와 퍼스널 모빌리티, 대중교통을 이용해 생활편의시설과 서비스를 15분 내 이용할 수 있도록 중국 30개 도시에 15분 도시 생활권조성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하였다.64)

중국 광저우시는 다원화된 지역사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9+X 생활권 시설 구성 표준'을 마련, 도시 지역사회, 향촌 지역사회, 산업 지역사회로 구분하고 지역 특성별 인구 규모를 고려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9'는 교육, 의료, 문화, 체육, 양로, 행정, 공공장소, 교통, 편의 상업시설 등 생활권에서 균형을 이뤄야하는 9가지 기반시설이며, 'X'는 노령화 지역, 국제화 지역, 혁신 지역, 정주 지역 등 지역별 인구구조, 주거형태, 생활특성에 따라 차별화하여 공급해야할 공공시설을 의미한다.65)

[표 2-14] 중국 광저우 9+X 생활권의 지역특성별 차별화된 공공시설(X) 유형

지역유형	증설 시설	설치 기준	서비스 반경	공간구획
노령화 지역	노인 식당, 노인교육원	계수 2~4마다 의료 및 양로시설 설치기준 상향조정	도보 5~10분 이내	지역사회 공공공간에 설치 (이용빈도 높은 시설 중점배치)
청년지역	지역사회 학교, 도서관, 축구장	계수 1.2~1.5마다 문화, 체육, 주민편의시설 설치 규모 상향조정	_	분산하여 설치 (집약적설치주의)
아동친화적 지역	어린이 돌봄센터, 도서관, 놀이터	계수 1.2~1.5마다 기초교육, 취학 전 교육시설 설치 규모 상향조정	도보 10분 이내	-
정주지역	취업훈련센터, 유동인구 서비스센터	계수 1.2~1.5마다 공공관리시설 설치 규모 상향조정	_	시장 중심 집중 배치

출처: 周岱霖·胡嘉佩 (2021)

<sup>64)</sup> 장정재(2022, p.2)

<sup>65)</sup> 장정재(2022, p.3)

'X'로 공급되는 시설은 지역사회별 인구구조와 서비스 수요에 따라 상황을 고려한 차별 화된 시설 설치 가이드를 제시하여, 생활권 내 설치현황에 따라 '표준리스트'를 참고하여 증설 시설을 도출하고 부지 조건, 도시개발 등 요소를 고려하여 서비스 반경의 공간 구획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X에 해당하는 지역의 유형은 노령화지역, 청년지역, 아동친화지역, 정주지역의 4개로 구분하여 설치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다른 유형과 달리 노령화지역과 아동친화지역의 서비스 반경을 도보 5-10분 이내로 설정하고 있다.

## □ 종합: 일상생활활동 유형 구분

국내외 사례 검토를 통해 일상생활활동 유형과 관련 시설의 기능을 종합해보면 통학, 돌봄, 의료, 사교, 여가, 근린서비스, 장보기 등의 11개 활동과 15개의 기능으로 구분할 수있다. 생활권은 일상생활활동의 종류나 특성에 따라 분류할 수 있고, 특정목적에 따른 통학권, 역세권 등으로도 구분될 수 있으나, 생활권계획에서의 생활권은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여 반복적인 일상생활의 범위를 의미한다.66)

즉, 다양한 일상생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적 범위로서 동네생활권을 정의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실제 주민들의 활동 특성에 기반한 생활권 설정과 그에 따른 다 양한 기능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표 2-15] 일상생활활동의 유형 구분 종합

도시·군기본계획수립 지침(일상생활활동)	기초생활인프라 시설		부산형 동네생활기	-	오타와시 15분 네이버후드	광저우 9·X	
활동	서비스/활동	기능	활동	기능	서비스 및 편의시설	시설	
통학	생활/일상활동	교육	배우기	학습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	교육	
		학습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_	생활/일상활동	돌봄	잘 있기	돌봄	_	노인요양	
-	생활/일상활동	의료	아픈 곳 고치기	의료	병원, 치과 및 약국 등의 의료서비스시설	의료	_
사교모임, 친교	생활/여가활동	교제	_	_	도서관 등의 실내 활동 및 커뮤니티 시설	공공장소	-
여가	생활/여가활동	문화	즐기기	문화	-	문화	-
		체육	튼튼하기	운동	공원, 놀이터	체육	-
		휴식	쉬기	휴식	-		
근린공공서비스	생활지원서비스	행정	<b>-</b> .	-	<del>-</del> .	행정	-

>		_	네생활권의 실상생활활동
	no.	활동	기능
	1	통학	교육
			보육
	2	돌봄	돌봄
	3	의료	의료
	4	사교	사교
	5	여가	문화
			체육
			휴식
	6	근린 서비스	공공서비스

도시·군기본계획수립 지침(일상생활활동)	기초생활인프리	<b>나 시설</b>	부산형 ' 동네생활기		오타와시 15분 네이버후드	광저우 9·X	
활동	서비스/활동	기능	활동	기능	서비스 및 편의시설	시설	
장보기, 쇼핑		생활	사고 팔기	상업	식료품 가게/슈퍼마켓	시장 <sup>.</sup>	
		편의			소매상점 및 상업시설	편의상업	
업무, 통근	=	-	일하기	노동	-	_	_
	=	-	머물기	주거	_	_	
-	=	-	다니기	이동	버스 정류장	교통	
-	=	-			트램 등 철도 교통시설		
_	=	-	_	-	-	Х	_

<b>&gt;</b>		_	네생활권의  상생활활동
	no.	활동	기능
	7	장보기	식료품 및 생필품
			소매 및 상업
	8	업무	노동
	9	머물기	주거
	10	다니기	교통
	11	기타	X (지역별 기능)

출처 : 연구진 작성

# ② 일상생활활동 특성 검토 및 관련 시설 도출

# □ 일상생활활동의 빈도 및 특성 구분

• 도시설계 이론: 얀겔의 옥외활동 유형(필수적·선택적·사회적 활동)

얀겔은 공공장소에서 나타나는 옥외활동을 필수적 활동, 선택적 활동 사회적 활동으로 구분하고 물리적 환경의 질적 수준에 따라 활동에 차이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필수적 활동은 목적 지향적이고 일상적인 활동으로서 통근, 통학 등과 같이 선택의 여지가 없는 활동이며, 선택적 활동은 물리적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 활동으로 거리를 걷거나, 앉거나, 구경을 하는 등의 활동을 말하며, 사회적 활동은 선택적 활동이 연속적·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사회적 접촉과 커뮤니티의 활동에 해당한다.

[표 2-16] 얀겔의 옥외활동 구분

구분	내용	행동의 예	물리적 환경의	질
			열악	양호
필수적 활동	목적 지향적이고 일상적인 활동	통근, 통학, 생필품 구입 등	•	•
선택적 활동	위락적이고 선별적인 활동	산책, 휴식, 햇볕 쬐기 등	•	
사회적 활동	사람들 간 다양한 접촉을 위한 예측불가, 즉흥적 활동	놀이, 대화, 관찰, 사교 등	•	•

출처 : 얀겔(2003, p.19), 민현석 외(2018, p.7)

## • 통계청 생활시간조사의 행동 및 생활시간 분류

통계청은 국민의 하루 시간사용 형태를 파악하여 국민의 생활양식 및 삶의 질을 측정할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생활시간조사를 실시하였다. 67) UN통계위원회에서 공표한 국제행동분류(ICATUS2016)를 준용하여 크게 9가지 행동(개인유지, 일, 학습, 가정관리,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자원봉사 및 무급연수, 교제 및 참여활동, 문화 및 여가활동, 이동)을 분류하였다. 생활시간은 잠, 식사 등 개인유지를 위해 필요한 '필수시간', 일, 학습, 가사노동, 이동 등 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 '의무시간',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여가시간'으로 구분하고 있다. 68)

[표 2-17] 통계청 생활시간조사의 행동 및 생활시간 분류

	행동분류(대분류)	행동분류(중분류)	생활시간
1	개인유지	수면, 식사 및 간식 섭취, 개인건강관리, 개인위생 및 외모관리	필수시간
2	일	법인, 정부기관, 비영리단체 등의 일, 가계비법인기업의 일, 무급가족 일, 기타 일 관련 활동, 구직 및 창업활동, 자가소비를 위한 일	
3	학습	학교활동, 학교활동 외 학습	
4	가정관리	음식준비, 의류 관리, 청소 및 정리, 주거 및 가정용품 관리, 차량 관리 및 유지, 반려 동물 및 식물 돌보기, 상품 및 서비스 구입, 기타 가정관리	
5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만 10세 미만 아이 돌보기, 만 10세 이상 미성년자 돌보기, 장기 돌봄 필요 성인 돌보기, 독립적인 성인 돌보기	의무시간
6	자원봉사 및 무급연수	비조직 기반(직접) 자원봉사, 조직 및 공동체 기반의 자원봉사	여가시간
7	교제 및 참여활동	교제활동, 참여활동, 종교활동, 의례활동	
8	문화 및 여가활동	문화 및 관광활동, 미디어를 이용한 여가활동, 스포츠 및 레포츠, 게임 및 놀이, 휴식 관련 행동, 기타 여가활동	
9	이동	개인유지 관련 이동, 일 관련 이동, 학습 관련 이동, 가정관리 관련 이동,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관련 이동, 자원봉사 및 무급연수 관련 이동, 교제 및 참여활동 관련 이동, 문화 및 여가활동 관련 이동	의무시간

출처: 통계청(2020, 7월 30일 보도자료, pp.114-115) 토대로 연구진 재작성

## □ 일상생활활동 관련 시설 분류

## • 선행연구에서의 '보행활동 목적별 방문시설'

최이명(2013)은 보행행태와 근린환경 특성을 분석하여 보행생활권 형성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근린·동네 단위에서 주민들의 보행활동 목적과 방문시설을 검토였다. 보행활동 목적을 교육·보육, 생필품 구입, 대중교통 등 크게 10가지로 구분하였다.

<sup>67)</sup> 통계청(2020, 7월 30일 보도자료. p.112)

<sup>68)</sup> 통계청(2020, 7월 30일 보도자료. 일러두기)

[표 2-18] 근린지역 내 보행활동의 목적별 방문시설

	보행활동 목적	방문시설
1	교육/보육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2	생필품 구입	슈퍼마켓, 편의점, 개별점포, 대형할인점, 재래시장, 노점, 요일마켓
3	대중교통	전철, 버스
4	먹고 마시는 장소	음식점·카페, 빵집
5	근린서비스, 공공기관	은행, 세탁소, 목욕탕, 미용실, 약국, 철물점, 부동산, 책대여점, 구청, 동사무소, 우체국
6	공원/놀이터	놀이터, 소공원, 학교운동장, 대규모공원
7	종교시설	교회, 절, 성당
8	의료	병원, 약국, 보건소
9	소매점	문구점, 의류잡화, 건강식품, 꽃집
10	문화시설	도서관, 마을문고,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 서점, 헌책방

출처: 최이명(2013. p.83)

## • 생활밀접업종의 분류

통계청, 국세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밀접업종을 선정하여 지역 내 창·폐업현황 및 사업자 동향 등 실생활의 경제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생활밀접업종'을 활용하고 있다.

통계청의 '우리동네 생활업종'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요생활업종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전국 사업체조사(2019년 기준)를 활용하여 산업분류(10차)를 기준으로 음식점, 소매업, 생활서비스 등의 8개 분야 71개 업종을 구분한다.

국세청의 '100대 생활밀접업종'은 국민의 경제활동과 실제 생활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업종을 선정하여 관련 사업자의 동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것으로 100개 업종을 소매, 음식, 숙박, 서비스의 4개 분야로 구분하고 있다.

서울시의 '100개 생활밀접업종'은 국세청, 통계청의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서울시 내 사업체수가 많고, 종사자수가 5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체 비중이 높으며, 창업 등 진출입이용이한 업종으로 정의<sup>69)</sup>하고, 100개 생활밀착업종을 외식, 서비스, 소비의 3개 분야로 분류하여 우리동네 마을상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경기도의 '상권분석지원 서비스'에서는 경기도 내 자영업자가 많은 생활밀착업종을 음식점, 서비스업, 소매점의 3개 분야 93개 업종으로 구분하고 있다.

<sup>69)</sup>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 서울특별시, https://golmok.seoul.go.kr/introduce.do (검색일 : 202 2.06.01.)

## [표 2-19] 생활밀접업종 분류

구분	구분		업종
(통계청) 우리동네 생활업종	음식(11	)	한식, 중식, 일식, 분식, 서양식, 제과점, 패스트푸드, 치킨, 호프 및 간이주점, 카페, 기타 외국식
성돌합 <del>호</del>	소매업(	17)	인테리어, 문구점, 서점, 편의점, 식료품점, 휴대폰점, 의류, 화장품/방향제, 철물점, 주유소, 꽃집, 슈퍼마켓, 백화점/중대형마트 외
	생활서브	비스(13)	목욕탕, 이발소, 부동산중개업, 미용실, 세탁소, 은행, 생활용품임대 외
	숙박(4)		호텔, 여관(모텔포함) 및 여인숙, 펜션, 민박
	여가생활	발(6)	PC방, 노래방, 극장/영화관, 도서관/박물관, 생활체육시설, 여행사
	교육(11	)	교습학원, 어학원, 예체능학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어린이보육업, 기술직업훈련
	의료(5)		병원, 동물병원, 약국, 한방병원, 기타의료업
	공공(4)		우체국, 행정기관, 경찰/지구대, 소방서
(국세청) 100대	소매(36)		가구점, 가전제품 판매점, 건강 보조식품 가게, 건어물가게, 곡물가게, 과일가게, 꽃가게, 담배가게, 문구점, 생선가게, 서점, 슈퍼마켓 외
생활밀접업종	음식(12)		간이주점, 구내식당, 기타외국식전문점, 기타음식점, 분식점, 일식전문점, 제과점, 중식전문점, 커피음료점, 패스트푸드점, 한식전문점, 호프전문점
	숙박(2)		여관·모텔, 펜션·게스트하우스
	서비스 (50)	병·의원 (13)	내과·소아과 의원, 동물병원, 산부인과 의원, 성형외과 의원 외
		전문직 (9)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법무사, 변리사, 변호사, 세무사
		교육(5)	교습학원, 교습소·공부방,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스포츠교육기관, 예술학원
		기타(23)	가전제품 수리점, 간판광고물업, 결혼상담소, 노래방, 당구장, 독서실 외
(서울시) 100개	외식(10	))	한식음식점, 중식음식점, 일식음식점, 양식음식점, 제과점, 패스트푸드점, 치킨전문점, 분식전문점, 호프·간이주점, 커피·음료
생활밀접업종	서비스(47)		서비스업, 일반교습학원, 외국어학원, 예술학원, 컴퓨터학원, 스포츠 강습, 일반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동물병원, 변호사사무소외
	소매(43	3)	소매업, 슈퍼마켓, 편의점, 컴퓨터및주변장치판매, 핸드폰, 주류도매, 미곡판매, 육류판매, 수산물판매, 청과상, 반찬가게, 일반의류 외
(경기도) 93대	음식점(	17)	한식 일반음식점, 한식 면요리 전문점, 한식 육류요리 전문점, 한식 해산물요리 전문점, 중식 음식점, 일식 음식점, 서양식 음식점 외
생활밀접업종	서비스입	업(30)	여관업, 민박업, 기숙사·고시원, 그 외 기타 숙박, 부동산 중개업, 일반 교과학원, 방문 교육학원, 태권도·무술학원, 기타 스포츠 학원 외
	소매점(	46)	슈퍼마켓, 편의점, 기타 음 · 식료품, 곡물 · 곡분 · 사료, 육류, 건어물 · 젓갈류, 신선 · 냉동 · 수산물, 채소과일, 건강보조식품 외

출처: 국세청(2017, 11월 29일 보도자료, p.17), 통계지리정보서비스, 통계청,

https://sgis.kostat.go.kr/view/newhelp/so\_help\_10\_0 (검색일: 2022.06.01.),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 서울특별시, https://golmok.seoul.go.kr/introduce.do (검색일: 2022.06.01.), 상권분석지원서비스, 경기도, https://sbiz.gmr.or.kr/ (검색일: 2022.06.01.)

## • 온오프라인 연계(O2O) 서비스 분야

O2O 서비스 분야는 실시간으로 이용자와 서비스 공급자를 연결하는 서비스로 2018년 시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20년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되어 관련 산업분야에 정확한 사업통계 분석으로 활용되고 있다.70)

O2O 서비스의 산업분류는 ①건물 임대, 중개 및 유지보수, ②세탁, 청소 및 가사 서비스, ③의료 및 보건 서비스, ④운송 서비스, ⑤오락, 스포츠, 문화 및 교육 서비스, ⑥음식점 및 숙박 서비스, ⑦개인 미용, 금융 및 보험, 기타 서비스의 총 7개 분야로 분류하고있다. 71) 2020년 O2O 서비스 기업은 총 678개로 전년 대비 123개 증가하였으며, 총 거래액은 약 126조 원으로, 전년(약 97조 원) 대비 29.6% 성장72),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거리두기로 비대면 수요가 커짐에 따라 산업이 확산하고 있으며 다양한 서비스 형태로생활 전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표 2-20] 온오프라인 연계(O2O)서비스 분야

분야	대표기업(서비스)	2022년 기업현황	
건물 임대, 중개 및 유지보수	직방, 호갱노노	77개	11.4%
세탁, 청소 및 가사 서비스	세탁의신, 홈스토리생활	39개	5.8%
의료 및 보건 서비스	똑닥, 메디히어	13개	1.9%
운송 서비스	카카오모빌리티, 배달의민족*	153개	22.6%
오락, 스포츠, 문화 및 교육 서비스	교보문고 바로드림, 공부선배	189개	27.9%
음식점** 및 숙박 서비스	식권대장, 야놀자	80개	11.8%
개인 미용, 금융 및 보험, 기타 서비스	카카오헤어샵, 웨딩북	127개	18.7%
계	-	678개	100.0%

<sup>\*</sup>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음식배달 서비스는 '음식점 및 숙박'이 아닌 '운송 서비스'로 분류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1, 4월 9일 보도자료, p.2)

## □ 동네생활권 설정을 위한 일상생활활동 및 관련시설 도출

• 장보기·구입, 서비스 이용, 여가·사교목적의 일상생활활동

동네생활권의 설정기준으로 일상생활활동을 도출하기 위해, 생활권계획, 기초생활인프라. 국내외 n부도시 설정기준을 검토하여 구분한 일상생활활동 11개 유형(1단계) 중 관

<sup>\*\*</sup> 음식점 예약·주문, 식권발급 서비스 등

<sup>70)</sup>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1, 4월 9일 보도자료, p.1)

<sup>71)</sup> O2O 서비스는 2010년대 급속하게 성장하여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가 계속 나타나고 있어 표준분류체계의 구성이 어려운 한계가 존재하며, 이에 O2O 서비스의 산업분류체계는 변경될 것으로 전망

<sup>72)</sup>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1, 4월 9일 보도자료, pp.1-3)

련 계획에서 다수의 항목이 중첩되는 것을 동네생활권의 일상생활 활동 및 기능으로 보고 '장보기, 외식, 근린서비스 이용, 공공·의료 서비스 이용, 통학, 여가·문화·체육, 친교·사교, 돌봄'의 8개 활동을 도출하였다.

## • 일상생활활동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시설 분류

일상생활활동에 따른 관련 시설의 분류는 기초생활인프라 시설(일상활동 및 여가활동 관련 8개 기능), 통계청의 100대 생활밀착업종(8개 분야)의 관련 시설을 활동특성을 고려하여 재분류하였다. 이에 일상생활활동에 따라 8가지 도입기능을 분류하고, 각 기능과 관련된 시설은 중분류 14개, 세분류 61개로 도출하였다. 디지털 전환 및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른 변화된 서비스 공급체계 특성을 함께 살펴보기 위해 O2O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및 시설 항목을 함께 검토하였다.



[그림 2-10] 동네생활권의 일상생활활동 및 관련 시설 도출과정 출처 : 연구진 작성

## • 일상생활활동 빈도 및 특성 반영

동네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일상'의 생활로서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특징이 있다. 이에 활동 빈도를 해당 시설의 이용 빈도로 보고 일 단위(daily), 주 단위(weekly), 월 단위 (monthly), 필요시 이용으로 구분하였다. 활동 목적에 따라서는 선택의 여지없이 해야 하는 필수 활동인지, 가능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활동인지, 커뮤니티 성격의 사회적 활동인지에 따라 필수·선택·사회 활동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일상생활활동이 온·오프라인으로 연계되어 이루어지는 활동방식을 고려하기 위해 온라인 서비스 가능 여부와 제공되는 상품 또는 재화의 형태를 소비재와 서비스로 구분하였다.

[표 2-21] 동네생활권 설정기준으로서 일상생활활동 및 관련 시설

활동	관련 시설		활동빈도	활동특성			O2O서비스		분류
	중분류	세분류	(이용빈도)	필수	선택	사회	유무	형태	출처
장보기	식료품· 생필품	시장, 중대형마트	weekly	•			•	소	[1]
		슈퍼마켓, 편의점, 식료품점	daily	•			•	소	[1]
	비생필품	문구점, 완구점	weekly		•		•	소	[1]
		꽃집, 잡화점, 철물점	monthly		•		-	-	[1]
외식 외식		음식점·카페, 제과점	daily	•	•	•	•	소	[1]
근린서비스 이용	생활편의 서비스	목욕탕	weekly		•		-	서	[1]
		세탁소, 이용원, 미용실	monthly		•		•	서	[1]
		택배/배달서비스	monthly		•		•	서	[1]
공공·의료	공공서비스	우체국, 민원행정기관	필요시	•			•	서	[1]·[2]
서비스		경찰/지구대, 소방서	필요시	•			-	-	[1]·[2]
이용	의료	약국	필요시	•			-	-	[2]
		병원, 의원, 한방병원	필요시	•			-	-	[2]
통학	통학 (교육기관)	초등학교, 중학교	daily	•		•	-	_	[2]
	통원 (보육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daily	•		•	-	_	[2]
	통원(학원)	학원, 스튜디오, 화실	daily		•		-	-	[2]
여가·문화·	문화	도서관	daily	•	•		-	-	[2]
체육		영화관	monthly		•		•	서	[1]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필요시		•		-	-	[2]
	공공 체육시설	체육관, 생활체육시설	daily	•		•	-	-	[2]
		공원, 놀이터, 운동장	daily	•		•	-	-	[1]·[2]
	종교	교회, 성당, 절	weekly			•	-	-	[3]
친교·사교	교 친교·사교 경로당, 마을공동시설, 커뮤니티시설		daily	•		•	-	_	[1]
돌봄	돌봄·복지	마을노인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daily	•		•	-	_	[2]

<sup>\*</sup>분류출처 : [1] 통계청 생활밀착업종 / [2] 기초생활인프라 / [3] 최이명(2013)

출처 : 연구진 작성

<sup>\*</sup>O2O서비스 형태 : '소' - 소비재 중심. '서' - 서비스 중심

# 제3장 국외 동네생활권 계획 및 정책 사례분석

- 1. 분석개요
- 2. 동네생활권 계획 수립 및 정책 추진 사례
- 3. 소결

# 1. 분석개요

# 1) 분석목적

근린, 네이버후드(neighborhood), 커뮤니티(community), 생활권 등 다양한 용어와 개념과 관련된 동네생활권은 지역과 국가 특성 등에 따라 다른 목적과 방식으로 설정되며 그 활용 사례도 매우 다양하다. 서비스 시설로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15분 생활권으로 설정하기도 하고, 기존 생활권을 세분화하여 지역과 장소의 특성을 강화하기 위한 도시설계 전략을 수립하기도 하며, 도시계획 수립 시 도시 내 개발·투자 대상지역으로서 동네생활권을 활용하기도 한다. 또한 도시 전체를 동네생활권으로 세분화하기도 하지만, 특정지역만을 동네생활권으로 설정하기도 한다.

이렇게 다양한 국외의 동네생활권 설정과 활용 사례를 분석하여 계획수립 여건이 다른 우리나라의 동네생활권 수립에의 시사점을 얻기 위해서는 동네생활권의 설정 목적을 명확히 파악하고 각 도시에서 동네생활권을 도시계획과 도시전략 마련에 어떠한 방식 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특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 2) 사례선정 및 분석내용

본 연구는 주민의 일상생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가변적인 계획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로서 '동네생활권'을 설정하고 활용하기 위한 계획과 정책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계획과 정책 관점에서 목적, 설정방식, 활용특징이 차별적인 사례들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장소유형을 구분하는 방법이나 주요 전략 분야 (도시설계, 환경평가) 측면 등과 관련한 도시별 특성도 함께 고려하였다. 네이버후드, 커 뮤니티 차원의 계획과 정책 수단이 발달된 북미와 유럽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이와 함께 최근 중앙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15분 생활권 등 도시공간 관리방안을 세분화하여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한 중국 사례도 포함하여 아시아 국가 차원에서의 시사점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관점과 과정을 통해 선정한 사례는 멤피스, 포틀랜드. 오타와, 상하이, 런던의 동 네생활권 계획과 정책 사례이며 그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 [표 3-1]과 같다.

[표 3-1] 분석대상 사례별 특징

성격	사례명	목적	설정방식	활용특징	대륙
계획	미국 멤피스 종합계획3.0	장소유형에 따른 커뮤니티 특성화	도시전역을 114개 앵커를 중심으로 동네생활권 구분	육성(nurture), 가속(accelerate), 지속(sustain) 지역으로 구분하여 미래 발전전략 특성화	북미
	미국 포틀랜드 2035종합계획 디자인지침	지역특화 도시설계 전략 제시	7가지 특징적인 주요 거점을 대상으로 생활권별 디자인 전략 마련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와 정책을 동네생활권 수준에서 반영하기 위해 도시설계 이미지 구체화	북미
정책	캐나다 오타와 15분 네이버후드	동네생활권 도시환경 평가 및 분석 세분화	도시 전역을 대상으로 지리·경제·사회적 특성을 정밀 분석하여 구분	도시환경의 정교한 평가를 기반으로 동네생활권 단위의 시설 범위 설정, 환경 개선 전략 마련	북미
	중국 상하이 15분 생활권	접근성 강화를 위한 분야별 도시공간관리 세분화	도시 전체를 지역, 구역, 지역사회 위계로 구분	위계적 생활권으로 구분하고 분야별 계획과 정책의 연계 추진방안 마련	아시아
	영국 런던 기회지역	동네생활권 잠재력에 따라 전략적 개발·투자지역 설정	도시기본계획에서 개발·투자 관리 대상지역으로 설정	개발 잠재력이 있는 핵심지역을 설정하여, 대규모 도시 프로젝트와 연계, 주택 및 일자리 공급	유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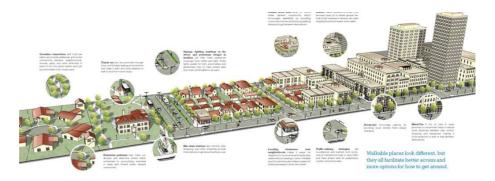
출처 : 연구진 작성

# 2. 동네생활권 계획 수립 및 정책 추진 사례

# 1) 장소유형에 따른 특성화: 미국 멤피스 종합계획(Memphis 3.0, 2019)1)

## □ 계획의 목적 및 특징

멤피스 3.0 계획(Memphis 3.0 Comprehensive Plan, 2019, 이하 '멤피스 종합계획'이라 함)은 중장기 도시종합계획으로서 2019년 수립되었으며 'Build Up, Not Out, 모두에게 연결되고 모두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지속가능하고 번영하는 도시'로서의 비전을 지향한다. 멤피스 종합계획은 지역별 특색에 맞는 커뮤니티 강화와 커뮤니티 간 연결성 향상을 통해 모두에게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가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전략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과거의 성장지향 방식에서 탈피하고 지역의 세부특성에 맞는 포용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동네생활권으로서 네이버후드를 세분화하였다. 토지이용과 밀도에 따라 걷기 좋고 활동적이며 대중교통 중심의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보행친화적인 콤팩트한 네이버후드 조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문별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그림 3-1] 보행친화적 네이버후드의 요소 개념도

출처: City of Memphis(2019, pp.50-51)

토지이용 측면에서 도시의 밀도와 용도를 바탕으로 우선적으로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성장을 유도하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지역의 성장, 상업 및 소매시설, 서비스 및 고용 중심의 지역 성장을 유도한다. 공원 및 녹지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걷기좋은 동네를 만들어 각 지역마다 특징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도시의 천연자원과 자연환경 시스템을 보호하고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한다.

<sup>1)</sup> City of Memphis. (2019). Memphis 3.0 Comprehensive Plan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 □ 동네생활권의 범위 설정 및 활용

멤피스 종합계획에서는 도시공간의 물리적 형태와 특성에 따라 네이버후드 유형을 분류하고 고유한 특성을 가진 장소 조성전략을 추진하였다.2)

• 6가지 장소유형과 11개의 보행친화적 네이버후드 특징 설정

멤피스에서는 '사람을 위한 장소 만들기(Creating Places for People)'를 위해 도시공 간을 6가지 '장소유형(Place Types)'으로 나누고, 이들 장소유형의 조합을 통해 11가지 '보행친화적 네이버후드(Characteristics of Walkable Neighborhoods)'를 구성하는 전략을 특성화하였다.

6개 장소유형은 ① 도시앵커(Citywide Anchors), ② 커뮤니티 앵커(Community Anchors), ③ 커뮤니티(Community), ④ 거리(Corridors), ⑤ 특별용도지역(Special Use Areas), ⑥ 공원 및 시민의 공간(Parks and Civic Spaces)으로 구분된다.

#### [표 3-2] 멤피스의 6가지 장소유형

[11.5	표 3~2) 햄피스의 6가지 성소유영				
구분	유형		주요 내용		
1	도시앵커 Citywide Anchors		<ul> <li>걷기 좋고, 여러 가지 교통수단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장소</li> <li>복합용도의 허브이자 도시를 하나로 묶는 지역</li> </ul>		
2	커뮤니티 앵커 Community Anchors		<ul><li>걷기 좋고, 여러 가지 교통수단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장소</li><li>연결성이 좋은 주거 커뮤니티 중심에 위치한 지역</li></ul>		
3	커뮤니티 Communities		<ul> <li>도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거지역</li> <li>작은 블록과 좁은 도로가 있는 다운타운 근처 지역 또는 대규모 부지와 구불구불한 도로가 있는 교외지역</li> </ul>		
4	거리 Corridors		<ul><li>주요 가로를 따라 위치하는 자동차 중심의 상업지구</li><li>접근성 및 가시성을 위해 자동차 교통에 의존하는 소매 및 서비스 용도가 대부분</li></ul>		
5	특별용도지역 Special Use Areas		<ul><li>산업, 물류 및 운송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li><li>일반적으로 긴 블록과 교차로가 거의 없는 단일 용도의 경제 중심지역</li></ul>		
6	공원 및 시민의 공간 Park and Civic Spaces		- 자연지역, 시민 및 기관 용도, 공원, 녹지, 휴양지 - 가로망보다 지형이나 수로 등에 의해 정의되는 공간		

출처: City of Memphis(2019), pp.48-49의 그림과 내용을 토대로 연구진 정리.

<sup>2)</sup> City of Memphis(2019, p.48)

보행친화적 네이버후드는 사람들이 일상에서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장소들로 구성된 동네로 녹지라인 연결로(Greenline Connections), 보행자 전용 도로(Pedestrian Pathways), 대중교통 이용 (Transit use), 자전거 거치대(Bike share stations) 등의 11가지 요소들로 특징지을 수 있다3).

## • 앵커를 중심으로 한 동네생활권 설정

멤피스 종합계획에서는 앵커의 주변 공간을 밀도와 거리 기준에 따라 1차 주변지역을 '앵커 네이버후드', 2차 주변지역을 '앵커 네이버후드 경계'로 구분하고 있다. 앵커 네이버후드 지역은 도보거리 6분 이내, 앵커에서 1/4마일 범위의 공간으로, 밀도는 앵커보다는 낮고 앵커 네이버후드 경계 지역보다는 높은 지역에 해당한다. 앵커 네이버후드 경계 지역은 도보거리 12분 또는 자전거 거리 2분 이내로, 앵커에서 1/2마일 범위 내 공간에 해당하며 밀도는 가장 낮은 지역이다.



[표 3-3] 앵커와 주변 네이버후드의 범위

출처 : City of Memphis(2019, p.58) 내용과 그림을 토대로 연구진 작성

### □ 동네생활권을 활용한 도시 전략

• 6가지 앵커 유형 설정, 114개 앵커를 중심으로 한 동네생활권 설정과 전략 마련 멤피스 종합계획에서는 네이버후드 단위에서 공간 패턴과 장소적 특징에 따라 6가지 앵커 유형을 설정하고, 해당 앵커별로 앵커와 동네생활권 단위의 도시설계 방안 및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6가지 앵커 유형은 Neighborhood Crossings, Neighborhood Main

<sup>3)</sup> 녹지라인 연결로(Greenline Connections), 보행자 전용 도로(Pedestrian Pathways), 대중교통 이용 (Tra nsit use), 자전거 거치대(Bike share stations), 표지(Signage, lighting, markings on the street, and pe destrian refuges in medians), 작은 블록규모(Smaller block sizes), 밀도(Density), 인근의 업무지역(Loc ating businesses near neighborhoods), 교통정온화전략(Traffic calming strategies), 상점 전면부(Stor efronts), 용도혼합(Mixed-Use)의 11가지에 해당함(City of Memphis, 2019, pp.50-51)

Streets, Urban Main Streets, Urban Center, Urban Core(Downtown), Medical and Institutional Campus로서 주요 교차로 및 도시의 랜드마크 지역을 포함하여 총 114개의 앵커를 지정하였다.

[표 3-4] 도시앵커(Citywide Anchor)의 구분 및 입지 전략

개념 이미지		분류	거리	앵커타입
	Citywide Anchor:  © Downtown  Medical and Institutional Campus	도시앵커	-	Downtown Medical and Institutional Campus
Vd min fi	Anchor Neighborhood:  Utten  Mix of Building Types	앵커 네이버후드	1/4mile 도보 6분	
1/2 mile Ermin. ★ Ermin Φ	Anchor Neighborhood:  Mix of Bushing Types Framely Single-brit	앵커 네이버후드 경계	1/2mile 도보 12분 자전거 2분	-

출처 : City of Memphis(2019, p.59) 내용과 그림을 토대로 연구진 작성

#### [표 3-5] 6가지 앵커 유형(Anchor Types)과 114개 앵커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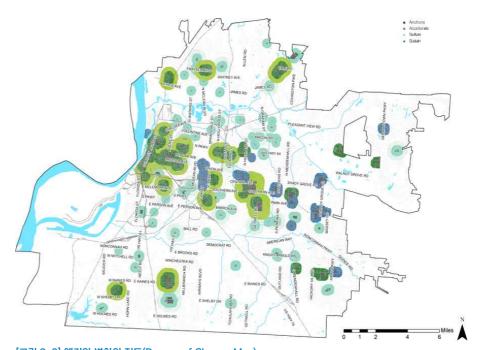
구분	앵커 타입	주요 내용	114개 앵커 위치
1	네이버후드 교차로 Neighborhood Crossings	<ul> <li>인근 주거지역에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동네 주민의 보행, 자전거 통행을 유도</li> <li>동네 주민의 교류지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커뮤니티 특징과 정체성에 기여</li> </ul>	
2	네이버후드 가로 Neighborhood Main Streets	<ul><li>주변 지역에 소매시설과 서비스를 제공</li><li>지역사회 구성원이 도보나 자전거를 통해 한 번의 이동을 통해 일상적인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목적지</li></ul>	
3	도시 중심 가로 Urban Main Streets	<ul> <li>보행친화적인 환경으로 주변지역에 소매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한 번의 이동을 통해 여러 가지 활동을 달성</li> <li>도시 활동의 중심지로 공동체 의식을 지원</li> </ul>	
4	도시 중심 Urban Centers	<ul> <li>여러 지역 또는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시설과 행정 및 문화기관이 위치한 지역</li> <li>수직적으로 여러 용도가 혼합된 건물이 위치</li> </ul>	
5	핵심지역/도심 Urban Core/ Downtown	<ul> <li>멤피스 도시의 핵심지역으로 사람들이 일하고 살고 쇼핑하고 놀 수 있는 중심지</li> <li>다양한 교통수단을 통해 도시 전역에서 접근 가능</li> </ul>	TOWNS TO THE PARTY OF THE PARTY
6	의료 및 기관 캠퍼스 Medical and Institutional Campus	<ul><li>주로 단일 기관을 위한 용도로 사용</li><li>건물의 형태와 크기가 다양하게 구성</li></ul>	-

출처 : City of Memphis(2019, pp.55-57) 내용과 그림을 토대로 연구진 작성, 그림출처 : City of Memphis(2019, p.56)

# • 동네생활권 발전전략을 변화의 정도(Degree of Change)에 따라 다양화

멤피스 종합계획에서는 지역의 변화 방식을 3단계로 정리하고, 변화를 실현하기 위한 적절한 지원과 투자의 양을 정할 수 있도록 각각의 실행전략 메뉴를 제공하였다.

육성 지역(Nurture)은 쇠퇴하였거나 변화를 주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 안정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 정부와 자선단체의 투자는 기존 거주자의 삶을 개선하고 미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점진적인 변화를 지원한다. 가속 지역(Accelerate)은 개발 잠재력이 있는 지역에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할 경우, 시 정부와 자선단체, 민간부문의 협력 투자를 통해 혁신적인 변화를 지원한다. 지속 지역(Sustain)은 역사지구 또는 지역의 정체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현 상태를 유지하고 뒷받침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지원한다. 4)



[그림 3-2] 앵커와 변화의 정도(Degree of Change Map) 출처: City of Memphis(2019, p.68) 내용과 그림을 토대로 연구진 작성

[표 3-6] 변화의 정도(Degree of Change)별 주요 내용

변화의 정도	육성 지역(Nurture)	가속 지역(Accelerate)	지속 지역(Sustain)
도시 네이버후드 Primarily Urban Neighborhoods	MR AN		
단독주택중심 네이버후드 Primarily Single-Unit Neighborhoods			
도시 거점 Citywide Anchors	N/A	기존 자산 및 패턴의 강화: (단기적으로) 수직적으로 복합 용도시설의 유치, 공공기관시설의 유치	N/A
커뮤니티 거점(간선) Community Anchors (urban enters, main streets)	기존 자산 및 패턴을 강화하여 향후 신규개발을 준비	기존 자산 및 패턴의 강화: (단기적으로) 수직적으로 복합 용도시설의 유치, 공공기관시설의 유치	기존 자산의 강화: 일부 증가하는 개발을 지원
커뮤니티 거점(교차로) Community Anchors (neighborhood crossings)	기존 자산 및 패턴의 강화: (단기적) 수직적으로 복합 용도시설의 유치, 공공기관시설의 유치	기존 자산 및 패턴의 강화	기존 자산의 강화
거점 네이버후드 Anchor Neighborhoods (1/4 mile)	기존 자산 및 패턴을 강화하여 향후 신규 주거지 개발 준비	기존 자산 및 패턴의 강화: (주로) 주거용 시설의 보강	기존 자산 및 패턴의 강화: (주로) 일부 증가하는 주거용 개발을 지원
거점 네이버후드 Anchor Neighborhoods (1/2 mile)	기존 자산 및 패턴의 강화	기존 자산 및 패턴의 강화: (주로) 주거용 시설의 보강을 위한 가능성	기존 자산 및 패턴의 강화

출처: City of Memphis(2019, pp.64-67) 내용과 그림을 토대로 연구진 작성, 그림출처: City of Memphis(2019, p.64)

#### ※ 엘비스 프레슬리와 레인즈 앵커 네이버후드 Elvis Presley and Raines Anchor Neighborhood

#### 계획지역 및 프로젝트 개요

- Elvis Presley and Raines Anchor Neighborhood는 남으로 Chambliss, 북으로 Craft Road, 동으로 Hermitage Drive, 서쪽으 로 Auburn Road와 접한 지역
- 이 앵커 계획의 핵심은 Whitehaven Plaza의 계획으로 볼 수 있지만 주변지역의 혜택 및 인프라 개선 등으로 확장될 예정
- 시 당국과 건물 소유주 및 이해관계자, 지역사회 구성원이 공동회의를 개최하고 4일간의 공청회 를 실시하여 지역의 미래비전에 대한 디자인 아이 디어와 계획 목표를 논의함





on approximate uses that ideally contains a mile of euring charter within a shore validing distance of redistricts. The size of a ped shot of lossed on the tance the average parson can comfortably well from the helphotherade Center to its eage. This approximate as one encompass a complete neighborhood, reproporating most cord logisters received for daily life. Extract the number of neighborhoods encompassed in the adectation is less.

- 인근지역 뿐만 아니라 도시 전역의 사람들이 이 지역으로 모일 수 있도록 다양한 용도와 서비스 프로그램을 통해 매력적인 보행자 중심의 환경을 조성하고, 기존 거주자를 위한 편의시설 유형과 품질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
- 개선된 주거지역을 제공함으로써 기존 주거지역의 자산과 동반하여 안정화를 유도하고, Elvis Presley 주변 지역 간 강력한 연결망을 만들어 지역의 안정성을 강화함

#### 멤피스 종합계획과의 관계

- 멤피스 종합계획에서는 각 앵커지역의 변화 정도에 따라 비전을 설정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변화를 실현하기 위한 적절한 지원과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Whitehaven Plaza를 중심으로 한 앵커는 가속 지역(Accelerate)에 해당하며, 도시 중심 가로(Urban Main Street) 유형으로 지정되어 있음
- 도시 중심 가로(Urban Main Street)의 물리적 규모는 아래 예시 이미지와 같음









Types of Community Anchors as described in Memphis 3.0. From left to right, Urban Center, Urban Main Street, Neighborhood Main Street, and Neighborhood Crossin

#### Whitehaven Plaza의 변화를 위한 아이디어

- 멤피스 종합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앵커별 발전전략을 바탕으로 지역계획의 추진과정과 지역 커뮤니티와의 연계를 통하여 4가지 아이디어를 제시
  - 아이디어 1: Whitehaven을 위한 다양한 용도 기반의 목적지 만들기
  - 아이디어 2: 기존 소매점들의 환경 개선
  - 아이디어 3: 주거용 부동산을 활용하여 인접한 부동산 자산의 안정화 유도
  - 아이디어 4: 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

출처 : Memphis, Tennessee(2019, pp.4-37)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그림 출처 : Memphis, Tennessee, 2019, p.5, p.8)

# 2) 지역특화 도시설계 전략 제시: 미국 포틀랜드 2035 종합계획 디자인 지침 (2035 Comprehensive Plan: Urban Design Direction, 2020)<sup>5)</sup>

#### □ 계획의 목적 및 특징

'포틀랜드 2035 종합계획 디자인지침(2035 Comprehensive Plan: Urban Design Direction, 2020)'은 '포틀랜드 2035 종합계획'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으로서 도시디자인의 개념 및 목적, 향후 장소·지구·가로·오픈스페이스의 성장과 변화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다. 종합계획의 목표와 정책이 도시의 가로와 네이버후드 수준에서 어떻게 보이고 느낄 수 있을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미지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도시 내 동네생활권별 특징을 차별화하고 도시와 자연의 연결, 주요 발전 거점과 가로의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등을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구체화 하고 있다.6)

- 완전한 네이버후드 만들기를 위한 성장 및 발전 시나리오 정립
- 지역별 상황에 맞는 계획과 디자인 추진
- 사람과 네이버후드 연결
- 자연지역과 오픈스페이스의 기능 향상
- 일자리 성장 장려



[그림 3-3] 포틀랜드의 도시 발전 개념 이미지 예시

출처: City of Portland(2020, pp.13-15)의 내용과 그림을 토대로 연구진 작성.

<sup>5)</sup> City of Portland. (2020). 2035 Comprehensive Plan: Urban Design Direction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6) City of Portland(2020, p.3)

# □ 동네생활권의 범위 설정 방법

#### • 7가지 주요 거점공간 설정

도시의 독특한 자연 및 지형적 특징과 맥락 내에서 변화하고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① 주요 센터, ② 주요 회랑 지역, ③ 교통 거점, ④ 녹지 지역, ⑤ 도시 식생 회랑 지역, ⑥ 고용 지역, ⑦ 패턴 지역의 7가지 거점으로 구분하고 디자인 전략을 수립하였다.



[그림 3-4] 포틀랜드의 도시 디자인 프레임워크 이미지

출처: City of Portland(2020, p.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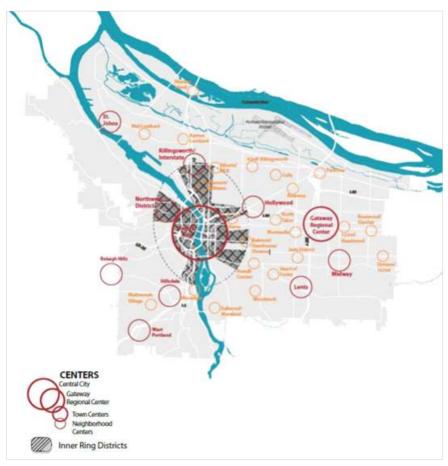
#### [표 3-7] 포틀랜드의 도시 디자인 프레임워크에서 구분한 거점공간

구분	거점공간	주요내용
1	주요 센터 지역 Centers	다양한 크기의 콤팩트하고 성장하는 지역으로서 일자리, 상업 서비스, 교통 연결과 주거 선택지 등을 제공
2	주요 회랑 지역 Corridors	새롭게 성장하는 주요 도시의 가로에서는 센터지역과의 연결, 대중교통 연결, 상업 서비스, 일자리 및 주거 선택지를 제공
3	교통 거점 지역 Transit Station Areas	교통 용량이 높은 노선이 지나가는 지역은 사람들을 주거, 일자리, 도시개발이 중요한 지역과 연결
4	도시 녹지 지역 City Greenways	도시 전체의 산책로 및 녹지는 사람들을 자연, 공원 주요 목적지들 혹은 센터들과 연결
5	도시 식생 회랑 지역 Urban Habitat Corridors	강화되고 잠재력을 가진 도시 서식지 회랑 시스템은 물고기, 야생동물, 사람들을 도시 전역의 주요 자연 공간과 연결
6	고용 지역 Employment Areas	일자리가 다양하고 성장하는 지역은 도시의 여러 부문에서 다양한 사업 분야를 수용
7	패턴 지역 Pattern Areas	포틀랜드의 지리적으로 넓은 지역은 자연과 건조환경 패턴으로 정의

출처: City of Portland(2020, p.19)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 • 거점의 센터와 네이버후드 설정

포틀랜드에서는 도시의 주요 센터와 내부 순환 구역(Inner Ring Districts)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집중하여 시민들이 완전한 네이버후드에 거주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센터는 크게 중심도시, 게이트웨이 지역센터, 타운센터, 네이버후드 센터로 구분되며, 이에 내부 순환 구역까지를 포함한다. 센터는 압축적인 도시공간으로서 기능적으로 완전한 네이버후드 앵커, 소매점과 지역상점(식료품점, 레스토랑, 시장, 상점 등), 주민편의시설 (도서관, 학교, 커뮤니티 센터, 종교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 의료시설, 고용센터, 공원 및 기타 공공장소 등이 포함된다.7)



[그림 3-5] Urban Design Direction에서 지정한 센터(Centers) 위치 출처 : City of Portland(2020, p.20)

7) City of Portland(2020, p.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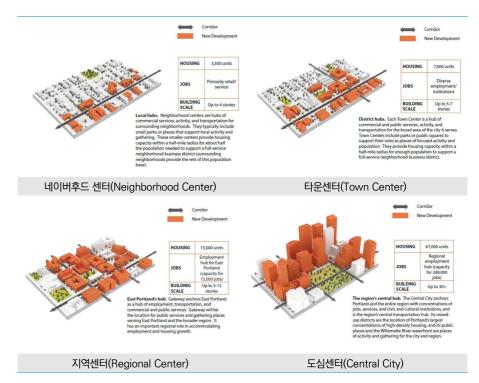
# □ 동네생활권별 도시설계 및 전략

#### • 네이버후드 센터

네이버후드 센터는 동네의 상업 서비스, 활동 및 교통의 중심지인 지역의 허브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지역의 활동이나 모임을 지원하는 작은 공원이나 광장을 포함하며, 반경0.5마일 이내 인구의 약 절반정도를 충족할 수 있는 주거를 제공한다. 주거는 약3,500호 규모이며, 근린생활시설이나 서비스 시설과 관련된 일자리, 4층 규모의 건물이 분포한 지역으로 정의할 수 있다.8)

### • 타운센터

타운센터는 공공서비스, 활동 및 광역교통의 중심지이자 근린상업지구의 배후주거지로 서 반경 0.5마일 범위 내 주거를 제공한다. 주거는 약 7,000호 규모이며, 다양한 일자리 기능과 기관이 분포하고 있고, 5~7층 규모의 건물이 있는 지역이다.9)



[그림 3-6] 포틀랜드의 동네생활권별 개념 이미지

출처: City of Portland(2020, pp.22-23) 토대로 연구진 작성

<sup>8)</sup> City of Portland(2020, p.22)

<sup>9)</sup> City of Portland(2020, p.22)

#### • 지역센터

포틀랜드 동쪽 지역의 허브로서 일자리, 교통, 상업, 공공서비스의 중심지이며 향후 고용과 주거 성장 측면에서 지역 중심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다. 주거는 약 15,000호 규모 정도이며, 약 15,000개의 일자리와 5~12층 규모의 건물로 이루어진 지역이다. 10)

# • 도심센터

지역의 중심 허브로서 일자리, 서비스 시설, 도시행정과 문화기관이 집중된 교통 중심지이다. 도심센터의 복합용도지구는 고밀 주거지역이며, 주요 공공장소와 각종 활동 및 모임의 장소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주거는 약 67,000호 규모이며, 약 248,000개의일자리, 30층 이상 규모 건물로 이루어진 지역이다.11)

#### [표 3-8] 센터(Centers)별 주요 특징

	E 5 이 전디(Centers)을 구표 극 8				
구분	센터	사진	주요 특징		
1	도심센터 Central City		<ul> <li>도시 전역과 지역을 지원하는 일자리, 서비스, 시민 및 문화기관이 있는 도심지역</li> <li>포틀랜드 주립대학교, 톰 맥콜 워터프론트 공원, 오레건 컨벤션센터, 포틀랜드 미술관 등 주요 명소와 편의시설 및 기관들이 위치한 중심지</li> </ul>		
2	게이트웨이 지역센터 Gateway Regional Center		<ul> <li>포틀랜드 동쪽지역의 중심지로서 시민, 고용 및 지역사회 서비스 분포</li> <li>두 번째로 큰 교통의 허브로서 포틀랜드 국제공항 등 주요 목적지에 접근하기 좋은 지역</li> </ul>		
3	타운센터 Town Centers		<ul><li>고용센터 또는 기관들의 거점지역</li><li>광범위한 상업 및 지역사회 서비스를 제공</li><li>다양한 주거 선택지 제공</li></ul>		
4	네이버후드 센터 Neighborhood Centers		<ul><li>소규모 센터로서 가로를 따라 각종 활동이 집중된 지역</li><li>도시 전역에서 많은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음</li></ul>		
5	내부 순환 구역 Inner Ring Districts		<ul> <li>여러 역사지구와 다양한 주택유형이 분포하는 지역</li> <li>복합용도의 교통 회랑이 다양하게 분포</li> <li>대중교통 및 인근 비즈니스에 0.5km 이내의 거리에 거주 가능</li> <li>도심의 다양한 서비스, 직업 및 편의시설에 자전거로 3마일이내로 접근 가능</li> </ul>		

출처: City of Portland(2020, p.21)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10) City of Portland(2020, p.23)

11) City of Portland(2020, p.23)

# 3) 동네생활권 도시환경 평가·분석 : 캐나다 오타와시 15분 네이버후드 (15-Minute Neighborhoods, 2021)<sup>12)</sup>

#### □ 목적 및 특징

2019년 캐나다 오타와시는 농립축산공동기획위원회(8월 22일)와 시의회(9월 11일)에서 새로운 Official Plan<sup>13)</sup>을 위한 주제로 성장, 이동성, 도시 디자인, 도시 탄력성 그리고 경제 분야를 채택하고, 건강하고 살기 좋은 지속가능한 도시와 사회 발전 비전인 'Five Big Moves'의 실현도구로서 15분 네이버후드 계획(15-Minute Neighborhoods)을 도입하였다. 15분 네이버후드 계획은 'Five Big Moves'를 토지이용과 보행환경 개선으로 명확하게 구현하기 위한 공간계획이며, 하이퍼로컬 단위(Hyper-Local Scale)에서 지역사회 강화에 필요한 도시 디자인, 교통, 주택, 자연 환경 및 녹지 공간 등 핵심요소들의 통합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타와시는 기존 동네가 걷기 좋은 15분 동네로 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새로운 동네 및 커뮤니티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고자 기존 도시환경에 대한 기초현황을 확인하고 주요 도시환경의 개선을 위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 □ 동네생활권 분석과정

오타와시는 서비스 및 편의시설, 보행환경 부문 등에 대한 점수화 및 매핑 방식을 개발하고, 기존 도시경계 내(도시)와 외곽지역(농촌)의 네이버후드 매핑 분석을 실시하였다.

#### • 동네생활권 분석 범위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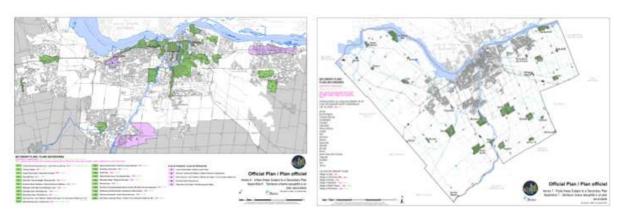
네이버후드 분석은 특정 영역이나 경계를 정의하거나 기존 동네 범위를 인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14) 기본적으로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는 중심부(Downtown Core), 도시 내부(Inner Urban), 외곽(Outer Urban), 근교 (Suburban), 농촌마을(Village in the Rural) 15)의 지역별로 정리하였다.

<sup>12)</sup> City of Ottawa. (2021). 15-Minute Neighborhood Baseline Report를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sup>13)</sup> Official Plan에서 제시하는 기본 정책방향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단위 세부계획인 '지역계획(Local Plan)'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 계획은 특별구역(Specific Areas)과 네이버후드(Neighbourhoods)의 발전 및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보다 상세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음. 지역계획은 '2차 계획(Secondary Plan)'과 '특별구역 정책( Area-Specific Policies)'으로 구성되며, 2차 계획은 도시지역 21개소, 농촌지역 26개소에서 수립되었음(City of Ottawa, 2022, p.257)

<sup>14)</sup> City of Ottawa(2021, p.10)

<sup>15)</sup> 오타와시는 도시공간을 중심부, 도시 내부, 외곽, 그린벨트, 근교, 농촌마을의 6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네이버후드 분석에서는 그린벨트를 제외한 5개 영역을 대상으로 하였음(City of Ottawa, 2021,



[그림 3-7] 오타와시 지역계획(Local Plan) 수립지역: 도시지역(좌), 농촌지역(우)

출처: City of Ottawa(2022, Annex 4. pp.5-6)

#### • 동네생활권 단위 시설 범위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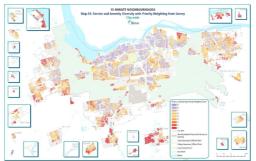
시민들이 집에서 도보로 15분 이내 거리에서 어떤 서비스와 편의시설을 원하는지 설문 조사를 시행하고 분석하여 동네생활권 단위 시설 범위를 설정하였다. 동네생활권에 입지해야 할 9개 시설로서 ①식료품 가게 및 슈퍼마켓, ②공원, ③소매상점 및 상업시설(서점, 세탁소, 애완동물 샵, 빵집 및 기타 편의시설), ④버스 정류장, ⑤병원, 치과 및 약국등 의료서비스 시설, ⑥트램 등 철도 교통시설, ⑦도서관 등의 실내 활동 및 커뮤니티 시설, ⑧초등학교 등 교육시설, ⑨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설정하고 시설별 우선순위를 점수화(분석을 위한 정량화), 주거지 내의 15분 네트워크 확인을 위한 분석, 분석 자료의 매평화 등을 통해서 동네생활권 단위 시설 범위를 구체화하였다.

#### • 네트워크 분석 및 매핑

도시의 경계 내부와 마을 내 주거 구획에 대한 서비스 및 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의 기준을 만들기 위한 매핑을 실시하고 도시지역과 교외지역의 타운센터 및 농촌지역의 마을에서 각각 서비스 및 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성 차이를 점수화하여 제시하였다.

#### • 보행자 환경 평가

설문조사를 통한 보행환경의 질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측정기준을 마련하고 주요 영향요인을 도출하였다. 안전하고 즐거운 거리에 대한 주요 요인을 인공지능(AI) 분석과 상업가로의 건축형태 및 공공 영역의 특성에 대한 정성적 평가 결과, GIS 분석을 통해 30분 거리 이내에 바람직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특징적 요소를 종합 도출하였으며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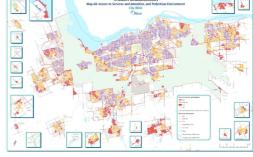


NegAS. Acces to Service and American Considered Scene Chrysler Considered Scene Chrysler Chry

[우선순위 가중치를 적용한 서비스 및 편의시설 다양성 지도]

[서비스 및 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성 점수 지도]





[보행 환경 점수 지도]

[서비스 및 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보행 환경 종합점수 지도]

[그림 3-8] 오타와시의 동네생활권 설정 과정 출처 : City of Ottawa(2021, p.20, p.22, p.33, p.34)

> 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 사이의 상관관계분석 까지 실시하고 최종 점수화 하여 지도로 정리하였다(그림 3-8).

[표 3-9] 보행환경의 안전과 즐거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세 가지 요소

구분	주요 내용
1	얼음 및 눈 제거를 포함한 보행로 및 도로의 유지 관리
2	안전성이 보장된 교차로
3	완충 녹지, 자동차 주차시설, 감속 유도시설 등의 자동차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장치
기타	상점 및 기타 서비스 시설 사이의 거리, 그늘과 쉼터, 앉을 수 있는 벤치 등

출처 : City of Ottawa(2021, p.23)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 동네생활권을 적용한 계획과 정책

도시 중심부(Downtown Core), 도시 내부(Inner Urban), 외곽(Outer Urban), 근교 (Suburban), 농촌마을(Village in the Rural)의 각 지역별로 서비스 및 편의시설 부분과 보행 환경 부분 계획 및 정책 과제를 설정하였다. 기회요소와 다음 단계를 위한 과제 내용을 최종적으로 합산된 점수에 따라 높은 점수, 중간 점수, 낮은 점수로 세분화하여 정리하

고 향후 과제 추진을 위한 협력부서 및 관련기관을 정리하였다.

• Inner Urban Transect에의 적용<sup>16)</sup>

서비스 및 편의시설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한 지역의 경우, 풍부한 서비스 기능을 기반으로 파생 가능한 비즈니스와 서비스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서비스 및 편의시설 부분에서 중간 점수 혹은 낮은 점수를 기록한 지역의 경우, 지역 내 특정 서비스 및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시설들이 분산되어 있으므로 지역 개선을 위한 식료품점, 소매점, 탁아소시설, 의료 서비스 및 교육시설의 추가 조성한다. 높은 점수의 지역과 중간 혹은 낮은 점수의 지역 모두 다음 단계의 과제를 위해서 관련부서와의 협업 및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오타와시의 15분 네이버후드 정책 방향

- 지역 농산물 기반의 추가적인 시장들 혹은 식료품점과 같은 건강한 식품에 대한 접근성 향상 추진
- 형평성을 추구하는 단체를 위한 장벽을 줄이는데 중점을 둔 공공 영역의 개선
- 서비스 및 편의시설에 대한 보행자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진행
- 서비스 및 편의시설이 많이 위치한 거리나 공간에 대해 겨울철 시설물관리 표준 기준을 검토하고 개선
- 공원이나 실내 커뮤니티센터 및 레크레이션 시설을 검토하여 공원 및 레크레이션 시설 마스터 플랜과의 분류 시스템이 일치하는지 확인
- 15분 네이버후드 점수를 온라인에 공개하는 방법을 통해 정보의 접근성 향상 추진(오타와 시의 GeoOttawa 웹사이트나 오타와 네이버후드 연구 웹사이트 등을 통한 공개)
- 교통, 공원 및 녹지, 가로수, 기타 공공장소 그리고 오타와 네이버후드 형평성 인덱스에서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 네이버후드의 식료품점과 같은 편이시설 이용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추진
- 추가적인 계획과 개발을 위해 어떻게 장단기적 관점에서 15분 네이버후드 점수 향상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관점 강화 등

출처: City of Ottawa(2021, pp.57-58)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4) 도시공간관리 세분화 : 중국 상하이시 15분 생활권(15-Minute Community-Life Circle, 2021)<sup>17)</sup>

#### □ 도입 배경 및 특징

상하이시는 2016년 8월에 '상하이시 15분 지역사회 생활권 계획 가이드라인(15分鍾社 區生活圈規劃導則, 2016)', 2018년 1월에 '상하이시 도시 마스터플랜(上海市城市總體規劃, 2017-2035)'을 발표하여 '15분 지역사회 생활권' 조성 목표를 제시하였다. 지역사회 생활의 기본 단위인 도보 15분 도달 범위 내에서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비스 기능과 공공 활동 공간을 갖추고, 안전하고 우호적이며 쾌적한 사회 기본 생활 플랫폼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18) 상하이시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도시관리 세밀화 작업 강화에 관한 실시 의견(關于加強本市城市管理精細化工作的實施意見)'과 3개년 액션플랜(2018-2020)을 공식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중국의 '15분 지역사회 생활권'은 집에서 도보 15분 거리의 공간에 주민의 기본생활에서 필요한 각종 기능과 시설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지역사회 생활권 규획 기술 가이드(社区生活圈规划技术指南)'를 통해 15분 생활권을 '5-10분 생활권'과 '15분 생활권'으로 세분하고 있다. 19) 5-10분 생활권은 지역사회 거주위원회20)를 기준으로 공간을 나누고, 이 공간에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요소, 특히 노인과 아동을 위한 기본적인 서비스 요소(service element)를 반드시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15분 생활권은 지역사회(community) 혹은 진(镇) 단위21)의 행정구역에서 주민의 생활 및 이동 특성, 실질적 수요를 고려하여 범위를 확정하며, 이 범위 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요소를 배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계획 및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상하이시는 '15분 지역사회 생활권'으로 15개 시범구역을 설정하고 '15분 지역사회 생활권 규획 가이드'에 따라 지역별 다른 목적과 테마로 지역사회 개발 계획 및 정

<sup>17)</sup> 上海市规划和国土资源管理局. (2016), 上海市15分钟社区生活圈规划导则-Shanghai Planning Guidance of 15-Minute Community-Life Circle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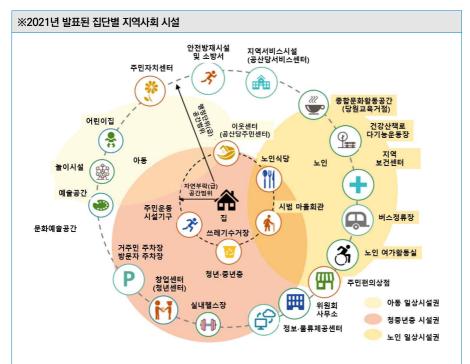
<sup>18)</sup> 상하이시는 활동 범위와 수요에 따라 '도시권-소도시권-15분 지역사회 생활권'의 총 3단계 생활권 구상을 수립하였으며, 추후 중국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15분 생활권 건설을 베이징, 광저우, 난징 등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게 되었음

<sup>19)</sup> 中华人民共和国自然资源部(2021, p.3)

<sup>20)</sup> 지역사회(동네)마다 '거주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관리·교육·공공 및 공익사업과 관련한 '주민자치조직' 으로서, 일반적으로 5-10분 지역사회는 이 거주위원회를 기준으로 공간을 나눔

<sup>21)</sup> 중국의 행정구역으로서 우리나라의 광역-기초-읍면동과 달리 중국은 성(省)급 행정구-지(地)급 행정구-현(景)급 행정구-진(镇), 향(乡)급 행정구 등이 있으며, 직급이 올라갈수록 면적, 인구 및 경제규모가 더 큼

## 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공간범위에 따른 시설 배치

- 행정단위 기준의 공간범위(서비스 반경 800~1000m), 서비스 인구 100~500가구, 참고범위 5~5㎢, 행정 구역을 경계로 나눈 공간적 범위의 경우, 마을 편의서비스센터를 중심으로 원스톱 마을주민센터를 구축하되, 지역특성과 수요를 고려하여 시설배치
- 자연부락 기준의 공간 범위(서비스 반경 300~500m), 서비스 인구 30~100가구, 참고범위 1㎢이내의 공간 적 범위의 경우, 이웃센터를 주축으로 원스톱 마을이웃센터를 구축하고, 노인, 아동 등 취약집단을 위한 일상 보장형 공공서비스시설과 공공 활동공간을 배치

#### 시설설명

- 이웃센터(공산당 주민서비스센터): 공산당원이 운영·관리하는 일종의 주민서비스센터로서, 주민 택배발송 과 수령, 전자상거래 라이브 커머스 및 농산품 발송 및 수령 등을 제공하며, 주민 수요에 따라 변동 예정
- 시범 마을회관(노인식당) : 독거노인, 고령층 등 노인을 위한 식사제공, 여가 및 오락, 건강 홍보 등 서비스 제 공. 농촌 노인에게 음식 조리하여 직접 배달하기도 함
- 지역서비스시설(공산당 업무서비스 센터원): 자원봉사, 사회보장, 취업 관련 서비스, 법률지원 등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치안을 담당하며, 인구종합관리센터로서의 기능도 수행
- 정보·물류제공센터: CCTV 정보 및 수도·전기·가스공급 정보 제공, 물류 서비스 운영
- 안전방재시설 및 소방시설: 재해 구호물자 비축, 응급대처훈련 진행, 대피장소로 활용

출처:上海市规划和自然资源局(2021, pp.37-39, 그림출처: p.38)

[표 3-10] 상하이시 15분 지역사회 생활권의 15개 시범구역별 개발목표

	시범구역	개발목표
1	창닝구 신화로 (長寧區新華路街道)	화원의 지역, 인문의 '신화'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번영의 장소, 다양·편리·행복의 지역사회, 활력 넘치고 개방적이며 조화로운 지역사회 조성
2	황푸구 반송유엔 로 (黃浦區半淞園路街道)	살기좋은 동네, 빛나는 반송유엔 주민이 만족하고 곳곳에 활기를 불어넣고 네트워크체계를 구축하는 지역. 살기 좋은 지역사회, 민첩하고 효율적인 지역사회, 개방적인 지역사회
3	징안구 즈장시 거리 (靜安區芷江西街道)	다원화된 지역사회를 융합·발전시켜 우수한 생활권을 구축하고,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활력 있고 다양한 지역사회, 조화롭고 살기 좋은 즈장시로 거듭남
4	쉬후이구 텐린 거리 (徐匯區田林街道)	녹색의 텐린, 스마트의 도시 푸후이탕빈 천(川) 산책로에 복합기능을 더하고, 지역사회와 도시의 융합을 통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5	홍코우구 취양 거리 (虹口區曲陽街道)	품격 있는 지역사회, 스마트한 '취양' '혁신, 협조, 녹색, 개방, 공유'를 지향하고 우수한 환경, 활기 넘치는 공간, 수준 높은 서비스를 통해 취양 거리의 품격을 더 높여 상하이의 대표적인 지역화
6	양푸구 다차오 거리 (楊浦區大橋街道)	다차오의 우수한 자원, 세계적인 창업단지, 개발 가능한 공간을 활용한 활력 있는 도시, 혁신적인 다차오 조성
7	푸투어구 창평신춘 거리 (普陀區長風新村街道)	살기 좋은 지역, 우수한 서비스, 효율적인 관리, 평안한 삶을 누리는 다채로운 지역을 만들고 발전목표 달성
8	푸둥신구 차오루전 (浦東新區曹路鎮)	과학교육 혁신도시 차오루, 살기 좋고 일하기 좋고 배우기 좋은 도시 그린 네트워크를 토대로 대학 자원을 활용하여 우수한 서비스, 다채로운 지역사회를 구축하여 도시 관리의 정교화를 시행하고 품격·활력 있는 혁신 도시
9	바오산구 요우이 로 (寶山區友誼路街道 寶山八村及周邊區域)	바오산 핵심지역의 재개발을 목표로 생활공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공간에 활기를 불어넣어 '협조, 녹색, 개방, 공유'의 살기 좋은 지역, 정원이 있는 지역, 건강한 지역사회의 표본
10	민항구 메이룽 중부지역 (閔行區梅隴鎮中部區域)	<b>발전의 전환, 도약을 이루는 메이룽</b> 편안하고 자연과 공존하는, 편리하고 활력 있는 15분 지역사회 생활권을 구축하여 품격 있고 조화로운 생활이 가능한 인문의 메이룽, 찬란한 지역사회
11	지아딩구 쥐유엔 거리 (嘉定區菊園街道)	'완벽하고 품격 있는 지역'을 목표로 녹지, 광장, 산책로 및 길거리를 '녹색·활력·공유'의 새로운 공간, 새로운 정원으로 조성
12	칭푸구 잉푸거리 (青浦區盈浦街道 老城廂及周邊區域)	구도시의 부흥을 이루자. 거리는 매력과 활력이 넘치게, 생활은 편리하게. 잉푸거리를 매력의 도시, 활력 있는 도시, 살기 좋은 도시로 조성
13	평시엔구 난차오유엔지역 (奉賢區南橋鎮南橋源區域)	역사를 발굴하고 공간을 활성화하고 다시 발전시키자. '살기 좋고 여행하기 좋고 장사하기 좋은 15분 생활권을 구축하여 역사가 유구하고 활기 있는 자연친화적 매력의 도시
14	진산구 주징전 팅펑로 주변지역 (金山區朱涇鎮亭楓公路周邊 區域)	구도시 개발을 계기로, 역사·문화의 도시를 만들고, 도보 15분을 지역사회 생활공간의 척도로 삼고, 교육, 문화, 의료 , 양로 , 체육 , 레저, 취업·창업의 기능을 강화하여 살기 좋고 일하기 좋고 배우기 좋고 키우기 좋고 여행하기 좋은 생활권을 구축
15	숭장구 지우리팅 거리 남서지역 (松江區九裏亭街道西南區域)	고품질의 주거와 특색 있는 서비스 기능을 위주로, 궤도레일 교통을 기반으로 우수한 기반시설, 아름다운 환경, 문화 매력이 넘치는 살기 좋은 생태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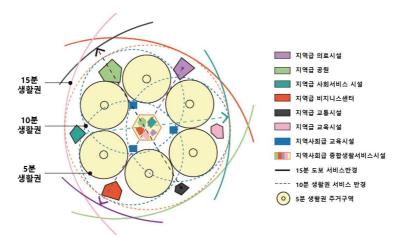
香对:上海市长宁区政府新闻办官方澎湃新闻(2019.8.21), 真方便!长宁正在试点15分钟内就能享受养老、医疗、教育、购物等服务的"15分钟社区生活圈"~,https://www.sohu.com/a/335753279\_391447 (검색일: 2022.09.11.)

#### □ 동네생활권의 범위 설정 및 적용 정책

• 지역, 지역사회, 단지의 3가지 수준별 생활권 구분<sup>22)</sup>

지역 수준에서는 저효율 용지를 주변 지역사회와 연결하는 공간 매개체로서 접근, 지역의 보행 네트워크를 체육시설, 쇼핑몰 등 외곽에 위치한 기능형 도시시설과 철도교통을 연결 하기 위한 공간을 구성한다. 지역사회 수준에서는 지역 거점과 도로를 연결하여 외적으로 는 주변 상업시설과 연결, 내적으로는 지역사회센터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공간을 계획한 다. 단지(unit) 수준에서는 공공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사회 일상생활 발전방향을 제시한 다. 또한 지역사회 내부 공간 조성방향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계획의 중점사항을 차별 적으로 적용한다.

- ● 지역(district) 측면: 지역사회와 도시의 주요 시스템, 기능적 거점을 연결
- ② 구역(sub-district) 측면: 지역사회 간 고립되고 나뉘어진 구조를 없애고 공간 기능을 연결하여 도시 네트워크 연결성 향상
- ③ 지역사회(neighborhood) 측면: 지역사회 생활의 실질적 경험을 높임



[그림 3-9] 15분 지역사회 생활권 배치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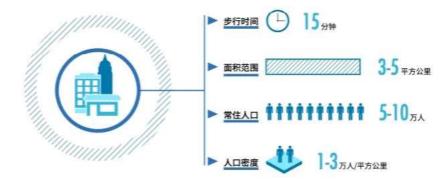
출처: 童明·白雪燕(2022, p.26)

• 면적 및 인구 밀도

일반적으로 15분 생활권은 3~5㎡의 규모이며, 상주인구는 약 5~10만 명으로 인구밀도는 1~3만 명/㎢으로 친환경적이고 다양한 시설이 위치한 다원적인 지역사회 생활권 조성에 유리한 규모로 설정한다. 지역사회의 계획 범위는 최소한의 동네로 지역현황, 주민실수요 등을 종합하여 정할 수 있으며, 시설별 서비스 반경과 1인당 수준을 구체적인 기

<sup>22)</sup> 童明·白雪燕(2022, p.26)

# 준으로 설정한다.23)



[그림 3-10] 15분 커뮤니티 생활권 개념도 출처: 上海市规划和国土资源管理局(2016, p.1)

- 계획수립 주체, 목표, 서비스 대상에 따른 4가지 방식의 생활권계획 적용<sup>24)</sup>
  - ● 시(市) 차원 계획 : 가이드라인 형식의 발전전략형 계획으로 '15분 지역사회 생활권 계획 가이드' 등의 기술문서로 적용
  - ② 구역 혹은 거리단위 계획: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15분 생활권 건설 계획
  - ❸ 특정 목표를 가진 계획 : 공공서비스 배치 계획, 생활권별 차별화 수요를 위한 개별계획 등
  - ▲ 지역사회 액션플랜: 단기 생활권 개선 또는 형성에 중점을 둔 계획으로 단순히 거주지역 범위에 한정하지 않고 시(市) 전체 또는 거리까지 포함
- 분야별 적용 정책

상하이시는 15분 생활권 달성을 위해 분야별 정책 추진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다.

주거 분야에서는 15분 생활권을 중심으로 중소주택을 증가시켜 합리적인 주택 구조 형성을 목표로 한다. 중심시가지와 외곽지역의 주택수급 갈등이 두드러지는 곳, 철도교통역 주변지역(중심시가지는 600m, 외곽지역은 1,500m) 등에 중소주택 공급비율 제고하고, 세대별 수요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주택과 다표준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장려한다.이를 통해 근로자 기숙사·저렴임대주택 등을 적절히 배치하고 인구유입을 도모한다. 25)일자리 분야에서는 15분 생활권 내 일자리 용지 비율이 15~25%가 될 수 있도록 상업,비즈니스, 공공서비스시설 등 비주거용지를 혼합시키고, 대중교통 정류장이나 공공활

<sup>23)</sup> 上海市规划和国土资源管理局(2016, p.1)

<sup>24)</sup> 吴秋晴·赵宝静(2022, p.7)

<sup>25)</sup> 上海市规划和国土资源管理局(2016, pp.6-7)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동센터를 중심으로 반경 200~300m 안에 일자리를 집중 배치한다. 26)



[그림 3-11] 15분 커뮤니티 생활권 일자리 계획 개념도

출처:上海市规划和国土资源管理局(2016, p.14)

교통 분야에서는 간편하고 다층적인 대중교통 TOD 개발을 지향한다. 철도역 주변지역에 공공서비스 시설을 우선 배치하여 철도이용 시 쇼핑, 놀이, 식사 등 일상활동을 함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철도역 주변 150m 범위에는 지상 대중교통 환승역, 주차장, 자전거 보관소, 택시 승차장 등을 집중 배치하고, 각종 공공시설, 공원, 광장 등과 연계하여 버스정류장 설치, 블록 내 공동통로나 공공녹지 내 보도 등 보행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저탄소 이동을 장려하기 위해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이 좋은 지역은 주차 배차량을 일정비율로 줄이고, 임시 주차수요를 일정 비율로 설치한다. 27)

그밖에 문화, 평생교육, 건강, 노후 서비스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가 집중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시설 이용 빈도와 수요를 고려하여 관련 시설을 배치한다. 집을 중심으로 5분, 10분, 15분 단위로 시설을 배치하며, 특히 5분권 내에는 노인이나 어린이 이용률이 높은 시설 배치한다. 여가 분야에서는 공공녹지와 광장은 물론 선형 녹도, 산책로, 보행로 등기능별 공공공간을 구축하여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고, 녹도, 지역사회생활지로, 공공통로, 산책로를 통해 주요 공공활동 구간(공원, 녹지, 광장, 공공시설 등)을 연결하여 주민들의 일상생활 활동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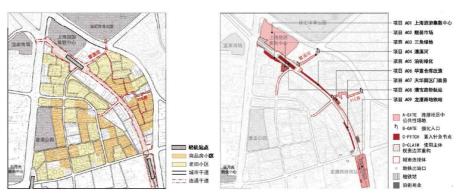
#### □ 동네생활권 단위의 도시 전략 추진 사례29)

•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별사업 추진, '콜라주' 방식의 사업

상하이시 차오시지역(漕溪片区)에서는 공공시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설별 기능과 영향 범위를 바탕으로 생활서비스의 전반적 상황을 재검토하여 구조와 구획을 확정하였다. 차오시지역의 중부와 동부 생활권의 서비스 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 26) 上海市规划和国土资源管理局(2016, p.14)
- 27) 上海市规划和国土资源管理局(2016, pp.23-26)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28) 上海市规划和国土资源管理局(2016, pp.31-39)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29) 15개 시범구역 중 상하이시 차오시지역(漕溪片区)을 사례로 정리함(童明·白雪燕., 2022, 连接城市生活脉络: 社区生活閥的营造策略与方法. 时代建筑, (2), 22-29를 바탕으로 작성)

지역사회 액션플랜과 결합하여 지역사회 생활권 개선을 개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사업화하였다(그림 3-12). 예를 들어 주요 공공공간의 거점 개조를 시작으로 공공공간의 기능 강화사업, 도로를 통한 동서지역 연결과 공공 보행 네트워크 확장사업, 지역사회 내 공공공간과 서비스 시설 간 관계 재구성 사업 등 이전의 개발계획을 포함하여 15분 생활권 건설을 위한 콜라주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3-12] 차오시 지역의 계획 구조(좌) 및 차오시 지역의 재설정 구조도(우)

출처: 童明·白雪燕(2022, p.27)

## • 부족한 서비스 공급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공간과 시설을 보완하거나 개별 상황에 맞추어 생활권의 단계별 서비스 목적과 서비스 집단을 기준으로 하여 공간과 기능의 관계를 재정 립하였다. 15분 생활권 계획은 비용의 한계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로 인해 사업 확장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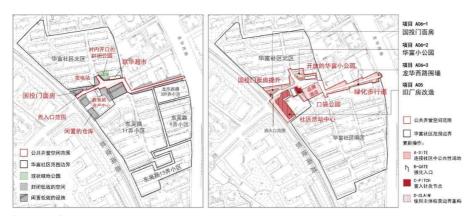
일례로 화푸구역의 경우, 여러 단지 입구를 연결하는 통로였으나 그에 따른 설계 부재와 사회적 자원의 부족으로 오랫동안 방치되어 오면서 정돈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 지역은 공간구조 상 공공 네트워크의 주축선인 카이슈엔난루와 연결되어 있어 지역사회 연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곳으로서 이 통로를 기준으로 주요 기능을 재정비를 진행하였다. 단지 내부 공간을 통합하고, 동시에 단지 내부환경 정비를 진행하였으며, 골목 입구에 위치한 유휴 창고와 서비스 기능이 떨어지는 도로변 매장을 통합하여 커뮤니티 센터와서비스 시설을 공급하였다. 이를 통해 단지 내 흩어져 있었던 녹지와 활동공간을 하나로 합쳐 골목에 새로운 커뮤니티 공원을 건설하여 동네생활권내 지역사회 커뮤니티 활성화 및 통합화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지역사회와의 소통 및 주민 참여를 통해서 추진되었다.30)

<sup>30)</sup> 일반적으로 15분 생활권 건설은 '조직 구성 - 현황 분석 - 문제점 발굴 - 임무 확정 - 행동 추진 - 성과 평가' 순으로 진행. 각 단계에 '주민대표 조직 - 현황 분석 참여 - 문제점 발굴 - 각 프로젝트의 긴급성 결정



[그림 3-13] 차오시 천 부근 연결 계획(좌) 및 개조 구상도(우)

좌측 원출처: 상하이 TM studio 출처 : 童明·白雪燕(2022, p.27)



[그림 3-14] 화푸구역 공공골목 재정비 전후 비교도

출처 : 童明·白雪燕(2022, p.27)

# 5) 전략적 개발·투자지역 설정 : 영국 런던 기회지역(OA, Opportunity Areas)

#### □ 개념 및 적용 방식

런던의 도시기본계획(The London Plan, 2021)에서는 새로운 주택, 일자리, 기반시설의 잠재력이 있는 핵심위치를 기회지역(OA)으로 설정하고 있다. 31) 대부분의 기회지역은 교통 개선 프로젝트와 연결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최소 2,500채의 새로운 주택이나 5,0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수용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된다.

런던의 기회지역 개발은 인프라 개선 계획 및 이해관계자들의 협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지역이 런던 시민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교통 및 유틸리티시설, 사회기반시설 및 디지털 연계에 대한 대규모의 투자를 필요로 하고 있다. 기회지역들은 재생 전략 지역과 겹쳐 있는 곳이 많으며, 런던 시민을 위한 포용적 성장의 잠재력이 내재되어 있다. 또한 기획지역은 런던 시장의 교통전략, 런던 계획 및 기타 전략들과 관련되어 있으며, 개별 지역단위로 계획되는 것이 아닌 지역 간 연결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32)

#### • 기회지역계획(OAPF, Opportunity Area Planning Frameworks) 수립33)

런던 시장은 기회지역 개발을 위해 자치구와 협력하여 기회지역계획(OAPF)을 수립한다. 이때, 자치구는 기회지역의 일부 또는 전체를 계획하는 AAP (Area Action Plans) 및 SPD (Supplementary Planning Documents) 등의 계획 정책 문서를 준비하고, 지역계획에 기회지역 관련 정책을 통합하여 기회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장려하고 전달할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지역 계획은 지역사회 및 이해 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수립해야 하며, 지역의 기존 특성과 맥락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이때 기회지역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올바른 종류의 개발방식을 추진하고 인프라가 적절하게 계획되어야 한다. 이때, 런던광역시(GLA, Greater London Authority)와 자치구는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의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거나 기관 파견, 컨설턴트 임명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체계를 마련한다.

<sup>31)</sup> What are Opportunity Areas?, Mayor of London, https://www.london.gov.uk/what-we-do/plan ning/implementing-london-plan/opportunity-areas/what-are-opportunity-areas(검색일: 2022. 09.15.)

<sup>32)</sup> Mayor of London(2021, pp.32-35)

<sup>33)</sup> How are Opportunity Areas planned?. Mayor of London, https://www.london.gov.uk/what-we-do/planning/implementing-london-plan/opportunity-areas/what-are-opportunity-areas#acc-i-64696 (검색일: 2022.09.15.)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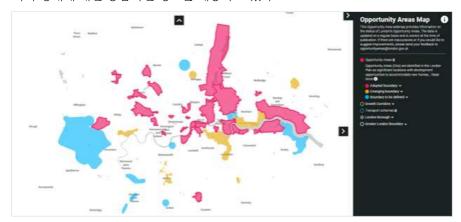
	Nascent	Ready to grow	Underway	Maturing	Mature
Development Potential:	Identified	Approved	Early phases	All phases underway	Fulfilled
Infrastructure:	Options appraisal	Planned	Planned and funded	Completed or under construction	Operational
Timing (years):	15+	10-15	5-10	1-5	

[그림 3-15] 기회지역계획(OAPF) 수립과정

출처: Mayor of London(2021, p.33)

## □ 기회지역의 설정 방법 및 사례

기회지역은 런던시 홈페이지를 통해 기회지역 지도(Opportunity Areas Map)와 함께 지역 상태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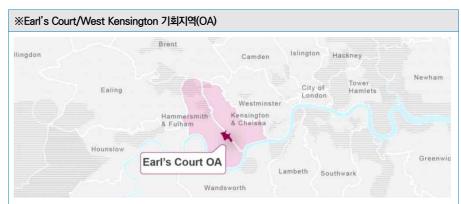
[그림 3-16] 기회지역 지도(Opportunity Areas Map)

출처 : Opportunity Areas Map, Mayor of London, https://apps.london.gov.uk/opportunity-areas/?\_gl=1\*4m5rh a\*\_ga\*MTI5MzA2MjU5Mi4xNjYzMjI0NTQ0 (검색일: 2022.09.15.)

기회지역 지도에는 기회지역으로 채택된 경계와 채택될 경계 및 정의할 경계로 구분하여 표시된다. 기회지역으로 채택된 경계는 지역계획당국 혹은 시장이 공개 협의 및 공식적으로 채택한 지역 계획 문서에 포함되고 정의된 경계이다. 기회지역으로 채택될 새로운 경계는 관련 정책이 수립될 예정지역이거나 공개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기회지역으로 정의할 경계는 아직 게시되지 않은 지역에 해당된다. 지역계획당국(LPA)은 기회지역의 잠재력을 장려하고, 런던 시민을 위한 일자리 기회와

<sup>34)</sup> London's Opportunity Areas. Mayor of London, https://www.london.gov.uk/what-we-do/planning/implementing-london-plan/opportunity-areas/londons-opportunity-areas (검색일: 2022.09.15.)

주택 선택기회를 창출하는 개발 지원방식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하며,35) 기회지역 성장을 위한 잠재적 용량에 대하여 테스트를 한 후 이에 대한 정확한 계획을 설정해야 한다.



구분	주요 내용
자치구	LB Hammersmith and Fulham, RB Kensington and Chelsea
런던도시계획 지정연도	2011
성장축(Growth corridor)	Healthrow/Elizabeth Line West
OA 경계 및 정책	승인
지역계획	H&F Local Plan (2018), K&C Local Plan Reg 18 (2021)

- Earl's Court/West Kensington 지역은 런던계획에서 2041년까지 6,500채의 신규 주택과 5,0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는 기회지역으로 지정됨(2011)
- 이 지역은 Heathrow/Elizabeth Line West Growth Corridor의 일부 지역으로 2019년 이후 100채 이상 의 새로운 주택이 공급되었고, 2011년 기회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350채 이상의 신규주택이 완공됨

출처: Earl's Court/West Kensington Opportunity Area. Mayor of London, https://www.london.gov.uk/what-we-do/planning/implementing-london-plan/opportunity-areas/londons-opportunity-areas/earls-courtwest-kensington-opportunity-area (검색일: 2022.09.15.)

<sup>35)</sup> The role of Local Planning Authorities in Opportunity Areas, Mayor of London,, https://www.london.gov.uk/what-we-do/planning/implementing-london-plan/opportunity-areas/what-are-opportunity-areas#acc-i-64698 (검색일: 2022.09.15.)

# 3. 소결

#### □ 동네생활권의 범위는 도보와 대중교통 연계의 일상생활권으로 설정

동네생활권 및 15분 생활권은 집(주거)으로부터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보행권을 공간 적 범위로 하며 도보 소요시간이나 거리에 따라 생활권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기존 지리적·행정적·통계적 단위의 데이터 분석과 함께 도시공간의 기능과 주민의 행태를 바탕으로 동네생활권 범위와 경계를 탐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생활권 기반의 계획 및 전략 마련을 위한 분석이 고도화되고 있는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캐나다 오타와시의 경우 주거지 내 15분을 기준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9개의 서비스 및 시설(식료품점, 공원, 의료 등)의 우선순위와 그에 따른 접근성을 점수화하고, 이와 더불어 보행환경의 질적 평가를 실시하여 오타와시 전역의 동네생활권을 점수화하여 지도로 정리하였다.

### □ 동네생활권 중심지를 거점으로 설정하고 주변지역과의 기능 배분

동네생활권 설정은 일상생활 단위의 공간계획 수립 및 전략 추진을 목적으로 하며, 동네생활권의 토지이용 및 공간 기능 배분 역시 공간의 위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동네생활권을 설정한 이후 중심 거점과 주변부 간의 관계를 기반으로 공간구조를 설정한 사례들을 볼 수 있었다. 공간밀도, 커뮤니티 특징, 공간패턴 등에 따라 도시공간 내 다양한 위계와 성격의 거점(앵커)을 형성하고, 거점별 특성에 따라 토지이용의 용도 및 공공서비스 기능, 교통의 결절과 경관의 특징을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주거지역의 동네거점은 주민들이 보행이나 자전거로 접근하기 좋은 곳으로 동네 주변 상업 서비스, 지역 활동 및 모임 등의 교류지 역할을 하는 지역으로 특화한다. 미국의 멤피스 종합계획이나 포틀랜드 2035 종합계획 디자인지침에서는 동네생활권 거점을 앵커와 앵커 네이버후드로 구분하고, 공간유형을 앵커와 특별용도구역, 공원 등으로 나누어 공간 구성 유형을 지침화 하였다. 동네생활권 내 주민들의 생활중심지로서 거점구역을 탐색하고, 근린 활성화를 위한 전략 마련 대상지로서 동네거점을 설정하여 주민들의 생활서비스 향유도를 높이고 서비스 전달체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 가는 방식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동네거점은 주거지 내 생활중심지로서 주거환경개선, 생활서비스 제공,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민간영역 시설 조성 등을 위한 장소로서 검토할 수 있었다.

#### □ 생활권별 위계에 따른 기능과 공간영역을 세분

동네생활권은 도시 내 일상생활을 이루는 최소 단위 공간영역으로서 기존 도시계획이나 도시정책에서 구분하는 생활권의 주거지 특성, 주민 커뮤니티 특성 등과 연계하여 동네거점의 도입기능과 규모를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도심지역과 달리 주거권역 내 동네거점은 근린 단위의 허브로서 근린생활시설이나 서비스 시설 등 일상의 생활편익시설 도입을 우선 고려할 수 있으며, 주민들의 커뮤니티 형성과 정체성에 기여할 수 있는 거점, 소비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소매 및 서비스시설이 집중된 거점 등으로 차별화할 수 있다.

국외 계획 및 정책 사례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생활권별 위계에 따른 기능과 공간영역을 세분화하고 있었다. 포틀랜드 2035 종합계획의 경우, 도시 내 생활권을 위계로 나누는 대신 동네생활권별 동네거점을 네이버후드 센터-타운센터-지역센터-도심센터 위계로 구분하고, 각 센터가 담당하는 주거밀도와 일자리 규모를 달리 적용하고 있었고, 건축물 및 도시개발밀도 또한 차별화하고 있었다. 중국 상하이 15분 생활권의 경우에는 15분 생활권과 5-10분 생활권으로 나누어 해당 범위 내 필요한 공공서비스 및 거점기능을 주민의 연령이나 시간별로 달리하는 계획과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또한 시, 구역, 특정 목적 차원에서 생활권의 유형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었고, 기존 도시계획 상의 생활권과의 정합성을 추구하는 중장기적 방향을 설정하고 있었다.

#### □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커뮤니티 기반의 동네생활권 설정과 계획 수립

동네생활권의 설정은 상향식 도시계획의 추구에 따른 미시적 공간단위의 계획 및 관리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기반의 조사·분석, 공간의 세분화에 따른 주민의 구체화 등에 따라 주민의 참여기회 확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었다. 대부분의 사례에서 동네생활권을 주민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함께 하기 위해 모이는 장소이자 지역별 특징 있는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범위로서 접근하고 있었고, 주민들이 동네 범위 설정에 참여함으로써 지역 커뮤니티와의 연계성을 높이고 있었다.

캐나다 오타와시의 경우, 동네생활권 설정 시 주민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중국 상하이 시의 경우에도 동네생활권 내 커뮤니티 활성화를 사업 추진의 목적으로 삼고 있었으며, 이러한 전 과정에서 주민참여와 소통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 □ 동네생활권의 특성을 명확히 하여 다양한 전략을 적용

동네생활권 설정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도시공간 변화, 주민수요, 시장 움직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간전략 수립 대상을 찾는 것에 있다. 미시적 공간단위로 계획과

전략을 세분화하는 것은 사회·경제적 변화, 미래 여건 변화, 주민의 생활패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전략 수립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에 동네생활권 설정 시 기능, 물리적 환경, 인구사회적 환경 등 다양한 자료를 기반으로 다각도의 분석을 실시하고 있었고, 이렇게 도출된 동네생활권은 지역별 특성에 따른 전략을 마련하고 적용하는데 활용되고 있었다.

멤피스 종합계획에서는 지역의 발전 양상을 크게 3단계(육성Nurture, 가속Accelerate, 지속Sustain)로 정리하고 이러한 방향으로 정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적절한 지원과 투자의 양을 정할 수 있도록 각각의 실행 전략에 대한 메뉴를 제공하고 있었다. 런던도 시기본계획에서는 새로운 주택, 일자리 및 모든 유형의 기반시설을 위한 잠재력이 있는 핵심위치를 기회지역(OA)으로 별도로 설정하고 기회지역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해당 지역들의 개발방향과 잠재력에 따른 자원 투입 근거를 마련하고 있었다.

#### □ 도시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동네생활권 단위 계획 및 개발방향의 지속성 확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와 도시문제로의 대응력을 강화하고 지역특화전략 마련을 위해 설정하는 동네생활권 역시 도시계획의 일부로서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이 필요하다.

중국의 경우 '중공중앙국무원의 도시규획 건설 관리업무 강화에 관한 약간 의견(中共中央國務院關于進壹步加強城市規劃建設管理工作的若幹意見)'에서 언급한 '혁신, 협조, 녹색, 개방, 공유'의 발전 이념을 15분 생활권 건설의 기본이념으로 공식 적용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가이드로서 '지역사회 생활권 규획 기술가이드(社区生活圈规划技术指南)'를 마련하여 전국 단위로 시행, 기존 도시계획 및 개발 계획과의 정합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별사업으로서 15분 생활권계획 및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기존 도시계획 및 사업과의 연장선상에서의 '콜라주'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미국 멤피스 및 포틀랜드, 영국 런던의 경우에도 동네생활권 설정을 도시단위의 중합계획차원에서 반영하고 있었다.

현행 우리나라 도시계획에서는 생활권을 대·중·소 생활권으로 구분하고 단편적으로 접근하고 있어 일상생활 중심의 동네생활권을 도입함에 있어서 도시계획체계로의 적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제4장 동네생활권 설정을 위한 시범적 탐색 및 분석

- 1. 분석개요
- 2.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권 탐색
- 3. 근린지역별 동네생활권 탐색
- 4. 소결

# 1. 분석개요

# 1) 분석목적 및 방법

#### □ 분석목적

• 실제 근린지역 대상 동네생활권 시범 탐색

본 장에서는 앞서 3장에서 검토·정립한 동네생활권의 개념과 설정 기준에 대해, 실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시범적 탐색·분석을 통해 동네생활권 설정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단일 행정구역(자치구) 내에서의 생활권 형성 특성을 토대로 인구·가구특성 및 주거지특성이 상이한 근린지역을 선정하는 과정을 거쳤고, 각 근린지역에서 기능·행태·인지 차원을 통합한 동네생활권 범위와 거점 등을 탐색하였다.

• 일상생활 활동특성에 기반한 동네생활권 설정 과제 도출

이는 궁극적으로는 근린환경 특성과 주민들의 실제 활동 패턴 그리고 동네 생활의 변화를 반영하여 생활권 탐색·설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과제와 이슈를 도출하는 목적을 갖는다.

#### □ 분석내용 및 방법

동네생활권 탐색과정은 크게 기능·행태·인지적 차원으로 구분하였고, 공간적 범위에 따라 지역 내 상위생활권 ⇒ 하위생활권의 단계로 형성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과정은 크게 기능·행태·인지적 차원의 세단계로 구분되며, 단계별 분석에 앞서 생활권 구분을 위한 행정경계 및 지형·지물 등 일반적 요소를 검토하였다.

# • (<sup>①</sup> 기능) 근린환경 특성

첫 번째 단계는 기능적 차원으로 인구·가구구성, 주거지특성, 주요 시설의 입지와 분포, 잠재적 접근성(총량적·물리적) 등의 근린환경을 이루는 요소를 검토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위치기반 데이터의 도면화와 GIS를 활용한 공간분석을 적용하였다.

## (<sup>2</sup> 행태) 주민활동 특성

두 번째 단계는 행태적 차원으로 지역 내 유동인구의 분포범위, 활동 목적별 주민들의 이동범위, 중심지 등의 공간적 이용패턴을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통신데이터와 주민설문조사결과를 활용한 사회네트워크·공간분석을 적용하였다.

#### • (<sup>3</sup> 인지) 커뮤니티 특성

마지막 단계는 인지적 차원으로 주민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들이 동네 커뮤니티 및 기능의 중심지로 인식하고 있는 거점과 동네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림 4-1] 동네생활권 탐색 및 분석방법 출처 : 연구진 작성

#### □ 분석자료

• 위치기반 빅데이터(공공·민간)와 개별데이터를 혼합적으로 활용

본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대부분 위치기반 자료로서, 공공과 민간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다양하게 구득하여 혼합적으로 활용하였다.

우선 근린환경 특성을 분석하는데 있어서는 대부분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였는데, 통계 청에서 제공하는 총인구수 및 가구수 자료, K-Geo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국토이용분석 자료, 소상공인진흥재단에서 제공하는 상가정보자료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한편, 주민활동 특성을 분석하는데 있어서는 기존의 공공데이터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통신사-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통신데이터·카드사용데이터와 함께 본 연구에서 자체인 주민설문조사를 통해 생산한 활동목적별 방문시설데이터 및 중심지 인지데이터 등을 활용하였다. 분석항목 및 내용에 따른 관련 데이터 목록은 다음 표와 같다.

[표 4-1] 분석자료 목록

분석항목	내용	자료 및 출처	자료단위
근린환경 특성	인구·가구수 및 밀도	통계청 총인구수·총가구수	cell (집계구)
	주거유형	K-Geo플랫폼 국토이용분석자료	_
	시설의 위치 및 분포	소상공인진흥재단 상가(상권)정보 로컬데이터 병의원정보 전국도서관표준데이터정보 포털 지도서비스정보	point
주민활동 특성	통행목적별 통행량	KTDB 통행목적별·이동수단별 여객OD	읍면동
	신용카드 사용액	BC카드 사용액	cell (500m)
	유동인구 통행량	LGT 통신데이터	cell (50m)
	일상생활 활동목적별 이동범위	자체 주민설문조사	point <sup>1)</sup>
	동네의 커뮤니티 중심	자체 주민인식조사	point

출처 : 연구진 작성

<sup>1)</sup> 주민설문조사를 통해 구득한 방문지(시설)주소를 지오코딩(Geo-coding)을 통해 포인트(point)로 구축

#### ※주민설문조사 방법

# • 조사개요

- (목적) 동네생활권의 주민 이용행태 분석을 통한 활동범위 도출, 동네 생활 및 주민 수요 의견수렴
- (대상) 대상지(근린지역 3개소)별 주민 100명 (만 20세 이상)으로 총 300명
- (방법) 1:1 대면조사
- (기간) 2022. 7.23.~ 8. 3. (약 2주)

#### • 문항구성

- (기본문항) 주민들이 생각하는 동네의 범위(기준)
- (매핑형 문항) 동네 안에서의 일상생활 활동목적별 시설 이용실태(이용시설, 이용빈도, 이동수단)
- (단답형 문항) 동네에서의 주요활동 및 동네범위 인식, 커뮤니티 활동특성, 주민수요

#### • 설문조사 문항구성 및 결과 활용

구분		주요 내용	문항유형
❶ 응답자 특성		<ul> <li>성별, 연령, 거주지역(상세주소 제외), 거주기간, 주택유형, 가구원수, 미성년자유무, 월평균소득</li> </ul>	단답형
2 활동별 이용	당시설	- (대상시설) 7개 활동에 대한 16개 이용시설 - (이용실태) 이용시설, 이용빈도, 이동수단	매핑형
			단답형
	커뮤니티 활동 특성	- 참여하고 있는 동네 활동 및 모임, 이용공간 - 동네 소식, 정보교류, 이웃 소통 방식	단답형
	주민수요	<ul> <li>동네 생활 변화 및 이유</li> <li>동네 활동 중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이용 비중 증가 항목</li> <li>동네 생활에서 가장 만족 및 불만족스러운 활동</li> <li>동네에서 필요한 온라인 공공서비스</li> </ul>	단답형

#### • 활동 목적별 이용시설 조사대상 시설

활동	이용 시설	활동	이용 시설	
장보기	시장	통학	(교육)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형마트(홈플러스, 이마트 등)		(보육) 어린이집, 유치원	
	동네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학원) 학원	
외식	음식점·카페 등 여가·문화·체육		공공체육(공원, 체육시설, 놀이터 등)	
근린서비스 이용	세탁소 미용실 이용원 목욕탕 등	-	문화시설(도서관, 영화관 등)	
공공·의료	우체국, 동사무소(주민센터) 등		종교시설	
서비스 이용	은행	친교 사교	사교모임을 위해 방문하는 다양한	
	약국		장소	
	병원, 의원, 한방병원	_		

출처 : 연구진 작성

# 2) 분석대상지

### □ 대상지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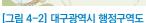
#### • 선정기준 및 근거

일반적으로 디지털전환 등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가 미치는 영향은 도시규모 및 밀도, 인구규모 및 구성 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다만 이러한 영향은 인구가 밀집한 도시지역에서 그 효과가 보다 크게 나타나게 된다. 이에 특·광역시 이상의 지역을 본 분석 대상 도시로 검토하였으며, 관련 공공데이터 구축 현황과 지자체 협조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구광역시'를 분석 대상도시로 선정하였다. 대구광역시는 코로나19의 집단적 감염·확산(2020.2~3)을 경험한 지역으로서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주민 인식조사를 수행하기에도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대구광역시 내에서 하나의 자치구를 선정하고, 그 안에서 서로 다른 특성을 갖는 복수의 지역에 대해 동네생활권을 비교 탐색함으로써 생활권 형성의 차이를 드러내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구광역시의 주거지 형성단계 및 용도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주거형태, 도심(중심기능)과의 관계, 입지 등을 고려하여 '북구'를 선정하였다. 북구는 도심부(중구)에 북측으로 인접한 지역으로, 1950~60년대 공업지역으로 조성되어 1970~90년대에 본격적으로 주거지역으로 발달하기 시작한 지역이다.

#### [표 4-2] 대구광역시 행정구역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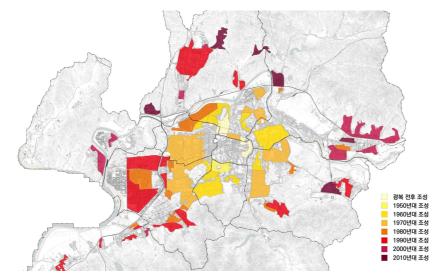
N	구분	기초지자체	관할 읍면동		인구수(명)	가구수(호)	비고			
1		(7구·1군)	읍	면	동					
	1	중구	-	-	12	77,842	39,913	원도심, 중심상업지역		
1	2	동구	_	-	22	341,142	159,221	동대구역 주변 업무지역, 저층주거지역 및 아파트주거지역 혼재		
	3	서구	-	-	17	162,325	81,771	산업단지 및 저층주거지역		
7	4	남구	-	-	13	141,805	76,195	경사지에 위치한 저층주거지역		
	5	북구	_	_	23	436,386	193,046	산업단지 및 아파트주거지역(90년대), 저층주거지역 혼재		
	6	수성구	_	_	23	415,694	171,998	아파트주거지역 및 저층주거지역 혼재		
+	7	달서구	-	_	22	540,693	235,134	아파트주거지역 및 저층주거지역 혼재		
	8	달성군	6	3	-	262,686	112,133	도농복합지역		
	합계					2,378,573	1,069,411			



출처 :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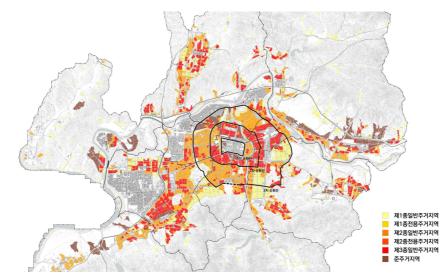
출처 : 행정구역, 대구광역시, https://www.daegu.go.kr/index.do?menu\_id=00000253 (검색일 : 2022.04.27.)

다음의 도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북구 내에는 도심과 인접하여 1960~70년대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주택지구(산격동 일대), 1980~90년대에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전환된 주택지구(침산동 일대 및 금호지구), 2000년대 조성된 신규 택지개 발지구(연경신도시) 등 시기별로 다양한 주거지역이 형성되어 있다. 또한 용도지역 상으로도 1~3종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이 혼합되어 있어 주거지 특성에 따른 동네생활권을 탐색·분석하기에 적합한 지역으로 판단하였다.



[그림 4-3] 대구광역시 택지개발 시기에 따른 주거지 분포

출처: 대구광역시(1996) 및 국가공간정보포털의 택지개발구역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그림 4-4] 대구광역시 주거지의 용도지역 분포

출처 : 국가공간정보포털의 토지특성정보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 2.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권 탐색

#### 1) 탐색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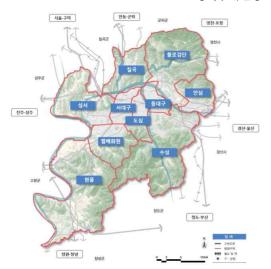
## □ 북구 일반 현황

#### • 면적

대구광역시 북구는 23개의 행정동으로 구성된 자치구로, 전체 지역 약 94㎢ 중 주거지역 약 20%, 상업지역 약 4%, 공업지역 약 5%이고 나머지 지역 약 70%는 산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sup>2)</sup>

#### • 인구·가구규모

2021년 기준 약 43만명의 인구(19만 가구)가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되며<sup>3)</sup>, 침산동·칠성 동·복현동 일대와 칠곡지구의 거주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고, 관음동·동천동·읍내 동 및 대현동 일대의 거주인구는 다소 적은 편이다.<sup>4)</sup>



### • 관련계획(도시기본계획의 생활권 설정)

"2030대구도시기본계획"에서는 북구의 금호강 이북에 해당하는 칠곡 지역을 4개 부도심 중 하나로 설정하여 칠곡생활권으로 구분하고 있으 며, 금호강 이남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및 침산·산격·대현동 등의 주거 지역은 도심생활권 및 동대구·서대구생활권으로 각각 분할 편입되고 있다.5) 동일한 행정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지형지물 및 통행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생활권으로 구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6)

[그림 4-5] 대구광역시의 도시기본계획상 생활권 구분

출처: 대구광역시(2018, p.123)

- 2) 국토교통부·한국국토정보공사(2022, p.102, p.114, p.120)
- 3) 구정현황, 대구광역시 북구청, https://www.buk.daegu.kr/index.do?menu\_id=00000256 (검색일 : 2022. 05.31.)
- 4) 국토통계지도 총인구수, 국토정보플랫폼, http://map.ngii.go.kr/ms/map/NlipMap.do?tabGb=total (검색일: 2022.05.31.)
- 5) 대구광역시(2018, p.107, p.123)
- 6) 대구광역시(2018, pp.119-122)

## 2) 생활권 탐색 및 도출

근린 단위의 동네생활권 탐색에 앞서, 북구의 지역환경 특성(지형지물, 기능분포 및 인구밀도)과 주민활동 특성(목적별 통행 및 유동인구)을 종합하여 북구 내에서의 생활권역구분과 근린 단위의 생활권 분화 패턴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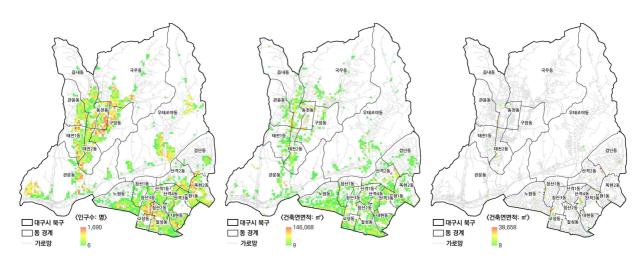
### □ 지역환경 특성 검토

## • 지형지물에 따른 행정구역 구분

북구의 23개 행정동은 북구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금호강을 기준으로, 북측의 관문·태전·구암·동천·관음동 등과 남측의 고성·칠성·침산·산격·복현동 등으로 크게 구분된다. 그리고 남측 지역들은 다시 금호강 지류를 기준으로 고성·칠성·침산동 등과 산격·복현·대현동으로 구분되어 총 세 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진다 할 수 있다.

### • 상업·업무기능 및 인구분포

격자단위 상업·업무기능(시설의 연면적) 분포정도를 집계한 결과, 도심에 인접한 고성· 칠성동 일대와 산격동 일대에 밀집되어 있음을 다음 도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같은 방식으로 인구분포정도를 공간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인구수는 100m×100m 면 적당 최대 1,600명까지 밀집 거주하고 있으며, 크게 남측의 침산·고성동 일대와 북측 칠 곡지구의 동천·구암동 일대, 남동측 산격·복현동 일대에서 높은 밀도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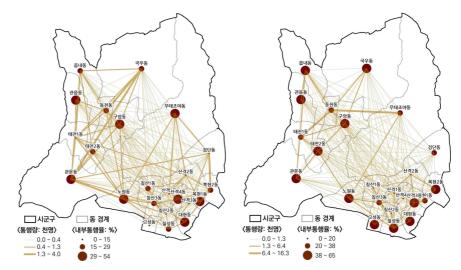
[그림 4-6] 대구광역시 북구의 인구분포(좌) 및 상업(중)·업무시설(우) 분포 현황

출처 : 국토통계지도 총인구수(국토정보플랫폼, http://map.ngii.go.kr/ms/map/NlipMap.do?tabGb=total, 검색일 : 2022.05.31.) 및 국토교통부 용도별 건물정보데이터 (상업·업무시설)(https://www.data.go.kr/data/15048123/fileData.do, 검색일 : 2022.05.31.)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 □ 주민활동 특성 검토

#### • 지역간 연계구조 현황

KTDB에서 제공하는 대구광역권 PA목적 OD자료(2019년기준)를 활용하여 북구 내 행정동간 연계구조를 개괄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중 동네생활권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비통근목적의 통행을 살펴보면[그림 4-7, 우측] 대부분의 지역에서 통행목적의 통근에 비해 내부 통행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관문동(67%), 산격3동(62%), 읍내동(55%), 국우동(53%), 복현2동(52%), 관음동(52%), 고성동(50%) 등의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 이들 지역에서의 동네생활권이 강하게 형성되고 있음을 미루어 예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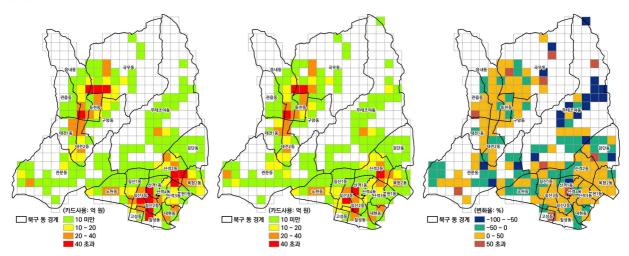
[그림 4-7] 대구광역시 북구의 행정동 간 연계구조(좌: 통근목적, 우: 비통근목적) 출처 : 국가교통DB 교통분석자료(대구광역권 PA 목적 OD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 • 지역내(동네) 소비 현황

BC카드에서 구득한 신용카드 사용액자료 중 2019년과 2021년 자료를 활용하여 북구 내 각 지역별 카드사용액의 증감액을 비교·검토하였다. 본 데이터의 공간단위는 500m×500m 격자이며, 전체 사용액 중 북구 주민이 사용한 금액을 추출하여 분석함으로써 동네에서의 활동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전후의 사용량 비교(증감)를 통해 소비가 증가한 동네와 감소한 동네를 파악함으로써 동네에서의 활동이 더 두드러지는 지역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자료분석 결과, 북구 전체에서 카드사용액이 약 10% 가량 감소한 가운데(2019년 21,171억원 ⇒ 2021년 19,326억원), 시점별로 카드사용액이 집중되는 지역은 주요 상 업시설이 밀집한 동천·산격·침산동 일대로 파악된다.

한편 아래[그림 4-8, 우측]에서 붉은색으로 표시되는 관음·산격4·고성동 등의 지역은 주요 상업시설이 밀집한 지역이 아닌 동시에 2019년 대비 2021년의 카드사용액이 증가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어 동네에서의 활동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지역으로 해석할 수있다.



[그림 4-8] 대구광역시 북구의 지역 내 소비특성(좌: 2019년, 중: 2021년, 우: 변화율) 출처: BC카드 사용액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 □ 대구 북구의 동네 단위 생활권 도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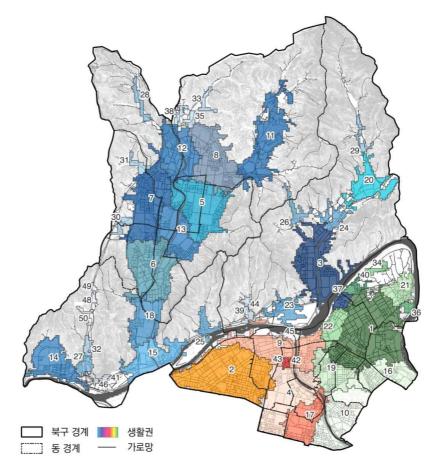
• 공간네트워크 분석을 적용하여 생활권의 분화 확인

최종적으로는 LGU+에서 제공하는 유동인구 자료(Mobile Phone Signaling Data)를 바탕으로, 공간네트워크 분석방법론 중 하나인 커뮤니티 탐지(Community Detection) 방법론을 적용하여 북구 내 생활권 분화 현상을 공간적으로 확인하였다. 커뮤니티 탐지 방법론은 네트워크 간의 연결성을 기반으로 최적의 커뮤니티를 계층적으로 클러스터링하는 방식으로, 최근 생활권의 분화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Newman and Girvan(2004)<sup>7)</sup>이 제안한 모듈성(Modularity)지수를 활용하여 최적의 커뮤니티 개수를 탐지하고자 하였으며 이 때, 커뮤니티의 이동거리는 북

구 내의 인구밀도와 정주지특성, 동네 단위 생활권으로 볼 수 있는 지리적 범위를 고려하여 1km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유동인구수는 18,291,475명이다.

분석 결과 북구 전체지역은 50개의 근린 단위 생활권으로 분류®되었으며, 이 경우 생활권의 지리적 범위인 1km 내에서 평균 9,000여명의 인구수를 포함하게 된다. 생활권도 출결과는 다음 도면과 같다. 크게 금호강을 기준으로 북측과 남측으로 중생활권역이 구분되며, 남측은 다시 금호강 지류를 기준으로 동측과 서측의 중생활권역으로 구분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에 다음 절에서 각 중생활권역별로 서로 다른 사회·물리적 특성을 갖는 근린지역을 선정하여, 동네생활권의 형성과 그 특성을 탐색하는 과정을 갖고자 한다.



[그림 4-9] 대구광역시 북구 내 근린생활권 도출(안)

주) 생활권 번호는 면적이 넓은 순서에 의함

출처 : 연구진 작성

<sup>8)</sup> 이 경우 생활권 분화분석의 적합도를 가늠할 수 있는 모듈성값(Modularity, 0~1, 1에 가까운 값일수록 적합도가 높음)이 0.880으로 도출

# 3. 근린지역별 동네생활권 탐색

앞서 북구 전체의 지역환경 특성과 주민활동 특성 등을 종합하여 세 개의 중생활권역과 50개의 근린 단위 생활권역을 도출하였다. 본 단계에서는 각 중생활권역마다 한 개씩 근 린지역을 선정하여 탐색 절차에 따라 동네생활권의 범위를 파악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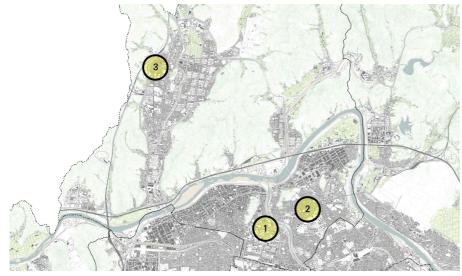
## 1) 탐색 개요

## □ 분석대상 근린지역

• 근린 지역 선정기준

앞서 구분한 세 개의 권역 내에서 주거지에 해당하는 근린을 대상으로, 주거지 특성(아파트단지 VS. 저층주택 VS. 혼합), 상권 특성(도심·중심상권 인접 VS. 동네상권), 인구·가구 특성을 고려하여 동네생활권 탐색을 위한 근린 지역을 선정하였다. 상권 특성에서는 도심·중심상권 보다는 동네상권이 두드러지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동네생활의 특성을 최대한 포착하고자 하였다.

이에 최종적으로 <sup>●</sup>침산동(대구북구 생활권 도출에서의 4번 생활권), <sup>●</sup>산격동(대구북구 생활권 도출에서의 1번 및 19번 생활권), <sup>●</sup>관음동(대구북구 생활권 도출에서의 7번생활 권)을 동네생활권 탐색을 위한 근린지역으로 선정하였다.



[그림 4-10] 대구광역시 북구 내 3개 근린지역 위치도 출처 : 연구진 작성

### □ 근린지역별 개요

#### • **1** 침산2⋅3동

침산2·3동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까지 순차적으로 조성된 아파트단지 중심 주 거지역으로, 약 1,000세대 내·외의 아파트단지가 연속적으로 조성되어 있다. 인구수는 약 38,000명, 가구수는 약 14,000호로 집계되며 산격3동 및 관음동에 비해 10대 이하와 30~40대, 3~4인가구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침산2동과 3동 경계부의 침산네거리를 중심으로 학원·병원이 밀집되어 있으며 그 배후로 식·음 용도의 생활상권이 조성되어 있고, 남측으로는 대형마트가 위치하여 중위상권 역할을 수행한다.

#### ② 산격3동

산격3동은 경북대학교 북문의 북서측에 위치한 주거지역으로, 1960~70년대에 토지구 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블록에 단독·다세대·연립주택 등 저층주택이 밀집되어 있다. 인구수는 약 9,400명, 가구수는 약 6,400호로 집계되며 20대 인구가 약 2,800명으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이고, 1인가구가 약 4,300호 이상으로 매우 많은 편으로 나타난다.10 대상 근린지역 남측으로는 경북대학교와 연계된 대학상권이 조성되어 있고, 북동측으로는 산격종합시장과 연계된 생활상권이 조성되어 있는 특성을 보인다.

#### ③ 관음동

관음동은 북구 북측의 칠곡지구에 조성된 택지개발지구로 단독·다세대주택과 함께 약 500세대 내·외의 중·소규모 아파트단지가 혼재되어 있는 지역이다. 인구수는 약 16,000 명, 가구수는 약 6,900호로 집계되며 50대 이상 인구가 8,100여명으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1~2인가구의 비율 또한 높은 편이다.<sup>11)</sup> 대상 근린지역 동측으로 칠곡시장과 연계된 생활상권이 가로를 따라 조성되어 있고, 동측에 위치한 도시철도 3호선 동천역을 중심으로 중위상권이 형성되어 있다.

<sup>9)</sup>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인구 자료(2022년 4월기준)와 가구원수별 가구(일반가구) 자료(2020년 기준) 참고 10)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인구 자료(2022년 4월기준)와 가구원수별 가구(일반가구) 자료(2020년 기준) 참고

<sup>11)</sup>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인구 자료(2022년 4월기준)와 가구원수별 가구(일반가구) 자료(2020년 기준) 참고

[표 4-3] 분석대상 근린지역의 주요 특성

[H + 0] E-	1410 CDNHH	1440								
지역 구분	근린유형	주요 용도지역	주거지 및 상권특성	Figure-ground map						
<ul><li>● 침산2동 침산3동</li></ul>		3종일반주거 2종일반주거 일반상업	1990~2000년대 조성     대규모 아파트단지     학원 및 병원 밀집     대형마트(이마트) 인접							
									인구·가구특성	
			• 10대 이하 및 30~40대 연령비율이 비교적 높은 편 • 3~4인가구 비율이 비교적 높은 편							
❷ 산격3동	저층주택 중심 2종일반주거 일반상업		1960~70년대 조성     단독-다세대주택 혼합     대학가 배후상권     동네상권	DOMESTICAL DESIGNATION OF THE PARTY OF THE P						
			인구·가구특성	A PANEL OF						
			• 20대 연령비율이 높은 편 • 1인가구 비율이 매우 높은 편							
❸ 관음동	아파트단지 및 저층주택 혼합	2종일반주거 1종일반주거	1990년대초 조성     단독-다세대·연립주택 및 소규모 아파트단지 혼합     동네상권							
			인구·가구특성							
			• 50대 이상 연령비율이 높은 편 • 1인가구 비율이 높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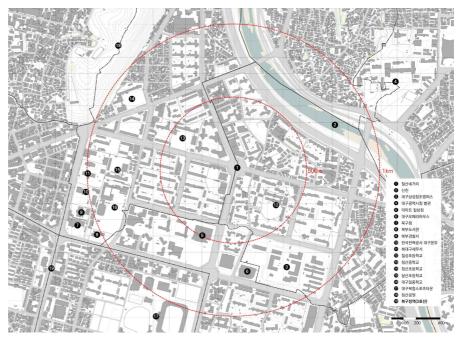
출처 : 연구진 작성

## 2) 침산2·3동 동네생활권 탐색

## □ 일반현황

#### • 주요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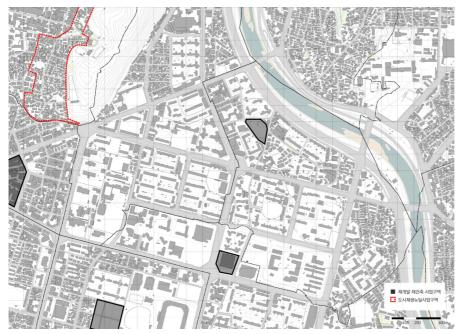
침산2동과 침산3동이 접하는 침산네거리에 주요 상가가 조성되어 있고, 이를 중심으로 500m 반경에 10여개의 아파트단지와 칠성초·침산중이 위치한다. 남측 1km 반경으로 옥산로를 따라 북구청과 도시철도 3호선 북구청역, 대구 오페라하우스, 삼성창조캠퍼스, 대형마트(이마트) 등 주요 시설이 입지하고 있다. 북측 1km 반경으로는 신천과 침산 공원이 위치하여 인접 지역과 물리적으로 구분되는 특징을 보인다.



[그림 4-11] <mark>침산2·3동 일대의 주요시설</mark> 출처 : 연구진 작성

#### • 관련 사업추진 현황

침산2·3동 내부에서 추진 중인 주택건설사업으로 침산네거리와 인접하여 '침산동 공동 주택 복합빌딩'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2024.9.준공 예정), 그 외 동 외부에서 3건의 재건축·재개발사업과 1건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진행 중이다.



[그림 4-12] 침산2·3동 일대의 관련 사업추진 현황

출처 : 대구광역시 주택건설사업 추진현황(2022.4.) 자료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그림 4-13] 침산2·3동의 주요 가로경관(침산네거리 및 대형마트 등)

출처 : 연구진 촬영

## ① (기능) 근린환경 특성

## □ 인구·가구 및 주거지 특성

## • 인구·가구 구성

침산2·3동 일대의 연령별 인구구성은 특정 연령에 치우지지 않고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는 특성을 보이며 최근 5년간 인구가 증가한 지역이다(5.8% 증가). 연령대별로는 40~50대 인구가 약 3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10대 이하 인구가 약 20%에 달한다. 60대 이상 인구는 약 22%로 국내 인구 구성비(2021년 기준 국내 60대 이상 인구비율 24.7%) 대비 다소 낮은 수준이다.

가구원수별 가구구성에서는 2~4인가구가 각각 약 25% 선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를 연령 별 인구구성비와 종합하여 미루어볼 때, 본 근린지역은 유·청소년 자녀가 있는 가구가 상당 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표 4-4] 침산2·3동의 인구 및 가구구성 현황

항목	구분	수(명)	비율(%)	항목	구분	수(명)	비율(%)
인구구성	10대 이하	7,941	20.8	가구구성	1인가구	2,545	18.1
(연령별)	20대	4,163	10.9	(가구원수별)	2인가구	3,879	27.5
	30대	4,548	11.9		3인가구	3,521	25.0
	40대	6,898	18.1		4인가구	3,297	23.4
	50대	6,281	16.4		5인가구	849	6.0
	60대 이상	8,356	21.9		이상		
	합계	38,187	100.0		합계	14,091	100.0

출처 : 국가통계포털 행정구역별/5세별 주민등록인구 자료(2022년 4월기준)와 가구원수별 가구(일반가구) 자료(2020년 기준)를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https://kosis.kr/index/index.do, 검색일 : 2022.05.31.)

### • 주거유형

침산2·3동의 주택은 유형별로 단독주택 5%, 공동주택 95%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중에서도 아파트 유형이 90% 이상을 차지한다. 아파트는 대부분 단지 형태로서 500세대 이상의 중·대규모 단지가 주를 이루고 있다.

[표 4-5] 침산2·3동 주거유형별 주택 현황

구분		동수(호)	비율(%)
단독주택(694)	단독주택	389	2.7
	다가구주택	305	2.1
공동주택(13,862)	다세대주택	388	2.7
	연립주택	33	0.2
	아파트	13,441	92.3
합계		14,556	100.0

출처 : K-Geo플랫폼 국토이용분석 자료(https://kgeop.go.kr/info/infoMap.do?initMode=B, 검색일 : 2022.06.01.)를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 □ 일상생활 활동별 시설분포 특성12)

#### • 활동 목적별 시설분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침산 2·3동은 아파트단지 중심의 공간을 구성하고 있어, 일상생활 활동을 위한 주요 시설들이 블록 외부의 가로를 따라 분포하는 특성을 보인다. 그 중에서도 침산네거리에서 북서방향 가로인 침산로와 남동방향 가로인 침산남로를 따라시설이 다수 밀집해 있다.

이를 일상생활 활동목적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먼저 '장보기·외식·근린서비스이용 목적'시설의 경우 생필품·식료품 등의 장보기 목적을 위한 시설들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다. 본 시설들은 침산네거리를 중심으로 비교적 높은 위계의 가로(침산로)를 따라 위치하는 특성을 보인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생활편익시설(187호), 소매점(161호), 일반음식점(90호), 휴게음식점(43호)<sup>13)</sup> 등의 시설이 주를 이룬다.

'공공·의료서비스 이용과 통학 목적'을 위한 시설들 역시 침산네거리를 중심으로 침산로 와 침산남로를 따라 위치하고 있다. 다만, 장보기 목적의 시설들과 비교하여 분포 범위

12) 본 보고서 3장에서 검토·분류한 '일상생활활동 목적'(동네활동에 따라 주요 관련 시설의 분포를 매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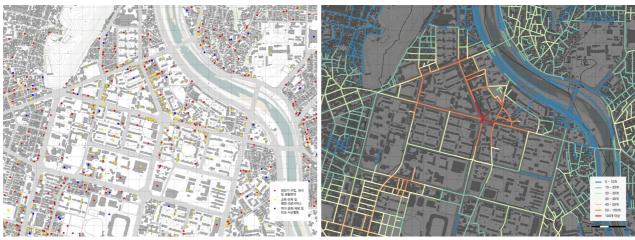
활동목적		관련시설	활 <del>동구</del> 분	구분
장보기	생필품·식료품	슈퍼마켓, 편의점, 시장, 중대형마트 등	(필수)	1
	비생필품	문구점, 잡화점, 철물점, 꽃집, 서점 등	(선택)	
외식		음식점, 카페, 제과점 등	(필수+선택)	
근린서비스 이용		세탁소, 미용실, 이용원, 목욕탕 등	(필수)	
공공·의료서비스 이용		우체국, 동사무소, 은행, 병·의원, 약국 등	(필수)	2
통학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학원 등	(필수+선택)	
여가 문화 체육		도서관, 영화관, 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선택)	3
친교·사교		경로당, 커뮤니티시설 등	(선택)	

13) K-Geo플랫폼 국토이용분석 자료(https://kgeop.go.kr/info/infoMap.do?initMode=L, 검색일 : 202 2.06.01.)를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가 다소 좁은 편이다. 세부적으로는 병·의원(130호), 학원(109호)<sup>14)</sup>이 주를 이룬다. 마지막으로 '여가·문화·체육활동 및 사교 목적'을 위한 시설들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기 보다는 지역 전체에 산발적으로 위치하는 특성을 보인다.

#### • 시설분포 밀집도 및 접근성

앞서 검토한 시설분포에 따라 가로에서의 접근성을 살펴보면, 침산네거리에 100개 이상의 시설이 위치하여 집중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14, 우측]



[그림 4-14] 침산2·3동 일대의 일상생활활동 관련 시설 분포(좌) 및 시설 분포에 따른 밀집도와 접근성(우)

(좌)출처: 소상공인진흥공단 상가(상권)정보, 로컬데이터 병원·의원정보,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도서관표준데이터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검색일: 2022.06.07.)

(우)출처 : 연구진 작성



[그림 4-15] 침산2·3동의 주요시설 밀집도 및 접근성(좌: 장보기·구입목적, 중: 서비스이용목적, 우: 여가·사교목적) 출처 : 연구진 작성

그리고 침산네거리를 중심으로 북서방향 아파트단지와 남서방향 아파트단지까지의 보 행 접근성이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마찬가지로 활동목적별로 구분해 보면[그 림 4-15] 목적별로 관련 시설이 집중된 지역과 접근성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장보기·구

<sup>14)</sup> K-Geo플랫폼 국토이용분석 자료(https://kgeop.go.kr/info/infoMap.do?initMode=L, 검색일 : 2022. 06.01.)를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입 및 서비스이용목적 하에서는 침산네거리의 시설 집중도와 인근 아파트단지의 접근 성이 우수하지만 여가·사교 목적 하에서는 침산네거리 북서측 지점에서 비교적 높은 집 중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행태) 주민 일상생활활동 특성

## □ 유동인구 분포

• 시간대 및 거리조락별 유동인구 분포 특성

2022년 5월 1일부터 7일까지의 일주일간의 LGU+ 통신자료를 활용해 유동인구 분포의 공간적 범위를 파악하였다.<sup>15)</sup>

침산2·3동의 시간대별 유동인구수는 약 15만~20만명으로, 9~11시에 가장 적다가 점차증가하여 18~20시에 가장 많은 유동인구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4-6] 침산2·3동 시간대별 유동인구 변화(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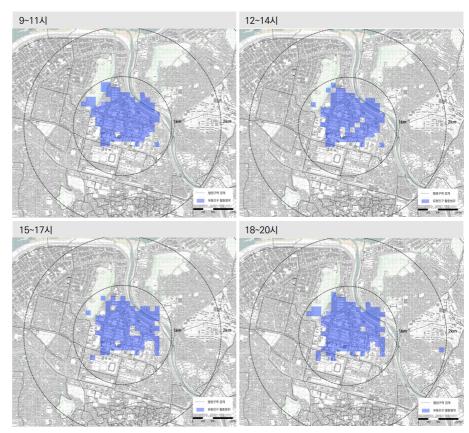
구분	9~11시	12~14시	15~17시	18~20시
1km 이내	104,649	120,072	137,078	162,374
	(67.4)	(66.6)	(68.9)	(81.1)
1~2km	11,739	12,497	13,387	9,657
	(7.6)	(6.9)	(6.7)	(4.8)
2~5km	17,977	21,578	23,275	13,131
	(11.5)	(12.0)	(11.7)	(6.6)
5km	20,885	26,142	25,316	15,118
	(13.5)	(14.5)	(12.7)	(7.5)
합계	155,250	180,289	199,055	200,279
	(100.0)	(100.0)	(100.0)	(100.0)

출처: LGU+ MPSD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모든 시간대에서 근린지역 중심으로부터 직선 반경 1km 내의 범위에 유동인구의 60% 가량이 집중되어 있으며, 2km까지 확장할 경우 70%~80% 수준으로 상승하는 특성을 보인다. 그 중에서도 저녁시간대인 18~20시 사이에는 약 80%의 인구가 1km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저녁시간이 될수록 타 시간대와 달리 반경 1km 내인주거지 근처로 활동이 더욱 집중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sup>15)</sup> 유동인구 분포의 시간대는 9~11시, 12~14시, 15~17시, 18~20시의 네 구간으로 분류하였고, 거리조락은 침산2·3동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1km 이내, 1~2km, 2~5km, 5km 이상의 네 구간으로 분류. 본 본류 기준은 이하 산격3동과 관음동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적용

동네생활권의 공간위계에서 인구의 이동범위를 파악하기 위해 시간대별 유동인구자료 중 2km 내에서 발생한 유동인구 분포만을 추출하여 도면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4-16] 침산2·3동 일대의 시간대별 유동인구 분포 출처 : LGU+ MPSD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 □ 활동 목적별 생활권 영역 형성

침산2·3동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해 조사된 활동 목적별실제 이동범위를 도면화하여 동네 활동영역을 비교 검토하였다.

## • 장보기·외식·근린서비스이용 목적

침산2·3동에 거주하는 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동네에서의 활동 목적별 방문지를 조사한 결과, 장보기목적 183개 지점, 외식목적 84개 지점, 근린서비스이용목적 44개 지점으로 도출되어, 장보기목적 활동이 동네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각 목적별 평균이동거리와 최장·최단이동거리를 비교해보면, 장보기목적의 평균이동 거리가 약 500m로 가장 길고, 근린서비스이용목적은 약 350m로 거주지 근접 범위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보행시간으로 환산<sup>16)</sup>하면 장보기와 외식목적의 경우 약 8 분거리에서 활동이 일어나고 있으며, 근린서비스이용목적의 경우 평균 5분거리에서 활 동이 일어나고 있다. 다만 본 거리는 직선거리 기준으로서, 보행네트워크를 고려한다면 실제 생활권의 이용범위는 다소 넓은 권역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 공공서비스이용·통학 목적

동일한 방법으로 조사결과를 분류하면, 공공서비스이용목적 88개 지점, 통학목적 13개 지점으로 도출된다. 두 활동 모두 앞서 살펴본 장보기·외식 등의 목적에 비하여 평균이 동거리가 100m 가량 짧게 나타났으며, 특히 통학목적의 활동은 약 277m로 거주지와 매우 근접한 범위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마찬가지로 보행시간으로 환산할 경우 평균 4~5분거리에서 활동 영역이 형성되고 있다.

#### • 여가·사교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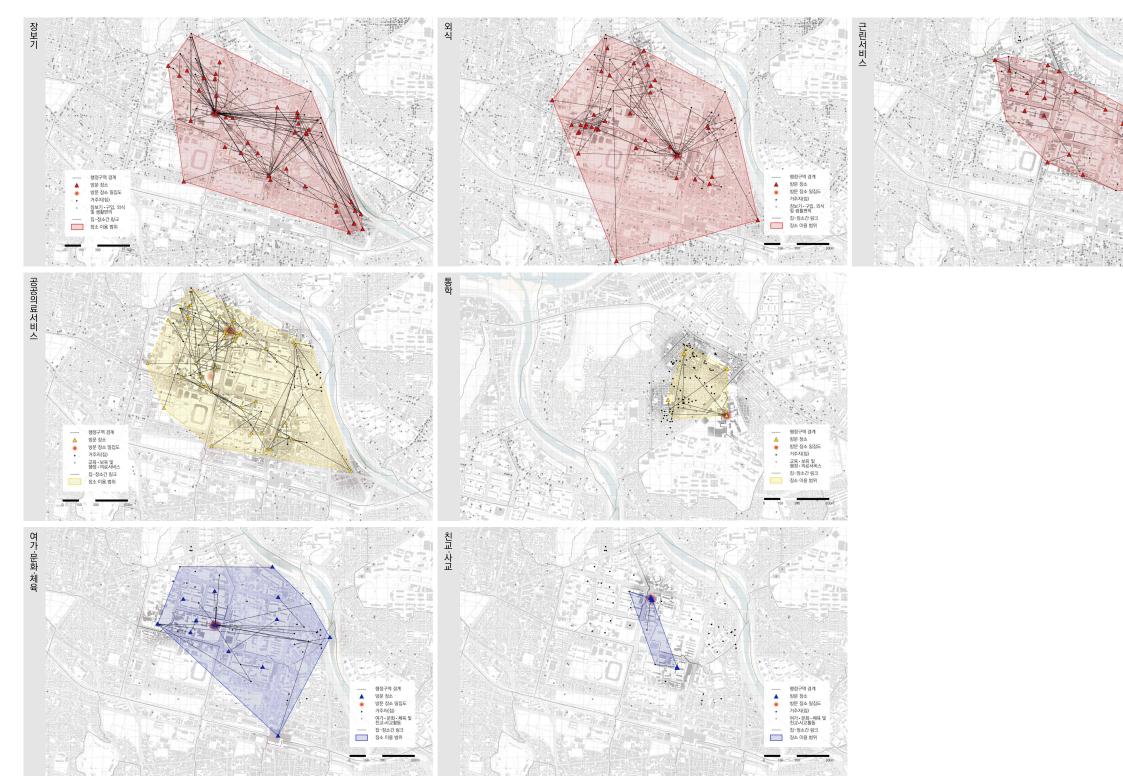
여가·사교목적 조사결과를 분류하면 여가·문화·체육 목적 33개 지점, 친교·사교 목적 3 개 지점으로, 타 활동에 비해 빈도가 다소 낮은 편이다. 그 중 여가·문화·체육목적의 활동은 평균이동거리가 576m로 7개 활동 중 가장 길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 침산2·3동 내 주 요시설의 밀집도와 접근성에서 낮은 수준을 보인 분석 결과의 연속선상에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친교·사교의 경우 조사된 표본수가 적어 침산2·3동의 동네 활동 특성으로 해석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표 4-7] 침산2·3동 주민들의 활동목적별 방문지점 및 이동거리 특성

구분	장보기	외식	근린서비스이용	공공서비스이용	통학	여가·문화·체육	친교·사교
방문지점 수	183개소	84개소	44개소	88개소	13개소	33개소	3개소
평균이동거리	498m	452m	351m	394m	277m	576m	244m
최장이동거리	2,082m	1,580m	1,467m	1,826m	637m	1,396m	303m
최단이동거리	22m	60m	47m	61m	174m	123m	205m

주) 직선거리 기준

출처: 주민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그림 4-17] 침산2·3동 주민들의 활동목적별 동네이용 범위 출처 : 주민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 • 생활권의 영역 및 거점, 경계

이상 활동별로 도출한 주민들의 동네 이용범위를 종합하여 침산2·3동 동네생활권의 영역과 거점, 경계를 도출해보았다.

침산2·3동에서는 직선거리 평균 399m, 최장 498m(여가·문화·체육활동 목적), 최단 244m(친교·사교 목적)의 범위에서 동네 활동 영역이 형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체로 선택적 활동으로 분류되는 여가·문화·체육목적의 활동 반경이 길게 나타났고, 필수적 활동으로 분류되는 공공서비스이용 및 통학목적의 활동 반경은 짧은 편이다. 그 가운데 사회적 활동에 해당하는 친교·사교활동은 동네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각 활동 지점을 연결한 폴리곤으로 활동영역 면적을 계산17)한 평균값은 1.27km²이다.

[표 4-8] 침산2·3동 주민들의 활동목적별 평균거리순 및 평균(단위: m, km²)

구분	여가·문화	장보기	외식	공공서비스	근린서비스	통학	친교·사교	평균
평균거리	576	498	452	394	351	277	244	399
면적	1.49	1.90	2.53	1.87	1.10	0.86	0.12	1.27

주) 직선거리 기준

출처: 주민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활동별 거점을 살펴보면, 장보기와 여가·문화 활동거점은 공통적으로 대형마트(이마트)에서 형성되고 있고, 그 외 활동목적별로 침산네거리(공공서비스 및 친교·사교), 삼성창조캠퍼스(외식) 등에서 서로 다른 거점이 발견된다.

한편 각 활동범위의 경계를 살펴보면 우선 행정구역경계와 무관한 활동이 모든 목적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침산2·3동 북서측의 간선도로와 신천 경계를 넘어서는 활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다. 즉, 주로 보행을 통한 이동이 이루어지는 동네활동 특성상, 하천 및 간선도로 등의 지형지물 요소는 유의미한 생활권 경계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 106 동네생활권 개념 도입 및 정책적 활용방안 연구

<sup>17)</sup> ArcGIS 10.8의 Minimum Bounding Geometry 분석도구를 활용하여 형성한 폴리곤의 면적을 계산

### ③ (인지) 커뮤니티 특성

동네생활권 탐색의 커뮤니티 특성은 침산2·3동 거주자 만 20세 이상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동네생활 및 주민수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동네 주요 활동 및 동네 범위 인 식', '커뮤니티 활동', '동네생활 주민수요'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 ※ 침산2·3동 응답자 일반현황

- 침산2·3동 응답자 100명은 연령대 중 40대(25%)와 50대(23%)의 청장년층의 응답이 다소 높았으며, 그 외 연령대는 16%~19%로 고르게 나타남
- 가구원 수는 4명(44%)이 가장 많았으며 가구 내 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는 37%, 월평균 소득은 400만원 이상이 63%로 3개 대상지 중에 가구원 수와 미성년자 가구원, 월평균 소득이 높은 특성
- 주거형태는 주로 아파트(85%)로 응답자 중 70%가 10년 이상 장기간 거주한 주민(10년-20년 미만 32%, 20년 이상 38%)으로 나타났다.

### □ 동네 주요 활동 및 동네 범위 인식

• 직장·학교 등의 정기적인 활동 및 동네 주요 활동

침산2·3동 응답자의 75%가 직장 또는 학교에 가는 정기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들의 직장 및 학교 위치는 북구 외 대구시 내 38%, 대구시 북구 내 33%이며, 이동시간은 평균 24.5분이 소요되고 주로 자가용, 버스 등 차량(77.3%)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네에서 주로 하는 활동(1·2·3순위 중복응답 272건)은 장보기(33.5%), 외식(26.5%), 근린 서비스이용 및 공공·의료 서비스이용(14%), 여가·문화·체육활동(7.7%)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대상지 중 친교·사교활동이 2.2%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 • 활동목적별 시설이용 및 이용빈도·이동방법

일상생활의 활동목적별로 월 1회 이상 이용하는 모든 시설(7개 활동 16개 시설)과 이용 빈도를 중복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침산2·3동 응답자 100명이 448건으로 응답하였다.

침산2·3동 응답자는 장보기 활동을 위해 주로 대형마트(94건)와 동네마트·슈퍼마켓· 편의점(75건)을 이용하며, 외식 활동을 위해 음식점·카페 등(84건)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상지 중 가장 많다. 이는 대상지 중 월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특성과 인근에 관련 시설의입지와 상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의료 서비스의 이용은 은행(48건), 병·의원(22건)을 주로 이용한 반면 우체국·동사무소 이용 건수는 전혀 없었으며, 통학활동에 응답수는 적으나 초·중·고등학교(5건), 어린이집·유치원(6건), 학원(2건) 전체 대상지 중 가장 많다. 여가·문화·체육시설 중 문화시설(22건), 공공체육시설(11건)이 주로 나타났으

며, 친교·사교활동은 전체 대상지 중 가장 적게 나타났다.

시설의 이용빈도는 전체 16개 시설에 대해 월 평균 4회 정도 이용하며, 어린이집·유치원 (14회), 동네마트·슈퍼마켓· 편의점(3.3회), 초·중·고등학교(6회), 공공체육(5.9회)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빈도로 이용하는 시설은 주로 은행을 제외한 공공·의료서비스 시설(1회~1.2회 수준)과 문화시설(1.2회)로 나타났다.

시설로의 이동수단은 대체로 도보를 이용하였으나, 시장(차량 64.3%), 우체국·동사무소 (차량 100%), 친교·사교활동을 위한 장소(차량 66.7%)를 이용할 때에는 차량의 이용비율이 높았다. 도보로 주로 이용하는 시설은 장보기 활동 중 동네마트·슈퍼마켓· 편의점 (97.3%), 근린서비스 이용을 위한 세탁소·미용실·이용원·목욕탕 등(97.7%), 공공·의료서비스 이용 활동을 은행(95.8%), 병·의원 (95.5%), 약국(94.4%)으로 나타났다. 이에 침산2·3동 응답자의 동네 활동은 차량과 도보를 혼용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9] 침산2·3동 활동목적별 시설이용(중복 응답)

활동	시설	이용건수 (건)	이용빈도 (회/월)	이동방법 (%)
장보기	시장	14	2	차량 64.3
	대형마트	94	3.3	도보 60.6
	동네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75	7.1	도보 97.3
외식	음식점, 카페 등	84	3.2	도보 58.3
근린서비스 이용	세탁소, 미용실, 이용원, <del>목욕</del> 탕 등	44	1.4	도보 97.7
공공·의료 서비스 이용	우체국, 동사무소(주민센터) 등	0	1	차량 100.0
	은행	48	2.8	도보 95.8
	약국	18	1.2	도보 94.4
	병원, 의원, 한방병원	22	1.2	도보 95.5
통학(교육)	초·중·고등학교	5	6	도보 80.0
	어린이집, 유치원	6	14	도보 66.7
	학원	2	4	도보 100.0
여가·문화·체육	공공체육	11	5.9	도보 90.9
	문화시설	22	1.2	도보 59.1
	종교시설	0	6.7	도보 83.3
친교·사교	사교모임을 위해 방문하는 다양한 장소	3	2.7	차량 66.7

출처 : 연구진 작성

#### • 동네 범위의 인식

자신이 살고 있는 집 주변의 일상생활 활동 범위를 동네라고 할 때 침산2·3동 응답자는 동네 범위를 대체로 '도보(88%)'를 기준으로 인식하며, 평균 22.5분으로 응답하였다. 소요시간에 대한 응답을 구간별로 볼 때, 20분에서 40분 사이로 응답한 비율이 62%(20분 -30분 31%, 30분-40분 31%)를 차지하였으며 20분 미만 응답 비율은 29%로 전체 대상지(평균 37%) 중 두 번째로 높아 동네 범위를 다소 넓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동네의 중심 장소 및 이유

동네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지역이나 장소를 선택하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확인한 결과, 침산2·3동 응답자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곳이라서(59%)', '접근하기 좋아서(54%)', '인식하기 쉬운 장소라서(46%)', '만남의 장소 등 모임과 빈번한 활동이 있는 곳이라서(37%)',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해서(19%)'순으로 응답하였다. 전반적으로 다양한 시설이 한곳에 있어 여러 활동이 가능하며 접근성과 대표성이 있는 장소를 동네의 중심지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 □ 커뮤니티 활동

## • 참여하고 있는 동네 활동 및 모임과 이용하는 공간

동네에서 참여하고 있는 활동이나 모임에 대해 대체로 '없다(68%)'로 응답하였으며, '지인, 이웃 등과의 일상적인 만남'을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2%로, 이는 전체 대상지의 '없음(64%)'에 응답한 비율과 유사한 수준이다.

동네 활동이나 모임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32명에 대해 동네 활동이나 모임의 공간을 확인한 결과 침산2·3동은 '공원, 놀이터 등 야외공간(47%)'과 '카페(50%)'로 응답하였으며, 공공시설(복합커뮤니티센터, 생활문화센터 등)을 이용한다는 응답은 3%에 불과한수준이다.

#### • 동네 소식 및 정보교류 등 이웃 소통 방식

대체로 침산2·3동 응답자는 '동네 소식에 대한 정보교류 활동을 하지 않음(83%)'에 응답 하였으며, '반상회 등 이웃과 직접 만남을 통해서(15%)' 미미한 수준으로 이웃과 소통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동네생활 주민수요

### • 동네생활 변화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비대면 활동 등의 증가로 인한 동네 생활 변화에 대해 침산2·3 동 응답자는 전체 대상지 평균(74%)과 유사하게 대체로 '집 주변 동네에서의 활동과 머무는 시간에 크게 변화 없다(68%)'고 체감하고 있다. 다만 타지역에 비해 침산2·3동은 활동과 머무는 시간이 '늘었다'는 의견이 28%로 가장 많았으며, 증가했다는 응답자(28 건)는 1·2순위 기준 전반적으로 '장보기'(60.7%)와 '외식'(14.3%) 활동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집 주변 동네에서의 활동과 머무는 시간이 감소했다는 응답자(4건)는 미미하였으나, 활동감소의 사유로 '외부 활동 감소,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해서 (75%)'가 '동네에서 직접 활동을 하는 대신, 집 안에서 온라인 서비스이용이 증가해서 서'(25%)라는 사유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동네 활동 중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이용 비중 증가 항목에 대해 침산2·3동 응답자는 1·2순위 중복응답 기준 '장보기(52%), 음식 주문·배달 서비스(49%), 특별히 없다 (26%)' 순으로 나타났으며, 타지역에 비해 장보기 활동이 다른 활동에 비해 온라인 이용이 많아졌다고 응답하였다. 코로나19 이후 집 주변 동네에서의 일상생활의 중요성에 대해 대체로 긍정 응답(매우 그렇다 9.3%, 어느 정도 그렇다 69%)이 76%로 동네 생활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있다.

#### • 주민수요

침산2·3동의 동네 생활 중 가장 만족스러운 활동은 1·2순위 중복응답 193건 기준 '장보기(79%), 외식(44%), 공공의료 서비스 이용(30%)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대상지 평균 장보기 활동 만족율(65%)이 타지역보다 장보기 활동 만족이 가장 높았다. 반면 동네 생활에서 가장 불만족스러운 활동으로는 '친교·사교활동(47.0%), 여가·문화·체육 활동(29%), 근린서비스 이용(15%) '순으로 나타났으며, 타지역에 비해 여가·문화·체육 활동의 불만족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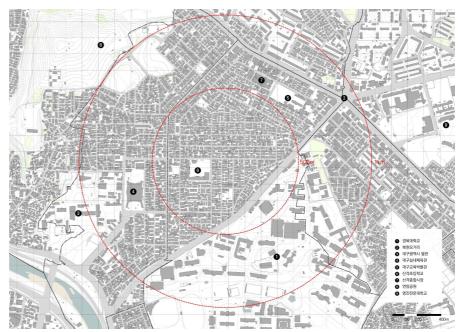
동네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디지털, 온라인 플랫폼 기반 공공서비스(1·2순위 중복응답)에 대해 필요한 공공서비스가 '특별히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침산2·3동 이 71%로 타지역(전체 평균49%)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응답은 동네정보 플랫폼(12%), 수요응답형 대중교통(11%)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장보기 배송서비스나 온라인 커뮤니티서비스, 마을관리서비스, 돌봄 및 복지 온라인 서비스는 5~6%대로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 3) 산격3동 동네생활권 탐색

### □ 일반현황

#### • 주요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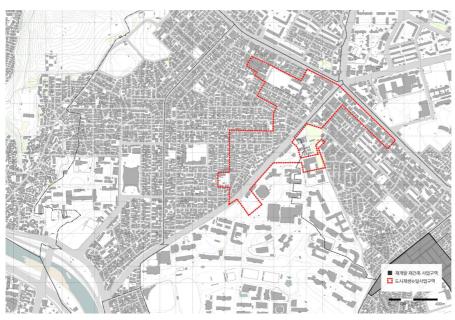
산격3동은 경북대학교 북서측에 위치하여 대학가의 성격을 띠는 저층 주거지역이다. 북동측의 복현오거리를 중심으로 복현1·2동과 인접하고 산격로를 중심으로 산격4동과 인접하고 있다. 대상지 내부 중심부에 산격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남동측 경계부 가로변으로는 경북대학교와 연계된 대학상권이 발달하였고 북측 500m 반경에 위치한 산격종합시장과 산격로를 따라 생활상권이 발달하였다. 서측 1km 반경으로 대구광역시청(별관), 동측 1km 반경으로는 영진전문대학교가 위치하고 있고, 북서측 1km 반경으로는 연암공원이 위치하여 그 배후의 산격1동과는 물리적으로 분리되는 특성을 보인다.



[그림 4-18] 산격3동 일대의 주요시설 출처 : 연구진 작성

#### • 관련 사업추진 현황

산격3동 동측지역과 경북대학교 일부를 포함해 2019년부터 도시재생뉴딜사업(중심시 가지형)이 추진되고 있다. 본 사업은 '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 놀이터, 경북대 혁신타운'을 테마로 창업공간 및 공유업무공간 조성, 청년상가몰 조성, 도시재생어울림센터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2023년까지 시행될 예정이다.18)



[그림 4-19] 산격3동 일대의 관련 사업추진 현황 출처: 대구광역시 주택건설사업 추진현황(2022.4.) 자료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그림 4-20] 산격3동의 주요 가로경관 출처 : 연구진 촬영

18) 도시재생사업, 대구광역시청, https://www.daegu.go.kr/build/index.do?menu\_id=00935914 (검색일: 2022.06.02.)

## ① (기능) 근린환경 특성

## □ 인구·가구 및 주거지 특성

## • 인구·가구 구성

산격3동은 경북대학교 및 영진전문대학교 인접 지역으로서 연령별 인구구성에서 20대의 비중이 약 30%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연령대별 인구 중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인다(24.0%). 그 다음으로 60대 이상 고령인구가 약 25%를 차지한다. 반면 10대 이하 인구의 비중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가구원수별 가구구성에서는 1인가구의 비중이 무려 70%에 달하고 있고, 2인가구까지 포함하면 85%로 대부분이소형가구로 이루어져 있다.

[표 4-10] 산격3동의 인구 및 가구구성 현황

항목	구분	수(명)	비율(%)	항목	구분	수(호)	비율(%)
인구구성	10대 이하	836	8.8	가구구성	1인가구	4,353	67.5
(연령별)	20대	2,864	30.2	(가구원수별)	2인가구	1,107	17.1
	30대	1,130	11.9		3인가구	580	9.0
	40대	1,010	10.7		4인가구	303	4.7
	50대	1,203	12.7		5인가구	109	1.7
	60대 이상	2,435	25.7		이상		
	합계	9.478	100.0		합계	6,452	100.0

출처 : 국가통계포털 행정구역별/5세별 주민등록인구 자료(2022년 4월기준)와 가구원수별 가구(일반가구) 자료(2020년 기준)를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https://kosis.kr/index/index.do, 검색일 : 2022.05.31.)

[표 4-11] 산격3동 주거유형별 주택 현황

구분		동수(호)	비율(%)
단독주택(1,582)	단독주택	984	55.2
	다가구주택	465	26.1
	다중주택	133	7.5
공동주택(199)	다세대주택	139	7.8
	연립주택	2	0.1
	아파트	58	3.3
합계		1,781	100.0

출처: K-Geo플랫폼 국토이용분석 자료(https://kgeop.go.kr/info/infoMap.do?initMode=B, 검색일: 2022.06.01.)를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 • 주거유형

산격3동 주택은 유형별로 단독주택 88%, 공동주택 12%의 비율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에서도 단독주택의 비중이 55%를 차지하며,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순으로 주택이 밀집되어 있다.

## □ 일상생활 활동별 시설분포 특성

#### • 활동 목적별 시설분포

산격3동은 경북대학교 및 영진전문대학교, 대구광역시청(별관) 등 주요 공공·교육시설과 인접한 지역으로, 경북대학교 북문에 접한 블록 내·외부 가로변(대학로)과 복현오거리, 산격로를 따라 일상생활 활동을 위한 주요 시설들이 분포하고 있다.

이를 일상생활 활동목적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본 지역 일대에는 생필품·식료품 등 장보기와 외식 목적을 위한 시설이 가장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리적으로 경북대학교 인접 블록으로 밀집되어 있기는 하나 그 외에도 복현오거리에서 연결되는 동북로와산격로 등지로도 폭넓게 분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매점(406호), 일반음식점(82호), 휴게음식점(18호)<sup>19)</sup> 등의 시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림 4-21] 산격3동 일대의 일상생활활동 관련 시설 분포(좌) 및 시설 분포에 따른 밀집도와 접근성(우)

(좌)출처: 소상공인진흥공단 상가(상권)정보, 로컬데이터 병원 의원정보,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도서관표준데이터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검색일: 2022.06.07.)

(우)출처 : 연구진 작성

<sup>19)</sup> K-Geo플랫폼 국토이용분석 자료(https://kgeop.go.kr/info/infoMap.do?initMode=L, 검색일 : 202 2.06.01.)를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공공·의료서비스 이용과 통학 목적'을 위한 시설들은 대상지 북측 가로인 동북로에 인접하여 위치한 아파트단지 인근으로 주로 분포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병·의원(13호), 학원(9호)<sup>20)</sup> 등으로 그 수가 많지는 않은 편이다.

마지막으로 '여가·문화·체육활동 및 사교 목적'을 위한 시설들은 침산2·3동 일대와 마찬 가지로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기 보다는 지역 전체에 산발적으로 위치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 • 시설분포 밀집도 및 접근성

앞서 검토한 시설분포에 따라 가로에서의 접근성을 살펴보면[그림 4-21, 우측], 종합적으로는 경북대학교 북문에 인접한 남측 블록에 100개 이상의 시설이 위치하여 집중도가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를 중심으로 대상지 내부에 위치한 산격초등학교인근 블록까지의 보행 접근성이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활동목적별로 구분해 보면[그림 4-22] 목적별로 관련 시설이 집중된 지역과 보행 접근성에서 차이를 보인다. 즉, 장보기·구입 목적 하에서는 경북대학교 인근 블록에서 산격초등학교까지 비교적 넓은 범위에서 접근성이 우수한 것으로 도출되는 반면, 서비스 이용 목적 하에서는 동북로에서 비교적 좁은 범위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여가·사교목적 하에서는 산격3동 일대가 전체적으로 접근성이 다소 취약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4-22] 산격3동의 주요시설 밀집도 및 접근성(좌: 장보기·구입목적, 중: 서비스이용목적, 우: 여가·사교목적) 출처 : 연구진 작성

<sup>20)</sup> K-Geo플랫폼 국토이용분석 자료(https://kgeop.go.kr/info/infoMap.do?initMode=L,검색일 : 2022. 06.01.)를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 ② (행태) 주민 일상생활활동 특성

### □ 유동인구 분포

### • 시간대 및 거리조락별 유동인구 분포 특성

앞선 침산2·3동의 유동인구 분포 특성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격3동 유동인구 분포의 공 간적 범위를 파악하였다.

산격3동의 시간대별 유동인구수는 약 2.5만명 안팎으로, 15~17시 사이와 18~20시 사이인 오후~저녁 시간대에 비교적 많은 유동인구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시간대에서 근린지역 중심으로부터 직선 반경 1km 내의 범위에 유동인구의 80% 가량이 집중되어 있으며, 2km까지 확장할 경우 18~20시 시간대에서는 90% 수준에 육박한다. 앞서 70~80% 수준으로 나타났던 침산2·3동 대비 높은 집중도를 보인다 할 수 있다. 침산 2·3동과 마찬가지로 저녁시간대인 18~20시 사이에서 반경 1km 내인 주거지 근처로 활동이 더욱 집중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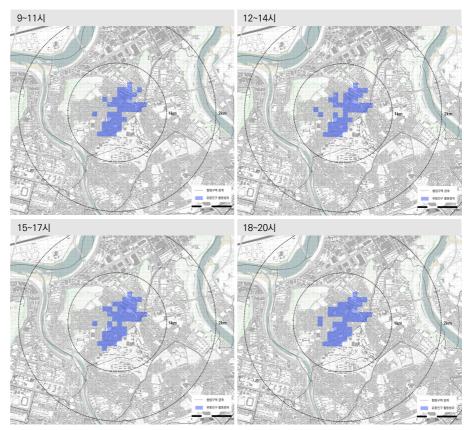
[표 4-12] 산격3동 시간대별 유동인구 변화(단위: 명, (%))

구분	9~11시	12~14시	15~17시	18~20시
1km 이내	21,100	19,392	22,366	24,799
	(79.4)	(75.2)	(77.3)	(86.5)
1~2km	1,246	1,382	1,314	921
	(4.7)	(5.4)	(4.5)	(3.2)
2~5km	1,685	2,070	2,401	1,180
	(6.3)	(8.0)	(8.3)	(4.1)
5km	2,547	2,952	2,881	1,770
	(9.6)	(11.4)	(9.9)	(6.2)
합계	26,578	25,796	28,962	28,670
	(100.0)	(100.0)	(100.0)	(100.0)

출처: LGU+ MPSD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동네생활권의 공간위계에서 인구의 이동범위를 파악하기 위해 시간대별 유동인구자료 중 2km 내에서 발생한 유동인구 분포만을 추출하여 도면화하였다.[그림4-23]

앞선 산격3동의 주요시설의 밀집도 분석 결과에서 장보기·구입목적 시설과 서비스이용 목적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대별 유동인구 분포가 중복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아파트단지 위주 지역인 침산 2·3동과 비교하여 반경 1km 내의 매우 좁은 범위에서 유동인구가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특성을 보인다.



[그림 4-23] 산격3동 일대의 시간대별 유동인구 분포 출처 : LGU+ MPSD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 □ 활동 목적별 생활권 영역 형성

산격3동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해 조사된 활동 목적별실제 이동범위를 도면화하여 동네 활동영역을 비교 검토하였다.

## • 장보기·외식·근린서비스이용 목적

동네에서의 활동 목적별 방문지를 조사한 결과, 장보기목적 141개 지점, 외식목적 83개 지점, 근린서비스이용목적 38개 지점으로 도출되었다. 침산2·3동과 마찬가지로 장보기목적의 활동이 동네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각 목적별 평균이동거리와 최장·최단이동거리를 비교해보면, 장보기목적과 외식목적의 평균이동거리가 각 339m, 375m로 유사하게 나타났고, 근린서비스이용목적은 약 283m로 거주지 근접 범위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장보기목적 활동의 경우 최장 2km까지 비교적 멀리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침산2·3동과 유사한 패턴). 이를 보

행시간으로 환산하면 장보기와 외식목적의 경우 약 5~6분거리에서 활동이 일어나고 있으며, 근린서비스이용목적의 경우 5분이 채 못미치는 거리에서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

#### • 공공서비스이용·통학 목적

동일한 방법으로 조사결과를 분류하면 공공서비스이용목적 89개 지점, 통학목적 9개 지점이 도출된다. 장보기·외식목적의 활동과 비교할 때 평균이동거리는 유사하지만 최장이동거리가 약 600~800m 수준으로 비교적 주거지 근처에서 활동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보행시간으로 환산하면 평균 약 6~7분거리, 최장 15분 거리 내에서 활동이일어나고 있다.

#### • 여가·사교 목적

여가·사교목적 조사결과를 분류하면 여가·문화 목적 18개 지점, 친교·사교 목적 13개 지점으로, 타 활동에 비해 빈도가 다소 낮은 편이다. 또한 침산2·3동과 마찬가지로 여가·문화·체육활동의 평균이동거리가 452m로 7개 활동 중 가장 길게 나타났다.

[표 4-13] 산격3동 주민들의 활동목적별 방문지점 및 이동거리 특성

구분	장보기	외식	근린서비스이용	공공서비스이용	통학	여가·문화·체육	친교·사교
방문지점 수	141개소	83개소	38개소	89개소	9개소	18개소	13개소
평균이동거리	339m	375m	283m	367m	411m	452m	300m
최장이동거리	2,298m	1,279m	755m	837m	644m	928m	613m
최단이동거리	27m	71m	75m	40m	79m	142m	65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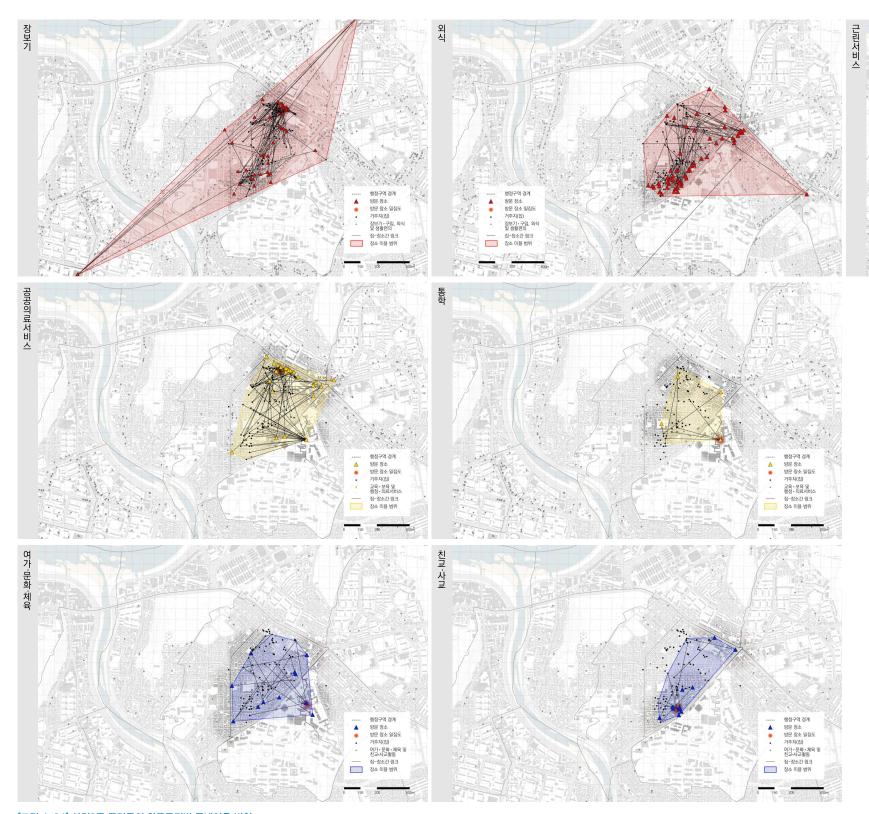
주) 직선거리 기준

출처: 주민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 • 생활권의 영역 및 거점, 경계

이상 활동별로 도출한 주민들의 동네 이용범위를 종합하여 산격3동 동네생활권의 영역과 거점, 경계를 도출해보았다.

산격3동에서는 직선거리 평균 361m, 최장 452m(여가·문화·체육활동 목적), 최단 283m(근린서비스이용 목적)의 범위에서 활동 영역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파트단지 중심의 근린지역인 침산2·3동에 비해 평균이동거리가 약 50m 가량 짧게 나타났으며 활동목적별 평균이동거리의 편차가 크지 않는 특성을 보인다. 예컨대 장보기와 외식목적 활동을 제외하면, 최장이동거리를 고려하여도 모두 1km 내의 범위에서 활동영역이 형성되고 있다. 각 활동지점을 연결한 폴리곤으로 활동영역 면적을 계산한 평균값은 침산2·3동의 절반 수준인 0.65km²로 계산되었다.



[그림 4-24] 산격3동 주민들의 활동목적별 동네이용 범위 출처 : 주민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 형정구역 경계 ▲ 방문 경소 방문 장소 일접도 가주자(집) - 정보기 - 구입, 외식 및 성황편의 --- 집-성소간 링크 경소 이용 범위

[표 4-14] 산격3동 주민들의 활동목적별 평균이동거리(단위: m, km)

구분	여가·문화	통학	외식	스바상동	장보기	친교·사교	근린서비 스	평균
평균거리	452	411	375	367	339	300	283	361
면적	0.54	1.43	0.48	0.88	0.53	0.27	0.45	0.65

주) 직선거리 기준

출처 : 주민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활동별 거점을 살펴보면, 장보기와 공공의료서비스이용 목적의 활동 거점이 북측의 복현오거리 인근에서 형성되고, 친교·사교와 외식 목적의 활동 거점이 경북대 북문 맞은편에서 유사하게 형성되어 크게 두 개의 거점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두 지점은 산격 3동의 시설분포의 밀집도와 접근성이 모두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던 곳으로, 이 두 지점을 사이로 활동영역이 중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각 목적별 활동범위의 경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행정구역경계와 무관한 활동이 모든 목적에서 일어나고 있다. 침산2·3동과 마찬가지로 주로 보행을 통한 이동이 이루어지는 동네 활동 특성에 따라, 간선도로 등의 지형지물 요소는 생활권의 유의미한 경계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동네 활동 경계가 산격3동 북동측을 지나는 왕복8차선의 동북로를 따라 이북과 이남으로 구분되고 있다.

#### 120 동네생활권 개념 도입 및 정책적 활용방안 연구

### ③ (인지) 커뮤니티 특성

동네생활권 탐색의 커뮤니티 특성은 산격3동 거주자 만 20세 이상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동네생활 및 주민수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동네 주요 활동 및 동네 범위 인식', '커뮤니티 활동', '동네생활 주민수요'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 ※ 산격3동 설문조사 응답자 일반현황

- 산격3동 응답자 100명은 20대(38%)의 청년층의 응답이 가장 많고 그 외 연령대는 15%~17% 수준
- 가구원 수는 1인부터 4인까지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으나, 대상지 중 1인 가구(22%)가 가장 높고 반면 미성 년자 가구원이 없는 경우(81%)와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35%)가 가장 많은 경향
- 주택유형은 단독주택(36%), 연립주택(28%), 오피스텔 및 원·투룸 등의 기타(21%) 유형으로 다양하게 나타 났으며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이 10년 미만(47%)으로 비교적 단기간 거주자가 많은 특성

### □ 동네 주요 활동 및 동네 범위 인식

• 직장·학교 등의 정기적인 활동 및 동네 주요 활동

산격3동 응답자 중 90%가 직장 또는 학교에 가는 정기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들의 직장 및 학교 위치는 대구시 북구 내가 54%, 북구 외 대구시 내가 28%이며, 직장 또는 학교가 거주지와 가까운 직주근접의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이동수단은 도보(45.6%)와 차량(46.7%) 이용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대상지 중 이동 시간이 20.8분으로 가장짧게 나타났다. 또한, 자전거·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이동하는 응답자(7.8%)가 대상지 중 높게 나타났다. 동네에서 주로 하는 활동(1·2·3순위 중복응답 280건)은 장보기(31.8%), 외식(28.2%), 공공·의료 서비스이용(18.6%), 근린 서비스이용(9.3%)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지 중 상대적으로 친교·사교활동(5.7%), 통학 활동(3.9%)이 높은데, 이는 대학생 통학으로 추정된다. 한편 여가·문화·체육 활동(2.5%)은 전체 대상지 중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 • 활동목적별 시설이용 및 이용빈도·이동방법

일상생활에서 활동목적별로 월 1회 이상 이용하는 모든 시설(7개 활동, 16개 시설)과 이용빈도를 중복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산격3동의 응답자 100명이 390건으로 응답하였으며, 전체 대상지 중 이용하고 있는 시설의 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격3동의 응답자는 장보기 활동을 위해 주로 동네마트·슈퍼마켓· 편의점(75건)을 이용하며, 대형마트(9건)의 이용은 전체 대상지 중 가장 낮다. 외식 활동을 위해 음식점·카페 등(83건)을 이용하는 경우는 침산2·3동 다음으로 높은 편이다. 근린서비스 이용을 위한 세탁소·미용실·이용원·목욕탕 등(38건)시설은 전체 대상지 중 가장 낮았으며, 이는 대상

지 중 1인 가구와 대학생 청년층의 인구구성이 많은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 공·의료 서비스의 이용은 은행(54건), 약국(23건), 병·의원(11건)으로 나타나며, 통학 활동의 응답 수는 적으나 초·중·고등학교(4건), 어린이집·유치원(5건) 수준으로 침산2·3동과 유사하다. 여가·문화·체육시설 중 공공체육(11건), 종교시설(6건)이고 문화시설 이용은 1건에 불과한 반면, 친교·사교활동은 12건으로 관음동(11건)과 유사한 수준이다.

시설의 이용빈도는 전체 16개 시설에 대해 월평균 5.2회 정도 이용하며, 초·중·고등학교 (20회), 문화시설(12회), 어린이집·유치원(9.5회), 동네마트·슈퍼마켓· 편의점(9.2회) 순으로 전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시설의 수는 적지만 이용빈도는 높게 나타난다.

시설로의 이동수단은 대형마트(차량 77.8%)를 제외하고 모든 시설에 대해 도보로 이용하였으며, 시장, 약국, 초·중·고등학교, 공공체육,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100% 도보로 이용한다고 응답하였고, 그 외 대체로 도보로 이용하는 비율의 응답이 90%를 상회하여 보행을 통해 동네 일상생활활동을 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표 4-15] 산격3동 활동목적별 시설이용(중복 응답)

활동	시설	이용건수 (건)	이용빈도 (회/월)	이동방법 (%)
장보기	시장	39	7.5	도보 100.0
	대형마트	9	1.9	차량 77.8
	동네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93	9.2	도보 94.6
외식	음식점, 카페 등	83	4.1	도보 95.2
근린서비스 이용	세탁소, 미용실, 이용원, <del>목욕</del> 탕 등	38	1.9	도보 92.1
공공·의료서비스 이용	우체국, 동사무소(주민센터) 등	1	1	
	은행	54	3.8	도보 96.3
	약국	23	1.4	도보 100.0
	병원, 의원, 한방병원	11	1.2	도보 81.8
통학(교육)	초·중·고등학교	4	20	도보 100.0
	어린이집, 유치원	5	9.6	도보 80.0
	학원	0	0	
여가·문화·체육	공공체육	11	5.8	도보 100.0
	문화시설	1	12	도보 100.0
	종교시설	6	0	
친교·사교	사교모임을 위해 방문하는 다양한 장소	12	3.6	도보 66.7

출처 : 연구진 작성

#### • 동네 범위의 인식

자신이 살고 있는 집 주변의 일상생활 활동 범위를 동네라고 할 때 산격3동 응답자 모두 동네 범위를 '도보(100%)'를 기준으로 인식하며, 평균 20.9분으로 응답하였다. 소요시간에 대한 응답구간은 20분에서 30분 사이로 응답한 비율이 56%로 가장 많았으며, 20분 미만으로 응답한 비율이 22%로 전체 대상지(평균 37%) 중 가장 낮게 나타나 산격3동응답자는 대상지 중 동네 범위를 가장 넓게 인지하고 있었다.

#### • 동네의 중심 장소 및 이유

동네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지역이나 장소를 선택하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확인한 결과, 산격3동 응답자는 '접근하기 좋아서(49%)', '인식하기 쉬운 장소라서(45%)', 여러 가지 활동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곳이라서(38%)', '만남의 장소 등 모임과 빈번한 활동이 있는 곳이라서(31%)',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해서(20%)'순으로 응답하였다. 전반적으로 접근 성과 장소 인식이 쉬운 대표성이 있는 곳을 동네의 중심지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 □ 커뮤니티 활동

#### • 참여하고 있는 동네 활동 및 모임과 이용하는 공간

동네에서 참여하고 있는 활동이나 모임에 대해 대체로 '없다(75%)'로 응답하였으며, '지인, 이웃 등과의 일상적인 만남'을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4%로, 이는 전체 대상지 중 참여하는 커뮤니티 활동이 없는 응답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네 활동이나 모임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25명의 해당 공간을 중복응답으로 확인한 결과 산격3동은 '공원, 놀이터 등 야외공간(64%)'과 '카페(28%)'로 응답하였으며, 공공시설(복합커뮤니티센터, 생활문화센터 등)을 이용한다는 응답은 전혀 없었다.

#### • 동네 소식 및 정보교류 등 이웃 소통 방식

산격3동 응답자는 대체로 '동네 소식에 대한 정보교류 활동을 하지 않음(77%)'에 응답하였으며, '반상회 등 이웃과 직접 만남을 통해서(21%)' 이웃과 소통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격3동 응답자 중 20대(38%)의 청년층과 1인 가구(22%) 및 10년 미만의 단기거주자(47%)가 많아 커뮤니티 활동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 동네생활 주민수요

#### • 동네생활 변화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비대면 활동 등의 증가로 인한 동네 생활 변화에 대해 산격3동 응답자는 전체 대상지 평균(74%)과 유사하게 대체로 '집 주변 동네에서의 활동과 머무는 시간에 크게 변화 없다(69%)'고 체감하고 있다. 다만 타지역에 비해 산격3동은 활동과 머무는 시간이 '늘었다(16%)'와 '줄었다(15%)'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증가했다는 응답자(16건)는 1·2순위 기준 외식(50%) 활동이 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여가 문화·체육활동(18.8%), 장보기(12.5%) 순으로 나타났다. 집 주변 동네에서의 활동과 머무는 시간이 감소했다는 응답자(15건)는 미미하였으나, 활동감소의 사유로 '외부 활동 감소,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해서(53%)'와 '동네에서 직접 활동을 하는 대신, 집 안에서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증가해서'(47%)'라는 사유가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다.

동네 활동 중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이용 비중 증가에 대해 산격3동의 1·2순위 중복응답 기준 '음식 주문·배달 서비스(41%), 특별히 없다(37%), 장보기(33%), 여가·문화·체육활 동(22%)'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집 주변 동네에서의 일상생활의 중요성에 대해 대체로 긍정 응답(매우 그렇다 9.3%, 어느 정도 그렇다 69%)이 65%로 동네 생활의 중요성을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주민수요

산격3동의 동네 생활 중 가장 만족스러운 활동은 1·2순위 중복응답 184건 기준 '장보기 (60%), 외식(53%), 여가·문화·체육 활동(34%)' 순으로 나타났으며, 타대상지에 비해 외식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반면 동네 생활에서 가장 불만족스러운 활동으로는 '여가·문화·체육활동(69%), 친교·사교활동(20%), 외식활동(17%)'순으로 나타났으며, 타대상지에 비해 여가·문화·체육 활동 의 불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동네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디지털, 온라인 플랫폼 기반 공공서비스(1·2순위 중복응답)에 대해 필요한 공공서비스가 '특별히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산격3동이 39%로 나타났다.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응답은 동네정보플랫폼(38%), 동네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27%),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15%)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외 마을관리서비스(8%), 돌봄 및 복지 온라인 서비스(6%), 온라인 커뮤니티 서비스(4%)는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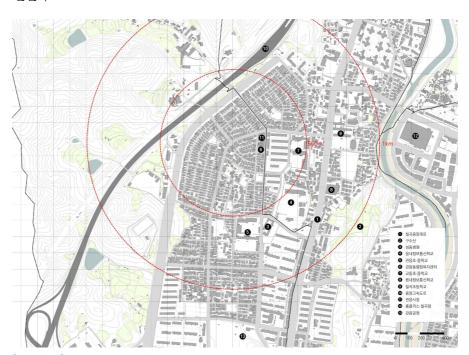
### 4) 관음동 동네생활권 탐색

#### □ 일반현황

#### • 주요시설 및 관련 추진사업

관음동은 북구의 북측에 위치한 칠곡지구 인근에 계획된 저층 주거지역으로, 500세대 내·외의 소규모 아파트단지와 연립주택이 부분적으로 혼합되어 있는 근린이다. 대상지 내부로 관음초·관음중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동측 500m 반경으로 칠곡시장이 위치하여 관음동로를 따라 생활상권이 발달해 있다. 동측에 인접한 동천동과 함께 행정시설 등의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동측 1km 반경으로 팔거천을 지나 대형마트(홈플러스)와 도시철도 3호선 동천역이 위치하고 있다.

한편, 현재 관음동 일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개발·정비·재생사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4-25] 관음동 주요시설 현황

출처 : 연구진 작성



[그림 4-26] 관음동의 주요 가로경관 출처 : 연구진 촬영

#### ① (기능) 근린환경 특성

### □ 인구·가구 및 주거지 특성

• 인구·가구 구성

관음동의 연령별 인구구성을 살펴보면, 50대 이상 인구가 5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30대 인구 비중이 타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인다.

[표 4-16] 관음동의 인구 및 가구구성 현황

항목	구분	수(명)	비율(%)	항목	구분	수(호)	비율(%)
인구구성	10대 이하	2,165	13.2	가구구성	1인가구	1,998	28.9
(연령별)	20대	2,210	13.5	(가구원수별)	2인가구	2,015	29.3
	30대	1,542	9.5		3인가구	1,443	20.9
	40대	2,230	13.7		4인가구	1,129	16.3
	50대 3,458 21.2		5인가구	321	4.6		
	60대 이상	4,709	28.9	9	이상		
	합계	16,314	100.0		합계	6,906	100.0

출처 : 국가통계포털 행정구역(읍면동)별/5세별 주민등록인구 자료(2022년 4월기준)와 가구원수별 가구(일반가구) 자료(2020년 기준)를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https://kosis.kr/index/index.do, 검색일 : 2022.05.31.)

특히 최근 5년간 10대 이하 인구 감소율(-43.4%)은 3개 근린지역 중 가장 심각하게 나타 나고 있다. 가구원수별 가구구성에서는 1~2인 소형가구가 각각 30% 선으로 높은 비중 을 차지하고 있으며, 3인까지의 가구규모가 약 80%로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 • 주거유형

관음동의 주택은 단독주택 23%, 공동주택 77%의 비율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에서도 다가구주택과 연립주택, 단독주택의 비중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편으로 나타난다.

[표 4-17] 관음동 주거유형별 주택 현황

구분		동수(호)	비율(%)
단독주택(1,106)	단독주택	261	5.5
	다가구주택	845	18.0
공동주택(3,609)	다세대주택	34	0.7
	연립주택	345	7.3
	아파트	3,230	68.5
합계		4,715	100.0

출처 : K-Geo플랫폼 국토이용분석 자료(https://kgeop.go.kr/info/infoMap.do?initMode=B, 검색일 : 2022.06.01.)를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 □ 일상생활 활동별 시설분포 특성

#### • 활동 목적별 시설분포

관음동은 주거용도가 강한 근린지역으로, 인접한 동천동과 연결되는 관음동로와 관음 동 남북을 지나는 관음중앙로를 따라 일상생활 활동 관련 시설들이 분포하고 있다.

이를 일상생활 활동목적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지역 전체로 생필품·식료품 등 장보기와 외식 목적을 위한 시설이 가장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관음중앙로와 관음동로가만나는 지점에 다수의 시설이 집중되어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생활편익시설(62호), 일반·휴게음식점(32호), 소매점(30호)<sup>21)</sup> 등의 시설이 주를 이룬다.

공공·의료서비스이용과 통학 목적을 위한 시설들은 관음동 대상지 내부 보다는 동천동 과의 경계인 칠곡중앙대로를 따라 다수 분포하고 있으며, 학원(20호), 병·의원(14호)<sup>22)</sup> 등으로 시설 수가 많지는 않다.

<sup>21)</sup> K-Geo플랫폼 국토이용분석 자료(https://kgeop.go.kr/info/infoMap.do?initMode=L, 검색일 : 2022. 06.01.)를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sup>22)</sup> K-Geo플랫폼 국토이용분석 자료(https://kgeop.go.kr/info/infoMap.do?initMode=L, 검색일 : 2022. 06.01.)를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여가·문화·체육활동 및 사교 목적을 위한 시설들은 타 근린지역과 마찬가지로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분포하기 보다는 지역 전체에 산발적으로 위치하는 특성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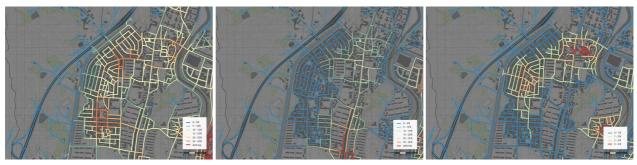
[그림 4-27] 관음동 일대의 일상생활활동 관련 시설 분포(좌) 및 시설 분포에 따른 밀집도와 접근성(우)

(좌)출처: 소상공인진흥공단 상가(상권)정보, 로컬데이터 병원 의원정보,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도서관표준데이터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검색일: 2022.06.07.)

(우)출처 : 연구진 작성

#### • 시설분포 밀집도 및 접근성

시설분포에 따른 밀집도와 접근성을 살펴보면, 관음동로와 관음중앙로가 만나는 지점에서 비교적 다수의 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활동목적별로 구분해 보면[그림 4-28] 목적별로 관련 기능이 집중된 지역이 상이하게 나타난다.



[그림 4-28] 관음동의 주요시설 밀집도 및 접근성(좌: 장보기·구입목적, 중: 서비스이용목적, 우: 여가·사교목적) 출처 : 연구진 작성

즉, 장보기·구입 목적 하에서는 관음동 내부에서 북측-남측에 두 개의 중심이 형성되는 한편, 서비스이용 목적 하에서는 관음동 남단으로 시설들이 밀집하여 관음동 일대가 전체적으로 보행 접근성이 취약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여가·사교 목적 하에서는 관음동 북동측과 관음중앙로로 두 개의 중심이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나 일상생활 활동 목적

에 따라 공간적으로 서로 다른 중심성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② (행태) 주민 일상생활활동 특성

#### □ 유동인구 분포

#### • 시간대 및 거리조락별 유동인구 분포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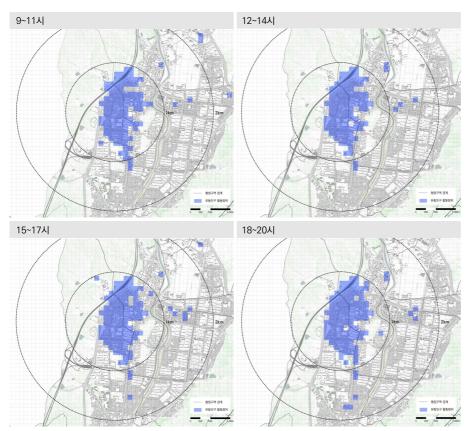
앞선 두 지역의 유동인구 분포 특성과 동일한 방식으로 관음동 유동인구 분포의 공간적 범위를 파악하였다. 관음동의 시간대별 유동인구수는 6만명 안팎으로, 앞선 두 지역과 유사하게 15시 이후 시간대에서 비교적 많은 유동인구가 발생하고 있다. 다만 18~20시 사이에서 가장 많은 유동인구 분포를 보였던 두 지역과 달리 15~17시 사이에 비교적 많 은 유동인구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시간대에서 근린지역 중심으로부터 직 선 반경 1km 내의 범위에 유동인구의 60~80% 가량이 집중되어 있으며, 2km까지 확장 할 경우 18~20시 시간대에서는 90% 수준에 육박한다. 한편, 다른 두 지역과 마찬가지로 저녁시간대인 18~20시 사이에서 반경 1km 내인 주거지 근처로 활동이 더욱 집중되는 패턴을 보인다.

[표 4-18] 관음동 시간대별 유동인구 변화(단위: 명, (%))

구분	9~11시	12~14시	15~17시	18~20시
1km 이내	39,658	35,737	41,495	50,134
	(70.6)	(66.0)	(69.4)	(82.6)
1~2km	2,739	3,243	3,773	3,036
	(4.9)	(6.0)	(6.2)	(5.0)
2~5km	2,480	2,427	2,325	1,199
	(4.4)	(4.5)	(3.7)	(2.0)
5km	11,277	12,763	12,708	6,343
	(20.1)	(23.5)	(20.7)	(10.4)
합계	56,154	54,170	61,301	60,712
	(100.0)	(100.0)	(100.0)	(100.0)

출처: LGU+ MPSD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동네생활권의 공간위계에서 인구의 이동범위를 파악하기 위해 시간대별 유동인구자료 중 2 km 내에서 발생한 유동인구 분포만을 추출하여 도면화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침산2·3동 및 산격3동과 비교할 때, 반경 1 km 밖에서도 점적으로 분포하는 유동인구가 다수 발견되어(북서측 방향 및 남측 방향) 생활권의 영역이 확장적으로 형성되고 있음을 미루어 예상할 수 있다.



[그림 4-29] 관음동 일대의 시간대별 유동인구 분포 출처 : LGU+ MPSD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 □ 활동 목적별 생활권 영역 형성

관음동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해 조사된 활동 목적별 실제 이동범위를 도면화하여 동네 활동영역을 비교 검토하였다.

#### • 장보기·외식·근린서비스이용 목적

동네에서의 활동 목적별 방문지를 조사한 결과, 장보기목적 142개 지점, 외식목적 69개 지점, 근린서비스이용목적 55개 지점으로 도출되어 침산2·3동 및 산격3동과 마찬가지로 장보기목적의 활동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두 지역과는 달리 근린서비스이용목적의 활동 역시 높은 빈도로 도출된 차이를 보인다.

각 목적별 평균이동거리와 최장·최단이동거리를 비교해보면, 장보기목적과 외식목적의 평균이동거리가 각 525m, 432m로 유사하게 나타났고, 근린서비스이용목적은 약

163m로 거주지와 매우 근접 범위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장보기목적 활동의 경우 최장 1.7km까지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나 타 목적 활동에 비해 넓은 활동 반경을 보인다(침산2·3동 및 산격3동과 유사한 패턴). 이를 보행시간으로 환산하면 장보기와 외식목적의 경우 약 7~8분거리에서 활동이 일어나고 있으며, 근린서비스이용목적의 경우 5분이 채 미치는 못하는 거리에서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 공공서비스이용·통학 목적

동일한 방법으로 조사결과를 분류하면, 공공서비스이용목적 84개 지점, 통학목적 5개 지점으로 도출된다. 각각 361m, 467m의 평균이동거리를 갖는 가운데 최장 1km 범위 내에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행시간으로 환산하면 6~8분거리로 볼 수 있다. 다만 통학목적 활동의 경우 조사된 표본수가 5개로 적어 관음동의 동네 활동 특성으로 해석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 • 여가·사교 목적

여가·사교목적 조사결과를 분류하면 여가·문화·체육 목적 82개 지점, 친교·사교 목적 11 개 지점으로 분류된다. 앞선 두 근린지역과 비교할 때 선택적 활동으로 분류되는 여가·문화·체육목적 활동 빈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인다. 타 목적들과 마찬가지고 300~500m 범위에서 평균이동거리가 형성되고 있으며, 각 목적별 최장·최단이동거리는 표와 같이 정리된다.

[표 4-19] 관음동 주민들의 활동목적별 방문지점 및 이동거리 특성

구분	장보기	외식	근린서비스이용	공공서비스이용	통학	여가·문화·체육	친교·사교
방문지점 수	142개소	69개소	55개소	84개소	5개소	82개소	11개소
평균이동거리	525m	432m	163m	361m	467m	304m	496m
최장이동거리	1,694m	1,142m	491m	1,035m	1,058m	874m	1.057m
최단이동거리	19m	77m	13m	31m	148m	63m	129m

주) 직선거리 기준

출처: 주민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 • 생활권의 영역 및 거점, 경계

이상 활동별로 도출한 주민들의 동네 이용범위를 종합하여 관음동 동네생활권의 영역과 거점, 경계를 도출해보았다.

관음동에서는 직선거리 평균 393m, 최장 525m(장보기 목적), 최단 163m(근린서비스 이용 목적)의 범위에서 활동 영역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저층주거지로 주성된 산격3동보다는 다소 길게 나타났지만, 산격3동과 마찬가지로 활동목적별 평균이

동거리의 편차가 크지 않은 편이다. 각 활동지점을 연결한 폴리곤으로 활동영역 면적을 계산한 평균값은 침산2·3동 보다는 다소 좁지만 산격3동보다는 넓은 1.04km²로 계산되었다. 장보기목적 및 친교·사교목적 활동의 경우 평균이동거리는 525m, 496m로 길게 나타났지만, 이동면적은 평균 이하인 0.78km², 0.75km²로 매우 좁은 범위에서 밀도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표 4-20] 관음동 주민들의 활동목적별 평균이동거리(단위: m, k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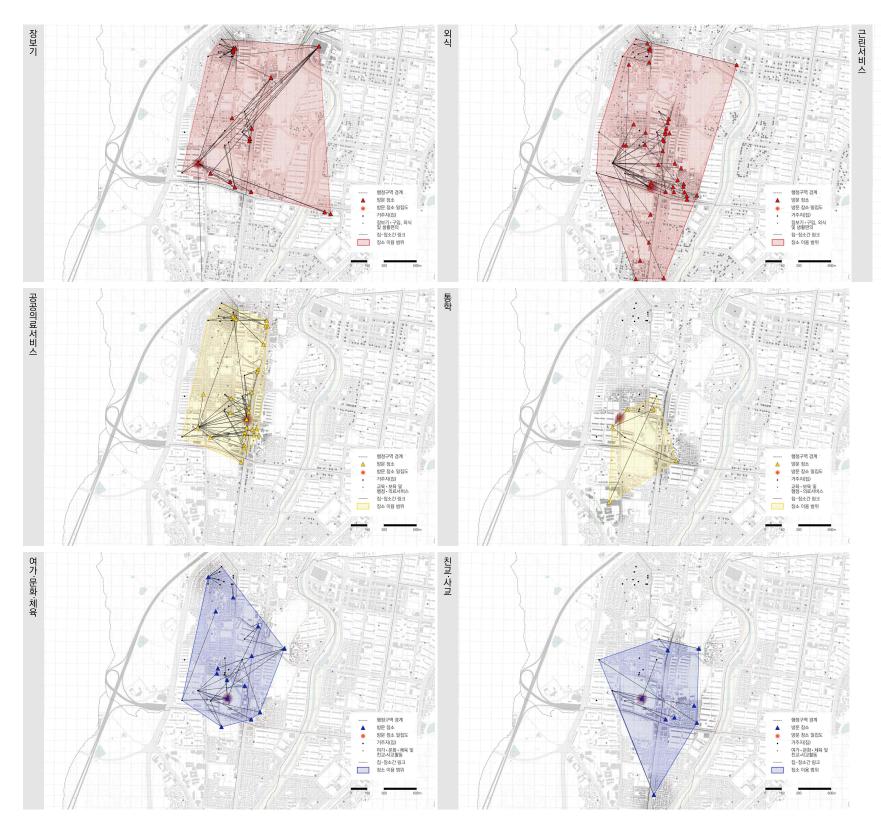
구분	장보기	친교·사교	통학	외식	공공서비스	여가·문화	근린서비스	평균
평균거리	525	496	467	432	361	304	163	393
면적	0.78	0.76	1.60	0.56	1.75	1.03	0.82	1.04

주) 직선거리 기준

출처: 주민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활동별 거점을 살펴보면, 장보기와 근린서비스이용, 친교·사교 목적의 활동 거점이 주거 밀집지역의 내부(공동주택 상가와 저층주거지역이 접해있는 지점)에서 형성되고 있고, 그 외 활동목적별(외식 및 공공·의료서비스이용)로 관음동로변을 따라 복수의 거점이 선 형으로 형성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각 목적별 활동범위의 경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앞선 두 근린지역과 마찬가지로 행정구역경계와 무관한 활동이 모든 목적에서 일어나고 있다. 역시 주로 보행을 통한 이동이 이루어지는 동네 활동 특성에 따라, 하천 및 간선도로 등의 지형지물 요소가 생활권의 유의미한 경계로 작용하여 남측의 칠곡중앙대로91길과 동측의 팔거천을 넘어서는 활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특성을 보인다. 비교적 활동의 범위가 좁게 나타나는 장보기와 외식 목적 외 활동으로 영역을 보다 좁혀 보면, 관음동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생활가로(관음동로)가 외식 및 동네 활동의 주요 거점이자 경계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30] 관음동 주민들의 활동목적별 동네이용 범위 출처 : 주민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 ③ (인지) 커뮤니티 특성

동네생활권 탐색의 커뮤니티 특성은 관음동 거주자 만 20세 이상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동네생활 및 주민수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동네 주요 활동 및 동네 범위 인식', '커뮤니티 활동', '동네생활 주민수요'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 ※ 관음동 설문조사 응답자 일반현황

- 관음동 응답자 100명은 50대(29%)와 60대 이상(23%)의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응답이 다소 높았으며,
   그 외 연령대는 12%~18% 수준
- 가구원 수는 4명(51%)이 가장 많으며 가구 내 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는 25%이며, 월평균 소득은 400만원 이상이 59%로 침산2·3동 다음으로 미성년자 가구원과 월평균 소득이 높게 나타남
- 주택유형은 85%가 아파트이며 20년 이상 장기거주자 비율이 48%로 대상지 중 가장 높은 특성

#### □ 동네 주요 활동 및 동네 범위 인식

• 직장·학교 등의 정기적인 활동 및 동네 주요 활동

관음동 응답자 중 73%가 직장 또는 학교에 가는 정기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들의 직장 및 학교 위치는 대구시 북구 내가 48%, 북구 외 대구시 내가 22%이며, 이동 시간은 평균 27.1분으로 대상지 중 가장 길게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 차량(74%)을 이용하며 도보 이용은 21.9%로 나타났고, 자전거·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이동하는 비율 (1.4%) 은 대상지 중 가장 적게 나타났다.

동네에서 주로 하는 활동(1·2·3순위 중복응답 274건)은 장보기(31.4), 여가·문화·체육활동(22.6%), 근린 서비스이용(16.1%)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대상지 중 여가·문화·체육활동을 가장 많이 한다고 응답하였다.

#### • 활동목적별 시설이용 및 이용빈도·이동방법

일상생활에서 활동목적별로 월 1회 이상 이용하는 모든 시설(7개 활동, 16개 시설)과 이용빈도를 중복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관음동의 응답자 100명이 448건으로 응답하였다.

관음동의 응답자는 장보기 활동을 위해 주로 동네마트, 슈퍼마켓, 편의점(93건)을 이용하며, 시장(23건)과 대형마트의 이용(26건)은 낮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외식 활동을 위해음식점·카페 등(69건)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상지 중 가장 적게 나타났다. 근린서비스 이용을 위해 세탁소, 미용실, 이용원, 목욕탕(55건)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공공·의료 서비스의 이용은 은행(30건), 약국(31건), 병·의원(20건)으로 의료시설의 이용이 높았다. 통학활동(5건)은 대상지 중 가장 적으며, 이는 고령층 응답자의 인구특성과 관련이

#### 134 동네생활권 개념 도입 및 정책적 활용방안 연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가·문화·체육시설 중 공공체육시설(68건)이 타 대상지(11건)의 6배에 달하며, 친교·사교활동(11건)은 산격3동(12건)과 유사하게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시설의 이용빈도는 전체 16개 시설에 대해 월 평균 5.7회 정도 이용하여, 침산2·3동(448 건, 월평균 4회)과 이용시설 응답 수와 같으나 관음동의 이용빈도가 더 높게 나타난다. 시설별로는 공공체육시설(14회)과 종교시설(12.8회)의 이용빈도가 높았으며, 타 대상 지와 마찬가지로 통학(8회~12회)활동 관련 교육시설 이용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시설로의 이동수단은 산격3동과 유사하게 대형마트(차량 96.2%)와 학원(도보 50%, 차량 50%)을 제외하고 모든 시설에 대해 도보를 이용하였으며, 우체국·동사무소,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100% 도보로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시장(도보 52.2%), 외식 활동 관련 시설(도보 72.5%), 친교·사교활동(도보 72.7%) 문화시설(도보 77.8%)을 제외하고 대체로 도보 이용비율이 95%를 상회하여 보행을 통한 동네 생활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1] 관음동 활동목적별 시설이용(중복 응답)

활동	시설	이용건수 (건)	이용빈도 (회/월)	이동방법 (%)
장보기	시장	23	7.9	도보 52.2
	대형마트	26	1.5	차량 96.2
	동네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93	8.4	도보 88.2
외식	음식점, 카페 등	69	4.1	도보 72.5
근린서비스 이용	세탁소, 미용실, 이용원, 목욕탕 등	55	1.6	도보 96.4
공공·의료 서비스 이용	우체국, 동사무소(주민센터) 등	3	0	도보 100.0
	은행	30	1.5	도보 96.7
	약국	31	1.1	도보 96.8
	병원, 의원, 한방병원	20	1.2	도보 95.0
통학(교육)	초·중·고등학교	2	10.5	도보 100.0
	어린이집, 유치원	1	12	도보 100.0
	학원	2	8	도보 50, 차량 50
여가·문화·체육	공공체육	68	14	도보 97.1
	문화시설	9	3.2	도보 77.8
	종교시설	5	12.8	차량 100.0
친교·사교	사교모임을 위해 방문하는 다양한 장소	11	3.4	도보 72.7

출처 : 연구진 작성

#### • 동네 범위의 인식

자신이 살고 있는 집 주변의 일상생활 활동 범위를 동네라고 할 때 관음동 응답자는 동네 범위를 도보 44%, 차량 56%를 기준으로 인식하며, 평균 16.2분으로 응답하였다. 소요 시간에 대한 응답을 구간별로 볼 때, 10분에서 20분 미만으로 응답한 비율(46%)이 가장 높았으며, 20분 미만으로 응답한 비율은 60%로 전체 대상지(평균 37%) 중 동네 범위를 가장 좁은 반경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동네의 중심 장소 및 이유

동네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지역이나 장소를 선택하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확인한 결과, 관음동 응답자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곳이라서(66%)', '접근하기 좋아서(44%)', '인식하기 쉬운 장소라서(36%)', '만남의 장소 등 모임과 빈번한 활동이 있는 곳이라서(35%)',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해서(33%)'순으로 응답하였다. 전반적으로 근성과 장소 대표성,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편의성 등 비교적 고르게 응답한 반면, 여러 활동이 가능한 장소를 동네의 중심지로 인식하는 경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 커뮤니티 활동

#### • 참여하고 있는 동네 활동 및 모임과 이용하는 공간

동네에서 참여하고 있는 활동이나 모임에 대해 '없다(49%)'로 응답한 사례가 가장 적었으며, '지인, 이웃 등과의 일상적인 만남'을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0%로, 이는 전체 대상지 중 가장 활발한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네 활동이나 모임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51명에 대해 동네 활동이나 모임의 공간을 중복응답으로 확인한 결과 관음동은 '공원, 놀이터 등 야외공간(69%)'과 '카페(58.8%)'로 응답하였으며, 공공시설(복합커뮤니티센터, 생활문화센터 등)을 이용한다는 응답은 5.9%로 전체 대상지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 • 동네 소식 및 정보교류 등 이웃 소통 방식

관음동 응답자는 대체로 '동네 소식에 대한 정보교류 활동을 하지 않음(70%)'에 응답하였으며, '반상회 등 이웃과 직접 만남을 통해서(29%)' 비교적 이웃과 소통 활동을 하는 비율이 전체 대상지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관음동 응답자 대부분이 50대·60대 이상(52%)의 고령자로 20년 이상 장기거주자 비율(48%)이 전체 대상지 3곳 중 가장 높게 나타나 커뮤니티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 □ 동네생활 주민수요

#### • 동네생활 변화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비대면 활동 등의 증가로 인한 동네 생활 변화에 대해 관음동 응답자는 대체로 '집 주변 동네에서의 활동과 머무는 시간에 크게 변화 없다(86%)'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전체 대상지(평균74%) 중 가장 변화가 없다고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집주변 활동과 머무는 시간이 '늘었다(13건)'와 '줄었다(1건)'는 의견이가장 적게 나타났다. 활동과 머무는 시간이 증가했다는 응답자(13건)는 1·2순위 기준 외식(46.2%) 활동이 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장보기(30.8%), 여가·문화·체육 활동 (15.4%),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네 활동 중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이용 비중 증가 항목에 대해 관음동 응답자는 1·2순위 중복응답 기준 '음식 주문·배달 서비스(53%), 장보기(43%), 특별히 없다(39%)' 순으로 나타났으며, 타지역에 비해 외식 활동이 다른 활동에 비해 온라인 이용이 많아졌다고 응답하였다. 코로나19 이후 집 주변 동네에서의 일상생활의 중요성에 대해 대체로 긍정 응답(매우 그렇다 8%, 어느 정도 그렇다 86%)이 94%로 대상지 중 가장 많은 비율이 동네 일상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주민수요

관음동의 동네 생활 중 가장 만족스러운 활동은 1·2순위 중복응답 189건 기준 '여가·문화·체육 활동(59%), 장보기(57%), 외식(36%)' 순으로 나타났으며, 타대상지에 비해 여가·문화·체육 활동 만족도가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반면 동네 생활에서 가장 불만족스러운 활동으로는 '공공의료 서비스이용(72%), 친교·사교활동(22%), 외식활동(10%)·여가·문화·체육 활동(10%)' 순으로 나타났으며, 공공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만족이가 장 높게 나타났다.

동네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디지털, 온라인 플랫폼 기반 공공서비스(1·2순위 중복응답)에 대해 필요한 공공서비스가 '특별히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37%로 전체 대상지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마을관리 서비스(40%), 동네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22%)·온라인 커뮤니티서비스(22%)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으며, 그외 동네정보플랫폼(15%)과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13%), 돌봄 및 복지 온라인 서비스(11%)의 비율 또한 필요하다는 응답이 고르게 나타났다.

## 4. 소결

#### 1) 동네생활권 형성 특성

2절과 3절의 분석을 통해 대구광역시 북구에서 생활권의 공간적 분포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중 주거지 유형, 인구가구구성, 상권특성이 상이한 세 개의 근린지역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활동목적별 기능의 중심·분포와 주민 통행의 중심·분포를 교차 확인·검토하였다. 그 결과 도출된 동네생활권의 영역과 거점, 경계 등의 형성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 (영역) 평균 350~400m의 이동거리, 최대 1km 내에서 동네의 생활 영위

침산2·3동, 산격3동, 관음동 세 지역 모두 동네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이동거리가 평균 350~400m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린주구론이나 뉴어바니즘 등 기존의 생활권 관련 이론에서 일관적으로 주장했던 보행거리(1/4mile, 400m)와 매우 유사한 범위라고 할 수 있다.

근린지역별로 살펴보면 아파트단지 위주로 이루어진 침산2·3동 그리고 아파트단지와 저층주거지가 혼합된 관음동이 약 400m로 유사하고, 저층주거지역으로 이루어진 산격 3동이 350m로 다소 짧은 특성을 보인다. 이를 표준편차값과 함께 살펴보면, 산격3동의 표준편차가 60m로 다른 두 지역(119m, 127m)에 비해 짧게 나타나 각 활동 간의 평균적인 이동거리가 대체로 유사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이동거리는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주거유형에 따른 블록의 규모를 고려한다면 침산2·3동에서의 실제 이동거리는 보다 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보행속도를 고려한 시간거리로 환산하면 약 6~7분가량으로, 동네에서 일상생활 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주민들의 이동은 기존의 n분 생활권에서 논의되는 10분 내지는 15분 생활권 대비 다소 좁은 범위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최장이동거리 수준을 통해 동네 생활의 최대 영역을 예측해보면 세 지역 평균이 1~1.3km 수준에서 나타나고 있다. 통신데이터를 통해 유동인구 분포를 분석한 결과에 서도 마찬가지로 1km 내에서 유동인구의 밀집도가 70~80% 가량으로 나타난 것을 함께 고려한다면, 동네생활권의 반경을 1km 수준으로 예측할 수 있다.

반경이 가장 긴 활동은 세 지역 모두 장보기 목적이며, 그 빈도 또한 매우 가장 높게 나타 났다. 이는 활동목적별 시설의 밀집도와 접근성 분석 결과 가장 양호한 수준을 보였던 시설군으로서, 결국 동네에 있는 시설의 밀집도와 접근성이 주민들의 활동 빈도와 밀접 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4-22] 각 사례지역의 활동목적별 이동범위(단위: m, km²)

구분	활동목적(방문지수)	최단이동거리	최장이동거리	평균이동거리	면적
침산2·3동 (n=100)	장보기(183)	22	2,082	498	1.90
	외식(84)	60	1,580	452	2.53
	근린서비스이용(44)	47	1,467	351	1.10
	공공·의료서비스이용(88)	61	1,826	394	1.87
	통학(13)	174	637	277	0.86
	여가·문화·체육(33)	123	1,396	576	1.49
	친교·사교(3)	205	303	244	0.12
	평균	99	1,327	399	_
	표준편차	70	637	119	_
산격3동	장보기(141)	27	2,298	339	0.53
(n=100)	외식(83)	71	1,279	375	0.48
	근린서비스이용(38)	75	755	283	0.45
	공공·의료서비스이용(89)	40	837	367	0.88
	통학(9)	79	644	414	1.43
	여가·문화·체육(18)	142	928	452	0.54
	친교·사교(13)	65	613	300	0.27
	평균	71	1,051	361	_
	표준편차	37	593	60	_
관음동	장보기(142)	19	1,694	525	0.78
(n=100)	외식(69)	77	1,142	432	0.56
	근린서비스이용(55)	13	491	163	0.82
	공공·의료서비스이용(84)	31	1,035	361	1.75
	통학(5)	148	1,058	467	1.60
	여가·문화·체육(82)	63	874	304	1.03
	친교·사교(11)	129	1,057	496	0.76
	평균	69	1,050	393	_
	표준편차	53	358	127	_

주) 직선거리 기준

출처 : 주민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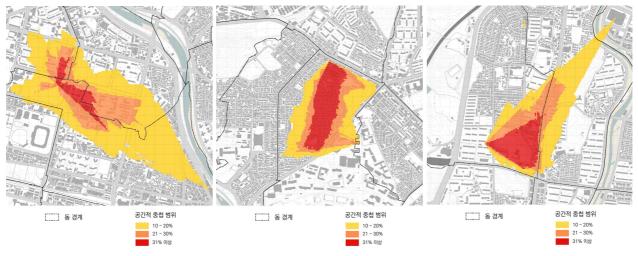
□ [그림 4-31] 각 사례지역의 활동목적별 이용영역(전부중첩)
출처 : 주민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 □ (거점) 활동목적에 따라 복수의 거점이 발생하여 면적인 거점을 형성

분석을 진행한 세 지역에서 모두 동네에서의 활동 목적에 따라 복수의 거점이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주거지특성에 따라 거점의 형태가 물리적·공간적으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아파트단지 중심의 주거지인 침산2·3동에서는 활동이 비교적 한 곳으로 집중되는 특성(침산네거리 인근)을 보이는 반면, 저층주거지인 산격3동에서는 거점이 활동 목적에 따라 비교적 여러 곳으로 분산되면서 넓게 퍼지는 특성을 보이는 것을 아래 그림을 통해 비교·확인할 수 있다. 활동의 거점으로 도출된 지점들은 대체로 소비나 공공서비스를 충족하기 위한 생활시설이 밀집된 곳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거점을 형성하는 활동은 지역마다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어(침산: 장보기 및 공공·의료서비스이용, 산격: 장보기 및 근린·공공·의료서비스이용, 관음: 장보기 및 외식, 공공·의료서비스이용) 거점을 형성하는 동네 활동을 특정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 □ (경계) 지형지물 또는 주요 생활가로가 동네 생활의 유의미한 경계로 작용

세 지역에서 모두 행정구역 경계와 무관한 활동 영역이 형성되는 가운데, 보행을 통한 이동이 주로 이루어지는 동네 활동 특성상 주요 가로 및 하천 등의 지형지물 요소가 유의 미한 경계로서 작용하고 있다. 이 중 주요 가로의 경우, 주요 간선도로로서 인접 지역과 구분되는 경계로 작용하는 경우(산격3동 북측의 동북로, 산격3동과 복현1·2동 구분)가 있는 반면, 주요 활동이 집중되는 선적인 거점이자 인접 지역과 활동이 중첩되는 경계로 작용하는 경우(관음동 동측의 관음동로)도 있다.



[그림 4-32] 각 사례지역의 활동목적별 주요 이용영역(30%중첩) 출처 : 연구진 작성

#### 2) 동네생활권 설정의 이슈

- □ 근린의 물리적 특성과 주민들의 실제 통행 특성을 반영한 생활권 설정 가능
  - 동네생활권 설정을 위한 탐색절차 마련 및 활용범위 설정 필요

본 연구에서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지역에서 생활권이 형성되는 범위를 찾고, 그 가운데 주거지특성, 인구·가구특성 등의 지역적 차이에 따른 동네생활권을 시범적으로 탐색하였다. 동네생활권은 앞서 정리한 바와 같이 지역 특성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양상을 띠며, 따라서 표준화된 규모와 거점을 도출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들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범위를 찾기 위한 '방법'과 '과정'을 마련하고 고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생활권을 구분하는 전통적 방식(근린환경 특성)과 비교적 새로운 방식 (주민활동특성 및 인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네생활권을 탐색하는 과정을 실증해 보았다. 특히, 활동과 관련된 공간 데이터가 고도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물리·환경적 특성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이용 행태를 반영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한 실제 동네생활권 탐색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이러한 과정을 정립하여 동네생활권 도입이 필요한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탐색항목, 설정기준, 설정 및 활용절차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동네생활권이 모든 도시나 지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니라고 판단되는 바, 이의 적용 가능 대상과 활용범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 동네생활권 단위 데이터 확보와 의견 수렴의 절차 마련 필요

현재 공공-민간분야에서 매우 다양한 빅데이터와 개별데이터가 생산되고 있는 여건이다. 이에 본 연구의 분석에서도 목적별 통행량, 시간대별 유동인구 분포 및 카드사용액등 다양한 데이터를 공간에 접목하여 생활권 탐색을 위한 근거로 활용한 바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데이터가 최소 50m 이상의 셀(cell) 단위로 이루어짐에 따라 '동네'라는 미시적인 단위에서 정밀성을 갖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동네생활권을 탐색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객관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데이터가 갖는 실효성을 고려하여이를 보완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 즉, 주민 워크숍 또는 서베이 등을 통해 데이터의 한계를 보완하고 동네에서의 실제 활동을 현실감 있게 반영하는 것이 요구된다 하겠다.

# 제5장 동네생활권 도입 및 정책적 활용방안

- 1. 동네생활권 도입방향
- 2. 동네생활권 활용방안

## 1. 동네생활권 도입방향

### 1) 동네생활권 도입목적 및 활용범위

#### □ 도입목적

지역특성과 주민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중심의 계획수립과 사업추진이 요구되면서 도시계획체계에 따른 도시관리나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 관련 정책들이 추진되어 왔고, 그 과정에서 지역기반 계획수립체계나 주민참여 기반의 사업추진체계가 구축되어 왔다. 그러나 도시계획체계는 광역차원의 공간구조를 만들고 도시의 장기비전을 설정하는데 그목적을 두고 있어 도시의 여건변화와 달라진 주민 수요에 대응한 유연한 공간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이미 정해진 사업구역 내에서의 주민참여 방식은 실제 주민들의 활동 및 커뮤니티 특성을 반영하는데 한계를 나타낸다.

또한 주민주도로 마을의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마을단위 계획 수립을 시도하고 있으나 실행력을 갖추지 못해 주민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도시재 생사업, 새뜰마을사업, 인천시 더불어마을사업 등 동네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마을단위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동네 마을 단위 계획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여 지원금을 받기 위한 공모사업계획으로 간주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1)

이처럼 주민들의 생활범위인 동네 단위에서 공간관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으나 주민들의 실제 활동 특성이나 커뮤니티 구축 현황 등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진행되지 못한 채 행정편의를 위한 구역계를 바탕으로 지자체 단위의 계획수립이나 사업추진이 진행되어 왔다.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동네 활성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동네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공간관리방안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적 범위인 '동네생활권'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동네생활권의 도입은 공간관리 범위를 한정하고 대상 주민을 특정함으로써 지역문제의 구체적인 해결방안 마련과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을 기대할 수 있다.

#### □ 활용범위

#### • 지역밀착형 도시공간 정책 대상 범위

동네생활권은 디지털 전환과 코로나19와 같이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시의성 있는 정책과제를 추진하거나 도시공간의 변화와 주민의 달라진 생활패턴과 활동특성에 대응할 수 있는 미시적 공간 범위에 해당한다. 주민수요에 대응하고 지역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간관리 계획의 대상범위로 활용할 수 있다.

#### • 근린 활성화를 위한 실행계획 수립 단위

동네생활권은 주민들의 일상생활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간 단위로서 생활서비스 공급 범위, 공동체 활성화나 골목경제 살리기를 위한 사업의 실행계획 수립 범위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동네생활권은 기본적으로 보행 중심의 이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민들의 활동 증진과 동네 활력을 창출하기 위한 실행전략을 추진하기에 적합한 공간 규모에 해당한다. 따라서 지역 맞춤형 사업, 지역 특화재생 사업 등의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여 지역·주민특성을 반영한 상향식(Bottom-up) 계획 수립을 추진할 수 있다.

#### • 주민참여형 계획 및 사업 추진 단위

동네생활권은 주민과 지역의 특성에 따라 특징져지기 때문에 도시별·지역별로 다양한 규모와 형태로 나타나며, 이웃과의 연결·관계 특성이나 주민공동체 현황과 활동 특성을 구분 짓는 공간적 범위가 될 수 있다. 이에 주민참여형 계획 수립과 주민참여 계획단 구성 시동네생활권 범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주민주도의 사업추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2) 동네생활권 기본원칙 및 도입방향

#### □ 기본원칙

첫째, 동네생활권은 기성시가지 주거권역을 대상으로 설정한다. 이는 동네생활권이 지역 내 거주민들의 특성을 바탕으로 설정되는 권역이자 지역 활력 창출을 위한 동네활동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도시나 신시가지의 경우, 해당지역의 비전·목표가 유사한 주변 동네생활권을 참조하여 공간관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동네·근 린 단위의 공간관리가 필요한 지역에서 선별적·전략적으로 동네생활권을 설정한다. 동 네생활권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기반으로 시대적·사회적·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설정하기 때문에 행정구역 전역을 구획하여 일괄적인 계획방향을 설정하는 도시계획체계 상의 생활권과는 접근방식에 차이가 있다. 마지막으로 동네 활성화를 위한 실행력과 구체성을 갖춘 수단에 활용할 수 있는 범위로서 동네생활권을 설정한다.

#### □ 도입방향

이상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동네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공간적 범위로서 동네생활권을 도입할 수 있다. 동네생활권은 도시·지역별 특성, 인구밀도, 주 거지 특성, 주민 활동 및 커뮤니티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 동네 생활권 탐색항목과 절차에 따라 지역 맞춤형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동네생활권의 설정은 지역실정을 잘 아는 기초지자체(시군구)에서 담당한다. 동네생활권 내 주요사업으로는 도시재생이나 주거환경 정비, 동네거점 조성, 생활서비스 공급을 위한 시설 조성, 주민참여·공동체 프로그램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표 5-1] 동네생활권 개념의 도입방향

구분	주요 내용
목표	•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동네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대상지역	• 기성시가지 주거권역
규모	• 도시·지역별 특성, 인구밀도, 주거지 및 주민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 가능
설정방향	<ul> <li>설정주체: 기초지자체(시군구 단위)</li> <li>설정방법: 동네생활권 설정을 위한 탐색항목 중 지역현황 및 여건에 맞는 항목 활용</li> </ul>
주요사업	<ul> <li>도시재생사업, 정비사업, 새뜰마을사업 등 도시재생 및 주거환경정비 관련 사업</li> <li>마을계획 등 주민참여형 계획 수립이나 공동체 프로그램 사업 등</li> <li>동네거점(커뮤니티 공간, 동네 플랫폼 등) 및 생활서비스 시설 조성사업</li> </ul>
관련계획	• 생활권계획 등 도시관리계획, 도시재생계획(전략계획·활성화계획), 정비계획 등과 연계

출처 : 연구진 작성

#### 3) 동네생활권 탐색항목 및 설정절차

#### □ 탐색항목

동네생활권의 설정은 필요한 지역에서 선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지역맞춤형 생활권 설정을 위해 <sup>●</sup>지역·근린환경 특성, <sup>●</sup>주민활동 특성, <sup>●</sup>커뮤니티 특성별 탐색항목에 따라 조사·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먼저 지역·근린환경 특성으로는 인구밀도나 가구특성, 상권·산업, 토지이용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함께 주택유형, 노후도, 주거지 형성과정 등의 주거지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일상생활과 관련된 시설로서 기초생활인프라, 생활밀착업종 시설 등의물리환경 특성을 분석해야 하며, 이때 각종 통계자료, 행정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주민활동 특성과 관련해서는 일상생활 활동의 공간적 범위, 활동 목적별 행태 특성을 살펴볼수 있으며, 유동인구 통행량을 살펴볼 수 있는 빅데이터 및 공공데이터를 활용하거나 주민설문을 통해 동네 단위로 주민들의 활동 및 행태 특성을 분석할 수 있다. 커뮤니티 특성으로는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동네 커뮤니티 공간과 기능, 커뮤니티 활동 현황을 살펴볼 수 있으며, 현지조사와 주민의견수렴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표 5-2] 동네생활권 설정을 위한 탐색항목 및 활용가능 데이터

탐색항목	세부항목	활용가능 데이터
기본현황	행정구역, 상위·관련계획, 사업추진현황 등	행정자료
●지역·근린환경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인구, 가구, 상권, 산업, 토지이용 등)	통계자료(인구총조사, 주민등록인구통계, 주간활동인구, 전국사업체조사 등)
	주거지 특성(주택유형, 노후도, 주거지 형성 과정, 빈집 등)	통계자료(주택총조사 등), 건축물대장, 건축인허가 등 행정자료
	물리환경 특성(기초생활인프라, 생활밀착업종 시설 등 현황, 시설밀집지역)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현황 자료, 통계자료(국세청 국세통보 폐업자 현황)
<b>②</b> 주민활동 특성	일상생활활동 특성(공간적 범위, 활동 목적별 행태 등)	유동인구(통신사, 여객DB, GPS 추적 데이터, 관찰조사 등), 주민설문
❸커뮤니티 특성	커뮤니티 공간 및 기능, 커뮤니티 활동 등	현지조사, 주민설문 및 인터뷰 등

출처 : 연구진 작성

동네생활권 탐색의 기본이 되는 일상생활활동은 장보기·구입, 서비스 이용, 여가·사교 목적에 따라 7가지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공정책 추진을 위한 근린단 위 분석 시 생활SOC, 기초생활인프라 등 공공서비스 시설 중심으로 현황분석을 실시하 며, 해당 시설의 공급수준과 결핍지역을 파악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 나 동네생활권 탐색은 주민들의 생활영역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민의 활동 및 행태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인프라의 생활서비스 범주부터 생활밀착형 업종과 서비스 범주까지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이를 통해 동네생활권의 영역과 동네거점을 도출할 수 있다.

[표 5-3] 일상생활활동 목적 및 관련시설

목적	활동	관련시설	비고
장보기 <sup>.</sup> 구입 목적	① 장보기	(생필품·식료품)슈퍼마켓, 편의점, 시장, 마트 등 (비생필품)문구점, 잡화점, 철물점, 꽃집, 서점 등	생활밀착 업종 관련
	② 외식	음식점, 카페, 제과점 등	
	③ 근린서비스 이용	세탁소, 미용실, 이용원, 목욕탕 등	
서비스	④ 공공·의료서비스 이용	우체국, 동사무소, 은행, 병·의원, 약국 등	기초생활
이용 목적	⑤ 통학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등	인프라
여가·	⑥ 여가·문화·체육	작은도서관, 작은영화관, 생활체육시설 등	- 관련
사교 목적	⑦ 친교·사교	경로당, 마을공동시설, 커뮤니티시설 등	_

출처 : 연구진 작성

#### □ 동네생활권 공간적 범위 및 동네거점 설정기준

동네생활권은 행정적·통계적 단위로 접근하는 범위가 아닌 도시공간의 기능과 주민의 행태 및 커뮤니티 특성을 바탕으로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크게 물리적 접근성 과 사회적 접근성으로 나누어 설정기준을 구분할 수 있다.<sup>2)</sup>

먼저 물리적 접근성은 도보권의 주거권역, 일상생활 활동 범위, 주민의 이동이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인 요소로 살펴볼 수 있다. 다만 도시·지역별 특성과 인구밀도에 따라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 및 서비스로의 접근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지역을 동일한 도보권으로 설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지방중소도시, 특히 군지역에서의 동네생활권은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비해 넓은 범위로 설정될 수밖에 없으며, 도보 및 차량을 통한 일상생활활동 관련 시설 이용 범위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사회적 접근성으로는 인구사회적 특성, 주거지 특성과 관련된 사항들을 검토하여 동질 적 집단·군집으로 구분하고, 지리적 인접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주민공동체 구성

<sup>2)</sup> 캐나다 'Ottawa Neighbourhood Study (ONS)'에서는 15분 네이버후드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물리적 겁근방식'과 '기능적 접근방식'을 적용하였고, 주민참여를 통해 네이버후드 경계에 대한 피드백과 제안을 받음(About Neighbourhood Boundaries, Ottawa Neibourhood Stud, https://www.neighbourhoodstudy.ca/about-neighbourhood-boundaries, 검색일: 2022.04.30.)

본 연구에서는 인구사회적 특성, 주거지특성 등과 관련된 접근방식을 '사회적 접근성'으로 기술하여 물리적 접근성과의 차이점이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하였음

원의 범위나 커뮤니티 활동의 범위 등을 참조할 수 있다.

동네거점은 동네생활권의 허브가 되는 곳으로 일상생활활동의 중심지로 설정한다. 장보기·구입, 서비스 이용, 여가·사교 목적의 일상생활활동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중심지를 도출하며, 활동의 목적에 따라 거점은 여러 개소가 형성될 수 있다. 또한 생활서비스 시설이 밀집되어 있거나 주거권역 내 접근성이 우수한 곳이 될 수 있다.

[표 5-4] 동네생활권 및 동네거점 설정기준

구분	설정기준	
동네생활권 공간적 범위 (영역·경계)	물리적 • 도보권 접근성 ※ 지방도시·군지역 등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은 일상생활 활동을 위한 차량 이동범위까지 검토 필요 • 일상생활활동 관련 시설로의 접근성, 주민 이동·활동범위 등 • 산, 하천, 구릉지, 급경사 등 주민의 이동·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소	
	사회적 • 인구·가구 특성, 주거지 특성 등에 따른 지리적 인접 경계 설정 접근성 • 주민참여 및 커뮤니티 범위	
동네거점 (중심지)	<ul> <li>일상생활활동의 중심지로 설정</li> <li>장보기·구입, 서비스이용, 여가·사교 목적의 활동의 중심지</li> <li>생활서비스 시설이 밀집되어 있거나 주거권역 내 접근성이 우수한 곳</li> </ul>	

출처 :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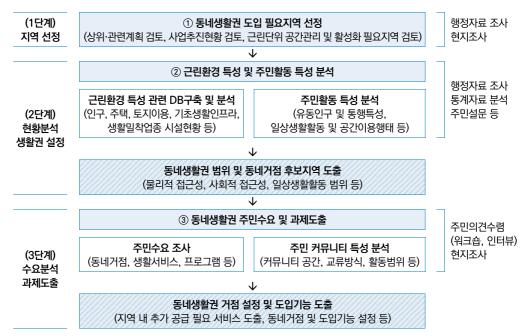
#### □ 설정절차

동네생활권은 지역특성과 현안을 반영하여 지역맞춤형 공간적 범위로 설정해야 하며, 이에 다음과 같이 각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동네생활권 설정절차를 3단계로 제시하고자 한다.

1단계는 동네생활권 도입 필요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상위·관련계획, 사업추진현황 등을 검토하여 근린단위 공간관리 및 활성화 전략이 필요한 지역을 도출한다. 또한 지역이 슈나 문제 해결을 위해 전략적으로 동네생활권 도입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할 수도 있다.

2단계는 동네생활권 범위와 동네거점 후보지역을 도출하기 위한 현황분석 단계이다. 필 요지역 일대의 2~3개동 행정동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공공데이터, 행정자료 등을 바탕 으로 근린환경 현황과 주민활동 특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다. 이때 물리적 접근성과 사 회적 접근성, 일상생활활동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3단계에서는 주민워크숍, 인터뷰,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여 주민수요 조사와 지역의 과 제를 도출한다. 주민의견수렴을 통해 동네거점을 최종 설정하고 지역에 추가적으로 필 요한 생활서비스를 도출, 주거지 특성에 맞는 동네거점 도입기능을 설정한다.



[그림 5-1] 동네생활권 설정절차(안)

출처 : 연구진 작성

## 2. 동네생활권 활용방안

#### 1) 생활권계획의 세부 공간단위로 동네생활권 활용

### □ 동네생활권 공간관리방안 마련과 상위 공간계획과의 환류·연계

서울시의 '보행일상권'이나 부산시의 15분도시 '생활보행권'과 같이 대도시에서는 기존 도시기본계획 상의 생활권보다 작은 단위의 공간 범위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인구·가구구조의 변화,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의 등장, 디지털 전환 등에 따른 공간 기능과 생활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정책에 대한 요구를 따른 것으로, 행정동단위에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근린단위로 공간관리를 전환하여 기존 도시계획체계상의 공간과 주민들의 생활단위의 간극을 좁히겠다는 취지이다. 주민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동네 안에 다양한 용도와 기능을 집적시키고 생활서비스와 사회적 인프라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는 도보 30분, 부산시는 15분 거리를 기준으로 근린 생활권의 범위 설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인구밀도가 높은 도심지역이나 대도시 주거밀집지역에서 적용 가능하다. 다만 인구밀도가 낮은 지방도시에서는 이러한 n분도시 개념을 동일한 기준과 방식으로 적용하기 어렵고, 공간관리 방향과 전략도 차별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춤형으로 설정하는 동네생활권 활용할 수 있다. 행정서비스 제공과 인프라설치를 위한 행정구역계가 아닌 주민들의 생활편의와 활동 증진을 위한 주거권역 중심의 계획으로 수립하고, 도시·군기본계획 상의 일상생활권이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의 생활권의 세부 공간단위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 도시계획체계에서는 공간적 위계 및 범위에 따라 상위 공간계획이 우선 수립된 후하위 계획은 이를 따르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공간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인구감소나 저성장에 따른 지역여건의 변화, 분권화와 균형발전에 따른 지역주도 역할 확대로 지역마다의 독자성을 고려한 공간관리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상위계획은 지역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시의성 있는 대응이 어렵고, 주민들의 체감하는 도시공간 관리방안과의 괴리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동네생활권 중심의 지역밀착형 공간계획 수립을 추진, 지자체 생활권계획 및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시관련 내용이 환류3)·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sup>3) &#</sup>x27;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에서는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계획체계 상의 최상위계획으로서, 광역계획권내

[표 5-5] 동네생활권 및 유사개념 비교

구분	서울시 보행일상권	부산시 생활보행권(15분도시)	본 연구의 동네생활권
기준·규모	- 도보 30분 - 행정동 1~2개 - 인구 2~3만명	- 도보 15분(반경 750m) - 평균면적 1.7㎢	- 일상생활활동 범위 - 평균 1km 내외
중심지	- 1~2개 역세권	- 주민 교류 매개역할을 하는 매개시설(공간)	- 동네거점
계획·관리 방향	- 복합적 기능배치 - 유연한 용도지역 계획 - 자립 생활권으로 조성	- 도시서비스 및 사회적 인프라 공급·활용	<ul><li>생활서비스 시설 조성</li><li>주민공동체 프로그램 운영</li><li>도시재생 및 주거환경정비</li></ul>
관련근거	- 2040 서울플랜	- 부산 2040 도시기본계획 (소생활권을 구성하는 보행권)	- 도시·군기본계획(일상생활권),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생활권)과 연계방안 검토

출처: 서울특별시(2022, 3월 3일 보도자료), 부산광역시(2022, p.8) 참조

#### □ 생활권계획의 실행계획으로서 동네생활권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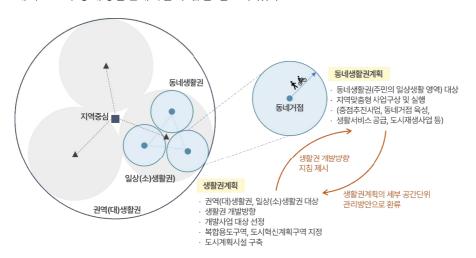
동네생활권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동네생활권계획 수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활권계획의 실행계획이자 일상생활권 또는 이를 구성하는 세부 공간 단위의 관리방안으로서 동네생활권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생활권계획을 도입하고, 생활권 단위 공간 개편, 공공정책 및 도시관리계획 연계 방향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생활권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으로 수립될 예정으로 도시관리계획과의 중간단계 계획으로서 성격을 가진다. 본 계획을 통해 기존 도시·군기본계획보다구체화된 공간 단위에서 복합용도구역 및 도시혁신계획구역 지정, 도시계획시설 구축등의 내용이 마련될 예정이지만, 여전히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미시적 공간단위로의 접근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고려되며, 지침적 성격의 기본계획이자 장기계획이기때문에 시의성 있는 대응과 실행력을 갖추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생활권계획의 실행력을 갖추고 지역 변화에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네생활권계획과의 연계체계를마련,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에서 일상생활권은 동, 읍, 면 1개 이상의 규모로 보고 있으나 도시·지역특성에 따라 일상생활활동이 이루어지는 범위는 다양한 규모와 영역으로 설정될 수 있다. 이에 지침 상의 일상생활권 또는 이보다 작은 세부단위의 동네생활권별

시·군이 수립하는 도시·군계획(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한 지침 역할을 하고 있으나, 광역 계획권내 시·군이 수립한 도시·군계획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환류·조정하여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국토교통부훈령 제1344호)

로 지역밀착형 공간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지역맞춤형 사업구상 및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계획으로서 동네생활권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림 5-2] 생활권계획과 동네생활권계획의 관계

출처 : 연구진 작성

동네생활권계획은 공간관리방안의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사업추진체계 및 재원조달계 획 등 운영계획까지 포함하여 수립한다. 동네생활권 내 주요 현안과 주민수요를 바탕으 로 시급성이 높은 사업을 중점추진사업으로 설정하고 생활서비스 공급방안, 도시재생 사업이나 정비사업 등의 세부 사업추진계획을 마련한다. 이때 주민워크숍 개최를 통해 사업기획 및 우선 추진사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장소 중심의 지역발전 정책이 효과 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협의회를 개최하여 관련 부서 간 연계·협력 사항을 논의한 다. 또한 실행방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공공 및 민간의 재원조달계획과 사업추진 거버넌 스 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한다.

## 현황 및 수요 분석

- 근린환경 특성 분석 - 주민활동 특성 분석
- 커뮤니티 특성 분석

#### 수요조사 및 과제도출

- 주민수요조사
- 동네생활권 과제 도출

#### 사업구상 및 실행계획

- 동네거점 설정
- 중점추진사업 설정
- 도시재생사업 등

#### 운영계획

- 공공/민간 재원조달계획
- 사업추진체계 구체화

## - 생활서비스 공급방안 추진계획

#### [그림 5-3] 동네생활권계획 수립 절차 및 주요내용(안)

출처: 연구진 작성

생활권계획이 20년을 목표연도로 수립이 된다면 동네생활권계획은 5년 기준으로 수립 하되, 필요한 지역에 선별적·전략적으로 동네생활권을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 록 한다. 지역현안에 맞춘 계획 수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광역시는 자치구 구청장, 시·군에서는 지자체 장을 수립권자로 한다. 본 계획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 「도시계획조례」상에 '생활권계획 수립·운영'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일상생활권의 구분, 생활권계획 수립 및 변경, 동네거점 육성 및 생활서비스 공급, 연차별 집행계획 등을 포함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 또한 「국토계획법」 개정과 함께 마련될 '생활권계획 수립 지침' 내 생활권계획 내용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실행방안으로서 동네생활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표 5-6] 생활권계획 및 동네생활권계획 내용 구성·비교

구분	생활권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내)	동네생활권계획
목적	- 생활권 단위 공간 개편 - 생활권 단위 공공정책 및 도시관리계획 연계	<ul><li>지역밀착형 공간관리방안 제시</li><li>지역 맞춤형 사업구상 및 실행방안 제시</li></ul>
대상/규모	<ul> <li>대도시, 강소도시, 농어촌 생활권으로 구분</li> <li>권역(대)생활권, 일상(소)생활권</li> </ul>	<ul><li>특광역시, 대도시, 일반 시·군 모두 적용 가능</li><li>일상(소)생활권 또는 이를 구성하는 세부단위</li></ul>
목표연도	- 20년 기준(5년마다 재검토)	- 5년 기준(1년마다 재검토)
수립권자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 (특·광역시) 자치구 구청장 - (시·군) 시장·군수
주요내용	<ul> <li>생활권 개발방향</li> <li>토지이용계획</li> <li>생활권내 개발사업 대상선정 및 연계방안</li> <li>복합용도구역·도시혁신계획구역 지정 방향</li> <li>도시계획시설 구축방향 등</li> </ul>	<ul> <li>동네거점 설정</li> <li>실행방안(중점추진사업, 동네거점 육성, 생활서비스 공급 시설, 프로그램 계획 등)</li> <li>세부추진방안(연차별 집행계획 등)</li> </ul>
위상/성격	- 도시·군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 -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중간단계 계획	- 생활권계획의 실행계획 - 지역기반의 상향식(Bottom-up) 계획

출처 :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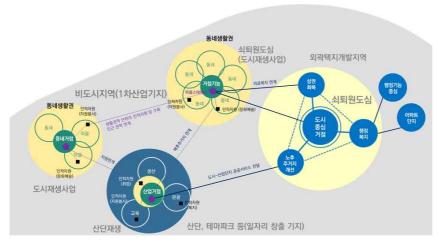
#### [표 5-7] 지자체 도시계획조례 내 '생활권계획 수립·운영' 관련 내용 구성방안

구분	주요 내용
생활권계획	<ul> <li>권역생활권 및 일상생활권 구분</li> <li>권역생활권 및 일상생활권 대상 생활권계획 수립 또는 변경에 대한 계획안 제출</li> <li>생활권계획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동네거점 육성, 생활서비스 공급,</li></ul>
수립·운영	연차별 집행계획 등 포함)

출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8380호) 제4조의 2,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부산광역시조례 제6719호) 제7조의2 참조하여 작성

#### 2) 근린 활성화를 위한 사업구역으로서 동네생활권 및 동네거점 활용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활성회를 위해 지역주도의 계획수립과 사업추진이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행정안전부의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협약 등이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생활권 단위에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을 추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생활권'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사업구역을 탐색하기보다 개별 법령이나 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구역 설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도시·군기본계획 상 근린단위 생활권을 설정한 경우가 없어 이를 활용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다. 해양수산부에서 2022년부터 추진 중인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에서는 도보 중심의 1차 어촌생활권과 행정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읍면동 단위의 2차 어촌생활권을 구분하고, 생활권 내 주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및 연계할 수 있는 거점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4) 이처럼 지역 현황에 맞는 생활권을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동네생활권을 사업구역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때 동네생활권의 중심지인동네거점을 중심으로 관련 사업들을 통합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림 5-4] 동네생활권 중심의 도시재생 및 지역 활성화 사업 추진전략 출처 : 서수정 외(2021, p.160)

#### □ 근린재생형 활성화지역으로 동네생활권 활용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의 공간적 범위인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 시 지역의 잠재력이나 지역자원 활용 가능성, 지역주민의 역량 등을 종

<sup>4)</sup> 해양수산부·건축공간연구원(2022, pp.1-2)

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수립지역은 근린생활의 거점역할을 할 수 있는 곳으로서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sup>5)</sup> 목적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의 생활영역과 밀접하게 연계하여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활성화지역 지정 조건이만 충족한다면 국비지원 공모를 위해 다수의 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7) 이렇게 지정된 활성화지역 내에서 주민참여형 사업 추진과 주민공동체 발굴을 통한 도시재생경제조직 육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 주민공동체 범위에 부합하지 않거나 커뮤니티 특성 반영이 미흡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도시재생 거점시설 조성을 위한 입지 선정이나 도입기능 설정시에도 지역여건이나 주민들의 생활패턴 및 활동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어느지역에서나 유사한 사업으로 구상되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주민의 일상생활 특성을 기반으로 한 동네생활권을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수립 범위(활성화지역)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지역에 필요한 생활서비스 도입을 위한 단위사업을 전략적으로 구상하고, 동네생활권의 주민 커뮤니티 범위를 바탕으로 각종 프로그램 사업을 운영하고 주민참여형 사업추진체계 구축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하는 주요 생활편의시설과 거점시설의 입지 선정, 프로그램 구상 시 동네생활권 특성을 반영함으로써 도시재생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를 위해 전략계획 수립과정에서 재생권역®별 도시재생 전략 도출 및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시 동네생활권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생권역별 지역 현안문제 도출과 도시재생 전략 설정 시 동네생활권의 현황 및 주요 과제 등을 참조할 수 있으며, 재생권역별 주민참여 계획단 구성 시 동네생활권의 주민 커뮤니티 범위를 반영하여 진행할 수 있다. 또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법정 기준 및 복합쇠퇴지수 분석, 각종기준을 검토하여 지정하게 되는데 이때 동네생활권의 범위를 참조하여 전략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주민들의 일상생활 활동의 중심이 되는 동네거점은 점단위 소규모 도시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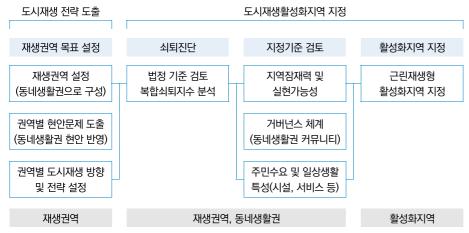
<sup>5)</sup> 국토교통부·건축공간연구원(2021.3., p.2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814호) 제 2조 참조

<sup>6)</sup>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법정 기준(①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 ②총 사업체 수의 감소 등 산업의 이탈이 발생되는 지역, ③노후주택의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의 2개 이상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7814호, 제13조)

<sup>7)</sup> 서수정 외(2020, p.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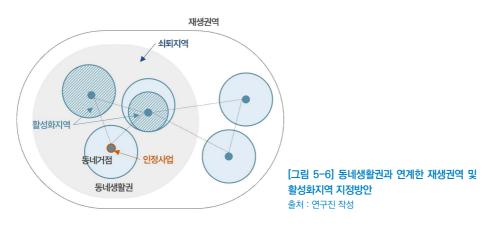
<sup>8) &#</sup>x27;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에서는 전략계획 수립 대상지역을 도시재생 목표 및 방향에 따라 재생 권역으로 구분할 수 있고, 재생권역은 도시·군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생활권을 따르거나 지역에서 별도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함(국토교통부·건축공간연구원, 2021.3., p.14)

생사업인 인정사업 대상지로 검토하여 생활SOC나 공공임대상가 공급 등 생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림 5-5] 근린재생형 활성화지역 지정절차 및 검토기준 개선(안)

출처 : 연구진 작성



#### □ 근린 활성화를 위한 동네생활권 단위 국비지원방안 마련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근린 활성화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시대적·사회적 변화와 복잡한 지역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적 접근방식을 필요로 한다.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단위인 동네생활권을 중심으로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연계하여 지역 맞춤형 사업추진전략을 마련하고, 동네생활권 단위의 국비지원방식을 통해 사업성과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동네생활권 단위의 지역 활성화 및 발전전략 국비지원방안으로서 「국가균형발전 특별 법」상의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 역주도로 지역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도시·지역 만들기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다부처·다년간 포괄보조형태로 지원하는 것으로서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효율적인 성과관리가 가능하다.<sup>9)</sup> 지역발전투자협약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는 생활SOC 복합화사업, 농산어촌 유토피아 시범사업,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sup>10)</sup> 등이 있다. 협약을 위해서는 사업규모, 투자비용, 사업기간, 재원조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예산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지자체 관리·운영을 통해사업의 성과가 지속될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한다.<sup>11)</sup>

#### 3) 생활서비스 공급 및 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동네거점 활용

#### □ 동네거점 내 복합적 기능을 배치한 동네플랫폼 형성

동네거점은 주민들의 일상생활활동 중심지이자 생활권 내 주민들의 접근성이 우수한 장소로서 설정할 수 있다. 생활편의시설을 비롯하여 동네생활권에 필요한 기능을 복합적으로 배치하고, 주민들의 일상적인 만남과 교류가 일어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동네플랫폼'을 전략적으로 조성할 수 있다.

도심지역과 달리 주거권역 내 위치한 동네거점은 근린 단위의 허브로서의 기능이 중요하다. 변화되는 생활양식과 공간수요에 맞추어 동네 안에서 다양한 주민 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복합적 기능을 도입한 공간으로 검토할 수 있으며, 주거지 특성과 주민 커뮤니티 특성에 따라 거점의 도입기능은 다양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이나 대도시 내 주거권역의 동네 플랫폼은 대중교통이나 골목상권 접근성이 우수한 곳에 조성되어야 하며, 소비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소매 및 서비스시설이 집중된 거점으로 형성할 수 있다. 지방중소도시나 군지역에서는 동네생활권에 부족한 의료·복지, 돌봄, 교육·문화 등의 생활서비스 관련 시설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주민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기능을 함께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거점공간은 기존 시설을 복합화하거나 유휴공간의 재활용 등을 통해 조성할 수 있고, 단일 건물 내 다양한 기능을 도입하거나 동네거점을 중심으로 여러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sup>9)</sup> 표희진(2020, p.58)

<sup>10)</sup> 행정안전부의 주민참여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에서는 공공서비스를 공유할 수 있는 읍면동 단위 또는 여러 개 마을로 구성된 범위에서 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발전투자협약제도에 따라 여러 부처 사업을 융합적 연계·집약적 투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음 (행정안전부, 2021, 12월 30일 보도자료)

<sup>11)</sup> 지역발전투자협약 운영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631호.

#### □ 동네거점을 중심으로 주민수요에 대응하는 생활서비스 공급체계 마련

동네생활권은 인구·가구, 주거지, 주민활동 등에 따라서 다양한 특성을 나타내며, 이러한 지역특성을 기반으로 동네별 주민수요를 고려하여 지역맞춤형 생활서비스를 전략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동네의 주민활동 중심지인 동네거점에 해당 생활권에 필요한 생활서비스 시설을 조성하고 서비스 전달체계를 다각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신규 시설 공급, 지역사회 참여와 공유, 민·관협력 거버넌스 체계를 통한 서비스 전달체계 강화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특히 동네생활권의 의존도가 높은 아동이나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해당 주민들의 수요와 특징을 고려하여 입지 및 서비스 전달방식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중국 상하이시에서는 아동과 노인을 위한 시설은 근접성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15분 생활권으로 접근한 여타 시설과 달리 어린이집, 공원, 양로시설, 시장 등은 5분 생활권 범위 내 배치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었다.12) 그밖에 동네생활권 심층분석을 통해 도서관, 주차장, 보육시설 등 각종 생활서비스 유치권역 및 투입규모를 사전에 검토하고 동네생활권 대상 사업 추진 시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시설 조성을 추진할 수 있다.

#### 4) 주민참여형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을 위한 공간단위로 활용

#### □ 동네생활권 단위 주민참여단 구성

공급자 위주의 계획 및 정책수립에서 지역주민과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수요자 중심의 추진체계가 중요해지면서 주민참여방안에 대한 논의도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도시·군기본계획이나 서울시의 지역생활권계획,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참여단을 구성하고 워크숍 개최를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다만이러한 계획들은 지역의 비전과 장래상을 정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어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이슈를 논의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데 한계를 나타낸다. 또한 실행력을 갖춘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간관리로이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행정구역 단위로 수립되는 계획으로서 주민참여단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한계가 따른다.

한편 도시재생사업이나 새뜰마을사업, 지역개발사업 등의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

<sup>12)</sup> 上海市规划和国土资源管理局(2016, p.35)

참여는 해당 사업구역 내 주민들로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에서는 활성화지역 내 주민들을 중심으로 역량강화를 진행하여 주민조직을 형성, 도시재생 사후 관리를 위한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등 주민참여 범위가 한정적·폐쇄적인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사업이 종료되면 사업추진을 위해 형성되었던 주민협의체가 지속적으로 운영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주민참여 도시계획이나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참여단 구성 시 기존 지역 내 커뮤니티 특성을 고려한 참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정구역 단위의 관변조직들이 형성되어 있기도 하나 해당 조직들은 관련 법령이나 행정차원의 권한과 역할을 부여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동네 단위에서 공통된 지역 문제를 인식하고 동일한 수준의 생활서비스를 받고 있는 주민들로 구성된 참여체계를 바탕으로 동네 활성화를 위한 실천과제를 발굴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

#### □ 동네생활권 단위 마을계획 수립 및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주민자치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계획 수립이나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주로 행정동이나 읍면 단위13)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주민공동체나 '마을'의 개념은 주민의생활단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지역마다 다양한 범위로 형성될 수 있다. 「서울특별시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르면 '마을'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14)로 정의하고 있으며, 마을공동체는 행정구역상 '동'보다 작은 규모로 접근하고 있다. 이에 동네생활권 단위로 일상생활에서 도출되는 마을의제와 실현방안을 마을계획으로서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소규모 마을활동과 실천사업 실행, 사후관리까지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을계획에는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영역인 집수리, 골목길 정비, 쌈지공원 조성, 공동체 활력 증진, 범죄예방, 마을축제 등 다양한 이슈를 담고, 이슈별로 필요한 시설과 공간을 도출, 이를 확보하기 위한 재원계획까지 수립하여 실행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15) 또한 공간관리방안 뿐 아니라 실천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 및 주민조직육성방안,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방안에 대한 내용도 마을계획에 담을 수 있어야 한다.

일례로 영국 런던에서는 주민조직인 포럼을 중심으로 지역 내 새로우 기차역. 도로 교차

<sup>13)</sup>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행정동 단위로 마을계획 수립을 진행하고 있으나 대전광역시의 '공동체 마을계획수립 사업'에서는 동단위(행정동, 법정동)와 아파트 공동체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음. 동단위는 마을 내 직능·자생단체 및 마을계획 추진을 위해 구성된 주민공동체이며, 아파트 공동체는 입주민, 자생단체,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등으로 구성된 공동체로 구분(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2022)

<sup>14)</sup>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8468호), 제2조

<sup>15)</sup> 류중석(2020, p.10) 참고하여 작성

로 개선, 자전거 도로, 학교, 커뮤니티 센터 및 의료시설 등 기반시설 마련을 위한 네이버 후드 플랜을 수립하고 있다. 지역사회 수준과 규모에 맞는 개발행위를 추진하기 위해 주민이 계획 범위의 지정부터 계획 수립까지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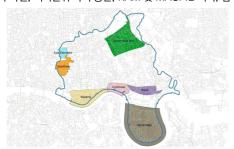
#### ※주민조직 주도의 계획수립 사례: 영국 런던의 네이버후드 플랜(Neighbourhood Plan)

#### 1. 네이버후드 플랜 개요

- 개요
  - 교통 인프라 개선, 학교, 커뮤니티 센터, 의료시설 등 기반시설 마련을 위해 지역 커뮤니티 주도로 수립하는 계획으로 지역사회 수준과 규모에 맞추어 개발행위를 추진하며 커뮤니티 인프라 부담금(CIL) 활용 가능
  - 커뮤니티 인프라 부담금(CIL)이란 지역계획당국(Local Plan Authority)이 해당 지역에 건물을 짓는 개 발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세금으로 징수된 세금은 새로운 기반시설을 구축하는데 사용할 수 있음
- 포럼(주민조직) 승인과 계획 수립 단계
  - (1단계) 임시포럼 구성, 지역계획당국에 포럼 신청서를 제출하고 공식적인 포럼으로 구성
  - (2단계) 지역포럼 신청서를 검토, 지역계획당국 위원회 및 이사회에 권고사항을 제출
  - (3단계) 지역계획당국 위원회 및 이사회로 부터의 권장사항을 반영하는 단계임
  - (4단계) 포럼이 승인되면 네이버후드 플랜 수립을 시작할 수 있고 계획안은 주민투표의 과반수 찬성 필요
- 네이버후드 플랜의 범위와 기준
  - 지역 커뮤니티 조직이 네이버후드 플랜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범위 지정·신청
  - 해당 범위는 행정구역계를 따를 필요는 없으나 신청지역이 포함된 행정기관 또는 지역계획당국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함(2개 이상의 지역계획당국의 행정 경계를 가로지르는 네이버후드 플랜 범위가 제안되는 경우 네이버후드 플랜을 처리하는 주도 기관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유도)

#### 2. Tower Hamlets구의 네이버후드 플랜 사례

- 7개 네이버후드 플랜 지역이 승인을 받았으며, 그 중 Spitalfields, Roman Road Bow, Poplar 지역은 네이 어후드 포럼까지 승인을 받음
- Spitalfields 네이버후드 플랜
  - 계획목표: (환경) 지역 곳곳에 많은 녹지를 제공, (도시유산) 역사적 건축환경을 보호·강화, (복합 상업 프로그램) 지역에서 유지되는 특별하고 다양한 사업체 조합을 유지하면서 지역의 일자리를 극대화하고 향상
  - 주요정책: Spitalfields의 물리적 컨텍스트 보호, 토지이용 및 지역 내 활동과 전면 공간, 공공공간, 도시 녹지화 촉진, 지역단위 녹지 공간, RAM 및 MAGPIE 지역, 합리적인 작업공간(Workspace)





Tower Hamlets구의 승인된 네이버후드 플랜 지역

Spitalfields 구역

#### 출처: Neighbourhood Planning Q&A,

https://www.london.gov.uk/who-we-are/city-halls-partners/old-oak-and-park-royal-development -corporation-opdc/opdc-media-centre/opdc-blog/neighbourhood-planning-qa (검색일: 2022.10.22.); Neighbourhood Planning Guidance, https://www.gov.uk/guidance/neighbourhood-planning-2 (검색일: 2022.10.22.); Neighbourhood Planning. Tower Hamlets Borough, https://www.towerhamlets.gov.uk/Documents/Democracy/Spitafields-Neighbourhood-Areas-map.pdf (검색일: 2022.10.22.); Spitalfiel ds Neighbouhood Planning Forum(2021, pp.11-15)

# 제6장 결론

- 1. 연구성과
-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추진과제

# 1. 연구성과

디지털 전환과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온라인교육, 스마트워크의 확산은 소비, 여가, 노동, 교육 등 일상생활의 여러 부문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집 주변 근거리 생활반경내 동네 인프라나 생활밀착형 서비스로의 접근성, 동네 생활 편의성에 대한 수요 증가로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집과 동네 중심으로 재편되는 일상에 맞는 도시공간 재구성과 지역재생 모델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생활권계획 수립이나 n분도시 실현을 위한 사업 추진 등 동네·근린 단위의 국내외적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한편 현행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체계는 광역차원의 공간구조를 만들고 도시의 장기비전을 설정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어 도시의 여건변화와 지역의 다양한 현안에 맞춘 시의성 있는 대응전략 마련에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이나 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의 삶의 질제고를 위한 지역 발전 관련 정책에서도 공급자 위주의 계획 수립이 이루어지면서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권역과 일상생활 특성에 대응하는 전략 마련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변화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가변적인 계획여건을 반영하기 위한 공간적 범위로서 '동네생활권'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도입 및 활용하기 위한 정책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주요 내용과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동네·근린단위 공간관리를 위한 동네생활권 개념 정립과 요소 도출 2장에서는 이론고찰을 통해 동네생활권 관련 논의, 생활권 이론 및 동네 단위 지역 활성 화 정책 추진현황을 검토하여 동네생활권 개념 정립과 동네생활권 구분을 위한 요소를 도출하였다.

급변하는 도시공간과 복잡해지는 주민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집 주변 근린환경에서의 공간관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주민들의 생활패턴과 활동 특성, 커뮤니티 특성 등을 담아내는 공간적 범위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민의 일상생활활동이 이루어지는 동네·근린단위 도시공간을 '동네생활권'으로 정의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고 지역 문화와 정체성의 형성·공유, 지역의 각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동네생활권을 구분하는 요소인 일상생활활동을 장보기, 외식, 근린서비스 이용, 공공·의료 서비스 이용, 통학, 여가·문화·체육, 친교·사교로 구분하였고, 이와 관련된 세부시설을 도출하였다.

# • 주민의 일상생활 영역으로서 동네생활권의 범위와 설정기준, 활용사례 파악

3장에서는 국외사례 분석을 통해 동네생활권의 범위와 특성, 설정방식, 도시계획 및 정책적 활용방안을 살펴보았다. 네이버후드나 n분도시 등 동네·근린 단위의 개념을 적용하여 도시계획을 수립한 미국 멤피스와 포틀랜드의 종합계획 사례, 동네생활권 단위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캐나다 오타와, 중국 상하이와 영국 런던 사례를 검토하였다.

국외사례에서는 동네생활권을 대부분 집(주거)으로부터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보행권을 공간적 범위로 보고 지리적·행정적 단위의 통계 데이터와 함께 도시공간의 기능과 주민의 행태를 바탕으로 생활권의 범위와 경계를 탐색하고 있었다. 동네생활권 내 주민들의 생활중심지를 근린 활성화를 위한 전략 마련 대상지인 거점구역으로 설정하고, 앵커와 앵커네이버후드, 경계지역 등으로 공간 구성 유형을 구분하고 공간별 특성에 맞추어도시설계방안과 전략을 마련하고 있었다. 동네생활권은 주민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함께 하기 위해 모이는 장소이자 지역별 특색 있는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범위로서 접근할필요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례에서 주민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생활권을 설정하고 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었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와 도시문제에 대응하고 지역특화 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로서 동네생활권 단위로 공간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도시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동네생활권 단위 계획과 개발방향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있었다.

#### • 시범적 탐색을 통한 지역 맞춤형 동네생활권 설정을 위한 과제 도출

4장에서는 2, 3장에서 검토·정립한 동네생활권 개념과 설정기준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침산 2·3동, 산격3동, 관음동)를 대상으로 시범적 탐색과 분석을 실시하고, 동네생

활권의 특성과 동네생활권 설정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였다. 근린환경 특성(기능), 주민활동 특성(행태), 커뮤니티 특성(인지)으로 구분하여 동네생활권을 단계적으로 살펴보았고, 이를 종합하여 동네생활권 영역과 동네거점을 도출하였다. 각종 공공데이터 및 행정자료를 포함하여 빅데이터(유동인구, 카드매출), 주민의 일상생활활동 행태와 동네생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시범 탐색 결과, 동네생활권은 지역 특성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띠기 때문에 표준화된 규모와 거점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들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범위를 찾기 위한 방법과 과정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근린환경 특성 분석만으로는 실질적인 동네생활권을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활동특성과 인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네생활권을 탐색할 수 있어야 하고, 동네생활권 도입이 필요한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탐색항목과 설정기준, 설정절차 등을 제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 • 지역밀착형 도시공간 정책 수단으로서 동네생활권 정책적 활용방안 제시

5장에서는 동네생활권을 도입하기 위한 탐색항목과 설정절차를 도출하고, 계획, 사업, 주민참여 측면에서의 동네생활권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동네생활권의 도입은 공간관리 범위를 한정하고 대상 주민을 특정함으로써 지역문제의 구체적인 해결방안 마련과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을 기대할 수 있으며, 지역밀착형 도시 공간정책, 근린 활성화를 위한 실행계획, 주민참여형 계획 및 사업의 공간적 범위로 활용할 수 있다. 동네생활권은 거주민의 특성을 바탕으로 설정되는 권역이자 지역 활력 창출을 위한 동네활동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어 기성시가지 주거권역을 대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동네·근린 단위의 공간관리가 필요한 지역에서 동네생활권을 선별적·전략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지역·근린환경 특성, 주민활동 특성, 커뮤니티 특성의 탐색항목에 따라 조사·분석을 실시하고, 주민수요와 지역의 과제를 바탕으로 동네생활권 거점 설정과 도입기능을 도출해야 한다.

동네생활권의 정책적 활용방안으로는 먼저 생활권계획의 세부 공간단위로 활용하는 방안을 살펴볼 수 있다. 동네생활권을 중심으로 지역 맞춤형 공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 생활권계획 및 도시·군기본계획 등 상위 공간계획 수립 시 관련 내용이 환류·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근린재생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비롯하여 근린 활성화를 위한 사업구역으로서 동네생활권 및 동네거점을 활용할 수 있다. 셋째, 동네거점을 중심으로 생활서비스 공급 및 전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동네플랫폼'을 조성

하고 동네생활권의 의존도가 높은 주민계층 수요를 고려하여 생활서비스 공급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넷째, 동네생활권 단위로 주민참여형 계획 수립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동네 단위에서 공통된 지역문제를 인식하고 동일 수준의 생활서비스를 받고 있는 주민들로 구성된 참여체계를 바탕으로 동네 활성화를 위한 실천과제를 발굴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

#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추진과제

본 연구는 지역특성과 주민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중심의 계획수립과 사업추진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로서 '동네생활권' 개념의 도입방향과 활용방안을 제안하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해 디지털 전환 등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는 중규모 이상 도시, 인구가 밀집한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적 탐색 및 분석을 진행 하였고, 이에 따라 동네생활권 탐색항목과 설정절차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동네생활권 은 도시규모나 지역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별 활용할 수 있는 동네생활권 설정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네생활권의 중심지인 동네거점은 일상생활활동 목적에 따라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주거지 특성과 주민 커뮤니티 특성에 따라 동네거점을 전략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 과 같이 후속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대도시와 중소도시, 수도권과 지방도시 등에 따른 동네생활권 도입방향과 설정기 준을 세분화하는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와 같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하고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과 인구감소문제가 현저하고 생활서비스 향유도가 낮은 농어촌 마을에서의 동네생활권 설정기준과 활용방향은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울시는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용도의 생활권으로서 '보행일상권'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반면, 해양수산부의 어촌활력증진 시범사업에서는 중심어항에서 5km 범위(도보15분)의 배후마을을 1차 어촌생활권으로 설정하고 생활서비스 거점시설을 조성하도록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 맞춤형 생활권 설정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각 지역에서 동네생활권 도입 및 활용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동네거점의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공간관리방안을 마련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장보기나 구매 목적의 활동 거점, 공공·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 그 밖의 여

가·사교 활동을 위한 거점 등 동네생활권 내 다양한 동네거점 조성을 위해 민간참여 동네플랫폼 조성, 생활SOC나 공동이용시설 조성, 주민교류 및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사업추진전략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네생활권을 도시 여건 변화와 지역의 다양한 현안에 맞춘 시의성 있는 공간관리 정책 추진을 위한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였으나 미래 시점에는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지역의 장기비전을 담는 도시·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환류·연계체계를 바탕으로 동네생활권 기반의 공간관리방안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동네생활권의 도입 및 활용을 위해 근린 단위 공공데이터 구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동네·근린단위에서 지역특성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읍면동, 집계구, 필지단위 등 공간데이터의 단위를 세분화하여 구축하고, 주민들의 일상생활 특징을 파악할수 있도록 유입·유출인구, 서비스 인구 관련 빅데이터, 각종 생활서비스 관련 시설 포인트 데이터 등 공공데이터(Dataset)와 Open API로 제공하는 데이터의 범위를 확대, 공급수준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지방중소도시의 경우, 수도권 및 광역시에 비해 공공데이터 범주 및 세부정보가 부족하여 데이터 활용이 미미하고, 변화되는 사회여건과 도시공간 특성에 세밀하게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 미시적 공간단위 데이터 제공을 통해 공공정책 추진 및 계획의 품질 향상, 증거기반의 의사결정, 각종 이슈에 대한 전략적으로 대응 등 정책결정에 데이터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자체 단위 통합 데이터 저장소 구축, 공공기관 및 민간 데이터의 공동 활용 관리체계 마련 등 다양한 지원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무헌 References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9). 지역의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현황 자료 및 분석 안내서.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 O2O 서비스, 코로나O2O 서비스, 코로나19 비대면 시대 쾌속 성장, 과기정통부, 「2020년 온오프라인연계(O2O) 서비스 산업조사」 결과 발표. 4월 9일 보도자료.

관계부처합동. (2019). 생활SOC 3개년 계획(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21). '21년 생활권기반 연계협력 지원사업 추진계획.

국토교통부. (2019).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건축공간연구원. (2021.3.).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가이드라인(2차개정).

국토교통부, 한국국토정보공사. (2022). 2021 도시계획현황.

국세청. (2017). 국세통계로 보는 100대 생활업종 현황. 11월 29일 보도자료.

- 권혁삼, 백혜선, 정화진. (2008). 국내 주거지 계획의 생활권 공간구성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도 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9(4). 39-60.
- 김미선. (2021). 하이퍼로컬 시대의 지역 컨텐츠. 대한토목학회지. 10, 79-81. 대한토목학회.
- 김민정. (2018). 지갑은 우리집 500m 안에서 열리더라. 조선비즈. 1월 17일 기사. https://biz. 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16/2018011602918.html (검색일: 20 22.2.8)
- 김성훈. (2019). 저층주거지 맞춤형 재생사업을 위한 마을생활영역 설정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 교 박사학위논문.
- 김용국, 조상규, 권오규, 유예슬, 최가윤. (2021).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생활권 공원녹지 개선 방안. 건축공간연구원.
- 김인희. (2021). 전환시대 서울 도시공간 발전 전략. 위드코로나 시대 서울의 도시전망. 서울연구원 개원 29주년 기념세미나 자료집(2021.10.21.)
- 김태현. (2022). "좁힐수록 커진다"…포털 공룡 네이버 '동네 플랫폼' 뛰어든 이유. 머니투데이.

- 4월 9일 기사,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40708561899018 (검색일: 2022.06.02.)
- 대구광역시. (1996). 대구토지구획정리백서.
- 대구광역시. (2018). 2030대구도시기본계획.
-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2022). 2022년 공동체 마을계획 수립 사업 공고.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공고 제22-000001호.
- 류중석. (2020). 마을계획의 시대를 열자. 건축. 64(12). 10-11.
- 모종린. (2020). 지역재생의 미래: 코로나 시대의 지역과 산업. 건축과 도시공간, 40, 27-31, 건축공간연구원.
- 모종린. (2021). 머물고 싶은 동네가 뜬다. 서울: 알키.
- 모종린. (2022). 시·군·구 아니라 읍·면·동 '동네'를 지역발전 중심으로. 2월 4일 기사.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opinion/specialist\_column/2022/02/04/XY7YJ37 BARE2VDOQRBJPLBKERU/ (검색일: 2022.02.12.)
- 문화체육관광부. (2020). '로컬택트'는 '지역 울타리 활동'으로. 10월 19일 보도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21). '다크 스토어'는 '배송 전용 매장'으로. 6월 9일 보도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21). 생활문화사업 통합 지원으로 지역 중심 생활문화 활성화한다. 1월 27일 보도자료.
- 민현석, 정윤남, 이상민. (2018). 서울시 보행공간의 공공성 평가. 서울연구원.
- 박상필. (2022). 부산형 15분 도시 세계 선도를 위한 조성 방식. 부산연구원 BDi 정책포커스. 407.
- 박상필, 구윤모, 김기욱, 김민경, 김진희, 박경옥, 박봉철, 변지혜, 손헌일, 여운상, 오동하, 윤지영, 이상국, 장정재, 허윤수, 황영순. (2022). 부산형 15분 도시 계획구상. 부산연구원.
- 박양호. (2021). '스마트 동네생활권' 시대가 오고 있다. 무등일보. 7월 21일 기사. http://www. mdilbo.com/detail/lBZuon/651116 (검색일: 2022.02.06.)
- 백혜선, 황규홍, 권혁삼, 정경일, 서수정, 정화진, 배응규. (2006). 한국 주거지 계획에 적용된 도 시설계 개념 고찰: 생활권 계획을 중심으로.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 부산광역시. (2021). 우리동네 미래발전전략, 「생활권계획」으로 지역주민이 만든다!. 2월 26일 보도자료.
- 부산광역시. (2021.7.). 제38대 시장공약 실천계획.
- 부산광역시. (2021.9.). 부산형 15분 도시 기본구상 수립 용역 과업지시서.
- 부산광역시. (2022). "Happy챌린지"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15분 도시 만들기 시동!. 7월 22 일 보도자료.
- 부산광역시. (2022). 부산진구 당감개금생활권, 부산시 첫 HAPPY챌린지 대상지로 선정!. 8월 15일 보도자료.
- 부산광역시. (2022). 15분 도시 부산 기본구상 보고서. 부산광역시.
- 서수정, 장민영, 김영하. (2019). 중·소도시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역자원기반의 통합적 공간관

- 리 방안,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서수정, 윤주선, 장민영, 김민경, 민혜경. (2020). 도시재생 계획체계 및 전략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개선 방안 연구. 국토교통부.
- 서수정, 장민영, 임보영, 정인아, 변은주, 진영효. (2021). 로컬리즘 기반의 중소도시 재생정책 방안. 건축공간연구원.
- 서울특별시. (2015).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요약보고서.
- 서울특별시. (2019). 서울시, 노후 저층주거지 '10분 동네 생활SOC' 180개 확충 본격화. 5월 16일 보도자료.
- 서울특별시. (2019). '걸어서 10분' 도서관·주차장 13개 시설 들어선다. 7월 31일 발행.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1247328 (검색일: 2022.06.04.)
- 서울특별시. (2020). 서울시, 균형발전 이끌 15곳 '동네단위 발전전략' 발표…총 4,323억 투입. 12월 3일 보도자료.
- 서울특별시. (2021). 우리동네 미래지도 내가 그린다…서울시, 지역생활권별 온라인게시판 개설. 1월 6일 보도자료.
- 서울특별시. (2021). 서울시, 문화센터·마을주차장··· '25년까지 노후 저층주거지 11곳에 생활S OC 신규 확충. 12월 23일 보도자료.
- 서울특별시. (2022). 서울시, 디지털 대전환시대 미래공간 전략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발표. 3월 3일 보도자료.
- 서울특별시 노동민생정책관. (2019.10.). 선순환 지역경제를 위한 생활상권 추진계획.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2021.4.). 주요 현안업무보고. 제300회 시의회 임시회 자료.
- 성은영, 강현미, 허재석. (2021). n분 도시 실현을 위한 도시전략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 손동필, 조영진, 김영지, 박유나, 허재석, 현태환. (2021). 포스트코로나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언택트 어바니즘 전략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 송미령, 김광선, 박주영. (2009). 기초생활권 생활 서비스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 신동훈, 최우람, 나강열, 김광욱, 김진이, 박동원, 김만호, 서정원, 박은옥, 김병진, 김일권. (202 1). 포스트코로나시대 광주전남지역의 자족형 근린생활권 발전방안. 광주전남연구원.
- 신서경, 김동근, 송지은, 김진엽. (2021). 도시계획 실행력 강화를 위한 생활권계획 도입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얀겔. (2003). 삶이 있는 도시디자인. 김진우, 이성미, 한민정 공역. 푸른솔.
- 양재섭, 한지혜, 반영권. (2022). 서울시 지역생활권계획 운영실태 진단과 개선방향. 서울연구원.
- 오병록. (2012), 생활권 이론과 생활권계획 실태 분석 연구 : 도시기본계획에서의 생활권계획을 중심으로. 서울도시연구. 13(4), 1-20. 서울연구원.
- 오병록. (2014).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한 통행특성 분석과 생활권 기준 설정 연구. 서울도시연구. 15(3), 1-18. 서울연구원.

- 오픈서베이. (2021). 1인 가구 트렌드 리포트 2021.
- 유창복, 이재경, 김다예. (2020). 포스트 코로나와 로컬 뉴딜. 서울: 도서출판 책숲.
- 유현아. (2021). 코로나19 이후 대도시 집중-분산 이슈 탐색. 국토연구원.
- 윤서연, 김인희, 변미리, 임희지, 정상혁, 홍상연, 허자연, 박동찬, 이동하, 진화연. (2021). 디지털 전환에 따른 도시 생활과 공간 변화. 서울연구원.
- 윤서연, 이동하, 진화연, 박동찬. (2022). 디지털 전환 시대, 시민 생활변화에 따른 서울 도시 공 간의 변화와 전망.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350.
- 윤주선, 박성남, 박석환. (2016).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이계임, 김상효, 허성윤, 신성용, 박인호. (2020). 2020 식품소비행태조사 기초분석 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영아. (2021). 지금은 플랫폼 경제시대...지역기반 '하이퍼로컬' 서비스가 뜬다. 12월 28일 기사. Tech M, https://www.techm.kr/news/articleView.html?idxno=92573 (검색일: 2022.02.11.)
- 이재준, 임송식, 이고은. (2020).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2.0 시대의 환경변화. 산은조사월보, 77 6, 26-49. KDB미래전략연구소.
- 장정재. (2022). 중국의 『15분 도시 프로젝트』 추진 현황. CSF중국전문가포럼 전문가 오피니 언. 대외경제정책연구워.
- 장형태. (2021). 동네친구 된 IT… 중고거래서 취업까지 해결. 조선일보. 4월 7일 기사, https://www.chosun.com/economy/tech\_it/2021/04/07/BV5LKTQVCZG6PF6WNAK3 HMNNQM/ (검색일: 2022.06.02.)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기술정책단. (2021). 주거 지역 기반의 생활밀착형 '하이퍼로컬(hyperlocal) 서비스' 각광. ICT Brief, 13. 정보통신기획평가원.
- 정원엽, 김정민. (2021), 플랫폼 강자 당근·네이버, 골목길서 딱 마주쳤다. 중앙일보. 4월 7일 기사,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29347#home (검색일: 2022.02.05.)
- 정창윤. (2020). 경험을 소비하는 공간의 시대. 아는동네 매거진, https://www.iknowhere.co. kr/magazine/31193 (검색일: 2022.02.05.)
- 조창현. (2013). 도시 일상생활 연구의 시공간적 접근: 활동기반 이론에 의한 통행 행태 연구의 확장. 서울:푸른길.
- 청주시. (2021), 2040 청주도시기본계획(안), 청주의 미래를 제안하다, 청주시청, https://www.cheongju.go.kr/www/selectBbsNttView.do?key=279&bbsNo=40&nttNo=1828 46 (검색일: 2022.05.27.)
- 청주시 도시교통국. (2022). 청주시 일상생활권 구축계획 시범사업 과업지시서.
- 최이명. (2013). 근린지역 내 동네형태특성과 보행생활권 형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통계청. (2020). 2019년 생활시간조사 결과. 7월 30일 보도자료.
- 통계청. (2021).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7월 29일 보도자료.
- 통계청. (2022). 국민 삶의 질 2021.

- 표희진. (2020).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 국토. 459. 국토연구원.
- 한국은행. (2020).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택근무 확산. 12월 14일 보도자료.
- 한재희. (2021). 맘카페서 시작해 당근마켓까지···"이제는 '슬세권' 서비스가 대세". 서울신문. 4월 13일 기사,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41350017 5 (검샐일: 2022.06.02.)
- 해양수산부, 건축공간연구원. (2022).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 시행 가이드라인.
- 행정안전부. (2021). 인구가 감소하는 우리 동네 우리가 살린다!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 공모. 12월 30일 보도자료.
- 황동현. (2019). 빅데이터 기반 골목상권 영역 설정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BC카드 빅데이터센터. (2020). 언택트 시대의 소비 변화.
- 周岱霖, 胡嘉佩. (2021). 社区生活圈公共服务设施配置规划路径探索——《广州社区生活圈及公共中心专项规划》编制思考. 城乡规划. (4), 117-124.
- 中华人民共和国自然资源部. (2021).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行业标准——社区生活圈规划技术指南.
- 上海市规划和国土资源管理局. (2016), 上海市15分钟社区生活圈规划导则.
- 上海市规划和自然资源局. (2021). 上海乡村社区生活圈规划导则.
- 吴秋晴, 赵宝静. (2022). 系统治理与精准更新视角下的社区规划探索——以周家桥街道美好生活圈行动规划为例, 上海城市规划, 163(2), 16-23
- 童明, 白雪燕. (2022). 连接城市生活脉络:社区生活圈的营造策略与方法. 时代建筑, (2), 22-29
- City of Memphis. (2019). Memphis 3.0 Comprehensive Plan.
- City of Ottawa. (2021). 15-Minute Neighbourhoods Baseline Report.
- City of Ottawa. (2022). Official Plan.
- City of Portland. (2020). 2035 Comprehensive Plan: Urban Design Direction.
- M. E. J. Newman and M. Girvan. (2004). Finding and evaluating community structure in networks, Physicl Review E, Vol.69, 026113.
- Mayor of London. (2021). The London Plan 2021.
- Memphis, Tennessee. (2019). Elvis Presley and Raines Anchor Neighborhood Summary Report.
- ndmulti. (2012). Communicate with Even More Neighbors. Nextdoor Blog. 9월 13일 게 시자료. https://blog.nextdoor.com/2012/09/13/communicate-with-even-more -neighbors/ (검색일: 2022.04.30.)
- Spitalfields Neighbouhood Planning Forum. (2021). Spitalfields Neighbourhood Plan 2

020-2035. pp.11-15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국토교통부훈령 제1344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법률 제18877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3063호.

농어촌정비법, 법률 제18755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893호.

도시공원법시행규칙, 건설부령 제275호.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국토교통부훈령 제1470호.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건설부령 제225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18830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국토교통부훈령 제977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7814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449호.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부산광역시조례 제6719호.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 새만금개발청 고시 제2022-2호.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8468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8380호.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7423호.

지역발전투자협약 운영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631호.

10분 동네생활SOC, 서울특별시, https://uri.seoul.go.kr/surc/seoulInfo/socBusinessPlan. do (검색일: 2022.06.04.)

2022 생활문화공동체 활성화 지원 공모 안내, 문화체육관광부, https://www.mcst.go.kr/kor/s\_notice/notice/noticeView.jsp?pSeq=16303 (검색일: 2022.06.04.)

구정현황, 대구광역시 북구청, https://www.buk.daegu.kr/index.do?menu\_id=00000256 (검색일: 2022.05.31.)

국가공간정보포털 택지개발구역자료, http://data.nsdi.go.kr/dataset/12830 (검색일 : 202 2.05.31.)

국가공간정보포털 토지특성정보자료, http://openapi.nsdi.go.kr/nsdi/eios/ServiceDet ail.do (검색일 : 2022.05.31.)

국가교통DB 교통분석자료(대구광역권 PA 목적OD자료), https://www.ktdb.go.kr/www/contents.do?key=202 (검색일: 2022.05.31.)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검색일: 2022.02.08.)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index/index.do (검색일: 2022.05.31.)

- 국토연구원 국토용어해설, https://library.krihs.re.kr/bbs/content/2\_431 (검색일: 2022. 06.05.)
- 국토교통부 용도별 건물정보데이터, https://www.data.go.kr/data/15048123/fileData.do (검색일: 2022.05.31.)
- 국토통계지도 총인구수, 국토정보플랫폼, http://map.ngii.go.kr/ms/map/NlipMap.do?tab Gb=total (검색일: 2022.05.31.)
- 네이버국어사전, https://ko.dict.naver.com/#/search?query=생활권(검색일: 2022.02.08.)
- 대구광역시 주택건설사업 추진현황(2022.4.), http://152.99.22.79:8080/SynapDocViewServer/viewer/doc.html?key=2c948aed831a80630185855a2adf7d7d&contextPath=/SynapDocViewServer/(검색일: 2022.06.0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개정 이유,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11293,20120201) (검색일: 2022.06.04.)
- 도시재생사업, 대구광역시청, https://www.daegu.go.kr/build/index.do?menu\_id=00935 914 (검색일: 2022.06.02.)
- 동네를 접수하다! 하이퍼로컬, 통계청 블로그, https://blog.naver.com/hi\_nso/2227079271 45 (검색일: 2022.06.02.)
- 로컬데이터 병원·의원정보, https://www.localdata.go.kr/data/dataView.do?menuNo=10 001 (검색일: 2022.06.07.)
-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도서관표준데이터, https://www.data.go.kr/data/15013109/standar d.do (검색일: 2022.06.07.)
- 상권분석지원서비스, 경기도, https://sbiz.gmr.or.kr/(검색일: 2022.06.01.)
- 서울생활권계획, 서울특별시, https://planning.seoul.go.kr/plan/main/intro/intro01.do (검색일: 2022.05.27.)
- 서울인포그래픽스, 서울연구원, https://www.si.re.kr/node/63894 (검색일: 2022.06.07.)
- 소상공인진흥공단 상가(상권)정보, https://www.data.go.kr/data/15012005/openapi.do (검색일: 2022.06.07.)
-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 서울특별시, https://golmok.seoul.go.kr/introduce.do (검색일: 2022.06.01.)
- 통계지리정보서비스, 통계청, https://sgis.kostat.go.kr/view/newhelp/so\_help\_10\_0 (검색일: 2022.06.01.)
- 행정구역, 대구광역시, https://www.daegu.go.kr/index.do?menu\_id=00000253 (검색일: 2022.04.27.)
- About Neighbourhood Boundaries, Ottawa Neibourhood Stud, https://www.neighbourhood-boundaries (검색일: 2022.04.30.)
- Earl's Court/West Kensington Opportunity Area. Mayor of London, https://www.london.gov.uk/what-we-do/planning/implementing-london-plan/opportunity-areas/londons-opportunity-areas/earls-courtwest-kensington-opportunity-area (검색일: 2022.09.15.)

- How are Opportunity Areas planned?. Mayor of London, https://www.london.gov.uk/what-we-do/planning/implementing-london-plan/opportunity-areas/what-are -opportunity-areas#acc-i-64696 (검색일: 2022.09.15.)
- How to draw the neighborhood boundary. Nextdoor Help center. https://help.nextdoor.com/s/article/How-to-draw-a-neighborhood-boundary?language=en\_US (검색일: 2022.04.30.)
- How to see neighborhood boundaries. Nextdoor Help center, https://help.nextdoor.com/s/article/How-to-see-neighborhood-boundaries?language=en\_US (검색일: 2022.04.30.)
- K-Geo플랫폼 국토이용분석 자료, https://kgeop.go.kr/info/infoMap.do?initMode=B (검색일: 2022.06.01.)
- London's Opportunity Areas. Mayor of London, https://www.london.gov.uk/what-we-do/planning/implementing-london-plan/opportunity-areas/londons-opportunity-areas (검색일: 2022.09.15.)
- Neighbourhood Planning. Tower Hamlets Borough, https://www.towerhamlets.gov.uk/Documents/Democracy/Spitafields-Neighbourhood-Areas-map.pdf (검색일: 2022.10.22.)
- Neighbourhood Planning Guidance, https://www.gov.uk/guidance/neighbourhood-planning--2 (검색일: 2022.10.22.)
- Neighbourhood Planning Q&A, https://www.london.gov.uk/who-we-are/city-halls-p artners/old-oak-and-park-royal-development-corporation-opdc/opdc-media -centre/opdc-blog/neighbourhood-planning-qa (검색일: 2022.10.22.)
- Nextdoor, https://about.nextdoor.com/ (검색일: 2022.02.04.)
- Opportunity Areas Map, Mayor of London, https://apps.london.gov.uk/opportunity-areas/?\_gl=1\*4m5rha\*\_ga\*MTI5MzA2MjU5Mi4xNjYzMjI0NTQ0 (검색일: 2022.09. 15.)
- Public Agency Team. (2022). Nextdoor for Public Agencies crime prevention engageme nt plan. 4월 6일 보도자료. https://business.nextdoor.com/en-us/public-agency/resources/engagement-guides/nextdoor-for-public-agencies-crime-prevention-engagement-plan (검색일: 2022.04.30.)
- The role of Local Planning Authorities in Opportunity Areas, Mayor of London,, https://www.london.gov.uk/what-we-do/planning/implementing-london-plan/opportunity-areas/what-are-opportunity-areas#acc-i-64698 (검색일: 2022.09.15.)
- What are Opportunity Areas?, Mayor of London, https://www.london.gov.uk/what-we-do/planning/implementing-london-plan/opportunity-areas/what-are-opportunity-areas (검색일: 2022.09.15.)

**SUMMARY** 

# Policy Proposal for Introduction and Utilization of Neighborhood Based on the Daily Life

Jang, Minyoung Seong, Eunyoung Jung, Ina Byun, Eunjoo

Digital transformation and the spread of telecommuting, online education, and smart work due to COVID-19 are changing many aspects of daily life, such as consumption, leisure, labor, and education, and are providing neighborhood infrastructure and services within a short-distance residential radius around the home. This is leading to an increase in demand for accessibility and convenience of neighborhood living. As the need for urban space reorganization and development of a local regeneration model suitable for daily life reorganized around houses and neighborhoods has grown, discussions at home and abroad are expanding, such as on the topics of neighborhood plans or n-minute city projects.

On the other hand, the current urban planning system in Korea aims to create a wide—area spatial structure and establish a long—term vision for the metropolis, highlighting limitations in preparing timely response strategies tailored to changes in urban conditions and diverse local issues. In addition, even in the local development—related policies to improve residents' quality of life, such as improving the living environment of the region or revitalizing the community, the establishment of supplier—oriented plans has failed to come up with a strategy to respond to actual living

areas and the lifestyle needs of resident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the concept of the 'neighborhood based on the daily life (neighborhood living area)' as a spatial range to flexibly respond to socio—economic changes and residents' daily lives, as well as reflect variable planning conditions, and to suggest policy support measures to introduce and utilize these. The key point and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Definition of 'neighborhood living area' and elements for neighborhood/community unit space management

Chapter 2 described the concept of neighborhood living area and derive elements for classifying neighborhood living area through the review of literature, related to theories and current policies of neighborhood, living area, and revitalizing neighborhoods.

In order to respond to the rapidly changing urban space and complex resident demand, the need for space management in the neighborhood is increasing in tandem with the need to review the spatial scope that includes residents' lifestyle patterns as well as activity and community characteristics.

Therefore this study defined a 'neighborhood living area' as the neighborhood and community unit urban space where the daily activities of residents take place. This area can respond to the demand for basic neighborhood services for daily life, the formation and sharing of local culture and identity, the spatial extent for community participation activities. In addition, activities of daily living, which are elements that distinguish these neighborhood living areas, were divided into shopping, dining out, use of neighborhood services, use of public and medical services, commuting to school, leisure, cultural activities and sports, and friendship and socializing. Subsequently, detailed facilities related to these were derived.

• The spatial extent and criteria of neighborhood living area as places for residents' daily lives and case studies

Chapter 3 examined the spatial extent, criteria and characteristics of neighborhood living areas, as well as the urban planning and policy for utilizing neighborhood unit through an analysis of case studies overseas. The cases are including the comprehensive plans in the cities of Memphis and Portland, USA, which formulated urban master plans by applying the concept of neighborhood and community units, and the

neighborhood-based policies in Ottawa, Canada, Shanghai, China, and London, England.

In overseas case studies, the neighborhood living area is reviewed as a spatial extent, where daily life occurs surrounding home, and the range and boundary of the living area are explored based on the function of urban space and the behavior of residents along with statistical data on geographical and administrative units. The central areas of residents' daily life are set as the hub area, which is the target of strategies for neighborhood revitalization, while spatial composition types were classified into anchor, anchor neighborhood, and anchor neighborhood edge, and urban design plans and strategie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space were prepared.

The neighborhood living areas are places where residents gather to engage in various activities, and communities with regional characteristics are formed, so in all cases, living areas were set up based on community participation and communication, and planning was promoted. In addition, the neighborhood living areas become the unit for spatial management plans, as areas that can respond to rapidly changing social and urban problems and prepare regional specialized strategies. Also, the sustainability of neighborhood living area unit planning and development direction was secured by strengthening connections with urban planning.

• Pilot exploration to set up regional customized neighborhood living areas

Chapter 4 involved a pilot exploration and analysis of the neighborhood living area with the case of Buk-gu (Chimsan 2/3-dong, Sangyeok 3-dong, and Gwaneum-dong) of Daegu Metropolitan City. This analysis was based on the concept and criteria of neighborhood living area reviewed and established in Chapters 2 and 3.

To identify the neighborhood living areas and hub, the stepwise analysis was conducted regarding the characteristics of neighborhood environment (functions), residents' activities (behavior), and community (cognition). For this, the survey was conducted to identify resident's daily routines and characteristics of neighborhood life, and the open data, administrative data, and big data such as flow population and card transactions were used.

As a result of exploration, the methods and processes to find out the spatial extent of residents' daily life by reflecting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are necessary to identify the neighborhood living area. Since the neighborhood living areas reflect diverse aspects

depending on their regional characteristics, it is difficult to describe a standardized size and neighborhood hub. In addition, the comprehensive analysis is necessar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and perceptions of residents' activities, because there is a limit to identifying the actual neighborhood living area only through the analysis of environment characteristics.

 Policy proposal for introduction and utilization of neighborhood living area as a means of community—based urban space policy

Chapter 5 suggested the exploration elements and process to identify neighborhood living areas, and proposed the ways to utilize neighborhood living areas in criteria of planning, projects, and community participation.

The introduction of neighborhood living area makes the specific range of spatial management area and target residents, so that the specific solutions to local problems and effective policies are expected. Also the neighborhood living area can be used as the project area of neighborhood revitalization, community participation and regional customized spatial management.

Neighborhood living area is necessary to target residential areas in old built—up areas, because it is set up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residents and aim to promote community activities to foster regional vitality. In order to selectively and strategically set up neighborhood living areas where the spatial management is required in neighborhoods and communities, an analysis is necessary to be conducted according to exploration criteria related to the characteristics of neighborhood environment, residents' activities and community. Also the hub and functions of neighborhood living area is necessary to be drawn based on residents' demand.

Finally, this study proposed the policy directions and implications as follows.

First, the neighborhood living area can be considered as the specific spatial unit of community plan. It is necessary to devise a regional customized spatial management plan focused on the neighborhood living area, and promote the feedback and connection with the high—level plans such as the community plans, urban ad Gun master plan.

Second, neighborhood living areas and neighborhood hubs can be utilized as project areas for neighborhood revitalization including urban regeneration revitalization area.

Third, a 'neighborhood platform' can be created to strengthen the supply and delivery system of neighborhood services centered on the neighborhood hub, and a neighborhood services supply system can be prepared by considering the demand from residents who are highly dependent on the neighborhood living area.

Fourth, the plan or projects based on community participation can be promoted in the neighborhood living area unit. Deriving practical subjects for neighborhood revitalization can lead to effective policy, based on community participation composed of residents who are aware of common local problems and receiving the same level of neighborhood services.

#### Keywords:

Neighborhood based on the daily life, Community living area, Neighborhood revitalization, Hyper-local

#### **APPENDIX**

# 부록:동네생활특성 및 주민수요 조사결과

# 1) 분석개요

# □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에서는 주민의 동네생활의 특성과 주민수요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는 일상생활활동에 대하여 물리적 특성을 살펴보는 동시에 활동의 목적이 되는 시설별 이용행태와 커뮤니티의 활동 특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분석대상지 주민들에게 동네생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정량적·정성적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도출하고자 하였다.

# □ 조사범위 및 방법

설문조사는 분석대상지(대구 북구 침산2·3동, 산격3동, 관음동)별 100명(만 20세 이상 주민), 총 300명을 대상으로 약 2주간(2022.7.23.~8.3.) 진행되었다. 일대일 대면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응답자는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각 연령층과 남녀 성별의 비중이 고르게 분포하도록 하였다.

# □ 조사내용

●응답자 특성을 기본문항으로 하여 ●동네생활 특성에서는 주민들이 인식하는 동네 범위, 동네 안에서 하는 주요 활동, 동네의 중심 장소, 커뮤니티 활동 특성 등에 대한 문항, ●동네생활 주민수요에서는 동네생활의 변화와 만족도, 동네에서 필요한 공공서비스 등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 부록-1] 주민설문조사 조사결과 개요

구분		주요 내용			
❶ 응답자 특성		- 성별, 연령, 거주지역(상세주소 제외), 거주기간, 주택유형, 가구원 수, 미성년자 유무, 월평균 소득			
<b>2</b> 동네생활	동네 범위 인식	- 직장·학교 등 정기적인 활동을 위한 이동특성(시간, 수단) - 동네 범위 인식			
특성	동네 주요 활동	- 동네에서 주로 하는 활동 - 일상생활활동 목적별 이용시설, 이용빈도, 이동수단 - 동네의 중심 장소 및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커뮤니티 활동	- 참여하고 있는 동네 활동 및 모임, 이용공간 - 동네 소식, 정보교류, 이웃 소통 방식			
<b>③</b> 동네생활	동네생활 변화	- 동네 생활 변화 및 이유 - 동네 활동 중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이용 비중 증가 항목			
주민수요	주민수요	- 동네 생활에서 가장 만족 및 불만족스러운 활동 - 동네에 가장 필요한 공공서비스			

출처 : 연구진 작성

'동네생활 특성'의 일상생활활동 목적별 이용시설은 2장에서 도출한 일상생활활동 및 시설을 토대로 하였다. 다만, 특수 목적의 활동(예. 돌봄)이나 특정일에 이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시설 등 반복적·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활동과의 관련성이 부족한 시설은 제외하였고, 시설규모와 이용특성 등을 종합하여 7가지 활동의 16개 시설항목을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중 친교 및 사교활동에 대해서는 다양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의 성격을 반영하여 장소를 특정하지 않고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활동 목적별 이용시설에 대하여 이용빈도와 이동수단 등을 조사하였다.

[표 부록-2] 일상생활활동 목적별 이용시설

활동	이용 시설	활동	이용 시설
장보기	시장	통학	(교육)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형마트(홈플러스, 이마트 등)	_	(보육) 어린이집, 유치원
	동네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_	(학원) 학원
외식	음식점·카페 등	여가·문화·체육	공공체육(공원, 체육시설, 놀이터 등)
근린서비스 이용	세탁소·미용실·이용원·목욕탕 등	_	문화시설(도서관, 영화관 등)
공공·의료	우체국, 동사무소(주민센터) 등	_	종교시설
서비스 이용	은행	친교·사교	사교모임을 위해 방문하는 다양한
	약국	_	장소
	병원, 의원, 한방병원	_	

# 2) 응답자 특성

## □ 응답자 일반현황

응답자는 침산2·3동, 산격3동, 관음동 대상지의 만 20세 이상 주민 각 100명씩 총 300 명으로 남성 51.7%, 여성 48.3%이며, 연령은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각 연령대에서 15.3%에서 24.0%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한다. 지역별로는 침산2·3동은 40대(25%)와 50대(23%), 산격동은 20대(38%), 관음동은 50대(29%)와 60대 이상(23%)의 응답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침산2·3동은 청장년 가구, 대학가의 산격3동은 대학생 20대 청년 층이, 관음동은 장년층의 거주비율이 높으며, 이는 인구통계 자료상의 연령별 인구구성 비1)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 □ 동네별 인구특성

침산2·3동의 응답자는 주로 40대(25%)와 50대(23%)로 거주기간은 전 구간에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다. 대부분 아파트(85%)에 거주하고 있으며 가구원은 주로 4명으로 미성 년자 가구원의 비율이 다소 높고 월평균 소득 또한 400-500만원 미만(31%), 500만원 이상(32%)으로 높게 나타났다.

산격3동은 대상지 중 20대(38%) 응답이 가장 많고, 10년 미만 거주한 응답자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주택유형은 연립주택과 단독주택, 오피스텔 및 원·투룸 등의 기타 유형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혼재되어 있었으며, 가구원수는 5명 이상을 제외하고 1명부터 4명까지 고르게 분포하였다. 미성년자 가구원은19%로 대상지 세 곳 중 가장 적었으며 월평균 소득 또한 300만원 미만과 300-400만원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의 응답자가 많았다.

## 1) 대상지 각 지역의 연령별 인구비중은 다음 표를 참조

구분	침산2·3동	산격3동	관음동	계
20대미만	20.7%	8.4%	13.1%	16.9%
20대	10.9%	30.4%	13.3%	14.4%
30대	11.6%	12.2%	9.6%	11.2%
40대	18.1%	10.5%	13.5%	15.8%
50대	16.6%	12.7%	21.1%	17.1%
60대 이상	22.1%	25.9%	29.4%	24.5%
계	100.0%	100.0%	100.0%	100.0%

출처: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인구 자료(2022년 7월 기준) 참고

[표 부록-3] 응답자 일반현황

구분	항목	침산2·3동	산격3동	관음동	합계	(비율)
성별	남성	48	55	52	155	51.7%
	여성	52	45	48	145	48.3%
	계	100	100	100	300	100.0%
연령	20대	16	38	18	72	24.0%
	30대	19	15	12	46	15.3%
	40대	25	14	18	57	19.0%
	50대	23	16	29	68	22.7%
	60대 이상	17	17	23	57	19.0%
	계	100	100	100	300	100.0%
거주기간	10년 미만	30	47	16	93	31.0%
	10년-20년 미만	32	28	36	96	32.0%
	20년 이상	38	25	48	111	37.0%
	계	100	100	100	300	100.0%
주택유형	아파트	85	13	85	183	61.0%
	연립주택(빌라)	3	28	1	32	10.7%
	다세대/다가구주택	1	2	5	8	2.7%
	단독주택	11	36	8	55	18.3%
	기타*	0	21	1	22	7.3%
	계	100	100	100	300	100.0%
가구원수	1명	0	22	2	24	8.0%
	2명	27	25	23	75	25.0%
	3명	26	29	22	77	25.7%
	4명	44	21	51	116	38.7%
	5명 이상	3	3	2	8	2.7%
	계	100	100	100	300	100.0%
미성년자	있다	37	19	25	81	27.0%
가구원 여부	없다	63	81	75	219	73.0%
	계	100	100	100	300	100.0%
월 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13	35	20	68	22.7%
	300-400만원 미만	24	31	21	76	25.3%
	400-500만원 미만	31	14	32	77	25.7%
	500만원 이상	32	20	27	79	26.3%

\*기타 : 오피스텔(주상복합), 원/투룸, 쉐어하우스,기숙사 등

관음동은 침산2·3동과 전반적으로 유사한 특성을 보였으나 응답자는 주로 50대(29%) 와 60대 이상(23%)이 많았다. 대부분 아파트(85%)에 거주하고 있으나 거주기간은 20년 이상(48%) 거주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 대상지 세 곳 중 해당 지역에 오래 거주한 인구가 많은 특성을 보여주었다. 가구원수는 침산2·3과 동일하게 주로 4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미성년자의 가구원의 비율은 25%로 다소 낮았으며, 월평균 소득은 침산2·3과 유사하게 400-500만원 미만(32%), 500만원 이상(27%)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3) 동네생활 특성

# □ 직장·학교 등 정기적인 활동을 위한 이동특성

응답자의 79.3%는 직장 또는 학교에 가는 정기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들의 직장 및학교 위치는 주로 '대구시 북구 내(45%)'로 이동거리는 평균 23.9분이 소요되며 주로 자가용, 버스 등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침산2·3동 주민들의 직장·학교 위치는 대구시 북구 외(38%)가 많았고 주로 차량 (77.3%)을 이용해서 24.5분의 이동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관음동 주민들의 경우 대구시 북구 내(48%)가 많았고 차량 이용(74%), 약 27.1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격3동 주민들의 경우 대구시 북구 내(54%)가 많았고 도보(45.6%)와 차량(46.7%) 이용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이동시간이 20.8분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표 부록-4] 직장·학교 위치 및 이동특성

문항	•	침산2·3동	산격3동	관음동	합계	(비율)
직장 또는	대구시 북구 내	33	54	48	135	45.0%
학교 위치	대구시 내(북구 외)	38	25	22	85	28.3%
(응답수, 건)	대구시 외 타 지역	4	11	3	18	6.0%
	해당 없음	25	10	27	62	20.7%
	계	100	100	100	300	100.0%
이동수단	걸어서	17.3	45.6	21.9	29.4	_
(응답비율, %)	자가용, 버스 등 차량으로	77.3	46.7	74.0	64.7	_
	지하철로	2.7	0.0	2.7	1.7	_
	자전거·전동킥보드 등 PM	2.7	7.8	1.4	4.2	_
	계	100.0	100.0	100.0	100.0	-
이동시간(분)	편도 소요시간(평균)	24.5	20.8	27.1	23.9	_

# □ 동네 범위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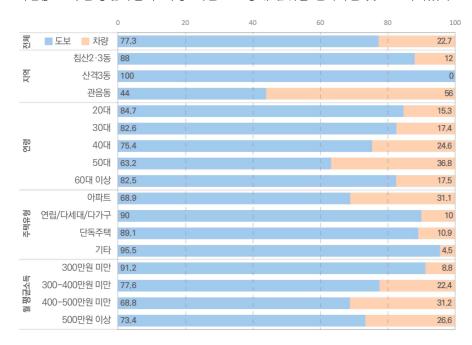
집 주변에서 일상생활활동을 하는 범위를 동네라고 할 때, 주민들은 대체로 '도보 (77.3%)' 이동범위를 동네로 인식하고 있었다. '도보' 기준으로 평균 22.6분, '차량' 기준으로 평균 10.5분 거리를 동네 범위로 보고 있었다.

[표 부록-5] 동네 범위 인식 특성

구분	÷	침산2·3동	산격3동	관 <del>음</del> 동	전체(%)		소요시간(분)
이동수단	도보	88	100	44	232	(77)	22.6
	차량	12	0	56	68	(23)	10.5
	계	100.0	100.0	100.0	300	(100.0)	_
소요시간	평균(분)	22.5	20.9	16.2		19.8	_

출처 : 연구진 작성

동네 범위를 정의하는 기준에 대하여 20대(84.7%), 거주기간 10년 미만(87.1%), 월 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91.2%)의 응답자들이 상대적으로 '도보'로 응답하는 비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0대(36.8%), 거주기간이 길수록, 월 평균소득 400~500만원 미만(31.2%)인 응답자들이 '차량' 기준으로 동네 범위를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부록-1] 동네 범위를 인식하는 이동수단 기준 및 응답자 특성

# □ 동네 주요 활동

동네에서 주로 하는 활동은 1순위 기준 장보기(64.0%)가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외식(17.3%), 근린서비스 이용(6.7%)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남성은 외식(72.3%), 여가 문화 체육활동(34.8%)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여성은 장보기(92.4%), 근 린서비스 이용(38.6%), 친교·사교활동(14.5%) 비중이 남성 대비 높게 나타났다.



[그림 부록-2] 동네에서 주로 하는 활동

출처: 연구진 작성

장보기는 모든 동네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활동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활동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 침산2·3동은 외식(72건), 근린서비스와 공공·의료서비스 이용(38건), 여가·문화·체육활동(21건) 순으로 나타나는 반면, 산격3동은 외식(79건)과 공공의료서비스(52건), 관음동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여가·문화·체육활동(62건)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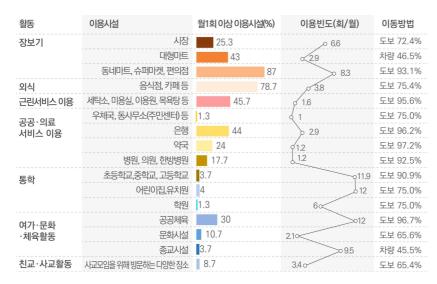


[그림 부록-3] 동네에서 주로 하는 활동(지역별, 1+2+3순위)

# □ 일상생활활동 목적별 시설 이용특성

주민들의 일상생활활동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각 활동을 위해 응답자가 월 1회 이상 이용하는 시설을 기준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동네에서 장보기 활동을 위해 월 1회 이상 이용하는 시설은 '동네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87.0%)'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외식은 '음식점, 카페 등(78.7%)', 근린서비스 이용은 '세탁소, 미용실, 이용원, 목욕탕 등(45.7%)'의 시설 이용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대체로 동네에서 많이 이용하는 시설은 장보기, 외식, 근린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시설에서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었다.



[그림 부록-4] 일상생활활동 목적별 이용시설 특성

출처 : 연구진 작성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시장', '병원, 의원, 한방병원', '공공체육' 시설의 이용이 많은 반면, 연령이 낮을수록 '음식점, 카페 등'의 이용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별 이용빈도는 '어린이집, 유치원'과 '공공체육(공원, 체육시설, 놀이터 등)'이 월평균 12회로 가장 높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11.9회), '종교시설'(9.5회) 순으로 나타났다.

통학(교육), 여가·문화·체육활동 관련 시설은 전체적인 이용률은 낮은 수준이지만, 이용자들의 이용빈도는 타 시설 대비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시설 이용을 위한 이동수단으로는 대부분 '걸어서' 이동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대형마트'와 '종교시설'은 '차량및 대중교통으로' 이동한다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 지역별·활동별 이용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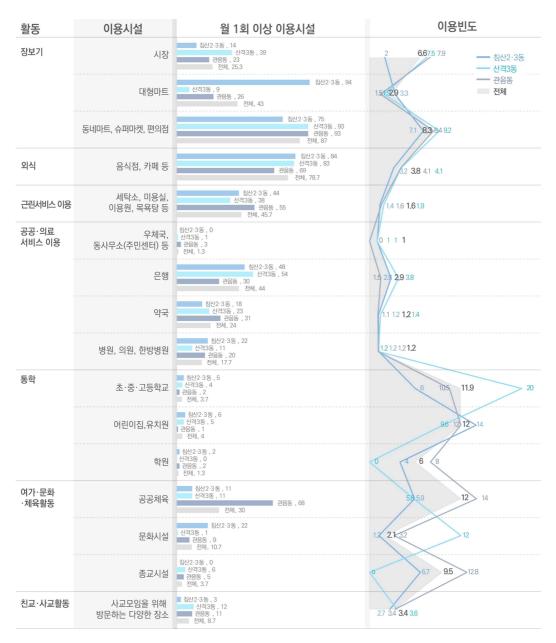
장보기를 위해 대부분 집 주변에서 가까운 '동네마트, 슈퍼마켓, 편의점'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상대적으로 침산2·3동은 '대형마트(94%)', 산격3동은 '시장(39.0%)', 관음동은 '동네마트, 슈퍼마켓, 편의점(93%)'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외식은 침산2·3동과 산격3동과 달리 관음동에서 이용비율과 빈도가 다소 낮게 나타난 반면, 세탁소, 미용실, 이용원, 목욕탕 등 근린서비스 이용은 관음동이 두 지역보다 이용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공공·의료 서비스 이용은 '은행'이 가장 높았고, 비교적 고령자가 많은 관음동의 경우 '약국'과 '병의원 및 한방병원'의 이용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통학은 이용시설은 적었으 나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교육시설로서 이용빈도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여가·문화·체육활동에서는 관음동이 '공원, 체육시설, 놀이터 등 공공체육시설(68%, 14회/월)'의 이용률과 이용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침산2·3동은 '도서관, 영화관 등 문화시설(22%)'의 이용률이 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친교·사교활동은 관련 시설의 이용빈도가 월 2.7회에서 3.6회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이용률은 산격3동(12%)과 관음동(11%)이 침산2·3동(3%)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동수단은 대체로 도보(시설별 66.7%~100% 수준)로 나타났으나 일부 시설의 경우에는 차량을 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산격3동(77.8%)과 관음동(96.2%) 주민은 대형마트를 가기 위해 차량을 주로 이용하였으며, 침산2·3동 주민은 우체국, 동사무소(주민센터) 등 공공·의료 서비스 이용(100%)과 친교·사교활동(66.7%)을 위해 차량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자전거/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은 시장을 이용하기 위해 침산2·3동(7.1%)과 관음동(8.7%) 주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고, 그 외근린서비스를 이용하는 산격3동(2.6%)과 은행을 이용하는 침산2·3동(2.1%)의 주민으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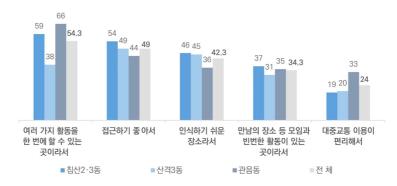


# [그림 부록-5] 일상생활활동 목적별 이용시설 특성(지역별)

# □ 동네 중심 장소

주민들에게 동네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지역이나 장소를 선택하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확인한 결과, '여러 가지 활동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곳이라서(54.3%)'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접근하기 좋아서(49.0%)', '인식하기 쉬운 장소라서(42.3%)'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다양한 시설이 모여 있어서 여러 가지 활동이 가능하며 접근성과 대표성이 있는 장소를 동네의 중심지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침산2·3동은 여러 가지 활동을 한 번에 할 수 있고(59%) 접근하기 좋아서 (54%)가 주요 응답으로 나타났고, 산격3동은 접근성(49%)과 장소 인식 용이성(45%), 관음동은 여러 가지 활동을 한 번에 이용하는 곳(66%)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그림 부록-6] 동네의 중심 장소에 대한 인식 이유

출처 : 연구진 작성

### □ 커뮤니티 활동 특성

• 참여하고 있는 동네 활동 및 모임

동네에서 참여하고 있는 활동이나 모임에 대해 대체로 '없다(64%)'로 응답하였고, '지인, 이웃 등과의 일상적인 만남'이 35.3%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관음동의 주민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49%로 가장 낮고 일상적인 만남이 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산격3동의 주민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75%로 가장 높고, 일상적인 만남 또한 2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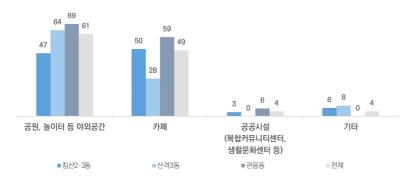
인구특성으로 볼 때, 전반적으로 남성(69%), 낮은 연령(20대, 87.5%), 짧은 거주기간(10년 미만, 72%), 연립/다세대/다가구 주택 거주자(82.5%), 1인 가구(87.5%)에서 동네 활동이나 모임이 없다는 응답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림 부록-7] 동네 활동 및 모임 참여 현황

출처 : 연구진 작성

동네 활동이나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응답자(108명)가 이용하는 공간으로는 '공원, 놀이터 등 야외공간'(61.1%)과 '카페'(49.1%)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관음동이 야외공간뿐만 아니라 카페, 공공시설 등에서 모두 타 지역보다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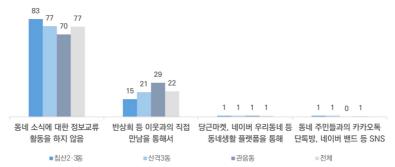


[그림 부록-8] 동네 활동 및 모임을 위한 이용공간(중복응답)

출처 : 연구진 작성

# • 동네 소식, 정보교류, 이웃 소통 방식

동네 소식이나 정보 교류 등 이웃과의 소통 방식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7%가 어떤 활동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통을 하는 경우에는 주로 '반상회 등 이웃과의 직접 만남을 통해서(22%, 1+2순위 기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관음동이가장 활발하게 이웃과 소통하고 있었으나 29%에 불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 부록-9] 동네 소식, 정보교류, 이웃 소통 방식(1+2순위, 중복응답)

출처 : 연구진 작성

# 4) 동네생활 주민수요

#### □ 동네 생활 변화

• 코로나19 이후 동네 생활 변화 및 이유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면서 동네 생활 변화에 대해 응답자 대부분은 '집 주변 동네에서의 활동과 머무는 시간에 크게 변화 없다(74.3%)'고 응답하였다. 한편, 동네에서의 활동과 머무는 시간이 '늘었다'는 19%, '줄었다'는 6.7%로 코로나19이후 동네 활동이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침산2·3동과 관음동은 각각 28%, 13%가 활동과 머무는 시간이 '늘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반면 산격3동은 '늘었다(16%)'와 '줄었다(15%)'는 응답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 • 코로나19 이후 동네 증가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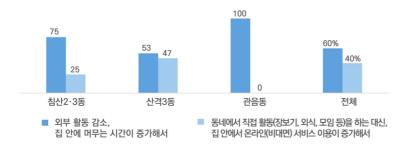
집 주변 동네에서의 활동과 머무는 시간이 증가한 응답자(57건, 1+2순위 기준)는 '장보기(57.9%)'와 '외식(56.1%)' 증가 비율이 높았고, 평소에도 동네에서 많이 하던 활동들의 활동시간이 더욱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지역별로 침산2·3동은 장보기(64.3%), 산격3동은 외식(75%), 관음동은 여가·문화·체육활동(30.8%)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부록-10] 코로나19이후 동네에서 증가한 활동(1+2순위)

#### • 코로나19 이후 동네 활동 감소 사유

집 주변 동네에서의 활동과 머무는 시간이 감소했다는 응답자(20건)는 활동 감소 이유로 '외부 활동 감소,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해서(60%)'를 꼽았으며, '동네에서 직접 활동을 하는 대신, 집 안에서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증가해서(40%)'라는 이유도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모든 동네에서 외부활동이 감소했다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중에서도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곳은 산격3동(47%)이었다.



[그림 부록-11] 코로나19이후 동네 활동 감소 사유

출처: 연구진 작성

### • 온라인·비대면 서비스의 이용비중이 증가한 동네활동

동네 활동 중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이용 비중이 증가한 활동(1+2순위 기준)으로는 '음식 주문/배달 서비스(47.7%)'와 '장보기(42.7%)'가 높게 나타났다. 비대면 서비스 이용비중이 증가한 동네 활동이 '특별히 없다(34%)'는 응답은 관음동(39%)과 산격3동(37%)에서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로 특히 60대 이상의 경우 '특별히 없다'는 응답이 89.5%에 달하고 있었다.



[그림 부록-12]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이용 비중이 증가한 동네 활동(1+2순위)

# □ 동네 생활에 대한 주민수요

#### • 동네 생활에서 만족·불만족스러운 활동

동네 생활 중 만족스러운 활동은 '장보기(65.3%)', '외식(44.3%)', '여가·문화·체육활동 (26.7%)'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침산2·3동은 '장보기(79.0%)', 산격3동은 '외식 (53%)', 관음동은 '여가·문화·체육활동(59%)'에 대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지역별 차이를 보였다.



[그림 부록-13] 동네 생활에서 만족스러운 활동(1+2순위)

출처 : 연구진 작성

반면 동네 생활에서 불만족스러운 활동으로는 '여가·문화·체육활동(36.0%)', '공공/의료서비스 이용(32.0%)', '친교·사교활동(29.7%)'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 침산2·3동은 '친교·사교활동(47.0%)', 산격3동은 '여가·문화·체육활동(69.0%)', 관음동은 '공공·의료서비스 이용(72.0%)'에 대한 응답이 타 지역 대비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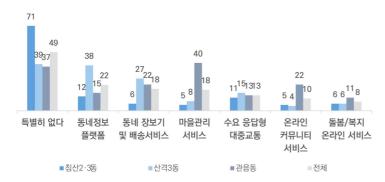
[그림 부록-14] 동네 생활에서 불만족스러운 활동(1+2순위)

출처 : 연구진 작성

#### • 동네에 필요한 온라인 공공서비스

동네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공공서비스에 대해 '동네정보 플랫폼(21.7%)', '동네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18.3%)', '마을관리 서비스(17.7%)'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필요한 공공서비스가 '특별히 없다(49.0%)'는 응답이 절반에 가까운 응답률을 보였고, 비교적 최근에 조성된 주거지역인 침산2·3동에서는 약 71%의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한편 산격3동은 동네 소식 및 공공행정 정보를 알 수 있는 '동네정보 플랫폼(38.0%)', 관음동은 입주민 편의 및 주택관리 서비스 등의 '마을관리 서비스(40.0%)'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동네정보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남성(25.8%), 30대(37.0%), 거주기간 10년 미만(32.3%)의 동네 커뮤니티 활동이나 이웃과의 교류가 적은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부록-15] 동네에 가장 필요한 공공서비스(1+2순위)

출처 : 연구진 작성

# 5) 종합

동네 범위의 인식과 관련하여 대체적으로 도보를 기준으로 22.6분 정도 소요되는 활동 반경을 동네범위를 인식하고 있으며, 동네에서 주로 하는 활동은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장보기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의 인구특성과 입지특성에 따라 동네 범위를 인식하는 기준이 도보 또는 차량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고, 장보기에 있어서도 침산2·3동, 산격3동, 관음동의 동네별로 주요 이용시설과 이동수단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주민들의 생활방식에 따라서 일상생활활동 목적별 이용시설과 이용빈도에 차이가 있었고, 동네에 조성된 시설 여건과 이동수단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특히 커뮤니티 활동과 관련하여 동네별 큰 차이가 나타났는데, 관음동은 20년 이상 장기 거주 자가 많고 이웃과 일상적인 만남 등 사교 및 친교활동이 활발한 반면, 산격3동의 경우 20 대의 단기 거주자가 많았고 가장 커뮤니티 활동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역별 다양한 동네생활과 주민수요의 차이를 토대로 동네생활권을 설정하고, 미시적인 동네 환경과 주민들의 일상생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대응전략 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표 부록-6] 동네생활 특성 및 주민수요 조사결과 종합

항목		침산2·3동	산격3동	관 <del>음동</del>	전체
응답자	연령층	· 40·50대	· 20대	· 50·60대	· 연령별 고르게 분포
특성*	거주기간	· 고르게 분포	· 10년 미만	· 20년 이상	· 20년 이상(37%)이 다소 높음
	주택유형	· 아파트	· 연립/단독	· 아파트	· 아파트(61%)
	가구원수	· 4명 구성	· 고르게 분포	· 4명 구성	· 4명(38.7%)구성이 다소 높음
	미성년 가구원	· 높음(37%)	· 낮음(19%)	· 중간(25%)	· 평균 27%
	월평균 소득	- 높음	낮음 높음		· 구간별 고르게 분포
동네 생활	동네범위 인식	· 도보 기준(88%) · 22.5분	· 도보 기준(100%) · 20.9분	· 차량(56%)/도보(44%) · 16.2분	· 도보 기준 평균 22.6분 · 차량 기준 평균 10.5분
특성	동네 주요 활동	· 장보기(91%)	· 장보기(89%)	· 장보기(62%)	· 장보기(88.7%)
		· 장보기	· 공공의료서비스 이용	· 여가문화체육활동	※ 타 지역 대비 활발한 활동
	직장·학교로의 이동특성	· 대구 북구 외(38%) · 차량(77.3%) · 24.5분	· 대구시 북구 내(54%) · 도보(45.6%)/ 차량(46.7%) · 20.8분	· 대구시 북구 내(48%) · 차량(74%) · 27.1분	· 대구시 북구 내 (45%) · 이동수단 차량 79.3%, · 이동 소요시간 평균 23.9분
	일상생활활동	· 월평균 4회 이용	· 월평균 5.2회 이용	· 월평균 5.7회 이용	· 월평균 5회 이용
	목적별 시설 이용특성 (16개 시설)	· 장보기(대형마트) · 외식(음식점, 카페)	· 외식(음식점, 카페) · 근린서비스 이용(은행)	· 여가문화체육(공공체육) · 사교(장소)	※ 타 지역 대비 활발한 활동
		· 동네 활동에 차량과 도보를 혼용	· 대형마트 외 모든 활동에 도보100% 이용	· 대형마트/학원 제외 도보(72%~97%)이용	· 대형마트 및 종교시설을 제외하고 전부 도보 이용(65%97%)
	동네의 중심 장소	· 여러가지 활동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곳(59%)	· 접근하기 좋은 곳 (49%)	· 여러 가지 활동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곳(66%)	· 여러 가지 활동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곳(54.3%)
	동네 활동 및 모임	· 없다(68%) · 지인, 이웃 등과의 일상적인 만남(32%)	· 없다(75%) · 지인, 이웃 등과의 일상적인 만남(24%)	· 없다(49%) · 지인, 이웃 등과의 일상적인 만남(50%)	· 없다(64%) · 지인, 이웃 등과의 일상적인 만남(35%)
	참여하는 동네활동·모임 공간	· 공원, 놀이터 등 야외공간(47%) · 카페(50%)	· 공원, 놀이터 등 야외공간(64%) · 카페(28%)	· 공원, 놀이터 등 야외공간(69%) · 카페(58.8%)	· 공원, 놀이터 등 야외공간(61.1%) · 카페(49.1%)
	동네소식 및 정보교류 등 이웃 소통 방식	· 하지 않음(83%) · 반상회 등 이웃과 직접 만남을 통해서(15%)	· 하지 않음(77%) · 반상회 등 이웃과 직접 만남을 통해서(21%)	· 하지 않음(70%) · 반상회 등 이웃과 직접 만남을 통해서(29%)	· 하지 않음(77%) · 반상회 등 이웃과 직접 만남을 통해서(22%)
주민 수요			· 크게 변화 없음(69%) · 늘었다(16%) : 외식 활동 증가	· 크게 변화 없음(86%) · 늘었다(13%): 여가문화체육 활동 증가	· 전반적으로 집 주변 동네 활동교 머무는 시간에 크게 변화 없다(74.3%) 체감
	만족 활동	· 장보기(79%), 외식(44%), 공공의료 서비스 이용(30%)	· 외식(53%), 근린서비스 이용(34)	· 여가·문화·체육활동(59 %), 장보기(57%), 외식(36%)	· 장보기(65.3%), 외식(44.3%) 여가·문화·체육활동(26.7%)순
	불만족 활동	· 친교·사교활동(47%),	· 여가·문화·체육활동 (69%)	· 공공·의료서비스 이용(72%)	· 여가·문화·체육활동(36.0%), 공공·의료서비스 이용(32.0%), 친교·사교활동(29.7%) 순

항목	침산2·3동	산격3동	관음동	전체
필요한	· 특별히 없다(71%),	· 특별히 없다(39%),	· 특별히 없다(37%),	· 특별히 없다(49%),
공공서비스	· 동네정보플랫폼(12%),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11%)	· 동네정보플랫폼(38%) · 동네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27%)·	· 마을관리 서비스(40%), 동네 장보기 및 배송 서비스(22%) · 온라인 커뮤니티 서비스(22%)	· 동네정보 플랫폼(21.7%), 동네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18.3%), 마을관리 서비스(17.7%)

<sup>\*</sup>응답자 특성은 각 동네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인구특성으로 정리출처 : 연구진 작성